

한반도의 흙, 도자기로 태어나다

필자소개(가나다 순)

방병선 고려대학교 교수

이성주 강릉대학교 교수

이종민 충북대학교 교수

전승창 삼성미술관 Leeum · 홍익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

최종택 고려대학교 교수

한국문화사 32

한반도의 흙, 도자기로 태어나다

2010년 10월 25일 초판 인쇄 2010년 10월 30일 초판 발행

편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이태진

필자 방병선 · 이성주 · 이종민 · 전승창 · 최종택

기획책임 이영춘 기획담당 장득진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6

편집 · 제작 · 판매 경인문화사(대표 한정희)

등록번호 제10-18호(1973년 11월 8일)

주 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324-3 경인빌딩

대표전화 02-718-4831~2 팩스 02-703-9711

홈페이지 <http://www.kyunginp.co.kr>

이 메 일 kyunginp@chol.com

ISBN 978-89-499-0754-3 03600

값 32,000원

© 국사편찬위원회, 2010

※ 이 책의 용어 및 내용은 원고작성자의 의견을 존중하였으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파본 및 훼손된 책은 교환해 드립니다.

한반도의 흙, 도자기로 태어나다



한국 문화사 간행사

국사학계에서는 일찍부터 우리의 문화사 편찬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2002년에 국사편찬위원회가 『신편 한국사』(53권)를 완간하면서 『한국문화사』의 편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문화로 보는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수요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신편 한국사』에도 문화에 대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은 우리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총서였기 때문에 문화 분야에 할당된 지면이 적었고, 심도 있는 서술도 미흡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우리 위원회는 학계의 요청에 부응하고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국문화사』를 기획하여 주제별로 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30권을 편찬·간행하였고, 이제 다시 3개년 사업으로 10책을 더 간행하고자 합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문화사』를 편찬하면서 아래와 같은 방침을 세웠습니다.

첫째, 현대의 분류사적 시각을 적용하여 역사 전개의 시간을 날줄로 하고 문화현상을 씨줄로 하여 하나의 문화사를 편찬한다. 둘째, 새로운 연구 성과와 이론들을 충분히 수용하여 서술한다. 셋째, 우리 문화의 전체 현상에 대한 구조적 인식이 가능하도록 체계화한

다. 넷째, 비교사적 방법을 원용하여 역사 일반의 흐름이나 문화 현상들 상호 간의 관계와 작용에 유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편찬 과정에서 그 동안 축적된 연구를 활용하고 학제간 공동연구와 토론을 통하여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서술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새롭고 종합적인 한국문화사의 체계를 확립하여 우리 역사의 영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찬란한 민족 문화의 창조와 그 역량에 대한 이해는 국민들의 자긍심과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문화사의 종합 정리는 21세기 지식 기반 산업을 뒷받침할 문화콘텐츠 개발과 문화 정보 인프라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문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오늘날 『한국문화사』는 국민들의 인성을 순화하고 창의력을 계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이 찬란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0년 10월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이태진



1 토기의 등장과 확산

- 01 토기란 무엇인가? 22
- 02 선사시대의 토기제작기술 28
- 03 한반도 최초의 토기 39
- 04 선사시대 토기 제작기술의 정착과 확산 45
- 05 선사시대 토기의 기능 61
- 06 선사시대 토기와 주민 71

2 토기 제작전통의 형성과 발전

- 01 기술혁신과 공방의 발전, 원삼국시대 78
- 02 삼국의 토기생산과 발전 105
- 03 자기발생의 전야, 통일신라시대 166



3 고려, 삶과 영혼의 도자

- 01 차 문화의 유행과 청자의 제작 184
- 02 고려의 색, 청자의 빛 198
- 03 고려의 생활과 도자 219
- 04 청자의 생산과 유통 232
- 05 국운과 함께한 청자 241



4 조선 전기의 도전과 위엄, 분청사기와 백자

- 01 전통의 계승과 소박한 파격의 미, 분청사기 250
- 02 왕실백자의 제작지, 경기도 광주 268
- 03 위엄과 권위의 상징, 관요백자 283
- 04 중국백자의 영향과 관요백자의 새로운 선택 300



5 조선 진경의 정수, 후기 백자

- 01 조선, 그리고 후기 백자 312
- 02 잿빛 백자에 철화용이 날고 318
- 03 우윳빛 달항아리에 푸른 새가 날고 335
- 04 청화 반상기를 수놓은 길상문 354



부 록

- 주석 및 참고 문헌 374
- 찾아보기 398

한반도의 흙, 도자기로 태어나다를 내면서

인간이 흙을 원료로 만든 것 중에 가장 오래 된 것이 아마 그릇일 것이다. 흙에 물을 붓고 잘 빚어 열을 가하면 단단해진다는 원리를 발견한 순간 그릇은 탄생하였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릇을 만들고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각 나라마다 입장이 다르고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다. 최근에는 그릇의 사용 기간이 국력과 비례하기라도 하듯이 경쟁적으로 그 발생 시한을 앞당기려는 경향도 보인다. 이는 그릇의 제작이 인간의 지적 능력과 상상력, 자연 환경 등의 응용과 이를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기술력과 경제력 등이 결합된 특정 지역 집단의 힘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처음 그릇이 제작된 시기는 대략 만 년 전인 신석기 시대로 추정된다. 이 당시 그릇을 무엇이라 불렀는지 알 수 없지만 현재는 이 그릇들을 토기^{土器}라고 부른다. 토기란 한반도에서 우리 선조들이 최초로 흙으로 만들고 불에 구워 사용한 그릇인 썸이다. 이후 토기는 제작기술의 발달과 다양한 소유욕에 힘입어 꾸준히 발달하였다. 일상적인 식기와 저장용기로서 뿐 아니라 때로는 다양한 장식으로 소유자의 지위와 권세를 상징하기도 하고, 종교적인 제의^{祭儀}에 맞게 형태와 문양이 변형되기도 하였다.

토기 제작은 흙을 기본적인 원료로 사용하지만 점차 어느 지역의 흙을 어떻게 반죽하고 건조시켜서, 구우면 단단해지는가에 대한 선

협적인 지식이 제작을 담당한 사람들에게 축적되었다. 또 장식을 위해 그림을 그리거나 형태를 변형시키고 주변의 자연이나 다른 재질의 물건을 모방하기도 하였다. 보다 높은 온도로 굽기 위해 필요한 여러 장치와 시설을 고안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시도는 국가나 집단의 기술력과 비례하였다. 이를 위해 특정 원료를 독점하거나 기술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경주되었으며, 이를 지배하는 자가 그릇을 기념비(紀念碑)적인 용도로 사용하는데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다. 결국 토기의 제작은 집단이나 국가의 권력과 유착 관계를 형성하였고, 토기 생산지역의 확산은 곧 국가 권력의 영향과 확산을 의미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를 거쳐 삼국시대에 접어들면 신라와 가야지역에서는 신라 및 가야 토기가, 고구려에서는 고구려 토기가, 백제에서는 백제 토기가, 각 지역민들의 미감과 환경에 맞게 제작되었다. 생산 시스템도 보다 체계적이고 대규모로 발전하여 여러 기의 토기 가마(窯)를 축조하고, 소성시 온도와 분위기를 조절하여 오늘날 산화와 환원으로 부르는 불꽃으로 그릇을 구웠다. 보다 강도 높은 그릇의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는 곧 신분에 따른 그릇의 차별화에도 박차를 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접어들면 숙련된 기술을 익힌 도공집단에 의해 대량의 표준화된 토기가 제작된 점이 주목된다. 물론 여기에는 한반도 사람들만의 힘만이 아닌 외부와의 물적, 인적 교류에 힘입은 바 크다. 특히 중국의 선진 토기 제작 기술은 한반도에 유입되어 장식과 원료 정제 기술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당시 중국은 삼국에선 볼 수 없었던 토기와 다른 고화도의 자기, 즉 청자와 백자를 이미 제작하고 있었다. 이러한 자기는 삼국이 앞 다투어 수입하면서 당대 문화 교류의 생생한 증거로 남아 있다.

한편 삼국시대에는 토기의 제작과 소유가 국가 권력과 관련을 맺

으면서 토기의 사용은 더욱 분화되었다. 음식 기명으로서 뿐 아니라 신분에 따른 부장용 그릇으로 사용되어 각 지역별로 차이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신라와 가야지역에서는 적게는 서, 너 점에서 많게는 수 백 여점의 토기를 매장시 소비하였다. 백제와 고구려의 경우도 고분에 부장품으로 토기를 여러 점 부장하였지만 신라와 가야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 대신 궁성과 산성에서 많은 수의 토기가 발견되었고, 고구려의 경우 대부분 토기는 산성과 보루(堡壘)와 같은 방어시설의 조사에서 수습되었다.

삼국이 통일 된 후 토기는 삼국의 분화된 지역 양식에서 신라 양식을 중심으로 백제와 고구려 토기 양식을 수용한 통합 양식을 선보였다. 경주를 중심으로 나타난 통합 양식은 다시 지방으로 전파되어 각 지역의 황혈식 석실분이나 사지(寺址) 및 안압지를 비롯한 왕경(王京)유적에서 출토되었다. 특히 제작기술의 발달로 계급에 따른 토기의 질적 차이는 더욱 심화되어 육안으로도 쉽게 구별되었다. 다양한 장식물이 별도로 성형된 후 부착되었는데 부착된 형태는 다산이나 사후의 안녕을 비는 상징물이 대부분이어서 당시의 사상적 경향도 엿보게 한다. 생산의 효율에서도 물레 사용의 보편화로 표준화된 크기의 접시나 완, 그리고 병의 대량생산이 이루어져 외형으로는 중국 자기에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 되었다. 여기에 나무재를 이용한 고화도 재유와 납이 주성분을 이루는 연유도기의 생산, 고화도 환원염 소성이 가능한 가마의 운영은 자기생산의 서막을 알리기에 충분하였다.

통일신라 말과 고려 초인 나말여초의 한반도는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을 겪었지만 새로운 그릇의 탄생을 위한 기회의 시기이기도 하였다. 동 시기 중국이 당말(唐末)의 혼란기로 접어들어 청자 제작이라는 최첨단 하이테크 기술의 유출이 가능해지면서, 절강성(浙江省) 월주(越州) 지방 일대의 장인들이 한반도에 찾아와 기술전수를 하게 되

있고, 이제까지의 토기와 차원이 다른 자기가 우리 땅에서 출현하게 되었다. 자기는 토기보다 굵는 온도와 강도가 높은 닻에 애초부터 태토와 유약의 원료와 조성, 가마 구조와 크기, 굽는 방식부터 달랐다. 바야흐로 천하제일 고려청자가 이 땅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

고려청자는 초창기 수도 개경 일대에서 제작되었는데 월주 이외에도 점차 중국 남·북방의 다양한 제작기술을 도입하여 자체 역량을 강화하였다. 이후 전라도 강진 일대를 중심으로 불과 백 여 년 만에 고려청자는 중국의 청자나 백자를 모방하던 단계에서 도약하여 중국도 인정하는 천하제일 비색청자의 모습으로 일변하였다. 이는 청자 제작에 알맞은 질 좋은 원료와 통일신라시대 이후 축적된 대단위 장인 집단의 숙련된 기술, 음다(飲茶) 풍습의 유행과 고려 귀족의 청자 애호 취향이 어울려 빚어낸 결과였다.

고려의 청자장인들은 음각이나 양각, 투각과 같은 기법의 청자 이외에도 인물과 자연을 모델로 이들을 사실적으로 축소 제작한 상형청자와 산화철 안료를 사용한 철화청자, 백토와 흑토를 곱게 칠하거나 점으로 찍은 퇴화문청자, 중국의 당삼채(唐三彩) 그릇을 연상케 하는 연리문(練理文)청자, 고려 특유의 상감청자, 산화동을 사용한 동화(銅畫)청자, 금을 유약 위에 칠하고 다시 구운 화금(畫金)청자 등을 잇따라 선보였다. 제작 장소도 강진과 부안을 비롯해서 고려의 독특한 소(所)수공업체제 아래 전국 각지에서 질 좋은 청자가 생산되었다. 12세기 후반 이후 무신란과 몽고의 침공 등으로 고려 사회 전체가 정치, 사회적으로 몇 차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고려청자는 간송미술관 소장 청자상감운학문매병에서 보듯이 당당하고 기품 있는 고유의 멋을 잃지 않았다. 심지어 몽고와의 전쟁 이후에는 청자의 종주국인 중국으로 고려청자가 유입되어 원대(元代) 여러 무덤에서 출토되기도 하였다.

청자는 전세품 이외에도 개경과 강화도를 위시한 왕공 귀족들의

무덤에서 출토되었고, 최근에는 강진에서 출발하여 서해안을 따라 개경으로 향했을 상선商船들이 전라도와 충청도 해저에서 발견되었다. 이 침몰선 안에서 수 천 점의 청자가 천 년 신비를 간직한 채 인양되어 그 실체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고려 말 왜구의 잦은 출몰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고려의 국력이 쇠해지면서 청자의 질도 동반 쇠락하기 시작하였다. 정교한 조각보다는 신속한 대량 생산을 위해 도장을 이용한 간략하고 거친 인화문이 성행하였고 그릇의 비례도 흐트러져 비색청자 시절의 자태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왕조 교체를 미리 암시라도 하듯 고려 말의 청자는 고려 왕실 그 자체였다.

조선은 고려와는 다른 정치, 사상 체제 탓에 그릇에서도 고려와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조선 초기에는 고려청자의 제작 전통을 계승한 분청사기가 전국적으로 생산되면서 또 다른 도자 전통을 만들어나갔다. 왕실은 물론 일반 사대부들도 인화印花, 상감, 철화, 박지剝地, 덩빙, 귀얄, 조화 기법 등 새로운 사회분위기를 담아 낸 다양하고 독특한 장식기법과 해학과 파격이라 불릴 만한 개성 넘치는 문양표현을 지닌 분청사기에 연호하였다. 분청사기는 강진과 부안 등지의 대단위 고려시대 청자 생산지와 달리 중·소규모의 전국 각지의 가마에서 생산되었다. 각 가마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와 같은 지역적 특성을 드러내며 조선 전기 150여 년간 한국 도자의 주요한 생산 기지로 역할을 하였다.

한편 15세기는 이미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 도자의 흐름이 청자에서 백자로 접어든 상태였다. 당시 조선을 왕래했던 명의 사신들은 눈부신 중국 경덕진景德鎮과 용천龍泉의 백자와 청화백자, 청자 등을 조선의 임금과 대신들에게 선물하였다. 특히 흰색 바탕에 푸른 문양의 단단하고 아름다운 청화백자는 고려 말의 퇴색한 청자와는 다른 느낌으로 감상자에게 와 닿았고 조선성리학을 국시國是로 여

졌던 조선의 새로운 어기(御器)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소수공업을 기초로 했던 고려와 달리 조선은 왕실용 백자를 별도로 제작하는 국영 가마를 설치하였다. 임금의 수라를 담당했던 사용원(司饗院)의 분원(分院)이 생산의 주체로 경기도 광주에 가마를 열고 전국 각지의 장인들을 모집하여 다양한 백자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특히 조선시대 처음 제작되기 시작한 청화백자의 경우는 안료인 코발트(회회청(回回靑))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야 했으므로 그 관리와 제작에 엄격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조선 최고의 화원들이 안료를 관리하였고, 문양 시문에 동원되어 매화와 대나무, 소나무 같은 사대부의 절개와 품격을 상징하는 문양들을 고아한 필치와 간결한 구도로 완성하여 높은 회화성을 과시하였다.

조선시대 자기는 고려시대 생산된 그릇의 종류와 장식에서 차별을 보였다. 순백자와 청화백자 뿐 아니라 산화철을 안료로 사용하는 철화백자가 조선전기부터 제작되었고 후기에는 산화동을 사용한 동화백자와 산화철 함량이 높은 흑유자가 선을 보였다. 상감청자와 거의 유사한 기법의 상감백자도 15세기 제작되었지만 오래가지 못하였고 왕세자용으로 출발한 청자 역시 조선 후기에는 제작이 지속되지 못하였다. 유교적 제의가 중시된 탓에 각종 제기가 활발히 제작되었고 사발, 대접, 완, 접시, 항아리와 병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같은 차이점은 그릇 수요자의 인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고려시대 수요층이 비색과 상감청자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색과 문양의 완벽함이나 고귀함, 장식성을 추구했다면 조선의 그릇은 성리학적 명분에서 검약과 순수의 상징으로 여겨져 가능한 장식을 배제하고 완벽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우선시되었다. 반드시 좌우 대칭이 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고, 철분이나 다른 이물질이 그릇 표면에 붙어 있어도 그다지 흠이 되지 않았다. 왕실용 그릇이 이와 같았으니 일반 백성들이 사용하는 그릇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백자는 몇 차례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의 전란에 의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값 비싼 안료를 사용하는 청화백자 대신 철화백자가 크게 유행하였고 산화동을 사용하는 동화백자도 이 때 등장하였다. 철화백자에는 매 화와 대나무 등을 중심으로 한 문인화풍의 문양이 있는가 하면 운 룡문(雲龍文)처럼 양식화된 표현도 공존하였다. 관요 뿐 아니라 지방 가마의 생산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는 신분제의 변동과 상업의 발달이 배경에 자리한 때문으로 여겨진다.

숙종 후반 이후 18세기 들어서는 전란 이후 혼돈을 거듭하던 분 원의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조선 사대부의 미감을 맘껏 발휘한 회화성 높은 청화백자들이 새로운 면모로 나타났다. 이전에 보이지 않던 산수문이 새롭게 등장하는가 하면 화보를 참고한 회화적 문양 들이 우윳빛 표면 위에 푸르게 펼쳐졌다. 문방구 생산이 증가하고 음식문화도 다양해지면서 반상기 풍조가 유행하였고, 이에 따라 생 산된 백자의 종류도 증가하고 유통도 활발해졌다.

이러한 백자도 19세기에 들어서면 정치, 경제적 소용돌이 속에 점차 중국 양식을 모방하거나 장식화 양상이 보다 심화되었다. 중 국과 일본의 그릇들이 이전에 비해 대량으로 수입되어 조선백자와 비교되면서 북학파의 반성과 개혁의 외침도 들리기 시작하였다. 그 러나 이미 분원은 그릇이 상품으로 인식된 현실에서 기존의 생산 체 제를 유지하기 점점 어려워졌다. 급기야 왕실재정의 파탄으로 분원 은 결국 민영화되었고 왕조의 상징적인 역할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 책은 위와 같은 한국의 도자기를 문화사적인 관점에서 선사시 대부터 조선 말기까지 서술한 책이다. 이미 한국 도자기에 관해서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대중적이든 전문적이든 많은 책이 출간된 바

있다. 전 시기를 편년체적으로 다루거나 조선전기나 후기와 같이 특정시기에 집중한 책 등도 있다. 토기와 청자, 가마 구조나 발굴지 출토품을 중심으로 엮은 책도 있었으며 집필자의 전 시기에 관한 논문을 책으로 편집한 경우도 있었다.

이와 달리 본서의 경우는 각 시기별, 주제별로 이를 박사학위 논문에서 다루었던 전문가들에 의해 집필되었다. 집필 형식은 우선 도자기를 토기와 자기로 크게 나누어 토기 부분은 선사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로 구분하여 고고학 전공 교수들이 집필을 담당하였다. 고려시대 이후 자기 부분은 고려시대와 조선전기, 조선 후기로 나누어 도자사 전공 교수들이 집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그간 볼 수 없었던 이 책의 장점으로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서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일 오브제에 대해 전공 시기에 따라 다양한 집필진의 글을 읽음으로써 우리의 도자기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재미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책은 문화사적인 관점을 주안으로 전문적인 제작기술이나 양식사적인 설명과 함께 실제 왜, 어떻게, 누가 그릇을 썼는지에 대해 설명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문화 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시각에서도 토기와 자기를 관찰하였다. 또한 문화 교류의 매개체로서 도자기가 시대 별로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도 주목하였다. 예술품은 물론 기술전파의 침병으로, 조공품으로, 무역품으로 뿐 아니라 국력의 과시나 지도자의 권위를 상징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자기가 사용되었음을 고찰하였다.

이 책의 구성은 시대 별로 짜여있는데 전반부인 1장과 2장은 선사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토기를 다루었고, 후반부 3장에서 5장까지는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의 자기가 주된 내용이다.

제1장은 먼저 한반도 최초의 토기를 몇 가지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고산리식 토기가 가장 먼저 등장한 것으로 보고 다음으로 원시

무문토기, 지자문-之字文토기와 요동반도 토기를 거쳐 용기문 토기 등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각 토기의 정의와 특징, 상호 관계에 대한 설명도 빼놓지 않았다.

토기의 탄생 이후에는 토기 제작의 확산 단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신석기시대 토기의 제작기술을 검토하고 빗살무늬토기의 등장과 변천, 그 기능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무문토기의 등장과 함께 토기제작의 확산을 고려하였다. 돌대각목문 토기의 등장과 함께 청동기시대 상한을 설정하고 미송리식 토기와 고조선의 역사 환경과 제작 배경을 알아보았다. 장식과 기법에 따라 팽이형토기, 공열토기, 적색마연토기, 송국리형토기, 점토대토기와 흑색마연토기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특징을 비교, 고찰하였다.

제2장은 토기생산의 전성시대로 원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의 토기를 서술하였다. 원삼국시대는 바야흐로 기술혁신과 공방(工房)의 발전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먼저 신기술 도입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토기 제작기술의 발전을 원료 점토, 성형법과 장식, 소성법과 기술혁신의 과정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당시 토기의 생산과 사용을 알아보았다. 토기의 유형은 와질토기, 타날문토기, 경질무문토기와 중도식토기, 도질토기와 적갈색연질토기로 분류하였고 지역에 따른 토기생산의 전통은 진·변한지역, 마한지역, 중부지역 등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삼국시대는 국가에 의해 조직된 토기 생산시스템을 갖춘 보다 발달된 상태로 보고, 먼저 고구려토기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다음 백제토기는 백제의 성장 배경과 백제토기의 범주를 정하고 백제토기의 등장시기를 설정한 후 한성시기, 웅진시기, 사비시기의 백제토기의 특징을 검토하였다. 또한 중국도자와 백제토기, 고구려토기와 가야토기의 영향, 영산강유역의 백제토기 등 백제 토기 주변에 대해 알아보았다. 신라·가야토기는 먼저 그 개념을 정의하고 생산기술

과 고분문화를 배경으로 한 토기생산, 정치세력에 따른 토기양식과 그 변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어지는 통일신라는 자기 발생의 전야기로 보고, 우선 고신라토기에서 통일신라토기로의 전이과정을 설명하였다. 다음 인화문토기의 전개와 시유도기를 중심으로 경주와 지방의 토기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제 3장은 고려시대 청자에 대해 서술하였다. 먼저 차 문화의 유행과 청자의 제작에 대해 살펴보았다. 통일신라시대 이후 차문화 유행을 고찰하고 고려시대 차 문화와 제도가 고려청자제작에 기여한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 다법茶法의 전래와 변화가 고려청자 다구의 형태에 영향을 미친 점을 주목하였다. 또한 청자의 제작 개시 시기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를 살펴보고 청자의 최초 제작지와 청자 제작자 집단을 추정해보았다.

다음 청자기술이 중국에서 전래된 이후 유색釉色의 발전과 기종, 기형, 문양소재, 시문기법의 변화, 금속기로부터의 영향을 고찰하였다. 중국의 사료를 통해 동아시아에 있어서 고려청자의 위상과 인식을 재확인하고 중국 각 가마 생산품의 국내수입과 사용처, 그 의미와 함께 중국과 일본에서 발견된 고려도자의 사례와 의미, 수출시기를 살펴보았다.

고려청자의 용도에 대해서는 『선화봉사고려도경』에 등장하는 생활용기의 사례를 중심으로 각종 생활용기의 종류, 가마터와 각종 소비지, 분묘에서 발견되는 도자의 종류와 성격을 고찰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국가 제례기와 불교의식기로서의 청자를 문헌과 고고학 자료로 입증하였다. 나아가 각 유적지별 성격으로 드러난 청자의 품질과 조합, 고려사에 등장하는 청자상인세력을 알아보았다. 끝으로 최근 서해안 침몰선에서 발견되는 각종 청자의 유통방식과 조세체계 및 12개 조창의 활용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제 4장에서는 조선 전기의 분청사기와 백자에 대해 서술하였다. 먼저 전통의 계승과 소박한 과격의 미를 지닌 분청사기에 대해서는 고려청자로부터 이행 과정, 편년자료와 분청사기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다음 분청사기에 사용된 일곱 가지 장식기법의 유행과 개성적인 표현을 유물을 통해 고찰하고 전국에 남아 있는 제작지를 검토하였다.

다음 백자는 왕실백자의 제작지인 경기도 광주 관요의 운영과 관리, 관요의 성격과 가마 구조를 문헌과 유물을 통해 고찰하고 백자의 제작량과 요도구窯道具 등을 살펴보았다. 조선 왕실의 위엄과 권위의 상징인 백자에 대한 조선 조정의 정책과 사대부의 인식을 검토하고 관요백자와 청화백자의 장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관요백자에 많은 영향을 미친 중국백자에 대해서는 문헌기록과 출토품을 통해 영향과 변용, 수용과정에 대해 해석을 기하였으며 특별히 그 의미를 고찰하였다.

끝으로 5장에서는 조선 후기 백자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조선 후기의 시대 배경과 신분제의 변동에 따른 백자 소유 기회의 평등과 부와 품격의 상징이 된 백자 인식을 고찰하였다. 다음 17세기 철화백자를 중심으로 고난 극복을 위한 분원제도의 정비에 대해 살펴보고 분원 이동에 따른 편년 자료를 토대로 철화백자 양식에 대해 정리하였다. 또한 17세기 한일 공동 프로젝트라 할 수 있는 왜관倭館 다완 생산에 대해 언급하였다.

18세기는 사번私燔의 허용과 상품 경제의 발달에 힘입어 청화백자에 새롭게 등장한 양식들을 진경 문화의 일환으로 파악하고 이를 유물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정조 이후 저변의 확대에 따른 장식화의 심화를 시대적 산물로 추정하였다.

19세기는 북학파의 제작기술과 소비에 대한 인식과 다양한 실용기명과 중화풍 양식이 주를 이룬 분원자기 양식에 주목하였다. 그릇

의 유통과 생산에 대해서는 당시 사기전(沙器塵)의 양태와 분원이 분원공소(分院貢所)로 변모하는 과정을 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조선 말기의 상황을 설명하였다.

이 책을 통틀어 필자들은 한국문화사에서 도자기의 표현과 도자기와 문화와의 관계의 구조와 궤적을 고찰하였다. 한국의 도자기에 관한 많은 의문들 - 예를 들면 한국의 도자기는 누가 만들어,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가. 시대 별, 지역 별 특성은 무엇인가. 중국이나 일본과의 차별점은 무엇이고 어떤 문화적 의미를 갖는가 - 에 대해 답할 수 있는 유익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앞으로도 한 집단, 국가, 민족의 문화적 산물을 넘어 세계의 문화로 한국의 도자기가 존재할 것을 그려 본다.

2010년 9월

고려대학교 교수 방병선



한반도의 흙, 도자기로 태어나다

1

토기의 등장과 확산

- 01 토기란 무엇인가?
- 02 선사시대의 토기제작기술
- 03 한반도 최초의 토기
- 04 선사시대 토기 제작기술의 정착과 확산
- 05 선사시대 토기의 기능
- 06 선사시대 토기와 주민

01

토기란 무엇인가?

토기土器란 문자 그대로 흙을 빚어 만든 그릇을 일컫는 말이다. 토기의 원료인 점토는 물과 섞으면 자유롭게 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지만 일단 가열되면 단단하게 굳어서 변형되지 않는다. 이러한 토기의 특성 때문에 지난 1만여 년 동안 인류는 음식을 조리하고, 담아서 먹거나, 저장하고, 운반하는 데 토기를 사용해 왔다.

토기는 점토를 빚어 만든 다른 형태인 자기磁器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낮은 온도에서 구워진 토기는 미세한 구멍이 많은 다공질 그릇을 일컫는 반면에, 표면에 유약을 발라 높은 온도에서 구워낸 자기는 그릇 전체가 유리질화된 것을 의미한다.

도자기라는 말은 점토를 빚어 만든 그릇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이를 구분하는 명칭은 나라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토기와 자기로 구분하지만 중국에서는 도기陶器와 자기로 구분하고, 서양에서는 토기earthenware pottery와 석기炻器, stoneware pottery, 자기porcelain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러한 구분은 원료 점토의 성분과 표면에 유약을 발랐는지 여부, 구워진 온도 등의 차이에 따른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그릇의 단단한 정도와 액체를 흡수하는

정도의 차이를 반영하는 구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분야별로 사용하는 용어에 차이가 있는데, 고고학 분야에서는 토기와 자기라는 구분을 사용하지만, 미술사 분야에서는 도기와 자기라는 구분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낮은 온도에서 구워진 무른 질의 선사시대 그릇은 토기, 삼국시대의 단단한 석기질 토기는 도기, 그릇 전체가 유리질화된 것은 자기로 구분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의 관례에 따라 자기 발생 이전의 그릇을 일괄하여 토기로 표현하기로 한다.

인류가 흙을 빚어 토기를 만든 것은 후기 구석기시대의 일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0년 전의 유적인 체코 공화국의 돌니 베스토니체(Dolní Věstonice)에서는 점토를 빚어서 구운 여성상이 출토되었다. 그러나 그릇으로서의 토기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이보다 한참 뒤의 일로 지금으로부터 약 12,000년 전으로 추정되는 일본 큐슈(九州) 지역의 동굴 유적에서이다. 이때는 신석기시대가 시작되는 시기로 비슷하거나 조금 늦은 시기에 우리나라 동남해안 지역과 연해주 지역, 터키의 아나톨리아 지역, 중국 동북부와 남부 지역 등 세계 각지에서 토기가 제작되기 시작한다.¹

이처럼 토기의 제작은 신석기시대의 시작과 관련이 있다. 과거 500만 년 동안 인간은 추운 빙하기에 적응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15,000년 전 무렵부터 기후가 점차 따뜻해져 오늘날과 비슷한 기후환경이 형성되었다. 따뜻해지자 추운 기후에 적응한 큰 짐승들은 북쪽으로 이동하였고,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식량자원은 물론 생계방식에도 변화가 시작되었다. 인간은 작고 날랜 짐승을 사냥하기 위해 화살과 같은 새로운 도구를 발명하였으며, 짐승을 길러 가축화하고 식물을 개량하여 농사를 짓게 되었다.

아울러 식량자원을 따라 떠돌아다니던 구석기시대의 생활방식을 버리고 정착생활을 영위하게 되었다. 식량생산과 정착생활로 인해



빗살무늬토기 제작 실험

토기는 물과 흙, 공기와 불의 조화를 통해 얻어낸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이다. 신석기시대 토기가 발명된 이후 사람들은 토기를 이용해 음식물을 조리하고 저장하거나 운반하였다. 요업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산업의 각 분야에서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토기는 인간이 물질의 물리·화학적 구조를 변화시켜 만들어낸 최초의 발명품이자 인간의 심미성이 내포된 예술품이다. 위의 사진은 1981년 강원도 양양 오산리유적 발굴조사 도중에 실험적으로 토기를 제작하는 모습이다.

저장용 그릇의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단단하고 형태가 변하지 않는 토기는 이러한 용도에 적합하였다. 물론 그 이전에도 저장용 그릇이 필요했겠지만 이동생활을 하던 구석기시대에는 이동성이 떨어지는 토기보다는 짐승의 가죽이나 식물 넝쿨로 만든 도구들이 더 유용했을 것이다.

토기를 발명하게 된 과정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50만 년 전 인류가 불을 발견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에 대한 오랜 관찰과 경험적 지식이 축적된 결과로 생각된다. 즉, 불을 발견한 이후 인류는 오랜 시간 동안 자연에 대한 관찰을 통해 물과 섞이면 자유롭게 형태가 변형되고, 불에 구워지면 단단해지는 점토의 성질에 대해 알게 되었을 것이다.

석기시대 인류는 석기 이외에도 나뭇가지나 넝쿨, 짐승의 가죽이나 뼈 등으로 다양한 도구를 만들어 사용했을 것이고, 이 중에는 넝쿨을 엮어서 만든 그릇도 있었을 것이다. 넝쿨로 만든 바구니 형태의 그릇이 흙이 묻은 채 방치되었다가 우연한 기회에 불에 타 바구니 형태의 토기로 남게 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또 빗물이 고인 웅덩이가 적당히 마른 후 우연한 기회에 불이 나서 단단하게 굳어져 그릇 모양의 형태가 남게 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그야말로 가정에 불과하지만 토기의 발명은 점토와 불에 대한 오랜 관찰을 통한 경험적 지식이 축적된 결과이며, 신석기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시작된 생활방식의 변화는 토기의 발명을 앞당긴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 초 영국의 저명한 고고학자 고든 차일드(Vere Gordon Childe)는 신석기시대 토기의 발명과 식량 생산 및 정착생활, 마제석기의 사용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생활방식이 시작되었으며, 이를 인류문명 발달사에 있어서 첫 번째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하여 신석기 혁명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이처럼 토기의 발명은 문명 발생의 여명기에 일어난 획기적인 사건이며, 현재까지도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생필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토기에는 그 시대의 제작 기술과 생활방식 및 문화가 담겨있을 뿐만 아니라, 만들고 사용한 사람들의 숨결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우리가 어떤 이의 사람됨을 그릇에 비유하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일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토기는 고고학자들의 주요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토기는 비록 깨지기는 해도 부식되지는 않으므로 형태를 보존하고 있어 신석기시대 이후의 거의 모든 유적에서 출토된다. 토기는 가죽이나 식물로 만든 용기에 비해 무겁고 깨어지기 쉬어서 장거리 이동이 어려우므로 공간적으로 제한된 지역에서 사용되었다. 때



유적에서 토기가 출토되는 모습
토기는 신석기시대 이후의 거의 모든 유적에서 출토되며, 발굴 현장에서 고고학자들이 가장 많이 대하는 유물이기도 하다. 토기는 당시 사회의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여 당시 사람들의 기술체계와 생활양식, 사회조직 등 다양한 분야를 밝혀낼 수 있다. 사진은 2005년 서울의 아차산 3보루에서 고구려 토기를 노출시키는 모습이다.

문에 토기에는 강한 지역색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토기는 깨어지기 쉬운 특성 때문에 제작과 폐기의 순환이 빠르며, 시간에 따른 제작기술과 형태의 변화가 심하다. 토기 고유의 기능은 음식물을 조리하고, 저장하거나 운반하는 것이지만 계층에 따라 사용하는 형태가 다르다. 음식을 담아 제사를 지내거나 죽은 자를 위해 무덤에 함께 묻어주기도 하며, 토기로 종교적 상징물을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고고학자들이 과거 사회를 연구하는 데 토기보다 유용한 자료는 없다.

토기를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의 일차적인 관심은 제작기술에 관한 것이다. 토기 주원료인 점토의 특성과 원산지, 토기를 빚는 방법과 구운 방법, 구운 온도 등 다양한 요소들을 분석하여 토기를 만들던 기술체계를 연구한다. 더불어 토기의 형태적 특징과 사용한 흔적을 분석하여 토기의 기능을 추론하고, 주변 지역의 토기와 비교를 통하여 토기의 분배와 교역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일반적으로 선사시대의 토기는 특별한 전문 조직이 없이 집안에서 제작되었지만 국가가 성립된 이후에는 국가에서 토기의 생산과 분배를 주관하고 통제하게 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과거의 사회조직과 정치조직을 복원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내기도 한다.

20세기 초 일본인들에 의해 한반도의 고고학 연구가 시작되면서 토기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지만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토기와 청동기시대의 민무늬토기를 구분하지 못하는 등 혼란이 있었으며, 이 문제는 1960년대에 들어와서 청동기시대의 존재가 확인된 이후 비로소 해결되었다. 20세기 전반의 연구는 토기의 기원과 생산자 및 사용자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한반도 고고학의 시대 구분의 골격이 갖추어지면서 연구자들의 관심은 편년의 문제로 옮겨졌다. 편년의 문제는 현재까지도 토기 연구에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

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토기 가마의 발굴이 본격화되면서 토기 제작기술의 해명을 위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더불어 토기에 대한 자연과학적 분석과 출토된 토기 자료들의 통계 분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실험을 통한 토기제작 기술의 복원이 시도되는 등 연구의 관점이 다양화되었다. 또한 한반도 토기에 대한 연구의 진전에 따라 한반도 주변의 중국 동북지방, 연해주 및 일본 각지의 토기들과의 비교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현재 한국 고고학 분야에서 토기의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다양한 관점 하에 다루어지고 있다. 토기문화의 기원 및 형성 과정과 편년에 대한 연구는 전통적이면서도 현재까지도 핵심적인 연구 주제이다. 특히 편년 분야의 연구에는 상당한 진척이 있어서 삼국시대의 경우 25년 또는 50년을 단위로 하는 안정적인 편년체계가 구축되었다.

토기의 제작기술 역시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 분야의 하나이며, 선사시대 토기와 역사시대 토기의 변화 과정을 포함한 각 시대별, 지역별 토기 제작기술의 변화 과정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토기 제작기술의 복원은 토기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고 있으며, 집단의 이동이나 집단 간의 접촉에 의한 문화 변동의 연구도 토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삼국시대 토기양식의 형성이 고대국가의 형성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고대국가의 형성 시점을 추론하기도 하고, 특정한 토기양식의 확산과정을 통해 고대국가 영역의 확대를 유추하는 등, 토기 연구는 다양한 관점 하에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02.

선사시대의 토기 제작기술

흔히 토기를 질그릇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질흙으로 빚어 만든 그릇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토기를 구성하는 주원료는 질흙, 즉 점토이지만 토기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그 밖에 다른 물질들과 도구들이 필요하다. 토기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재료는 점토이다. 점토는 암석이 풍화되어 만들어진 고운 입자의 흙으로 입자의 크기는 0.004mm 이하이다. 암석이 풍화작용을 통해 분해되면 실리카(규소)나 알루미늄과 같은 광물질이 만들어지며, 물과 결합하여 점토광물이 만들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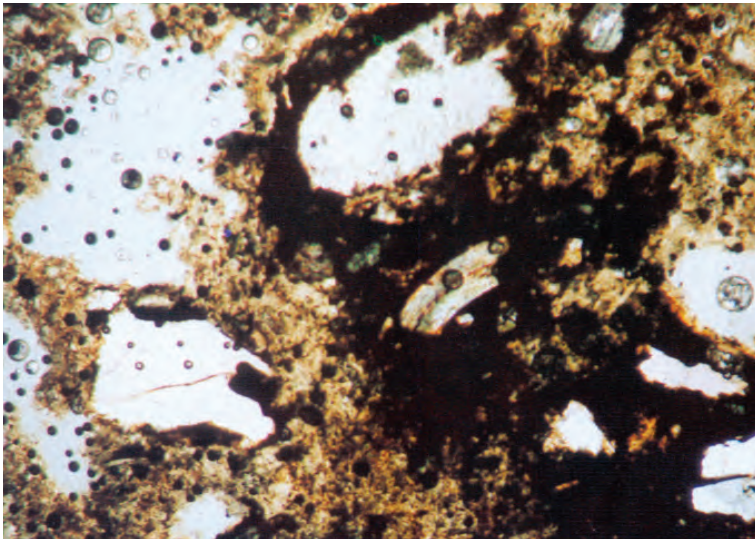
그 밖에 점토에는 포타슘(칼륨), 나트륨, 철분, 마그네슘 등의 광물 질과 기타 미량원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점토에 포함되어 있는 미량원소의 종류는 점토의 원재료인 모암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며, 이러한 까닭에 토기에 포함된 미량원소의 함량을 분석하면 점토의 원산지를 밝혀낼 수 있다.

점토는 포함된 광물질의 조성 and 배열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 점토는 운모와 같이 몇 개의 층을 가진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보통 2층 또는 3층의 구조로 되어 있다. 2층 구조의 점토로는 카올

리나이트, 3층 구조의 점토로는 몽모릴로나이트(벡타이트라고도 함)와 일라이트라고 불리는 것이 대표적인데, 카올리나이트가 가장 흔한 형태이며, 순도가 높은 카올리나이트는 자기의 원료로 사용된다.²

점토의 고운 입자는 표면에 많은 양의 수분이 흡착될 수 있도록 하여 손으로 주물러 빚은 대로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가소성(可塑性)을 갖게 되는데, 순수한 점토 입자만으로는 가소성이 떨어진다. 흔히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공작용 점토만으로는 동물이나 사람과 같은 형태를 만들기 어려워 철사나 나무 같은 보조물을 이용해 골격을 만들고 점토를 붙여서 형태를 만드는 것도 가소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선사시대에도 점토의 가소성을 높이기 위해 원료 점토에 입자가 굵은 모래(석영)나 석면, 장석, 운모, 석고, 조개 껍데기 등 무기물이나 식물의 씨앗, 껍질, 재 등의 유기물, 그리고 깨진 토기 조각을 잘게 부수어 넣기도 하였다.

이러한 물질들은 원료점토의 가소성을 높여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형태를 갖춘 토기를 말리거나 굽는 과정에서 부피가 줄어드는 정도를 완화시켜 파손을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직



토기 바탕흙의 현미경 사진

하남시 미사리유적에서 출토된 청동기 시대 덧띠새김무늬토기(刻木突帶文土器)의 바탕흙을 현미경으로 확대한 모습이다. 여러 점토 광물질과 석영, 장석, 운모 등의 보강제가 첨가된 모습으로 사진에 보이는 커다란 흰색 반점들이 운모 조각이다.

접 불에 올려놓고 조리를 하는 토기에는 굵은 입자의 모래알갱이가 포함된 경우가 많은데, 이는 토기가 열을 받았을 때 부피가 팽창하는 정도를 줄여주어 파손을 막고 열 전달을 빠르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점토의 가소성을 높이고, 파손을 줄이기 위해 추가하는 이러한 물질을 보강제(temper: 완화제)라고 하는데, 일부는 원료 점토에 포함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의도적으로 첨가하는 경우가 많다. 원료 점토에 포함되는 보강제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강제의 분석을 통해 토기의 제작시기와 제작지를 추정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토기의 원료가 되는 점토에는 순수한 점토 입자와 물 외에 다양한 물질이 보강제로 첨가되는데, 이 세 가지 물질을 합쳐서 바탕흙(胎土)이라고 부른다.

토기를 만드는 작업은 가장 중요한 원료인 점토를 구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선사시대의 도공은 운반수단의 제약으로 먼 거리로부터 원료 점토를 운반해 오기 어려웠으므로 주로 마을 주변에서 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보강제는 점토에 비해 필요한 양이 적고, 산지가 제한적일 경우가 많으므로 비교적 먼 거리에서 운반해 오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한편 토기 제작의 마지막 단계인 토기의 소성에 필요한 연료도 중요한데, 부피도 크고 무거우므로 주변에서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러 민족지 연구에 따르면 선사시대 토기를 소성하기 위한 연료로는 나뭇가지 외에도 벗짚과 같은 식물의 줄기나 짐승의 배설물도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한다.

원료점토가 준비되면 다음엔 바탕흙을 준비한다. 선사시대에는 순도 높은 점토를 구하기 어려우므로 채취된 점토에는 자갈 같은 굵은 입자의 광물질과 유기물 등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를 골라내는 작업을 해야한다. 자갈이나 커다란 입자의 불순물들은 손으로 일일이 골라낼 수 있지만 이보다 작은 입자

태토 준비
불순물 걸러내기



태토 준비
반죽하기



모양을 만드는 방법



박자로 두드리기



무늬 세기



맘리고 굽기
노천요 벽원 삼삼도

선사시대 토기 제작법

토기 제작 과정은 원료의 준비, 비탕흙 만들기, 모양만들기(성형), 무늬 세기, 말리기(건조), 굽기(소성) 등의 여러 과정이 필요하다.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단순한 과정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술을 총동원하여 토기를 만들었다.

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른 형태의 작업이 필요하다.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원료점토를 말린 다음 뿜아서 입자를 고르게 한 후 체로 걸러내는 방법이다. 또는 원료점토나 뿜은 점토를 물에 풀어서 잘 저은 후 수면 위에 떠오른 가벼운 유기물과 바닥에 가라앉은 무겁고 굵은 입자의 불순물을 제거하기도 하는데 이를 수비水飛라고 한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면 점토의 가소성을 높이기 위해 보강제를 첨가해야 하는데, 보강제의 종류와 양은 제작할 그릇의 형태와 기능에 따라 선택한다. 일반적으로 점토에 첨가하는 보강제 양은 바탕흙의 50% 이내로 알려져 있으며, 조리용기처럼 열을 직접 받는 토기에는 굵은 모래알갱이나 석면 등을 보강제로 첨가하며, 다른 종류의 그릇에 비해 첨가하는 양도 많다. 그 다음에는 보강제가 첨가된 점토를 적당량의 물과 함께 골고루 반죽하는데, 이 과정에서 점토 입자와 보강제 사이에 공기가 남아있으면 소성과정에서 부풀어 오르거나 찌그러지게 되므로 발로 밟거나 망치로 두드리는 작업을 여러 차례 반복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작업 과정을 통해 바탕흙이 준비되면 본격적으로 그릇의 형태를 빚는데 이를 성형成形이라고 한다. 보통 성형 과정은 그릇의 형태를 만드는 1차 성형과 만들어진 그릇의 표면에 장식을 하거나 문질러 광택을 내는 등의 2차 성형으로 나뉜다. 토기를 빚는 가장 단순한 방식은 준비된 바탕흙을 손으로 주물러 형태를 만드는 것이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 손으로 점토 덩이를 감싸 잡고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오목한 형태를 만드는 것이다. 이 방법으로도 아가리가 넓은 둥근 형태의 그릇을 만들 수는 있으나 큰 그릇을 만들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손빚기법手捏法은 작은 그릇을 만드는 데 적당한 방법이며, 선사시대 때 주로 사용한 방식이다.

이보다 좀 더 발전된 성형법으로는 바탕흙을 편평한 바닥에 놓고 손으로 문질러서 가늘고 긴 점토 띠를 만든 후 용수철처럼 연속으로 쌓아올리는 방법으로 서리기법捲上法이라고 한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테쌓기법輪積法이 있는데, 바탕흙을 바닥에 놓고 눌러서 납작한 점토 띠로 만든 후 한 층씩 쌓아올려 형태를 만드는 것이다. 두 방법 모두 점토 띠를 만들어 쌓아올리는 것은 같으나 서리기법은 가늘고 긴 점토 띠를 계속해서 돌려 쌓는 것이고, 테쌓기법은 폭이 넓은 점토 테를 한 층씩 쌓는다는 차이가 있다. 점토 띠의 폭은 그릇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7cm 가량이며, 아주 큰 토기의 경우 15cm 가량 되는 것도 있다. 서리기와 테쌓기는 손빛기에 비해 상당히 발전된 방식으로 비교적 큰 그릇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아래위로 쌓인 점토 띠를 잘 접착하지 않으면 말리거나 구울 때 파손될 위험이 높다. 단단히 접착한 경우에도 다른 부위에 비해 약하므로 사용 중에 파손되는 경우도 많다. 출토된 선사시대 토기의 경우 점토 띠의 상하 접착 면이 떨어져 깨진 것이 많은 것이 그 이유다. 이러한 성형법은 토기의 부위별로 다르게 적용되기도 하는데, 둥근 바닥면은 손빛기로 제작하고 위쪽은 테쌓기로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방법 외에도 이미 제작된 틀에 점토를 붙여 찍어내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선사시대 토기는 편평한 바닥이나 작업대 위에서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흙이 과인 바닥에 둥근 판을 놓고 손으로 돌려가면서 작업한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회전판은 흔히 도자기 제작에 사용되는 물레轆轤의 초보적인 형태인데, 둥근 형태의 토기를 제작하는데 편리할 뿐만 아니라 작업 속도를 높이는 역할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삼국시대에 물레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물레는 발로 회전판을 돌리면서 두 손으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다. 한편 통일신라시대에는 회전하는 물레의 원심력을 이용해 점

토 덩이로부터 직접 토기의 형태를 뽑아 올리는데, 고려시대 이후의 자기는 모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형이 이루어진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해 토기의 일차적인 형태가 완성되면 토기 표면을 다듬는 작업이 이어진다. 손빚기나 서리기, 테쌓기 등으로 성형된 토기의 표면은 매끄럽지 못하거나 두께도 고르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예새라고 불리는 나무 칼 등의 도구를 이용해 표면을 긁어내거나 깎아내어 고르게 다듬는다. 또는 넓적한 나무판을 이용해 토기 표면을 두드려 모양을 조정하는 타날(打捺)기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토기 표면을 두드릴 때는 버섯같이 생긴 내박자(內拍子)를 그릇 안쪽에 대고 바깥쪽을 넓적한 나무판 등으로 두드리는데, 이때 두드리는 판에 문살무늬를 새기거나 노끈을 감아서 두드리면 토기 표면에 문살무늬나 노끈무늬가 새겨진다. 타날기법을 이용하면, 그릇의 두께를 일정하게 하는 것 외에도 점토에 남아 있는 공기가 제거되고, 기벽을 단단하게 하여 소성과정 중에 파손율을 낮출 수 있는 효과 등이 있으며, 몸통의 모양을 둥글게 늘리거나 부피를 크게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때문에 토기 제작기술이 전문화되면 토기의 형태를 조정하는 데 타날기법이 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삼국시대 이후에 제작된 토기에는 거의 모두 타날기법이 사용되었다.

2차 성형을 통해 토기 표면이 다듬어지면 고운 점토를 뭉개 풀어 표면에 바르거나 채색을 하기도 하며, 무늬를 새기거나 장식을 만들어 붙이기도 한다. 토기를 장식하는 방법이나 무늬의 종류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른 특색을 띠는데, 이를 통해 토기의 제작시기와 제작지 등을 밝혀내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석기시대의 토기에서는 기하학적무늬가 주로 새겨지며, 청동기시대에는 무늬가 없는 토기가 주를 이룬다. 원삼국시대 이후에는 토기 표면을 두드려 조정할 때 생긴 노끈무늬나 문살무늬 등이 그대로 남아 있는 예



가 많은데, 이는 장식효과 뿐만 아니라 조리에 이용할 때 불이 닿는 표면적을 늘려 열효율을 높이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그 밖에 반건조된 상태의 토기 표면을 단단한 도구로 문지르거나 특정 성분의 물질을 바르고 문지르기도 한다. 이처럼 표면을 문지르면 소성 후에 표면이 반짝이며 광택이 나는데, 이를 통해 토기 표면의 미세한 구멍을 차단하여 흡수율을 낮추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붉은간토기赤色磨研土器는 표면에 산화철을 바르고 문질러 광택을 낸 것이고, 초기철기시대의 검은간토기黑色磨研土器는 흑연을 바르고 문질러 광택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그밖에 옹기의 일종인 오지그릇과 같이 유약을 바르지 않고 소성 마무리 단계에서 젖은 솔잎 등을 태워 그 연기가 토기 표면에 달라붙도록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연기가 토기 표면에 잘 달라붙도록 소금을 뿌리기도 한다. 이러한 착탄법着炭法 역시 토기 표면의 구멍을 막아 흡수율을 낮추기 위해 고안된 방법 중의 하나이다.

형태를 마무리하고 장식이 완성된 토기는 상당량의 수분을 함유

구덩식 가마 토기소성실험

선사시대 우리나라에서는 야외의 개방된 가마에서 토기를 소성하였는데, 알은 구덩이를 파서 소성 온도를 높이기도 하였다. 사진은 청동기시대의 구덩식 가마를 재현하여 실험한 장면이다. 토기와 연료를 함께 쌓고 소성하여 토기 표면 곳곳에 검은 반점이 생겼는데, 이런 반점은 선사시대 토기에서 흔히 관찰되는 것이다.

하고 있으므로 그대로 구우면 갑작스런 수분의 증발로 뒤틀리거나 파손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토기를 소성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시키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토기를 건조할 때는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진 장소를 이용하는데, 일정한 간격을 두고 토기를 돌려놓아 전체적으로 고르게 건조되도록 해야 한다. 건조 과정을 통해 바탕흙에 포함된 수분은 대부분 증발하지만 점토 입자의 결정구조에 단단히 흡착된 결합수(結合水)는 남아 있으며, 이는 소성 과정에서 증발한다.

건조가 완료되면 토기 제작의 마지막 단계인 소성(燒成) 작업을 한다. 소성은 토기에 열을 가하여 바탕흙의 화학적 성질을 변화시켜 단단하게 하는 과정으로 다양한 시설과 방법이 사용된다. 가장 간단하고 단순한 방법은 야외에서 별다른 시설 없이 연료와 토기를 쌓아놓고 굽는 방법으로 이를 노천요(露天窯)라고 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는 높은 온도를 내기 어렵다. 야외에서 토기를 구울 때는 땅 바닥을 약간 파서 웅덩이를 만들기도 하는데 온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다. 온도를 높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연료와 토기를 쌓은 후 주변을 벗짚 등으로 둘러싸고 진흙을 바른 후 불을 피우는 방법이 있는데, 앞의 두 방법에 비해 훨씬 높은 온도를 낼 수 있다. 온도를 높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밀폐된 가마를 만드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원삼국시대에 들어와서야 발달된 구조의 가마가 등장한다.

토기를 소성할 때 온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바탕흙에 포함된 점토광물이 온도에 따라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즉, 고온에서 구울 경우 바탕흙에 포함된 실리카 등이 녹아 유리질화 되어 토기가 훨씬 단단해진다. 일반적으로 섭씨 500도 정도의 온도에서 점토광물의 결정구조에 변화가 시작되며, 900도가 넘으면 점토광물의 본래 구조를 잃고 새로운 규산질

광물로 변화된다. 동시에 규산질이 다른 산화물과 함께 녹아내리는 유리질화 현상이 일어나 토기 표면에 투명한 피막이 형성되고 광택을 내게 된다. 그 밖에 바탕흙에 포함된 불순물이나 비가소성 입자들도 온도에 반응하여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다. 때문에 선사시대의 토기 조각을 분석하여 특정 광물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면 토기를 구운 온도를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섭씨 750도 이상이면 점토 입자에 흡착된 결합수가 완전히 증발되며, 석영 입자는 573도, 867도, 1250도 등 세 단계에 걸쳐 결정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일라이트^{illite}라는 광물질은 700도가 넘으면 변화를 일으킨다.³

이러한 점토광물은 모든 점토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므로 만약 어떤 토기 조각을 분석하여 일라이트라는 광물질이 확인된다면 이 토기는 700도 이하에서 소성된 것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러 차례의 분석과 실험 결과를 통해서 우리나라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토기는 대략 900도 미만에서 소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성 과정에서 토기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소성 온도가 가장 중요하지만 소성 지속 시간과 소성 분위기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소성 지속 시간이란 연료에 불을 붙인 후 가열이 끝나는 시점까지 걸리는 시간 또는 소성이 시작된 후부터 최고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소성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바탕흙에 남아 있던 수분이나 각종 휘발성 물질이 급격히 빠져나가 그릇이 찌그러지거나 파손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냉각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선사시대 노천요의 경우 소성 지속 시간은 수십 분에 불과하지만 자기 가마의 경우 일주일 가량 걸리기도 한다.

소성분위기란 소성 과정에서 공기의 소통여부와 관련이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소성이 이루어지는 동안 산소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느냐 아니냐를 의미한다. 토기를 소성할 때 산소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면 바탕흙에 포함된 철분 등이 산화되어 토기는 붉은 색조를

띠게 되고, 산소의 공급이 차단되면 반대로 환원반응이 일어나 회색이나 흑색 등 어두운 빛을 띠게 된다. 물론 토기의 색깔은 원료 점토의 성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소성 분위기의 영향도 많이 받는다. 선사시대의 토기는 대체로 개방된 야외의 노천요에서 구워진 것으로 산화분위기에서 제작되어 붉은색을 띠고, 밀폐된 가마가 등장한 이후의 토기들은 대체로 회색이나 회청색을 띠는 것을 볼 수 있다. 소성분위기는 토기의 색깔을 좌우하기도 하지만 그릇의 경도나 흡수율 및 수축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소성이 끝나고 냉각된 토기는 표면에 붙은 재나 숯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간단한 처리를 거친 후 사용되지만 목탄이나 타르 등을 바르기도 한다. 소성 후에 토기 표면에 특정한 처리를 하는 것은 대체로 흡수율을 낮추기 위해서다. 물론 자기의 경우에는 유약을 바르고 재벌구이를 하지만 선사시대의 토기는 1차 소성으로 제작이 완료된다. 완성된 토기는 제작지 주변이나 제작자가 직접 사용하기도 하지만 물물교환이나 시장을 통해 분배되기도 하고, 주문자에게 납품되기도 하는데, 대체로 선사시대의 토기는 제작지 주변에서 사용되었다.

한반도 최초의 토기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토기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8,000여 년 전에 사용되기 시작한 빗살무늬토기 櫛文土器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세계 최초의 토기가 한반도 남부지역과 인접한 일본의 큐슈지역에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많은 고고학자들은 한반도에서 처음 토기가 만들어진 것이 언제인가에 대해 관심이 높았다.

1980년대에 들어와 강원도 동해안의 오산리유적에서 바닥이 납작한 덧무늬토기 隆起文土器가 출토되었는데, 연대를 측정해 본 결과 빗살무늬토기보다 오래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 밖에 남해안 일대의 조개무지유적의 발굴을 통해 이보다 더 오래된 무늬가 없는 토기의 존재가 밝혀지기도 하였지만 절대연대를 밝혀줄 자료가 없었다. 그런데 1994년 제주도의 고산리유적에서 새로운 토기가 출토되면서 한반도 최초의 토기에 대한 새로운 자료가 제시되었다.⁴ 제주도에서 출토된 새로운 양식의 토기는 유적의 이름을 따서 ‘고산리식토기’로 명명되었는데, 그 특징이 일본 큐슈지역에서 출토되는 세계 최초의 토기와 유사하여 주목을 받게 되었다.

고산리식토기와 화살촉(위)

고산리유적에서 가장 오래된 토기는 바탕흙에 식물 줄기 등의 유기물을 섞어서 만든 민무늬토기인데, 고산리식토기라고 명명되었다. 점토에 식물줄기를 섞어서 토기를 만드는 전통은 세석기와 함께 동북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토기가 등장하는 시점의 공통된 특징이다. 토기(좌)의 크기는 사진 왼쪽 위가 5.8cm, 화살촉(우)은 왼쪽 위가 4.0cm이다.



고산리유적 발굴조사 광경(아래)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일대에 위치한 고산리유적은 1991년부터 1998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조사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아카호야 화산재층 아래에서 많은 양의 토기 편과 후기 구석기시대 전통의 잔석기들이 함께 출토되었다. 고산리유적 발굴을 통해 한반도에 토기가 등장한 시점이 1만 년 전후임이 밝혀졌다.



지금으로부터 12,0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진 큐슈지역의 후쿠이(福井) 동굴이나 카미쿠로이와(上黒岩) 동굴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는 바탕흙에 식물 줄기 등을 섞어서 만들었던 흔적이 몸통에 남아 있고, 아가리와 몸통 위쪽에 덧무늬를 붙여 장식하며, 후기 구석기시대 이후 유행하는 세석기(細石器)와 함께 출토되는 것이 특징이다. 고산리식토기도 이와 같은 특징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데, 모래가 섞인 거친 점토에 가는 식물 줄기를 보강제로 섞어 성형한 뒤 저온에서 구운 토기로 쯤돌날몸돌(細石刃石核)과 쯤돌날(細石刃) 등 후기 구석기 시대의 전통 세석기와 함께 출토되었다.

토기가 출토되는 층은 약 6,000년 전에 분출한 아카호야 화산재층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에 고산리식토기가 만들어진 것은 이보

다 훨씬 더 이전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산리식토기를 발열광 연대측정법(TL dating)으로 측정하면 지금으로부터 10,500년 전이라는 연대가 얻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 고산리식토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만년 전에 제작된 한반도 최고의 토기로 밝혀지고 있으며, 이러한 연대는 세계 최초의 토기로 알려진 일본 큐슈지방의 죠몬시대(繩文時代) 초창기 토기들과 유사한 것이다.

한편 러시아 연해주 아무르강유역의 여러 유적에서도 고산리식 토기와 유사한 토기와 세석기들이 함께 출토되고 있으며, 연대도 비슷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자료를 통해 연해주와 한반도 동남해안, 일본 큐슈지역을 잇는 지역에서 동일한 특징의 토기들이 세석기와 함께 출토되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지질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인류의 구석기시대에 해당하는 약 500만년 동안은 빙하기로 현재보다 바다 면적이 훨씬 좁았다. 빙하기가 끝난 후 기후가 점차 따뜻해지자 빙하가 녹아 바닷물이 늘어나면서 반대로 육지의 면적이 점차 줄어들었다. 토기의 제작이 시작되는 15,000년 전쯤에는 황해는 큰 강이 흐르는 육지였으며, 동해는 커다란 호수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⁶ 때문에 러시아 연해주에서 한반도 동해안과 남해안 및 일본 큐슈지역 일대는 비슷한 환경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같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토기가 이 지역에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고산리식토기와 같은 제작 전통의 토기는 제주도의 김녕리유적과 경북 청도군 오진리유적 등지에서도 출토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점토에 식물의 줄기 등 유기물을 섞어서 만든 무늬가 없는 토기를 원시무문토기로 부르기도 한다. 고산리식토기에 이어 덧무늬토기와 지자문토기(之字文土器) 등이 출토되는데, 모두 신석기시대의 전형적인 빗살무늬토기보다 먼저 유행한 토기들이다.

덧무늬토기

제주도 고산리유적에서 출토된 것으로
식물줄기가 섞인 토기보다 약간 늦은
시기에 사용된 것이다. 아가리에 비해
바닥이 매우 좁은 뾰족한 형태이며, 아
가리에는 가는 점토 띠를 붙여서 장식
하였다.

높이 27cm, (국립제주박물관)



덧무늬토기

강원도 양양군 오산리유적에서 채집된
것으로 목이 길고 배가 부른 항아리모
양의 토기이다. 일반적인 덧무늬토기는
깊은 바리모양이 주를 이루는 점을 생
각할 때 특이한 형태이다. 몸통에는 덧
띠를 돌려 두 칸의 문양 칸을 구획하고
안쪽에는 삼각집선문(三角集線文)을 시
문하였다. 바닥에는 나뭇잎 모양이 찍
혀 있는데, 선사시대 토기에서 흔히 보
이는 현상이다.

높이 27.0cm, (서울대학교박물관)





아가리무늬토기

아가리에 비해 바닥이 매우 좁은 뾰족한 형태의 토기로 아가리에는 점을 찍어 문양대를 만들고 그 안에는 톱나무늪을 새겼다. 몸통은 단단한 도구로 문지른 흔적이 있으며, 테살기를 하여 수평으로 깨어진 흔적이 잘 보인다. 이러한 토기는 신석기시대 이른 시기에 덧무늬토기와 함께 유행하였다. 강원도 양양군 오산리유적에서 출토되었다. 높이 30,0cm, (서울대학교박물관)

덧무늬토기는 아가리와 몸통 위쪽에 가는 점토 띠를 덧붙이거나 토기 표면을 손끝으로 집어 눌러서 장식한 납작바닥의 바리 모양의 토기이다. 무늬는 아가리를 따라 몇 줄의 점토 띠를 평행하게 덧붙인 평행선문과 아가리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덧붙인 삼각형무늬, 또는 이 둘을 결합한 것 등 단순하다. 그 밖에 덧붙인 점토 띠를 손으로 눌러 눈을 새기기도 한다. 덧무늬토기는 부산과 김해를 중심으로 하는 남해안에서 많이 출토되며, 강원도 동해안의 오산리유적이나, 고산리유적을 포함한 제주도에서도 출토된다.

덧무늬토기는 고산리식토기와 같은 시기에 등장하였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이보다는 약간 늦은 시기에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에 따르면 덧무늬토기는 대략 기원전 6,000~5,000년 사이에 유행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⁷ 한편 유사한 형태의 덧무늬토기가 일본에도 있어서 관심을 모았는데, 종래에는 한반도의 덧무늬토기가 일본 죠몬시대(縄文時代) 초창기 도도로끼식토기(土器)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것으로 해석했

었다. 하지만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치가 축적됨에 따라 한반도 덧무늬토기의 상한연대가 도도로끼식토기보다 500~600년 정도 앞서고 있어서 이러한 견해는 부정되고 있다.⁸ 현재 한반도 덧무늬토기는 연해주 아무르강유역의 덧무늬토기 문화가 한반도 동북 해안을 따라 남하하여 전파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지자문토기는 납작바닥의 바리 모양 또는 항아리 모양의 토기로서 동체부에 ‘之’자와 같은 지그재그 무늬가 연속적으로 시문되는 토기이다. 주로 남해안과 동해안의 여러 유적에서 출토되며 일부는 중부내륙지방에서도 출토되는데, 연대는 덧무늬토기와 비슷한 것으로 생각된다. 같은 무늬의 토기가 중국 동북지방 랴오허(遼河) 유역에서도 많이 출토되고 있어서 신석기시대 이른 시기에 양 지역 사이에 문화적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 외에도 빗살무늬토기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이전의 신석기시대 이른 시기에는 한반도 동북해안에서 남해안에 걸쳐 끝이 뾰족한 도구를 이용해 아가리에 짧은 무늬를 눌러 새긴 납작바닥의 아가리무늬토기가 유행하였다.

이상을 요약하면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토기가 등장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의 일이다. 한반도 최초의 토기는 식물 줄기가 포함된 거친 바탕흙의 원시무문토기 또는 고산리식토기이며, 후기 구석기시대 전통의 세석기와 함께 출토된다. 한편 이와 유사한 형태의 토기가 러시아 연해주지역과 일본 큐슈지역에서도 유행했으며 이는 유사한 환경에 적응한 결과로 생각된다. 최초의 토기가 등장한 이후 덧무늬토기와 지자문토기, 아가리무늬토기 등이 유행하는데, 이러한 유물의 조합상은 러시아 연해주 아무르강 유역에서 중국의 동북지방, 한반도, 일본의 큐슈지역에 걸친 동북아시아 초기 신석기문화 단계의 공통된 특징이며,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토기도 이와 같은 전통의 산물로 생각되고 있다.

선사시대 토기 제작기술의 정착과 확산

빗살무늬토기

지금으로부터 1만년을 전후한 시점에 원시무문토기가 등장한 이후 남해안과 동해안 일대에서 덧무늬토기와 같은 이른 시기의 토기가 제작되고 사용되었으나 기원전 4,000년경에는 다양한 형태의 빗살무늬토기가 한반도 전역에 걸쳐 유행한다. 이는 한반도에서 토기의 제작과 사용이 본격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빗살무늬토기란 토기의 겉면에 빗 같은 도구로 찍거나 그어서 만든 점, 선, 원 등의 기하학적인 무늬를 배합하여 장식한 한반도 신석기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이다. 토기의 형태는 깊은 바리 모양이 주를 이루며, 바닥은 계란처럼 뾰족한 것과 납작한 것이 있다. 빗살무늬토기라는 용어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밑이 뾰족하고 빗살무늬가 새겨진 특정 토기만을 지칭하였으나, 현재는 원시무문토기와 덧무늬토기 등 신석기시대 초기 토기를 제외한 다양한 형태의 신석기시대 토기에 대한 통칭으로 사용된다.

빗살무늬토기라는 용어는 20세기 초 북방 유라시아의 캄케라믹

Kammkeramik을 번역하여 쓴 것이다. 캄케라믹이란 빗(kamm : 영어의 comb)과 도기(keramik : 영어의 ceramic)가 합쳐진 말로 북유럽의 선사시대에 유행한 밑이 뾰족한 깊은 바리 모양의 토기에 빗살로 찍어 무늬를 새긴 토기를 말한다. 일제시기에 일본인 학자들은 한반도에서 출토된 선사시대의 토기가 이와 유사하다고 보아 즐목문토기(櫛目文土器)라고 불렀으며, 이후 일본식 표현을 고쳐 즐문토기(櫛文土器)라고 불리게 되었다. 아울러 빗살무늬토기는 북유럽의 캄케라믹이 시베리아를 거쳐 한반도로 전파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이러한 생각은 20세기 중반 이후까지 계속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문화의 변화를 전파론적 시각으로 이해하던 단순한 논리로 많은 반론이 제기되었다.

북유럽과 한반도 사이의 넓은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토기가 별로 확인되지 않아 자세한 전파경로를 상정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이 제기되었다. 이후 한반도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의 빗살무늬토기들이 발굴되고, 빗살무늬토기보다 이른 단계인 덧무늬토기와 아가리무늬토기 등이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 성과에 힘입어 빗살무늬토기가 북유럽에서 전파되었다는 학설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한반도 신석기시대 초기의 토기 제작 전통을 바탕으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빗살무늬토기는 주로 석영이나 운모가 섞인 사질점토를 바탕흙으로 제작하였으며, 지역에 따라 조갯가루나 석면, 활석, 장석 등을 보강제로 사용하기도 한다. 서리기법이나 테쌓기법으로 성형하였는데, 뾰족 밑 토기는 그릇을 얹어놓은 형태로 아가리부터 만든 후 바닥을 마무리하였으며, 납작 밑 토기는 바닥을 만들고 그 위에 점토 띠를 쌓아올려 만들었다. 납작 밑 토기의 경우 바닥에 나뭇잎 모양이 찍혀 있는 점으로 보아 토기를 만들 때 편평한 바닥에 나뭇잎 등을 놓고 그 위에서 토기를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토기의 표면



에는 뾰나 나무 또는 석재 도구를 사용해 정면하고 문양을 새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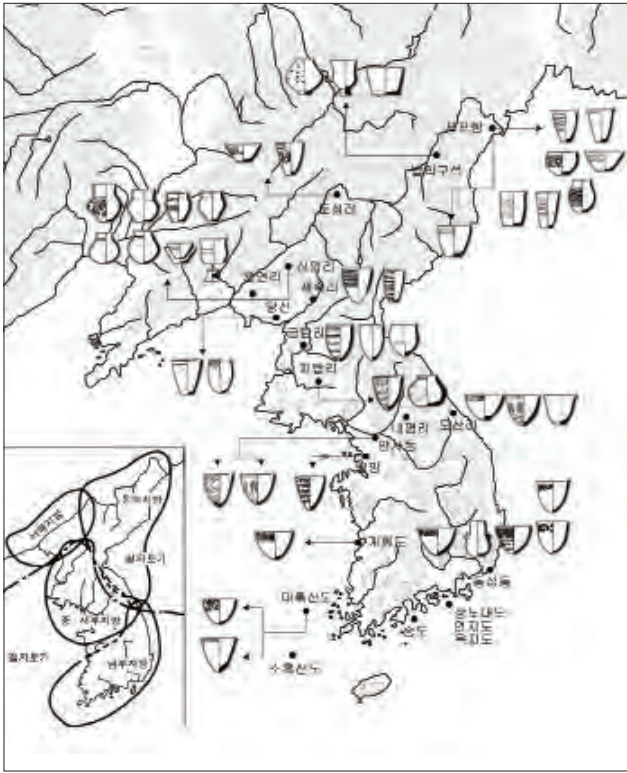
아가리 쪽은 빗살과 같이 이빨이 여러 개 달린 도구를 비스듬히 눕혀서 짧은 점줄무늬(点列文)를 새기거나 이빨이 하나인 도구로 짧은 빗금을 연속적으로 새기는 예가 많다. 몸통에는 생선뼈무늬를 가로나 세로 방향으로 새기는데, 이빨이 여러 개인 도구와 하나인 도구가 함께 사용된다. 뾰족한 바닥은 밑을 향하여 짧은 빗금을 방사상으로 새겨 넣었는데, 대체로 뾰족 밑 토기는 얹어놓은 채로 무늬를 새긴 것으로 보인다. 무늬를 새기는 방법도 다양하여 눌러 긁기와 찌르기, 훑기 등 여러 가지가 사용되었다.

일부 지역에서 토기를 굽던 시설이 확인되었다는 보고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확실한 형태의 가마 시설은 밝혀진 것이 없다. 청동기 시대의 토기 소성 시설 형태와 비교한 실험적 분석 결과를 통해 볼 때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는 얇은 구덩이를 판 노천요에서 구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바탕흙에 대한 암석학적 분석 결과 빗살무늬

빗살무늬토기 각종

서울 암사동유적에서 출토된 전형적인 중서부지방의 빗살무늬토기로 바닥이 뾰족하다. 이른 시기의 빗살무늬토기는 아가리와 몸통, 바닥을 구분하여 각각 다른 무늬를 새겼는데, 부위별로 새기는 무늬가 서로 다르다. 시간에 흐름에 따라 바닥과 몸통의 순서로 무늬가 생략되며, 후기에는 아가리에만 무늬를 새기는데 무늬의 종류도 단순하고 퇴화된 형태가 많다.

높이(왼쪽) 25.87cm. (국립중앙박물관)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 분포도

빗살무늬토기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었는데, 신의주와 영덕을 잇는 선을 경계로 남서부 지역은 뽕족 밀 토기가 유행했고, 북동부 지역은 납작 밀 토기가 유행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모두 네 개의 지역으로 구분되어 서로 다른 토기를 사용하였다.

한영희, 『한국사』 한길사.

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그대로 먹을 경우 변비에 걸리는 등 소화하는 데 문제가 있으므로 빗살무늬토기에 담아 물과 함께 끓인 후 탄닌 성분을 우려내 제거한 후 먹었을 것이다. 그밖에 신석기시대의 집터에서는 곡물을 가는데 사용한 갈판과 갈돌이 많이 출토되는데, 이들 도구를 이용해 준비한 가루음식 역시 토기에 담아 끓여 먹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빗살무늬토기는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제작되는데, 크기는 신의주와 영덕을 잇는 선을 경계로 서남쪽은 뽕족 밀 토기, 동북쪽은 납작 밀 토기가 주를 이룬다. 좀 더 자세히 구분해 보면 동북지역과 서북지역, 중서부지역과 남부지역 등 네개 지역으로 구분된다. 서북지역은 청천강 이북에서 압록강 하류에 이르는 평안북도 일대에 해당하며, 납작 밀 토기가 주를 이룬다. 이른 시기에는 뽕족

토기는 대략 십씨 700도 안팎의 온도에서 소성되었으며,⁹ 토기질은 무르고 흡수성이 높다.

빗살무늬토기는 용량에 따라 소형(평균 4l), 중형(17l), 대형(56l)의 세 종류로 나뉘며, 소형과 중형은 음식물의 준비와 조리, 대형은 저장 기능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¹⁰ 빗살무늬토기는 화덕에 세워진 채로 출토된 예들이 있어 불을 피워 음식을 조리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암사동유적의 경우 빗살무늬토기를 이용해 도토리를 조리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토리는 짧은맛을 내는 탄닌 성



밑의 바리 모양 토기도 사용되지만 늦은 시기에는 목이 긴 항아리와 둥근 항아리, 바리, 보시기 등으로 다양해진다. 무늬는 생선뼈무늬와 빗금무늬, 덧무늬 등이 사용된다.

동북지역은 강원도 동해안과 함경남북도 지방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뽕족 밑 토기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납작 밑 바리모양의 토기가 주로 사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아가리나 몸통 위쪽에만 짧은 빗금무늬와 생선뼈무늬 등이 새겨있다. 후기에는 몸통에 평행선을 긋고 그 안쪽에만 무늬를 새긴 특징이 있으며 주로 번개무늬를 많이 새겼고, 이는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중서부지역은 대동강 유역의 평안남도와 예성강 유역의 황해도, 한강유역의 서울·경기 및 충청남북도 지방을 포함하는 넓은 지역으로 전형적인 뽕족 밑 빗살무늬토기가 유행한다. 토기 표면에는 점줄무늬, 손톱무늬爪文, 짧은 빗금무늬短斜線文, 문살무늬格子文, 생

동북지방 출토 빗살무늬토기 각종
신석기시대 동북지방에는 주로 납작 밑
토기가 유행하였으며, 그릇의 모양은 깊
은 바리 모양이나 납작한 사발모양이 많
다. 몸통에는 띠점무늬를 주로 새기되
만 후기에는 번개무늬를 새긴 토기가 특
징적이다. 사진은 함경북도 경성 원수대
조개무지유적에서 출토된 토기이다.
높이(좌) 8.3cm. (국립중앙박물관)



남부지방 출토 각종 빗살무늬토기
 신석기시대 초기 남해안지방에서는 덧
 무늬토기 등이 유행하지만 신석기시대
 전 기간 동안 남부지방에는 다양한 종
 류의 빗살무늬토기가 사용된다. 신석기
 시대 전기에서 중기 동안에는 중서부지
 방과 같은 뽕족 밑 빗살무늬토기가 유행
 하지만 후기에는 겹아가리토기나 붉
 은간토기, 귀땀토기 등 다른 지방과는
 다른 양식의 토기가 사용된다. 사진은
 남부지방 각지에서 출토된 토기들로 맨
 뒤 가운데의 토기는 높이가 28.4cm 이
 다.

(국립중앙박물관)

선뽕무늬魚骨文 등 다양한 무늬를 새기는데, 아가리와 몸통, 바닥
 등 부위별로 구분하여 무늬를 새기는 것이 특징이다.

남부지역은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북도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내륙
 지방보다는 해안지방에 유적이 많이 분포한다. 남부지역의 빗살무
 늬토기는 밑이 뽕족하거나 둥글며, 이른 시기에는 주로 아가리에만
 무늬를 새기다가 점차 몸통 전체에 무늬를 새긴 토기가 유행한다.
 늦은 시기가 되면 아가리에 입구가 달린 귀땀토기, 붉은 색을 칠한
 붉은간토기, 아가리를 두 겹으로 말은 겹아가리토기 등이 등장
 하는데, 이 역시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특징이다.

빗살무늬토기는 기원전 6천년 이후에 등장하여 기원전
 2,000~1,500년까지 사용되었는데,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변화한
 다. 전형적인 중서부지역의 뽕족 밑 빗살무늬토기는, 아가리와 몸



신석기시대 최말기 빗살무늬토기
 청동기시대 민무늬토기의 특징적인 요소가 나타나는데, 모래가 많이 섞인 점토질 바탕흙이나 간소화되거나 퇴화된 무늬, 아가리에 구멍띠 장식 등과 함께 겹아가리토기 등이 새롭게 등장한다. 사진은 인천시 용유도유적에서 출토된 빗살무늬토기로 아가리에는 청동기시대 민무늬토기의 특징적인 장식인 구멍띠장식이 새겨져 있으며, 몸통 상부에는 퇴화된 빗살무늬가 새겨져 있다. 높이 27.2cm, (서울대학교박물관)

통·바닥을 구분하여 각각 서로 다른 종류의 문양을 시문하는 구분문계와 토기 전면에 동일한 문양을 시문하는 동일문계 토기로 구분한다. 두 경우 모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저부에서부터 시문 범위가 점차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며 변화한다.¹¹⁾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하여 빗살무늬토기를 중심으로 신석기시대 문화를 전기(기원전 4,000년 이전)와 중기(기원전 4,000~3,000년), 후기(기원전 3,000~1,500년)의 세 시기로 구분한다. 전기는 전형적인 뽕족 밑 빗살무늬토기가 확대되기 이전 단계로 납작 밑 토기가 주를 이루며, 지자문토기·덧무늬토기·아가리무늬토기 등이 함께 유행한다. 중기는 한반도 전역에 걸쳐 뽕족 밑 빗살무늬토기가 확산되지만 동북지역에서는 납작 밑 토기가 여전히 사용된다. 후기는 뽕족 밑 빗살무늬토기의 문양이 조잡해지고, 무늬가 없거나 아가

리에만 무늬를 새기는 토기가 증가하며, 동북지역에는 번개문토기, 남해안지역에서는 겹아가리토기가 유행하기도 한다.

한반도의 빗살무늬토기와 비슷한 토기는 중국 동북지방과 러시아 연해주지역에서도 출토되는데, 동북아시아지역의 신석기시대 토기와 일정한 관계를 가지며 변화·발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전형적인 뽕족 밑 빗살무늬토기는 일본 죠몬시대의 소바다식토기(曾畑式土器)의 성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¹³

민무늬토기

신석기시대 말엽에는 석영계의 모래가 섞인 점토질 바탕흙으로 만든 무늬 없는 토기 또는 퇴화된 무늬의 토기가 증가하며, 이는 청동기시대 민무늬토기(無文土器)의 제작으로 이어지는 특징이다. 과거 신석기시대 말기에 민무늬토기라는 새로운 제작 전통을 가진 집단이 이주해 와서 청동기문화를 형성하였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빗살무늬토기에서 민무늬토기로의 전환과정을 내부적인 발전의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무늬토기는 빗살무늬토기에 비해 훨씬 더 단단하고 흡수율이 낮으며, 지역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훨씬 정형화된 토기양식들과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존재한다. 또한 유적에서 출토되는 양이 증가하여 한층 더 발전된 양상을 보인다.

빗살무늬토기에는 정교한 무늬를 새기는 것이 특징이지만 신석기시대 후기에는 아가리에만 무늬를 새겼으며, 청동기시대에는 민무늬토기에 무늬를 새기지 않았다. 형태상으로만 보면 빗살무늬토기보다 조잡하게 보이는데, 이러한 변화는 토기의 사용이 확산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신석기시대에는 토기의 제작과 사용이



보편적이지 않았던 반면 청동기시대에는 토기의 보급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장식이 사라지고 기능적인 요소가 강조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빗살무늬토기를 사용하던 신석기시대에 토기 제작 기술이 정착 단계를 거친 후, 민무늬토기가 사용되는 청동기시대에는 선사시대 토기 제작기술이 확산되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민무늬토기의 바탕흙은 점토에 비교적 입자가 굵은 석영계 모래 알갱이를 보강제로 사용하여 표면은 다소 거친 느낌을 준다. 민무늬토기 역시 서리거나 테쌓기 방법으로 성형하였으나, 표면에는 무늬를 새기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무늬토기는 밀폐된 가마가 아닌 개방된 야외가마에서 소성하였으며, 소성 온도는 섭씨 900도 정도로 추정되는데, 실험에 의하면 최고 870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¹⁴

청동기시대 구덩식가마
청동기시대에는 야외의 개방식 가마가 사용되지만 얇은 구덩이를 파고 만든 구덩식 가마가 사용되었다. 사진은 남강댐 수몰지구에서 발굴된 진주 대평리 옥방 9지구유적에서 발굴된 청동기시대 가마터이다. 구덩이 주변은 여러 번 불을 맞아 단단하게 굳어 있었으며, 내부에서는 토기 조각이 여러 겹 깔려있는 점으로 보아 오랫동안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덧띠새김무늬토기

바닥이 납작한 깊은 바리 모양의 토기로 아가리에 한 줄의 덧띠를 돌려 붙이고, 손으로 눌러 요철을 만든 후 날카로운 도구로 눈을 새겼다. 이러한 토기는 1991년 하남시 미사리유적에서 처음 확인되어 미사리식토기라고도 불리는 데, 청동기 가장 이른 시기의 토기이다. 진주 상촌리유적 2호 집터에서 출토되었으며, 높이는 36.6cm이다.

(국립김해박물관)

3~4cm 두께의 점토를 바르고 소성하는 덮개형 가마가 주를 이룬다.¹⁵ 이러한 소성 기법은 소성시 내부의 온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신석기시대에 비해서 토기 제작기술이 한 단계 발전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민무늬토기 역시 일상생활에서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운반 또는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붉은간토기(赤色磨研土器)를 비롯한 일부는 무덤에 부장되기도 하며, 중기에 이르러 새롭게 등장하는 송국리식토기는 생활용기인 동시에 독널(甗)로 사용되기도 하여 빗살무늬토기에 비해 토기의 기능이 다양하게 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문화는 민무늬토기의 등장, 본격적인 마제석기의 사용, 농경의 시작과 사회복합도의 증가로 정의되며, 청동기시대 후반에 들어서야 청동기의 사용이 본격화된다.

신석기시대와는 달리 최근 민무늬토기를 소성하던 소성 시설이 남한 전역에 걸쳐 발굴되고 있는데, 천정이 없는 개방형 구조의 가마이다. 확인된 가마의 구조는 모두 구덩식으로 길이가 4m, 폭 3m 이내의 원형 또는 타원형이며, 예외적으로 길이가 5m를 넘는 경우도 있다. 청동기시대 전기에는 구덩식 가마에 토기와 연료를 쌓고 바로 소성하는 개방형이 주를 이루지만 중기 이후에는 토기와 연료를 쌓고 짚을 덮은 후 그 위에

과거 한반도에서 청동기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은 청동기의 기원을 오르도스 지방으로 보아 기원전 7세기, 또는 중국 랴오닝성遼寧省 남산건南山根유적의 청동단검을 근거로 기원전 10세기로 편년하였다. 그러나 최근 한반도 남부에서 민무늬토기와 관련된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값이 증가함에 따라 청동기시대의 상한이 기원전 15세기까지 소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늦어도 기원전 13세기경에는 청동기시대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¹⁶ 따라서 한반도의 청동기시대를 민무늬토기시대라고 부르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민무늬토기는 덧띠새김무늬토기刻目突帶文土器로 아가리나 바로 아래 한줄의 점토 띠를 돌리고 그 위를 일정한 간격으로 눌러 눈을 새긴 것으로, 바닥이 둥글거나 납작한 바리모양의 토기이다. 덧띠새김무늬토기는 제작기법이나 형태적 특징 등이 신석기시대 말기의 토기와 일정 부분 같고, 지역에 따라서는 신석기시대 말기의 유물 및 청동기시대 전기의 토기와 함께 출토되기도 한다. 덧띠새김무늬토기는 한반도 중남부지역에서 주로 출토되지만 서북지방과 동북지방에서도 출토되며, 유사한 형태의 토기가 중국의 랴오둥遼東지방에서도 출토되고 있어 그 관련성이 지적되고 있다.¹⁷ 유구의 중복관계와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값에 의하면 덧띠새김무늬토기는 기원전 15세기경에는 등장하였으며,¹⁸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민무늬토기가 등장하기 이전 덧띠새김무늬토기가 주로 사용된 시기를 청동기시대 초기早期라고 부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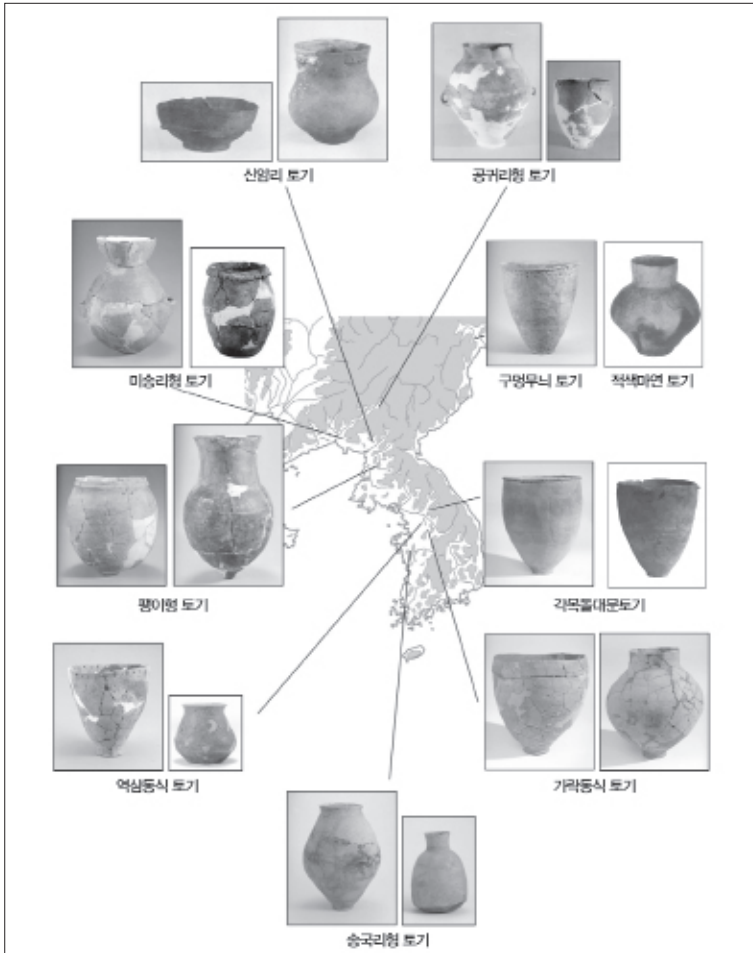
대략 기원전 13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민무늬토기가 제작된다. 민무늬토기는 무늬가 없는 바리나 향아리 또는 굽접시 등의 청동기시대 토기를 통칭하는 용어로서 크게 보아 빗살무늬토기와는 다른 제작 전통을 공유하지만 지역적·시간적으로 다양한 양식의 토기들

이 존재한다. 요동지방과 청천강 이북의 서북지방 일대는 미송리형 토기, 압록강중류 유역에는 공귀리식토기, 동북지방의 두만강유역에는 구멍띠토기孔列土器, 청천강 이남의 황해도 일원에는 팽이형토기 등이 유행한다. 한반도 남부지역에는 동북지방의 구멍띠토기의 영향을 받은 역삼동식토기와 청천강 이남의 팽이형토기의 영향을 받은 가락동식토기가 유행하다가 이 두 유형의 토기양식이 결합된 구멍띠토기가 남부지역 전역에 걸쳐 확산된다.

기원전 900년경 충청도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송국리식토기가 등장하는데,¹⁹ 대소의 차이가 있지만 항아리 모양의 토기가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기존의 민무늬토기들과는 뚜렷이 구분된다. 또한 송국리식토기는 기존의 긴 장방형 주거지와는 달리 원형 또는 방형 주거지에서 출토되며, 논농사가 본격적으로 행해지는 등 이전 시기와는 다른 문화내용을 보이고 있어서 이를 기점으로 청동기시대 후기 또는 송국리유형문화로 구분한다.

청동기시대에는 민무늬토기의 거친 바탕흙과는 달리 매우 정선된 바탕흙으로 만든 기벽이 얇은 붉은간토기가 제작된다. 붉은간토기는 홍도紅陶 또는 적색마연토기赤色磨研土器라고도 부르는데, 소성 전이나 후에 산화철을 바르고 문질러서 광택을 낸 것으로 주로 한반도 남부지방에서 유행했다. 붉은간토기는 목이 짧은 소형의 항아리와 굽접시가 주를 이루는데, 주거지에서도 출토되지만 무덤에 부장된 경우가 많다.

한반도의 민무늬토기는 일본의 야요이토기彌生土器의 성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일본 야요이시대 조기의 대표적인 토기인 유우스식토기夜白式土器는 한반도 청동기시대 조기의 덧띠새김 무늬토기의 영향으로 등장하였으며, 이어 역삼동식토기와 송국리식토기에 이르기까지 각각 일본 야요이토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²⁰



민무늬토기 분포도

청동기시대 민무늬토기는 전체적으로 보아 깊은 바리와 단지가 주종을 이루지만 지역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토기가 사용된다. 토기의 지역적 차이는 신석기시대에 비해 훨씬 강하며, 이는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한 결과로 생각된다. 각 지역의 토기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특징적인 요소들이 서로 섞이기도 하는데, 이는 지역 간 교류의 결과로 생각된다.

구멍띠토기 (아래 왼쪽)

청동기시대 전기 남한지방 전역에 걸쳐 사용된 대표적인 민무늬토기이다. 아가리에는 한 줄의 구멍 띠 장식을 새긴 것이 특징이다. 구멍은 안에서 바깥 방향으로 절반만 뚫어 밖에서 보면 콩알처럼 튀어나온 장식처럼 보이도록 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사용과정이나 퇴적과정에서 파손되어 구멍처럼 보인다. 하남시 미사리유적에서 출토된 것으로 높이는 35.0cm이다.

가락동식토기 (아래 오른쪽)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에서 출토되어 가락동식토기라고 불리는 토기로 청천강 이남지방의 팽이형토기와 동북지방의 구멍띠토기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아가리는 서북지방에서 보이는 겹아가리 형태이고, 겹아가리 아래쪽에는 빗금을 그어 장식하였다. 높이 36.8cm.





송국리식토기 (왼쪽)

청동기시대 전기에 유행한 구멍띠토기는 대부분 바리모양인데 비해 청동기시대 후기에는 단지모양의 토기가 많이 사용된다. 이 단지 모양의 토기는 충남 부여 송국리유적에서 처음 출토되어 송국리식토기라고 명명되었다. 청동기시대 전기의 구멍띠토기 사용자들은 장방형의 집터에서 살았던 반면에 후기의 송국리식토기 사용자들은 방형이나 원형 집터에서 생활하였으며, 이 시기에는 농촌사가 본격화 되었다.

높이(왼쪽) 26.7cm, (국립중앙박물관)

동북지방의 민무늬토기 (오른쪽)

청동기시대 동북지방에는 구멍띠토기와 붉은간토기가 유행하는 것이 특징이지만 장식이 없는 민무늬토기 바리도 많이 사용된다. 토기의 전면을 문질러 광택을 낸 것들이 많으며, 아가리 밑에 나무그루터기 모양의 손잡이를 한 쌍씩 부착한 것도 이 지역의 특징이다.

높이(왼쪽) 18.8cm, (국립중앙박물관)

중국 전국시대의 혼란을 계기로 기원전 300년경 연燕나라의 주조철기鑄造鐵器가 한반도 서북지방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며, 한반도 고고학에서는 이때부터를 초기 철기시대로 구분한다. 그러나 철기의 유입을 제외하면 청동기가 많이 사용되는 등 물질 문화 면에서 청동기시대와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시기의 토기 역시 청동기시대의 민무늬토기와 동일한 제작전통을 보이는데, 바리모양 토기의 아가리에 점토 띠를 부착한 덧띠토기粘土帶土器가 대표적이다. 덧띠토기는 민무늬토기와 마찬가지로 점토에 석영계 모래를 섞은 바탕흙을 사용해 제작하였으며, 테쌓기나 서리기 방법으로 성형하였다. 덮개식의 구덩가마에서 소성하였으나 이전 시기에 비해 규모가 크고, 길이가 10m에 달하는 것도 있다.²¹

청동기시대에는 다양한 양식의 토기가 유행한 것과는 달리 덧띠토기는 한반도 남부지역 전역에 걸쳐 유행한다. 구연부에 부착된 점토 띠의 단면 형태에 따라 원형덧띠토기와 삼각형덧띠토기로 구분되며, 전자에서 후자로 변화된다. 덧띠토기의 등장은 기원전 300년경 연나라의 고조선 침입으로 인한 고조선계 유이민의 집단이주와 관계된 것으로 생각되며, 호서지역과 호남지역에서는 기원전 2세기 초에 소멸되고, 영남지역의 경우에는 기원전 1세기 대에 이르러 회색의 와질토기瓦質土器로 대체된다.²²



덧띠토기

기원전 300년경 중국으로부터 철기문 화가 전해지는데, 한반도 남부에서는 덧띠토기가 유행한다. 덧띠토기는 아가리에 점토 띠를 덧붙인 것이 특징이다. 점토 띠의 단면이 원형인 것이 먼저 등장하고 삼각형인 것이 나중에 사용된다. 단면원형의 덧띠토기는 검은간토기 긴목항아리와 함께 무덤에 부장되기도 하는데, 한국식동검이라 불리는 좁은놋 단검(細形銅劍) 등도 같이 부장되는 예가 많다. 왼쪽의 토기는 대전 괴정동 무덤에서 출토된 것이고, 오른쪽은 청주 비하동무덤에서 출토된 것이다.

높이(왼쪽) 17.0cm, (국립중앙박물관)



굽접시

광주 신창동 유적의 저습지에서 출토된 것으로 나지막한 접시에 높은 굽이 달린 모양이다. 굽접시는 청동기시대 전기에 붉은간토기로 제작되기도 하지만 초기 철기시대 이후에 유행하는 새로운 그릇이다. 신창동 유적에서는 철기로 제작된 목제 굽접시도 함께 출토되었는데, 형태상 제사용 그릇으로 생각된다.

높이 30.0cm, (국립중앙박물관)

숫자상으로는 적지만 바리 모양의 전형적인 덧띠토기와 함께 항아리와 굽접시, 손잡이가 달린 토기 등도 함께 제작된다. 덧띠토기는 주거지에서 주로 출토되지만 한국식동검이나 청동거울, 옥 등과 함께 무덤에 부장되기도 했다. 또한 이 시기 시루가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새로운 조리방법의 등장과 함께 토기의 기능이 보다 분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밖에 청동기시대 붉은간토기에 대비되는 흑도黑陶 또는 흑색마연토기黑色磨研土器라고도 불리는 검은간토기가 유행한다. 고운 바탕흙으로 만든 검은간토기는 기벽이 얇으며, 표면에는 흑연을 발라 마연하여 광택을 낸 토기로 목이 긴 항아리가 대표적인데 주로 원형덧띠토기, 한국식동검과 함께 무덤에 부장되었다.

선사시대 토기의 기능

일반적으로 토기의 기능은 그릇으로서의 기능이다. 토기가 사용되기 이전에도 식물 줄기를 엮어서 만든 바구니나,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용기는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도구에 비해 깨어지기 쉽고, 무거워서 운반도 어려운 토기가 그릇의 기능을 한 것은 신석기시대의 도래와 관련이 있다.

빙하기가 물러가고 기후가 따뜻해지자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만 했다. 500만여 년에 걸친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고 정착 생활을 시작했으며,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기 시작했다. 아울러 구석기시대의 쥘석기(打製石器)와 더불어 새롭게 개발된 간석기(磨製石器)를 사용하여 정교한 작업이 가능해졌다. 농경의 시작과 정착생활로의 변화는 무겁고 깨어지기 쉬워 장거리 운반이 어려운 토기의 단점이 더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제 인류는 토기를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여 담아 먹으며, 남은 음식을 저장하거나 짧은 거리를 운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음식을 조리하는 기능은 다른 도구로는 불가능하여 토기만의 장점이 되었다. 물론 구석기시대에도 사냥한 짐승고기를 익혀 먹을



집터 내부의 화덕과 토기
 진주 대평리 어은 1지구유적의 92호
 집터(청동기시대) 내부의 화덕이다. 신
 석기시대부터 집터 내부에는 화덕이 설
 치되었으며, 형태는 돌을 돌려 만든 것
 과 아무런 시설 없이 땅을 약간 파고 만
 든 것 등 다양하다. 화덕 내부에는 작은
 돌들과 함께 토기를 세워둔 예가 많은
 데, 화덕에 바닥이 뾰족한 토기를 세워
 놓고 조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의 부뚜막과 같은 아궁이 시설은 초기
 철기시대 이후에 주로 사용된다.
 (동아대학교 박물관)

수 있었지만, 신석기시대에는 토기를 사용하여 곡물을 끓여 먹을 수 있게 되었으며, 끓인 음식은 소화가 쉬워 영양섭취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한편, 변형이 쉬워서 원하는 형태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점토의 성질 이용해 다양한 물건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아주 오랜 기간 자연에 적응하며 살아온 인류는 각종 자연재해를 경험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상징물이 필요했을 것이다. 또는 사냥과 농사, 후손의 번창을 기원하기 위한 상징물도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한 정신활동의 대표적인 예로 유럽의 후기구석기시대 동굴벽화를 들 수 있다. 또한 인류 최초의 토기 역시 그릇이 아니라 여성 상像이라는 점도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해 준다. 물론 토기를 발명하기 이전에도 돌을 이용해 가슴과 엉덩이가 강조된 여성 상을 만드는 등 상징물 제작이 이루어졌지만 토기가 발명됨으로써 훨씬 더 쉽게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토기의 기능은 일반적인 그릇으로서의 기능과 상징물로서의 기능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그릇으로서의 기능은 토기의 주된 기능인데, 선사시대 그릇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추론하기는 쉽지 않다. 선사시대 토기의 기능을 알아내기 위해서 학자들은 토기 안팎에 남아있는 사용 흔적을 분석한다. 음식을 끓이는 데 사용한 토기의 표면에는 그을음이나 끓어 넘친 음식물의 흔적이 남게 되고, 그릇 안쪽에는 음식물이 끓으면서 거품이 엉겨 붙은 흔적이 남게 된다. 최근에는 토기 안쪽에 남아있는 미세한 유기물의 흔적에서 단백질을 추출하여 어떤 종류의 음식을 조리했는지 분석하기도 한다.

토기의 기능을 추론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토기의 형태를 분석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능에 적합하도록 그릇을 만들기 때문에 형태는 기능을 반영하게 된다. 즉, 밑이 뾰족하거나 둥글고 아가리가 넓은 그릇은 음식을 끓이는 데 적합한 반면, 바닥이 둥근 것은 열과 접촉하는 면적이 넓어서 열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가리가 좁고 목이 긴 모양의 그릇은 액체를 담아서 운반하는 데 유리하며, 아가리가 넓고 납작한 그릇은 음식을 담아먹는 데 적합하다. 또한 어깨가 넓고 키가 큰 그릇은 저장에 적합하다. 그러나 형태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토기의 구체적 기능을 추론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체적인 기능만을 추론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자들이 토기의 이름을 지을 때 기능과 관련해 물병, 술병, 밥그릇, 국그릇, 김칫독, 간장독 등과 같이 구체적인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바리, 독, 항아리, 단지, 병, 사발, 보시기, 자배기, 접시, 솥 등과 같은 명칭은 그릇의 기능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기능을 확실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특징적인 모양을 참고하여 굽접시(高杯 또는 豆形土器) 등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게 된다.

한반도 신석기시대의 토기는 대체로 바리 모양의 그릇이다. 물론 신석기시대 후기에는 일부 지역에서 목이 달린 항아리나 자배기 등



토기를 이용한 밥 짓기 (위)

선사시대의 뽕죽 및 토기를 제작하여 실험적으로 밥을 짓는 모습이다. 선사 시대의 토기는 처음 제작하였을 당시 흡수율이 낮고 단단하여 조리에 사용할 수 있다. 청동기시대 이후에는 유적에서 쌀, 보리, 조, 콩, 수수, 기장 등 다양한 곡물이 출토되고 있으며, 토기를 이용해 조리를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북천박물관)

덧띠토기 시루 (아래)

광주 신창동유적의 저습지에서 출토된 것으로 이종의 겹아가리 아래에 한 쌍의 쇠뿔모양 손잡이가 달려있고, 바닥에는 구멍이 뚫려 있다.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시루가 사용되는 것은 초기 철기시대의 일인데, 이때부터 음식물을 찌서 익히는 조리법이 유행하게 되었다.

높이 21.7cm. (국립중앙박물관)



새로운 모양의 그릇이 사용되지만 대체로 바리 모양 그릇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바닥의 모양은 뽕죽한 것과 납작한 것으로 구분되지만, 납작한 바닥의 토기도 아가리에 비해 바닥이 매우 좁아서 뽕죽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전형적인 빗살무늬토기의 경우 크기에 따라 대·중·소형으로 구분하는데, 소형은 평균 4l, 중형은 평균 17l, 대형은 평균 56l가량으로 나누고 있다. 이 중 대형은 저장용으로 생각되고, 중형은 조리용, 소형은 음식을 담아 먹는 배식용으로 추정된다.

사냥과 물고기잡이 외에도 신석기시대에는 초보적인 작물 재배를 시작했으므로 토기를 이용해 조리한 재료는 식물의 열매나 곡물

로 추정된다. 실제로 한강변의 암사동과 미사리유적 등지에서는 많은 양의 도토리가 출토되며, 빗살무늬토기를 이용해 끓여 먹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도토리 외에도 여러 유적에서 조, 피, 기장 등의 곡물이 출토되고 있어서 다양한 곡물의 씨앗을 조리해 먹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곡물은 난알 그대로 끓여 먹었을 수도 있겠으나 집터에서 많은 수의 갈판이 출토되는 점으로 미루어 곡물을 가루로 만들어 끓여 먹었을 가능성이 크다.

청동기시대의 민무늬토기는 훨씬 다양한 모양으로 제작된다. 청동기시대 초기의 덧



띠새김무늬토기는 단순한 바리 모양이지만 전기 이후에는 다양한 형태의 그릇이 등장한다. 청동기시대에 들어와서 새롭게 등장하는 그릇으로는 목이 달린 항아리와 굽접시, 뚜껑 등과 손잡이가 달린 토기, 귀대(注口)가 달린 토기 등이 대표적이지만, 크기에 있어서도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그릇의 기능이 이전시기에 비해 훨씬 다양해졌음을 의미하며, 음식물의 조리법에도 변화가 있었음을 뜻한다. 실제로 초기 철기시대에는 시루가 처음으로 나타나는데, 이 시기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찌서 익혀 먹는 새로운 조리법이 채택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토기는 생활용기 외에 의례용으로도 사용된다. 신석기시대에는 의례용 토기를 구분하기 어렵지만 청동기시대가 되면 무덤에 부장되는 토기가 등장한다. 청동기시대 전기에는 붉은간토기가 고인돌 등의 무덤에서 출토된다. 붉은간토기는 일반적인 민무늬토기보다 아주 고운 바탕흙을 사용했으며, 두께도 훨씬 얇다. 토기의 표

민무늬토기 저장용 항아리
강릉 교항리유적에서 출토된 청동기시대 단지 모양의 토기로 아가리에는 깨어진 바닥을 재사용한 뚜껑이 덮여 있다. 청동기시대 집터에서는 항아리나 단지에 곡물이 담긴 채로 출토되는 예가 많은데, 집터 내부의 저장용 토기는 비교적 작은 크기이다. 한편 집터 바깥에 별도의 구덩이를 파서 만든 저장시설도 많이 확인된다.
높이 34.0cm. (북천박물관)



선사시대의 특수한 토기들

청동기시대에는 일반적인 민무늬토기에 비해 정교하게 제작된 토기들도 사용되었는데, 매우 정선된 바탕흙을 사용하였으며, 표면에 산화철이나 흑연을 바르고 문질러서 붉은색 또는 검은색의 광택을 내었다. 이러한 특수 토기들은 집터에서 출토되기도 하지만 무덤에서 출토되는 예가 많아 부장용이나 의례용으로 사용된 것이라 생각된다. 왼쪽은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품(높이 12.4cm)이고, 가운데는 경북대학교박물관 소장품(높이 16.3cm)이며, 오른쪽은 대전 괴정동의 초기 철기시대 무덤에서 출토된 것이다.

면에는 산화철 계통의 안료를 바르고 문질러서 광택을 내었는데, 형태는 항아리와 굽접시의 두 종류가 있다. 또한 초기 철기시대에는 덧띠토기와는 제작 전통이 다른 검은간토기가 사용되는데, 역시 고운 바탕흙을 사용해 얇게 만들었으며, 표면에는 흑연을 바르고 문질러서 광택을 내었다. 검은간토기는 목이 긴 항아리가 일반적이지만, 청동기시대 붉은간토기와 마찬가지로 무덤에서 주로 출토된다. 청동기시대의 붉은간토기는 집터에서 출토되기도 하지만 초기 철기시대의 검은간토기는 거의 무덤에서 출토되며, 덧띠토기 바리와 청동단검, 옥 등과 함께 묻은 예가 많다.

이러한 토기는 죽은 자를 위해 무덤에 묻어주는 특수 기능의 토기가 별도로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밖에 부장용은 아니지만 굽접시는 형태상의 특징으로 보아 제사용 토기로 생각된다. 또, 붉은간토기 항아리와 같은 형태에 가지 모양의 장식이 채색된 토기 역시 의례용 토기로 생각된다.

토기는 일반적인 그릇의 기능으로 사용되었지만 독널로 사용된 예도 있다. 1996년 남강댐 건설중에 조사된 진주시 상촌리유적에서는 많은 수의 신석기시대 집터와 빗살무늬토기가 발굴되었다. 이 중 기원전 3,000년경으로 추정되는 집터의 한쪽 모서리에는 빗살무늬토기가 내부에 사람의 뼈가 들어 있는 채로 묻혀 있었다. 이는

토기를 널로 사용한 최초의 사례이다. 독널은 모두 두 점이 발굴되었는데, 아가리에는 빗살무늬가 새겨져 있었으며, 두 점 모두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 큰 토기의 경우 높이는 40cm, 아가리 폭은 38cm가량으로 중형의 빗살무늬토기이다. 더욱 놀라운 점은 토기 내부에 묻힌 사람의 뼈가 화장(火葬)을 한 것이라는 점이다.²³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을 화장하는 것은 불교가 전래된 이후의 일로 생각해 왔으나 이미 신석기시대에 시작된 것이다. 상촌리유적의 독널은 토기에 시신을 안치하여 매장한 최초의 사례이며, 선사시대 사람들의 사후세계에 대한 인식의 일면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살아 있을 당시에 사용하던 토기를 죽은 후의 매장에도 사용했다는 것은 토기가 사람의 일상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청동기시대에도 토기를 독널로도 사용하였다.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를 보면 청동기시대의 독널은 주로 호서지역에서 확인되는데, 송국리형토기를 독널로 사용하였다. 전라북도 익산 석천리유적에서 출토된 독널은 바닥이 좁고 몸통이 불룩하며, 좁은 목과 짧은 아가리가 달린 전형적인 송국리식토기이다. 독널로 사용된 토기의 바닥에는 구멍을 뚫었는데, 제작 후에 구멍을 뚫은 점으로 보아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던 토기를 독널로 재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독널을 묻기 위해서 먼저 수직으로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독널을 세워서 시신을 매장하고 아가리에 돌뚜껑을 덮은 후 흙으로 덮어 마감하였다.²⁴ 독널로 사용된 토기의 높이는 53cm 가량 되는데, 다른 유적에서는 이보다 큰 독널이 발굴되기도 한다. 독널의 전통은 초기 철기시대에도 계속되는데, 광주 신창리에서는 두 개의 항아리를 아가리를 맞댄 채 눕혀서 묻은 독널이 발굴되었다. 독널로 사용된 토기는 목이 달린 길쭉한 몸통의 항아리로 몸통에는 쇠뿔손잡이(牛角形把手)가 달린 것이 많다. 독널의 크기는 두 개를 합쳐도

복원된 청동기시대 독널

청동기시대 후기의 송국리식토기를 사용해 만든 독널무덤을 복원한 모습이다. 땅을 수직으로 파고 납작한 돌을 놓고 독널을 세운 후 다시 두 장의 돌을 덮어 마무리한 모습이다. 토기의 바닥에는 구멍이 뚫려 있는데, 선사시대의 독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이다.

높이(오른쪽) 53.0cm, (국립중앙박물관)



초기철기시대 독널

광주 신창동유적에서 출토된 독널로 쇠뿔손잡이가 달린 두 개의 항아리를 맞대어 널로 사용하였다. 신창동 저습지 유적 뒤쪽 언덕에는 53기의 독널무덤이 조성되어 있는데, 선사시대의 독널무덤의 대부분이 집터 주변에서 1~2기씩 발견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크기로 보아 성인을 매장했다고 보기 어려우나 세골장이나 화장 등의 방식으로 성인을 매장했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집단 묘지라는 점에서 성인이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길이(오른쪽) 40.8cm, (국립중앙박물관)



70~80cm가량으로 작은 편이다. 한편 이러한 독널무덤의 전통은 삼국시대까지 계속되는데, 주로 영산강 유역에서 지배자들의 전용 독널무덤이 축조된다.

한편 독널은 크기가 작아서 시신을 매장하는 방식에 대해 여러 견해가 제시되었다. 그 중 하나는 선사시대의 독널은 유아용이라는 것이다. 보통 독널의 크기는 성인 키의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유아용이라는 것이다. 또 독널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청동기시대 이후에는 고인돌이나 돌상자무덤(石棺墓) 등 주로 사용되는 무덤양식이 따로 있으며, 독널무덤이 주로 집터 근처에서 발굴되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진주 상촌리에서 출토된 신석기시대의 독널은 시신을 화장한 흔적이 있으므로 선사시대부터 화장을 하였다면 유아용이라는 가설은 근거가 없다. 또한 신창리유적에서처럼 독널무덤이 집단으로 발굴되는 예도 있는데, 이 역시 유아용 무덤으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선사시대에 유아용 무덤만을 집단으로 축조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화장 외에도 세골장(洗骨葬)도 유력한 가설 중의 하나이다. 세골장이란 사람이 죽은 후 시신을 일정 기간 임시로 매장하는 등으로 처리하였다가 나중에 뼈만 추려서 독널에 안치하는 방식이다. 백제시대의 예이기는 하지만 원주 범천리유적에서는 독널 안에 사람의 사지 뼈를 우물 정(井)자처럼 포개 놓은 후 그 위에 머리뼈를 올려놓고 매장한 독널이 발굴되기도 하였다.

오늘날 전라남도 진도에는 초분(草墳) 또는 초장(草葬)이라 불리는 세

흙으로 빚은 얼굴(왼쪽)
강원도 양양군 오산리유적에서 출토된 것으로 점토를 납작하게 빚은 후 손가락으로 눌러 얼굴을 표현하였다. 한반도에서 출토된 가장 오래된 토제 예술품 중의 하나이다.
높이 5.1cm, (서울대학교 박물관)

흙으로 빚은 여성 상(오른쪽)
울산광역시 신암리유적에서 출토된 신석기시대 흙으로 빚은 조각상이다. 얼굴과 사지가 없으나 가슴과 엉덩이가 강조된 점으로 보아 여성 상으로 보인다. 구석기시대 이래로 세계 각지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조각들이 출토되는데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높이 3.6cm, (국립전주박물관)

골장의 전통이 남아 있어 비교가 된다. 초분이란 사람이 죽으면 관에 넣어 집에서 가까운 밭이나 산기슭에 장소를 설치하여 짚으로 덮어두는 것을 말한다. 임시로 매장한 후 3년이 지나면 관을 열어 시신의 뼈만 추려서 칠성관에 올려놓고 본 장례를 치른다.

물론 수천 년 전의 독널무덤과 오늘날의 장례풍습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독널무덤이 주로 유행하는 지역이 영산강 유역의 전라남도 일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선사시대의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는 않다. 아무튼 신석기시대부터 토기를 독널로 사용하는 전통이 생겨 청동기시대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집터 근처에 매장된 한두 기의 독널무덤은 유아용일 가능성이 크지만, 집단으로 매장된 공동묘지에는 세골장 등의 형태로 성인용 독널무덤도 축조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밖에 점토를 빚어서 만든 얼굴 조각 토기 등이 발굴되기도 한다. 경북 울주군 신암리유적에서는 빗살무늬토기와 함께 여성 상이 출토되었으며, 함경북도 청진 농포리에서도 흙으로 빚은 여성 상이 출토되었다. 강원도 양양의 오산리유적에서도 점토로 만든 얼굴모양의 토기가 출토되었다. 또한 청동기시대에도 함경북도 무산 호곡동유적을 비롯한 여러 유적에서 사람이나 짐승 모양의 토우들이 출토되는데,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기 위해 사용된 상징물로 해석되고 있다.

선사시대 토기와 주민

신석기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발명된 토기는 기능적인 우수성 때문에 급속히 퍼져 나가게 되었다. 무겁고 깨어지기 쉬운 특성 때문에 제작과 폐기의 순환이 빨라 토기 제작기술은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발전하였다. 가까운 지역에는 비슷한 토기 제작기술이 공유되기도 하였지만 먼 거리로까지 이동되는 일은 드물었다. 따라서 토기는 공간적으로 제한된 지역에서 독자적인 특징을 공유하며 제작·사용되었다. 때문에 발굴된 토기를 분석하면 당시 사람들과 문화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실제로 남미의 안데스산맥 일대에서는 50년이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특정한 양식의 토기가 제작되어 일정한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가 소멸되는 일이 반복된 것으로 밝혀지는데, 이를 통해 문화의 변천 과정을 연구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의 변동과 주민의 변화를 토기를 통해 해석하려는 시도가 일찍부터 있었다. 20세기 초 일본인 학자들은 한강 남쪽에는 빗살무늬토기를 만들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며, 한강 북쪽에는 민무늬토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살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빗살무늬토기 사용자들은 강가에 살았고, 민무늬토기

사용자들은 내륙의 구릉지에 살았던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견해들은 나중에 빗살무늬토기는 신석기시대 주민의 산물이고, 민무늬토기는 청동기시대 사람들이 남긴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특정한 토기를 사용하던 사람들을 동일한 주민으로 해석하는 경향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나아가 새로운 토기의 등장을 새로운 주민집단이 이주해 온 결과로 해석하기도 한다.

특정한 토기와 주민집단을 연결시키는 해석은 종족교체설로 이어진다. 과거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주민 교체가 일어난 것은 구석기시대가 끝나고 신석기시대가 도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어 청동기시대의 시작도 역시 새로운 주민의 도래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즐문토기를 사용하던 신석기시대 주민들은 시베리아 일대에 퍼져 살고 있던 고아시아족의 한 부류이며, 민무늬토기를 사용하던 청동기시대 주민은 중국 동북지방에 살고 있던 통구스족의 일파라는 것이다.

즉, 중국 동북지방 일대에 살고 있던 통구스계 주민들이 고아시아족의 일족인 신석기시대 주민들을 흡수함으로써 한반도에 청동기시대가 시작되었으며, 이들은 민무늬토기를 사용하였는데 나중에 우리 민족의 연원인 예맥족(濊貊族)이 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설은 한동안 널리 받아들여져 국사 교과서에도 같은 내용이 실렸고, 우리 민족의 직접적인 조상은 청동기시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후 신석기시대 주민과 청동기시대 주민이 서로 다른 종족이지만 같은 고아시아족에서 기원한 종족으로 문화나 인종적인 갈등과 대립의 결과로 청동기시대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혼합과 동화의 과정을 겪은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 고아시아족이라는 종족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종족교체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반론이 제기되었다.²⁵ 또한 새로운 유적의 발굴조사가 증가되면서 신석기시대 최말기의 토기가 청동기시대 초기의 토기와 유사한 전통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종족교체설은 힘을 잃게 되었다. 특히 최근 10여 년 사이의 조사를 통해 덧띠새김무늬토기가 청동기시대 가장 오래된 토기이며, 제작기법이나 형태적인 면에서 신석기시대 최말기의 토기와 같은 전통을 기진 것으로 밝혀지면서 청동기시대 민무늬토기는 새로운 종족이 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빗살무늬토기가 변화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초기 철기시대의 시작과 더불어 유행하는 덧띠토기는 청동단검과 함께 무덤에서 출토되기도 하지만 집터에서 많이 출토된다. 그런데 덧띠토기가 출토되는 집터들은 나지막한 산언덕이나 구릉에서 주로 확인되는데, 민무늬토기를 사용하던 청동기시대 주민들의 마을과는 달리 높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덧띠토기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마을이 높은 곳에 위치하는 까닭은 방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민무늬토기 주민들과 덧띠토기 주민들 사이에는 갈등과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한다. 초기 철기시대가 시작되는 기원전 300년 무렵은 중국의 전국시대 말기에 해당되며, 잦은 전란을 피해 동쪽으로 이동한 연燕나라의 주민들이 철기를 가지고 한반도로 이주해 온 것으로 생각된다. 또, 연나라가 고조선을 침입함에 따라 유이민이 발생하였고 이들이 한반도 남부지역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들이 덧띠토기를 사용한 주민이며 한동안 민무늬토기를 사용하던 주민들과 대립하였던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초기 철기시대 이후 역사기록에는 중국 대륙의 여러 민족들이 한반도를 침입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가설의 개연성은 상당히 높다. 하지만 토기에서 보이는 차이만으로 주민의 이동이나 정복 행위를 증명하기는 충분치 않다.

한편 특정한 토기를 정치세력과 연결시켜 해석하기도 한다. 청동



미송리형토기
 평안북도 의주 미송리유적에서 출토된 토
 기로 표주박의 위쪽을 잘라낸 형태이다.
 높이 23.5cm.

기시대의 민무늬토기는 지역적으로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분포하는데, 압록강 하류 일대와 중국 동북지방의 랴오닝遼寧지역에 분포하는 특징적인 토기를 미송리형토기라고 한다. 평안북도 의주군 미송리유적에서 출토되어 미송리형토기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된 이 토기는 표주박의 한쪽 끝을 잘라놓은 것과 같은 특징적인 형태를 하고 있다. 몸통에는 한 쌍의 손잡이를 부착하였고, 몸통 가운데에 구획을 하고 무늬를 새기기도 한다. 미송리형토기가 분포하는 지역은 고조선의 상징적인 유물인 비파형동검이 분포하는 지역과 대체로 일치하여 고조선의

토기로 생각되고 있다. 그 밖에 미송리형토기와 유사한 형태의 서단산유형西團山類型的 토기는 중국 지린성吉林省 창춘시長春市 일대에 주로 분포하여 이 토기가 분포하는 지역을 초기 부여夫餘의 영역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한반도의 청동기시대에 해당하는 일본의 야요이시대彌生時代는 큐슈 일대에서 시작되는데, 야요이토기라고 불리는 새로운 토기는 한반도에서 전래된 것으로 보인다. 이전의 조몬시대에는 한반도의 빗살무늬토기와는 전통이 전혀 다른 조몬토기가 사용되었는데, 새로 등장한 야요이토기는 한반도 민무늬토기와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야요이토기와 함께 한국식동검을 비롯한 청동기와 고인돌과 독널무덤 등 다른 문화 요소도 한반도에서 전해진 것이다. 인골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도 조몬시대 사람과 야요이시대 사람은 친연관

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일본 야요이시대의 시작은 한반도에서 온 민무늬토기 사용자들에 의해 전해진 새로운 문화로 해석되고, 그 새로운 주민을 도래인渡來人이라고 부른다.

〈최종택〉



한국문화사 32

한반도의 흙, 도자기로 태어나다

2

토기 제작전통의 형성과 발전

01 기술혁신과 공방의 발전, 원삼국시대

02 삼국의 토기생산과 발전

03 자기발생의 전야, 통일신라시대

01

기술혁신과 공방의 발전, 원삼국시대

신기술 도입의 역사적 배경

청동기시대와 초기 철기시대의 무문토기無文土器는 원료 점토나 성형 및 소성의 기술이 원시적인 수준이었다. 그리고 제대로 갖추어진 공방에서 숙련된 기술을 익힌 도공이 그릇을 만드는 생산 시스템과는 거리가 멀었다. 초기 철기시대가 끝나고 원삼국시대에 접어들면서 제작기술과 조업방식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원삼국시대를 거치면서 성형법成形法과 가마窯의 운영법에 맞게 양질의 점토를 채토해서 사용하였고, 그릇의 성형에 숙련된 타날기법打捺技法과 물레질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토기 가마窯의 축조와 운영에도 수준 높은 기술이 응용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삼국의 고대국가에서는 표준화된 형태로 대량 생산된 회색경질의 도기陶器를 볼 수 있게 된다.

원삼국시대에 이루어진 생산기술과 조업방식의 발전은 기술혁신의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기술혁신이란 갑자기 새로운 어떤 것을 세상에 내놓는 발명과는 달리 이전의 기술을 토대로 새로운 기

술 요소를 도입하고 응용하는 기간을 거쳐 새로운 기술 체계로 전개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보통 새로운 기술은 생산이나 사용의 경제적 효율을 높여주고 이득을 증대시킨다고 생각하여 어느 사회든지 그런 기술을 목격하게 되면 바로 그것을 채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요즘 연구자들은 그런 단순한 논리로는 발명이나 신기술의 도입을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다고 믿고 있다. 간단한 기술혁신의 과정조차 그 이면에는 복잡한 사회적, 혹은 문화적인 요인과 조건,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원삼국시대는 고고학에서 쓰는 시대 구분의 용어인데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후 300년까지 약 400년에 해당되는 시대이다.¹ 학계의 일부에서는 삼한시대로 부르기도 하고 삼국시대에 포함시켜 삼국시대 전기나 초기로 설정하기도 한다. 이 시대명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연구자들은 이 시대를 철기시대로 포함시키기도 한다. 본뜻대로라면 원삼국시대란 삼국이 영역국가로 정립되기 전 원초적 형태의 삼국시대라는 의미일 것이다. 당시 한반도 일대의 정황을 보면 서북지방에 한나라가 설치한 군현인 낙랑樂浪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었고 북쪽에서는 고구려와 부여가 일찍부터 성장하여 초기국가 단계에 도달해 있었다.

이에 비해 한반도 중부 이남은 정치적인 발전이 다소 늦어 마한馬韓, 진한辰韓, 변한弁韓으로 구분되는 세 지역에 약 100여 개의 작은 나라가 분립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삼국의 원초적인 상태가 형성되기는 하였으나 삼국의 정립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과도기적인 시대인 것이다. 동아시아 전체로 보면 이 원삼국시대 개시기는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전환기에 해당된다. 중국은 전국시대戰國時代 혼란기의 종지부를 찍고 진秦·한제국漢帝國의 시대가 열려 거대 문명국가로서 주변지역에 정치, 경제, 이념적 영향력을 강력



요녕성 여대시 윤가촌(尹家村)유적
상층에서 나온 회도

10호무덤에 나온 회도분(왼쪽), 1호무
덤에서 나온 회도 옹(오른쪽). 전국시대
말기 중원의 철기문화가 요동지방까지
파급된다. 전래된 철기문화 속에는 타
날기법, 물레질, 그리고 환원소성기법
을 토대로 한 새로운 제도기술, 즉 회도
제작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조
선유적유물도감』, 동광출판사, 1990,
97p, 193, 194

하게 행사하기 시작한다. 이에 비해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비롯한
주변 사회는 이 시기부터 비로써 문명 지역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면
서 사회·문화 발전의 동력을 얻게 된다.

원삼국시대에 시작된 새로운 토기 제작기술의 기원은 전국시대 요동
지방까지 파급된 중원(中原)의 회도(灰陶)기술에서 찾을 수 있다. 그간 이 신
기술이 한반도 지역에 도입되는 과정을 단순 전파론(傳播論)으로 설명해 왔
지만 최근에는 기술혁신의 복잡한 과정으로 설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
다.² 기술혁신의 과정을 설명하려면 기술의 전파가 이루어지게끔 한 외부
적인 요인과 조건도 중요하지만 신기술의 수용이 가능했던 토착사회 내
부의 여건도 생각해야 한다. 토기 생산기술의 혁신을 가능케 한 배경을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첫째, 외부적인 배경으로써 중원문명의 확장에 따라 문명과 주변
사회의 관계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전
국 후기, 전국7웅 중 가장 동북방에 자리 잡고 있던 연(燕)나라가 요
동지방까지 세력을 확장한 것은 기원전 4~3세기 전후인데 이때 중
원의 철기문화도 이 지역으로 확산되어 들어왔다. 이 철기문화 속

에는 철기 생산기술과 함께 여러 문화 요소들이 포함되는데 그 중에는 회도 제작기술도 있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요동의 철기문화와 한반도의 제 지역사회는 직접적인 접촉은 거의 없었다.

이후 기원전 108년 한(漢) 무제(武帝)가 고조선을 무너뜨리고 한사군을 설치하면서 지금 평양을 중심으로 한 낙랑(樂浪)이 한반도 서북부를 장악하게 되었다. 낙랑은 주변 토착세력을 아우르며 정치·사회·문화적 상호작용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낙랑의 설치하는 문명의 재확장이란 측면만이 아니라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포함한 주변 지역이 문명 지역과의 직접적 상호작용을 통해 정치사회적으로 발전해 나갈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동북아 역사에 큰 의미를 가진다. 원삼국시대 초기에 회도 제작의 신기술이 한반도 남부까지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은 낙랑과 같은 문명의 거점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둘째, 내부 조건으로 한반도 제지역의 자체적인 사회문화적 변화와 발전의 누적을 고려해야 한다. 한반도와 같은 주변 사회가 중국 문명의 영향으로 사회문화적인 발전을 이룬 것이 사실이지만 정체



낙랑토기

황해도 봉산군 지탑리 토성에서 출토된 송석문타날단경호·낙랑 지역의 토기는 동시대 한나라 토기 제작기술을 따르기 보다는 그 이전에 들어온 전국시대 회도기법을 계승했다. 낙랑의 토기 제작기술은 지속적으로 한반도 중부·남지역에 영향을 주었다.

국립중앙박물관 『낙랑』, 2001, p. 147 그림 139.

된 상태에서 일방적인 문화의 전파나 영향을 입어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한반도에서는 적어도 기원전 1,000년 이전에 성숙한 농경사회로 접어들면서 계급분화가 진행되고 사회 문화적 복잡성이 심화되는 과정을 밟아 왔다.

이러한 사회적인 발전이 새로운 문화 요소와 신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쉬운 예로 고온 소성과 정교한 장식식을 가진 고급 토기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상위계층이 그러한 기술을 지닌 도공을 생산에 전업하도록 지원해 주었기에 나타날 수 있었다.

물레질법과 같은 익히기 힘든 성형기술이 도공들 사이에 널리 보급되어 대량 생산의 기반이 조성된 것도 사회가 복잡하게 되어 토기의 용도가 확장되고 그 수요가 늘어났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새로운 제도製陶기술은 사회의 내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수용될 수 없었을 것이고 이후 새로운 기술이 발전적으로 적용되는 과정도 사회 변동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토기 제작기술의 발전

우리나라 선사시대 토기는 보통 노천요에서 산화소성법으로 제작하여 적색이나 갈색계통의 색조를 띤다. 그릇을 구운 온도는 800~900도 정도를 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릇 표면의 흡수율이 높고 경도도 약한 편이다. 원료 점토에는 비가소성 입자를 일부러 첨가하기도 하지만 원래 모래알갱이가 많이 혼입되어 있는 점토를 사용하였다.

일정한 성질을 갖춘 점토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

의로 원료 점토를 채취해 쓴 것 같고 점토를 가공하는 방법을 몰라 토기의 질이 좋지 않았다. 특히 성형기술은 다른 제작 공정보다 기술 수준이 더 낮았다. 그릇을 다듬고 표면을 고르는 정면 작업을 하는데 회전시키는 기법이 제대로 응용되지 못하여 무문토기와 같은 경우는 좌우대칭이 맞지 않아 찌그러져 보이기도 하고 그릇의 가장자리와 표면이 울퉁불퉁한 경우가 많다.

원삼국시대 토기는 선사시대의 원시적인 기술에서 벗어나 원료와 성형, 그리고 소성법에 이르기까지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이를 발판으로 통일신라시대가 되면 자기磁器의 수준에 이르지지는 못했지만 토기제작의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원삼국시대 토기는 성형과 소성에 적합한 양질을 점토를 사용하고 상당한 수준의 가마 운영법이 응용되어 질이 좋은 토기를 생산할 수 있었다. 표준화된 기형의 모델이 있었고 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성형기법이 적용되어 이 시대 말기가 되면 광범위한 범위로 분배할 수도 있었다.

원료 점토

점토의 두 가지 중요한 특성, 즉 물과 결합하여 가소성plasticity을 가진다는 것과 열에 반응하여 화학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성질이 응용되어 토기가 만들어진다. 토기 원료인 점토는 그 종류에 따라 화학적 조성이나 물리적 성질이 천차만별이다. 점토의 생성 과정에 따라 제자리서 풍화되어 쌓인 1차 점토와 운반 퇴적되어 만들어진 2차 점토로 나뉘는데, 가령 토기를 만들 때는 철화합물을 비롯한 기타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는 2차 점토가 주로 이용되지만 순도 높은 자기를 만들려면 순수한 1차 점토가 사용해야 한다. 2차 점토를 사용하는 도공도 자신의 제작기술에 적합한 점토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다만 선별의 기준이 얼마나 엄격한가는 기술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원삼국시대 전기에는 신기술이 수용되었다 하더라도 청동기시대 무문토기의 전통이 일정 부분 남아 있었다. 그릇의 형태에도 남아 있지만 무문토기의 태토와 별반 차이가 없는 원료 점토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원삼국시대 후기로 접어들면서 원료 점토의 선별기준이 훨씬 엄격해지게 된다. 즉, 일정한 질감을 가진 그릇으로 완성해 낼 수 있고 발전된 성형 및 소성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원료 점토를 찾아서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원삼국시대의 회색타날문단경호나 진·변한에서 유행한 와질토기의 원료 점토는 실트성의 미세입자가 많이 섞여 있기는 하지만 점토의 비율이 높고 굵은 모래는 거의 없거나 소량에 불과하다. 그리고 철분이 적은 점토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와질토기 중에는 회백색의 고운 질감을 가진 도기가 많다.

원삼국시대를 거치면서 이러한 점토를 이용하는 안목이 점점 높아져 갔다. 이 시대 말기의 도질토기 제작자들은 빠른 물레질을 적용하여 그릇 벽을 얇게 만들어도 점토가 쉽게 끊어지지 않고 고온 소성을 하더라도 녹아서 주저 않거나 부풀어 오르지 않는 점토를 찾아 사용하게 된다. 특히 원삼국시대 말기 함안과 김해지역의 몇몇 선진적인 도공들이 그러한 원료를 찾아 썼던 것이다.

성형법과 장식

넓게 보면 그릇을 빚어 형태를 만드는 것과 그릇 표면을 다듬거나 각종 장식을 베푸는 일련의 작업을 모두 성형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그릇을 빚어 올리는 방법은 원시적인 점토띠쌓기나 점토판접합법에서 물레질법으로 발전하였다고 보는데, 성형방법에 따라 그



릇의 균형미나 제작의 효율이 크게 다르다. 물론 가장 발달된 성형법은 물레를 돌려 점토 덩이로부터 그릇 형태를 뽑아 올리는 기술이다. 이 물레 성형법은 특별한 점토의 성질과 발달된 도구가 사용되어야만 하고 고도의 숙련된 동작을 요하기 때문에 수준 높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원삼국시대 토기 제작에는 이러한 물레성형법은 적용되지 못하였지만 이 시대에 물레가 처음 도입되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활용된 것은 사실이다. 점토띠접합법과 타날법 등으로 1차적인 형태가 만들어지면 저속의 물레 위에서 회전시키면 깎아내거나 문지르는 방법은 원삼국시대 가장 일반적인 물레 사용법이다. 이 방법이 점점 발전하여 원삼국시대 말기에는 항아리를 만들 때 원통형의 1차 형태를 점토 띠를 붙여 대충 만들고 빠른 물레에서 그릇의 3/4 이상을 속도감 있게 만들어내는 기술이 정착한다.

원삼국시대 전기 고식 와질토기
승석문타날단경호
타날법은 그릇벽의 두께를 고르게 하고 치밀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릇 몸통을 두드려서 공 모양으로 둥글게 만들기 위해 구사하는 일종의 성형기법이다. 원삼국시대 전기의 승석문단경호의 제작자의 기술은 타날법도 영성하고 그릇을 공 모양으로 잘만들지도 못하였다.



원삼국시대 말기 승석문 타날단경호
원삼국 말기에는 그릇몸통을 두드리서
완벽하게 공모양으로 만들었으며 그릇
어깨부터 그릇바닥에 이르기까지 매우
규칙적이고 숙련된 타날법을 구사했다.

타날기법(打捺技法)도 원삼국시대에 처음 도입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그릇의 벽을 보다 치밀하게 하기 위해 무늬가 새겨진 망이나 노끈을 감은 막대기로 그릇 표면을 두드리는 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원삼국시대 타날법은 보통 밀이 둥근 원저단경호나 역시 원통형의 용을 제작하는 데 주로 구사된 기술이다. 그릇 벽을 다듬는 2차 성형법으로 활용되기보다는 둥근 형태의 그릇을 두드리며 성형하는데 적용되었던 1차 성형법이였다.

1차 성형, 2차 성형, 장식 등의 일련의 공정은 물과 반죽된 점토를 가지고 일정 시간 동안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공정은 점토에 습기가 너무 많아서도 안 되고, 어떤 공정은 너무 건조하면 힘들어 진다. 따라서 점토가 건조되어 가는 과정에서 일련의 공정이

일정 속도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결국 이러한 복잡한 성형기법이 적용되려면 일정 시간 안에 딱 짜인 공정을 몸에 익힌 전문도공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전문적인 숙련공은 원삼국시대에 나타나는데, 특히 이 시대 후기가 되면 전문도공이 고속의 물레질법과 규칙적인 타날법을 익혀 표준화된 형태의 토기를 대량 생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소성법

토기 제작의 마지막 단계에 건조된 토기를 가열하여 화학적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완성품을 만드는 공정이 소성이다. 특별한 시설 없이 토기를 연료와 함께 쌓아놓고 가열하는 원시적인 방법도 있지만 기술이 진보하면 가마^窯 시설을 마련하고 그 안에서 내부의 온도와 공기흐름을 조절하면서 소성하게 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가마 시설은 이 원삼국시대에 도입된다. 원삼국 초기부터 가마가 도입되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발굴조사를 통해 구조가 확인된 가마는 원삼국 말기부터 보이는데 충북 진천의 산수리 초기 가마가 대표적이다. 가마 내부의 열기가 움직이는 방향과 평면 형태를 기준으로 가마의 구조는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구조에 따라 소성된 그릇의 질은 천차만별이다. 그리고 같은 구조의 가마도 그것을 운영하는 방식이나 사용하는 연료에 따라서 다양한 질의 그릇이 생산될 수 있다.

보통 가마 내부의 온도가 고온으로 장시간 유지되면 경도가 높고 표면이 유리질된 토기를 얻을 수 있는 반면, 저온으로 짧은 시간 소성하면 흡수율이 높고 무른 토기가 만들어진다. 가마의 구조는 가마 내부의 열효율을 결정적으로 좌우한다고 말할 수 있다.

가령 원시적인 노천요는 900도 이상을 올리기 어려우며, 실요^室

窯 중에서 연소실이 소성실 바로 아래에 있는 승염식요는 1,100도 정도에서 한정된다. 1,200도 이상의 고온소성의 토기를 얻으려면 소성실과 연소실이 평면적으로 배치되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³ 원삼국시대 말기에 마한지역에 나타나는 우리나라 최초의 토기 가마의 기본 구조가 소성실을 연소실과 나란히 배열하는 구조이다. 이 구조는 소성실이 좁은 데다 연료를 위에서 던져 넣도록 되어 있어



함안의 초기 도질토기 요지
 가마의 입지와 노출된 폐기장의 모습(위)
 함안 우거리 토기요지 2호 도질토기 가
 마(아래)

아직 고온 소성과 대량 생산에 적합한 가마라고는 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삼국시대에 들어와 처음으로 가마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원삼국시대 초기 가마는 아직 실물로 발견된 것은 보이지 않지만 이 시기 토기를 보면 가마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원삼국시대 초기 와질토기는 고온 소성된 것은 차치하고라도 제대로 환원 소성된 제품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가마의 구조도 원시적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원삼국시대 후기에 접어들면 상당한 고온에서 완전한 환원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름대로의 운영법도 생겨나 그릇의 질과 색상이 다양해졌다. 우리나라 초기 가마는 중국의 반도염식 원요(圓窯)를 받아들여 우리나라의 지형과 여건에 맞게 변형시킨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⁴

대표적인 것이 진천 산수리유적에서 확인된 마한지역의 원삼국 말기 가마라고 할 수 있는데, 상당히 발전된 가마이긴 하지만 대량 생산과 고온 소성에 적당한 구조는 아니다. 하지만 원삼국시대 전기에 도입된 원시적인 가마가 원삼국시대 말기에는 자연유가 흐름 정도의 도질토기를 대량생산하는 가마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한 소성기술과 가마구조의 발전에 힘입어 3세기 후반 도질토기가 대량 생산된 곳은 마한 보다는 변한지역이었던 것 같다. 시기는 4세기에 해당되지만 경상남도 발굴된 가마는 소성실이 훨씬 커졌을 뿐만 아니라 가마의 전면에서 연료를 투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도질토기 가마이다.

기술혁신의 과정

초기 철기시대까지 이어져 오던 무문토기의 기술 체계는 원삼국시대의 기간 동안 기술혁신의 과정을 거쳐 삼국시대 도질토기 생산의 기술 체계로 발전한다. 원삼국시대 초기에 환원소성과 타날기

법, 그리고 타날문단경호와 같은 신기종이 한꺼번에 도입되지만 아직 무문토기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새롭게 소개된 신기술이 당시 토기 제작자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기술의 적용이 자연스럽지는 않았다.

물론 요동遼東과 낙랑樂浪지역에 보급된 전국시대의 회도灰陶 기술 체계가 한반도 남부까지 전달되어 토기제작의 기술혁신이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된다.⁵ 그러나 이미 전문 도공에 의해 숙련된 작업행위로 실현되었던 회도의 기술 체계가 한반도 남부의 무문토기 제작자에게 전달된다면, 물론 토착의 토기 제작자들은 새로운 기술 체계를 구현해 내려 애쓰겠지만 매우 어색한 작업행위, 즉 익숙하지 않은 동작으로 시도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원삼국 초기, 한반도 중남부지역의 무문토기 제작자들은 한편으로는 무문토기 기술 체계를 그대로 이어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회도의 기종과 기술 체계를 받아들여 새로운 유형의 토기유물군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원삼국시대 초기의 토기유물군은 기술 체계의 차이에 따라 종전의 무문토기군과 새로운 회색토기군으로 나뉜다. 곧 새로 도입된 기종과 기술 체계를 적용하는 방식은 크게 둘로 나뉜다. 첫째, 타날문원저단경호처럼 새로운 기종에 승석문타날, 환원소성, 및 회전물손질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 요소가 한 세트 적용되는 방식이 있다. 둘째로는 파수부장경호나 주머니호, 또는 옹이나 발과 같은 종전의 무문토기 기종에 새로운 기술 요소의 일부가 적용되는 방식이 있다.

특히, 무문토기 중에는 있지 않았던 구형球形의 몸통을 지닌 타날문원저단경호의 경우, 한쪽 손으로는 그릇 안쪽을 받치고 다른 한쪽 손으로 그릇 외면을 타날판으로 두드리는 작업만으로 그릇을 완성해야 하는데 이는 무문토기 제작자에게겐 무척이나 고난도의 기술이었을 것이다. 원삼국시대 전기에는 제작자의 기술적 숙련도가 떨

어저 그가 구현하고자 했던 구형의 동체부를 제대로 완성해 내지 못하였다. 그리고 물레질법도 적용되지 못하여 그릇 두께도 불규칙하고 그릇 말단부도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다.

원삼국시대 후기가 되면 전통적인 무문토기 기술과 새로 도입된 회도 기술이 융합되어 새로운 기술 체계로 정비되는 한편, 토기 제작자도 전문 도공으로 성장하여 제작 행위의 숙련도를 높여갔다. 이러한 기술혁신의 과정을 통해 원삼국시대 후기의 토기 중 타날문 원저단경호는 이전보다는 훨씬 숙련된 제작 행위를 통해 그릇 두께도 고르고, 균형 잡힌 구형의 몸통에 그릇 아가리도 회전물손질로 깔끔하게 마무리된다. 특히 원삼국시대 말기가 되면 한정된 공방 工房에서 생산되었던 도질토기 승석문타날단경호처럼 매우 숙련된 기술 행위를 익힌 전문 도공에 의해 표준화된 제품으로 대량 생산 되기에 이른다.

이와 같이 원삼국시대 초기에 이미 회도의 기술 체계가 전부 소개되었지만 이중 일부는 적용되고 일부는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후에도 신기술 요소가 적용되어 기술혁신이 진행되는 과정은 그릇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어 왔다.

어떤 측면에서는 기술혁신의 성패가 토기 제작자의 기술적 숙련도에 달려있기도 하다. 이럴 때 도공의 기술적 숙련도는 아무래도 같은 그릇을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가운데 높아질 수 있으므로, 대량 생산이 제작의 전문성이나 도공의 숙련도를 제고시킬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그릇 종류에 따라 사회적 수요가 늘어나고 분배의 범위가 확대되면 대량 생산을 통해 이를 충족해야 하고 이러한 조건하에 특정 기종의 제작에서 기술혁신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리라고 본다.

토기의 생산과 사용

수렵채집의 이동생활을 접고 정착생활이 유지되면서 생업경제도 안정되면 집안에 가재도구들이 늘어나게 된다. 초기 정주(定住)취락의 가재도구로 등장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토기이다. 한 사회에서 사용하는 토기의 종류, 즉 기종(器種)은 토기의 용도에 따른 분화이며 그래서 기종 구성에는 그 사회의 생활상이 반영되어 있다. 물이나 식량을 저장하거나 운반하는 방법, 조리법, 식사법 등이 달라지면 사용되는 기종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사회가 진화함에 따라 그릇을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새로운 용도의 그릇도 필요하게 된다. 이를테면 제사를 지낸다거나 무덤에 부장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기가 제작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이다. 이러한 비실용적인 그릇은 실용토기와 비교해서 외형이나 장식이 특별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마연법으로 그릇 표면을 반들반들하게 한다든지, 문양을 새기거나 채색을 하고, 실용 토기의 형태를 과장하거나 사물을 형상화한 그릇이 제작되기도 한다. 사회통합의 범위가 넓어지고 계급이 분화되면 상위 계급의 지배자들이 자신의 권위를 정당화 하고 위신을 높이기 위해 특별한 물품의 생산을 독려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실용적인 물품의 생산이 늘어나게 되는데 토기의 경우도 위신용(威信用), 의례용(儀禮用), 그리고 부장용(副葬用) 토기의 생산이 증가된다.

원삼국시대에 들어서 실생활용 토기의 기종은 별로 바뀌지 않는다. 마한과 예, 진·변한, 그 어느 지역에서도 원삼국시대 생활용 토기는 무문토기 기종을 그대로 계승한 듯하며 새로 늘어난 기종은 많지 않다. 그러나 분묘에 부장하기 위한 토기의 기종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큰 변화를 보여준다.

취락이나 패총에서 발견되는 일상용 토기의 종류는 무문토기의



사로국의 생활용 토기
경주 황성동 마을유적에서 출토된 원삼
국시대 후기 일상생활용 토기



무덤에 매장된 와질토기
울산 중산리고분군 Ⅷ-90호분의 부곽
에 가지런히 배치된 부장용토기이다.
당시 지배계급의 무덤에는 와질토기를
정교하게 제작하여 그 안에 음식을 담
아 주장하는 풍습이 있었다.



당시 지배엘리트의 무덤에 부장용으로
쓰는 토기의 품목 중에는 오리모양을
한 주전자(鴨形土器)도 있었다.

기종에도 있던 대·중·소형의 옹甕과 발형토기, 그리고 완甁 등이 다. 원삼국시대에 새로 추가되는 기종은 대·소형 원저단경호와 시루 등이며 단경호의 사용은 원삼국시대에 들어 매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일상용 토기의 기종 구성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없어서 예와 마한, 진한, 변한 어느 지역에서도 제작기법은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크기와 형태를 가진 옹과 발, 그리고 단경호를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분묘 부장용 토기의 기종 구성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준다. 한강 중상류지역과 영동지역은 원삼국시대 분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서 따로 부장용토기가 존재했는 지도 불분명하다. 마한지역의 경우 주구토광묘, 분구묘가 축조되면서 여기서 분묘 부장용토기를 볼 수 있다. 중서부 마한지역의 원삼국시대 후기 분묘에서 발견되는 부장용 토기는 기종 구성이 무척 단순하여 타날문단경호와 발형토기, 2종으로 구성된다.

진한과 변한지역, 그 중에도 경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원삼국시대 후기에 축조된 지배자 분묘에는 가장 다양한 와질토기 기종이 대량으로 제작되어 부장된다. 이 지역의 원삼국시대 전기 목곽묘에는 파수부장경호와 주머니호, 타날문단경호 등이 부장되지만 후기의 목곽묘에는 대부장경호, 노형토기, 단경호, 소옹, 고배, 신선로형토기, 컵형토기, 완, 오리모양토기 등 실로 다양한 와질토기의 기종이 부장품으로 사용된다.

여기에서 단경호와 소옹을 제외하면 모든 와질토기 기종은 공이 많이 드는 마연법으로 표면을 다듬었으며 암문暗文이라고 하는 은은한 장식적인 효과도 내었다. 마연법으로 다듬는 방식은 시간과 노력이 가장 많이 드는 성형법이고 목곽묘 출토 와질토기 제작에 전문적이고 숙련된 마연기술이 동원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진한지역의 대형 목곽묘에서 출토되는 후기 와질토기는 목곽묘의 주

인공쫄 되는 지역집단의 수장이 와질토기 전문도공으로 하여금 노동 집약적인 기술로 생산하게끔 했기에 등장한 토기라고 생각된다.

무문토기가 전문인에 의해 일상적으로 생산되어 분배되었으리라고 볼 수 있는 증거는 거의 없다. 오히려 그 반대 즉 한 가구가 필요로 하는 토기를 스스로 제작하거나 기껏해야 한 취락 안에서 필요한 토기들을 특정인이 생산해서 나누어 주는 정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삼국시대에는 경주 손곡동유적이거나 경산 옥산동유적의 발굴에서 파악된 대규모 공방에서 토기생산이 이루어졌다. 즉 여러 명의 도공이 전업적으로 작업하여 토기를 생산해 내고 상당히 넓은 범위에 분배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삼국시대는 무문토기의 생산방식에서 삼국시대 토기 생산 체계로 나아가는 과도기적인 단계였다고 여겨진다.

토기의 유형

원삼국 이전에도 일정 시기에 일정 지역에만 존속했던 토기의 유형이 있었다. 예를 들어 청동기시대에 송국리형토기라고 하면 청동기 중기에 우리나라 중부 이남의 거의 전역에 분포하던 토기 유형이었다. 초기 철기시대에는 그릇입술에 점토 띠를 덧대어 만든 점토대토기가 우리나라 전역에 확산되어 어디에 가도 이 유형의 토기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원삼국시대에는 지역에 따라 토기의 유형이 달랐고 같은 지역에서도 그릇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의 토기가 공존하였다. 우리가 이를 토기의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제작의 기술 체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질감이나 형태가 서로 달랐고 그릇의 종류나 출토되는 유구의 성격도 달랐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원삼국시대에는 지역에 따라 토기의 양상이 크게 달랐다. 당시의 우리나라 사정을 가장 잘 기록하고 있는 『삼국지三國志』 위서 동이전을 보면 남한만 해도 지역에 따라 여러 종족들로 나누어지고 각각 풍습도 달랐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테면 강원도지역은 예족이 살았고 호서지역과 호남지역은 마한이 있었다. 한강유역에는 마한과 예족이 잡거한 지역이었던 것 같고 영남 지방에는 진한과 변한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렇게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종족이 거주하였고 문화와 풍습이 달랐으므로 토기의 양상도 달랐을 것이라는 점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한때 남한 전체의 원삼국시대 토기를 김해식토기라고 통칭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여러 지역 문화와 서로 다른 토기 유형이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김해패총의 회청색 토기를 기준으로 설정했던 개념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와질토기瓦質土器

김해식토기의 개념에 문제를 제기한 영남지방의 고고학자들은 이 지역 분묘유적에 발견되는 회색의 연질토기를 와질토기瓦質土器라고 이름 붙이고 고온으로 소성된 도질토기가 등장하기 전에 유행했던 토기 유형이라고 주장했다.⁶

와질토기 중에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것도 많고 타날법과 물레질법에 의해 실용적으로 제작된 것도 많다. 그러나 분묘에서 출토된 와질토기 중에는 그릇의 형태나 질감에서부터 실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토기도 많으며 이런 토기는 오직 변·진한, 특히 진한 지역의 무덤에서 많이 나온다.

타날문토기 | 打捺文土器

물론 원삼국 말기에 등장하는 도질토기에 앞서 존속했던 와질토기가 원삼국시대를 대표하는 토기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지만, 와질토기는 그 용도나 분포 지역에서 한정된 토기 유형인 것만은 틀림없다. 또 한편에서는 원삼국시대 새로운 토기문화를 타날문토기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⁷ 사실 남한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토기는 타날하여 둥근 몸통으로 만들고 짧은 목을 붙인 타날문원저단경호이다.⁸

영남지역의 원삼국시대의 시작과 함께 목관묘에서는 승석문타날이 된 단경호가 처음 등장하는데 원삼국시대 후기의 목곽묘에서 격자타날된 단경호가 나올 때까지 승석문이 계속된다. 중서부지방의 분묘인 주구토광묘나 분구묘에서는 그동안 격자타날문이 시작된 이후의 단경호 형식만이 나왔다.

그러나 최근 원삼국시대 이른 시기의 집자리가 경기도 가평군 대성리유적에서 발견되었는데 여기서는 승석타날문단경호가 출토되어 이 지역도 승석문에서 격자문으로 변해 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처음 타날기법은 원삼국시대 신기종(新器種)인 원저단경호 제작에만 이용되었는데 점차 이 지역 전통 무문토기종인 옹형토기와 발형토기의 제작에도 응용된다. 그래서 남한 전 지역에서 이르고 늦고의 시간 차이는 크지만 일정 시기가 되면 옹, 그리고 발과 같은 실용 토기를 타날기법으로 만들게 된다. 비록 타날무늬가 지역과 시기에 따라 승석문인가, 격자문인가, 아니면 평행타날인가 하는 차이는 있지만 어느 지역에서도 타날문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타날기법이야말로 원삼국시대에 새로 시작된 기술이라는 점에서 타날문토기가 원삼국시대를 대표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원저단경호는 처음부터 타날기법으로 제작되지만 예죽과 마한이 자리 잡았던 너른 지역에서는 원삼국시대가 지난 뒤에야 실용토기에 타날법이 채용된다. 그래서 타날문단경호 하나를 가지고 원삼국시대 토기를 대표하는 유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경질무문토기(硬質無文土器)와 중도식토기(中島式土器)

원삼국시대까지 무문토기 전통이 지속되어 하나의 토기 유형을 설정할 수 있다. 전라남도 해남군의 군곡리패총에서는 중국 화폐인 화천(貨泉)이 출토되어 유적이 형성된 연대를 짐작하게 하는데 호남 지역 원삼국시대의 일상생활용 토기를 대표하는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 패총에서 나오는 옹형토기, 발형토기 및 시루 등 생활용 토기는 원삼국시대 꽤 늦은 시기까지 타날기법과 물레질법이 적용되지 않고 바닥은 여전히 무문토기처럼 납작바닥이며 무문토기적인 기술로 만들었다.

이러한 토기를 발굴 보고자는 경질무문토기라고 불렀다.⁹ 즉, 무문토기의 태토와 무문토기의 성형 및 정면 기법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소성을 단단하게 했기에 경질이라는 뜻이다. 강원도 춘천의 중도유적에서 집자리유적이 발굴되어 회색의 타날문단경호와 고구려의 끝머리형(鑿頭式) 철촉이 출토되었는데, 여기서 나온 생활용 토기의 대부분은 무문토기적인 기술로 제작된 것이었다. 납작바닥에 모래가 많이 섞인 점토로 만들고 산화염소성으로 적갈색을 띠며 표면은 마연이라기보다 거칠게 점토를 끌어올리는 정면을 했다.

겉모습으로 보면 무문토기 그대로기 때문에 이 토기유물군에는 중도식토기(中島式土器) 혹은 중도식무문토기(中島式無文土器)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함께 나온 고구려 철촉의 연대를 4세기 이전으로 올려 보기는 어렵기에 이 지역은 무문토기 전통이 원삼국시대 이후까

① 점토대토기
무문토기 말기 단계에는 그릇 입술에 점토띠를 덧붙이고 손으로 눌러 납작하게 만든 그릇.

② 진·변한 지역의 와질토기
주로 분묘 부장용으로 사용한 회색 회흑색의 환원소성 토기.

③ 타날문토기
단경호나 옹, 바리와 같은 실용토기를 제작할 때 두드려서 그릇의 둥근 면을 빠르게 완성하는 토기.

④ 경질무문토기
원삼국시대까지 무문토기의 제작 전통이 이어져 일정 시기동안 존속한 토기유형.

⑤ 중도식무문토기
경질무문토기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중부지역 즉 한강유역과 강원 영동과 영서지역의 원삼국시대에 유행한 토기로 그릇 표면을 거칠게 마연한 것이 제작기법 상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음.

⑥ 도질토기
열에 잘 견디는 2차점토를 사용하여 그릇표면에 자연유가 흐름 정도로 단단하게 소성한 토기로 물레질법을 잘 구사하여 처음으로 규격화된 제품이 대량 생산되었음.

지 계속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원삼국시대 동안, 이 중도식토기는 한강 유역과 강원도 동해안을 포함한 중부지방 전역, 즉 마한과 예족의 영역에 널리 퍼져 있던 토기문화였다. 한강 유역 백제의 중심지에서 무문토기 기종인 옹과 발을 타날기법과 물레질로 제작하게 되면서 이러한 토기 제작이 한강 유역을 따라 확산되면서 중도식토기는 서서히 자취를 감춘다. 하지만 북한강과 남한강 상류에는 5세기까지도 이러한 무문토기 전통이 남아 있게 된다. 강원도 동해안도 중도식토기의 유형이 지배적이었던 지역이었지만 4세기 후반부터 신라 토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중도식토기 옹과 발이 타날기법으로 제작되기에 이른다.

도질토기 | 陶質土器

도질토기는 가마 안의 온도를 극대화하여 표면에 자연유가 흐를 정도로 단단하게 소성한 토기로 진·변한지역에서 와질토기가 발전하여 등장한 유형이라고 생각해 왔다. 초기 도질토기를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첫째, 3세기 후반에 등장하는 최초의 도질토기는 아주 한정된 지역, 즉 김해와 함안에서만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생산된 도질토기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을 것이란 점이다. 둘째, 최초의 도질토기에는 다른 기종이 없고 단경호류, 즉 소형원저단경호나 타날문단경호만 도질토기로 제작된다는 사실이다. 셋째, 불에 잘 견디는 점토로 고온 소성에 성공한 것이 도질토기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지만 도질토기를 자세히 보면 빠른 물레질로 그릇의 3/4을 성형해 내고 규칙적이고 기계적인, 즉 매우 숙련된 타날 성형으로 완성한 기술이 대량생산의 측면에서 보면 더욱 중요한 특성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도질토기의 성격을 자세히 살펴보면 낙동강 하류지역의 도

공이 물담는 항아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등장하게 된 토기의 유형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싶다. 아무튼 원삼국시대 말기에 우리나라 동남부 구석에서 생겨난 도질토기 생산 체계는 삼국시대에 접어들면 모든 토기 생산체계를 흡수하여 전업적인 대규모 공방으로 발전한다.

적갈색연질토기 | 赤褐色軟質土器

적갈색연질토기란 산화염으로 소성하여 적색이나 갈색을 띠는 연질토기로 무문토기의 전통 기종을 계승한 옹형토기와 발형토기가 이러한 질로 제작된다. 그러나 무문토기에 비해 원료 점토에 모래알갱이가 그리 많지 않아 태토가 고운 편이고 타날기법으로 1차 성형한 뒤 물레질로 다듬었다는 점에서 무문토기의 성형기법과는 매우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 앞서 각 지역에 따라 이르고 늦고의 차이는 있지만 무문토기 전통이 원삼국시대까지 지속되어 왔다.

무문토기 제작기법은 옹과 발의 기종을 중심으로만 유지되어 왔는데 일정 시점이 되면 이러한 기종에도 보다 발전된 성형기법인 타날기법과 물레질법이 채용된다. 말하자면 무문토기의 기술로 제작되던 옹형토기와 발형토기가 새로운 타날기법과 물레질법으로 제작되면 그것이 바로 적갈색연질토기인 셈이다. 적갈색연질토기는 낙동강 하류 변한지역에서 가장 일찍 나타나는데 비해 한강 상류지역이나 영동지방은 매우 늦은 시기까지 중도식 무문토기가 남아 있다가 적갈색연질토기로 바뀌었다.

토기 생산의 지역 전통

진한·변한 지역 辰韓·弁韓地域

원삼국시대 직전까지 남한지역의 토기는 점토대토기였으나 변화가 진·변한지역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기원전 1세기 변·진한지역의 목관묘에서 회색의 승문타날단경호가 등장하면서 와질토기가 시작된다. 처음 승문타날단경호 한 종류밖에 없었던 와질토기에 종래 무덤의 부장품으로 주로 제작되었던 점토대토기 파수부장경호와 주머니호가 회백색, 회흑색 연질에 타날수법으로 제작되면서 새로운 와질토기의 기종이 되었다.

이어 원삼국시대 전기의 목관묘가 후기의 목곽묘로 넘어갈 무렵 점토대토기 옹과 발 등에 타날수법이 적용되면서 적갈색연질토기로 바뀌었다. 목곽묘 단계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분묘에 부장되는 와질토기가 크게 발전하여 그릇의 종류도 크게 늘고, 기술의 정교함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지만 그 기술은 대량 생산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장식이 더욱 정교해진 와질토기를 제작하기 위한 노동집약적 기술이었다. 원삼국시대 말 낙동강하류에서 도질토기인 단경호가 처음 출현하는데 처음에는 단경호 하나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 출현한 기술이었지만 곧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기술로 생산 체계를 구성한다.

마한 지역 馬韓地域

마한은 한강 유역과 금강 유역, 그리고 영산강 유역을 포괄하는 영역으로 뒤에 백제의 영토로 된 지역이다. 이중 원삼국시대에 한강 유역은 강원도 영서 및 영동 지역과 토기문화의 전개 양상을 함



1



2



3



4

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강 유역과 영산강 유역에서도 원삼국시대 초기까지는 점토대토기가 유행한다. 금강 유역의 원삼국시대 토기의 양상, 특히 초기의 토기상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가 없어 알 수 없다.¹⁰

이곳에서 발견되는 주구토광묘에서 출토되는 타날문단경호와 무문토기 전통의 적색연질 발형토기는 이 지역 원삼국시대 후기의 토기 형태가 어떤지를 짐작하게 할 뿐이다. 이러한 무문토기 전통의 발과 옹형토기에 타날기법과 물레질법이 적용되면서 이 지역의 토기문화가 크게 발전한 것 같다. 영산강 유역의 마한 토기는 점토대토기를 계승한 경질무문토기 옹과 발이 원삼국시대 전기까지 유행한 듯하다. 원삼국시대 후기에 회색연질과 적색연질의 타날문토기 단경호, 옹, 발, 시루, 이중구연호 등이 다양하게 제작된다.

① 마한의 부장용토기
마한지역 원삼국시대 말기에 해당하는 분묘에 부장되는 2종의 토기.

② 마한의 무덤
공주 하봉리 주구토광묘. 원삼국시대 마한지역에서 발생하여 백제고분이 확산되기 전까지 유행한 묘제.

③ 동예의 토기
충부지방 중도식토기유물군, 충부지방 취락유적에서는 중도식무문토기 다수와 1-2점의 타날문 단경호가 조합되어 출토됨.

④ 한강유역 원삼국시대 주거지
횡성 둔내유적의 주거지가 발굴로 노출된 모습.

중부 지역 中部地域

우리나라 중부지역 중에 한강 유역은 한과 예가 잡거했던 지역이고 강원도 일대에는 예족이 거주했다. 이 중부지역에는 원삼국시대에 이렇다 할 분묘유적이 발견되지 않고 취락유적만이 확인된다. 중부지역의 원삼국시대 취락에서 발견되는 주거지는 여자형 呂字形, 혹은 철자형 凸字形의 평면형을 한 대형 주거지이다.

이 특징적인 형식의 주거지 안에서는 가끔씩 낙랑으로부터 수입된 토기와 회색의 타날문단경호, 그리고 이 지역의 특징적인 중도 식무문토기가 함께 출토된다.¹¹ 무문토기 전통의 옹형토기 발형토기, 완과 시루 등이 뒤에는 타날기법으로 제작되는 적갈색연질토기로 바뀌는데 아무래도 백제의 중심지였던 한강 중류지역에서 시작하여 주변으로 퍼져 나갔다고 생각된다.

〈이성주〉

삼국의 토기생산과 발전

고구려

일반적으로 고구려 토기라 함은 고구려의 영역 안에서 제작되어 사용된 토기를 말한다. 고구려는 기원전 1세기 한강(漢江) 유역의 환인(桓仁)지방에서 건국하여 집안(集安)의 국내성과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며 발전하였으며, 668년 멸망할 때까지 700여 년간 존속하였다.

건국 이후 고구려는 주변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성장하였는데, 4세기 후반에는 요동지방을 확보하였으며, 5세기 후반경에는 한강 유역을 차지하였고, 한때 경상북도 및 충청남도 일원까지 진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고구려 토기는 기원전 1세기경부터 668년까지 700여 년 동안 오늘날 중국의 요녕성과 길림성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지방과 한반도 북부지방 및 한강 유역, 경상북도·충청남도 일부 지역에서 고구려 사람들에 의해 제작되고 사용된 토기를 의미한다.



고구려 각종 토기

고구려 토기는 고운 점토질의 바탕흙을 사용해 만들었는데, 점토 띠를 쌓아올려 형태를 만든 후 물레를 사용해 표면을 다듬고 마무리하였다. 그릇의 종류는 모두 30여 가지에 달하는데, 무늬를 새긴 토기는 드물다. 토기는 모두 납작한 바닥이며, 어깨가 넓어 동일한 공간에서 많은 양의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작기법이나 형태적인 특징에 있어서 같은 시기 신라·가야나 백제 토기와 구별되는데, 통일신라 이후 고구려 토기의 특징적인 요소들이 채택되어 사용되며, 오늘날의 용기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아차산 고구려보루에서 출토된 6세기 전반경의 고구려 토기들이다.

고구려 토기의 특징과 제작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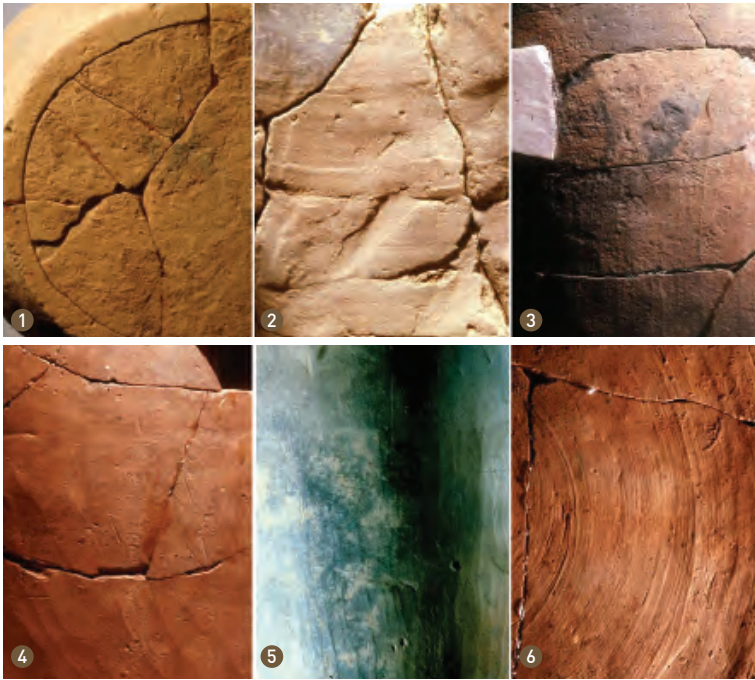
고구려에는 기와 만드는 일을 관장하는 ‘조와소造瓦所’라는 관청이 있었다. 또한 고구려를 이은 궁예弓裔의 후고구려後高句麗에는 그릇 만드는 일을 관장하는 ‘주도성珠陶省’이라는 관청이 있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고구려에도 그릇 제작을 관장하던 기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토기를 비롯해 흙을 빚어서 기물器物을 만드는 일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었으며, 고구려의 성장과 함께 발전하였다.

고구려 토기는 백제나 신라·가야 토기와는 상당히 다른 특징이 있는데, 우선 모래가 거의 섞이지 않은 고운 점토질泥質의 바탕흙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른 시기의 토기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토기는 물레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그러나, 자기를 만드는 것

과 같이 점토 소지를 물레에 얹고 회전력을 이용해 그릇을 뽑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테쌍기를 이용해 대체적인 형태가 완성된 그릇의 외형을 말끔히 마무리하는데 물레를 사용하였다.

고구려 토기의 제작방법은 오늘날 전통 용기의 제작법과 유사한데, 납작한 바닥을 만들고 그 위에 일정한 두께의 점토 띠를 겹겹이 쌓아올리는 방법으로 그릇을 만들었다. 그릇의 형태가 갖추어지면 물레에 올리고 표면을 마무리하거나 예새 같은 도구를 이용해 몸체 아래쪽을 깎아 내거나 표면을 문질러서 마무리하였다.

고구려 토기는 회색이나 황색 및 흑색이 많다. 모든 토기의 바닥은 납작한 것이 특징이며, 같은 시기 백제나 신라·가야의 항아리는 모두 둥근 바닥인 점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고구려 사람들이 평상 위에서 생활하였고, 입식생활을 하였던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고구려 토기에서 관찰되는 각종 제작 흔적 발굴된 토기에는 제작방법과 관련된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사진은 아차산 보루에서 출토된 6세기 전반경 고구려 토기에서 관찰되는 제작 흔적이다. ①은 납작한 바닥을 놓고 그 옆에 붙여서 몸통을 제작한 흔적이며, ②, ③은 테쌍기로 몸통을 제작한 흔적인데, 2는 토기 안쪽이고 ③은 바깥쪽의 모습이다. ④는 몸통의 아래쪽을 깎아 내서 정면한 흔적이고, ⑤는 단단한 도구를 이용해 아래위로 문질러 정면한 흔적이며, ⑥은 물레를 이용해 뚜껑의 윗면을 정면한 흔적이다.

또한 고구려 토기는 문양으로 장식된 것이 드물다. 간혹 무늬가 장식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분에서 출토된 부장용이거나 의례 용기이다. 대부분의 생활용기는 무늬가 없는 간소한 형태이며 실용적이지만 전체적인 모양과 손잡이 등을 이용해 조화된 형태를 만들어내었다. 또한 삼국 중 가장 먼저 유약이 발라진 토기를 사용하는데, 4세기 이후에는 낮은 온도의 유약을 바른 황유도기(黃釉陶器)나 녹갈도기(綠褐陶器) 등이 제작된다.

고구려 토기의 형성 과정과 변천

고구려 토기의 기원과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부분 미해결의 장으로 남아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자료의 부족에 원인이 있다. 현재까지의 자료로 보아 중국 집안 일대의 혼강 유역과 압록강 유역의 청동기시대 토기의 전통 위에 전국시대 말에서 한대(漢代) 회도(灰陶)의 영향이 가미되어 고구려 토기가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고구려 전기에 보이는 굵은 모래가 섞인 조질태토와 세로로 달린 띠고리손잡이(帶狀把手) 및 마연(磨研) 등의 속성은 청동기시대 이래의 전통이며, 고운 점토질의 니질태토(泥質胎土)와 회색 토기 등의 속성과 일부 기종에서 보이는 한대 토기의 요소 등은 새로이 유입된 것이다.

그러나 3세기 이전의 토기는 자료가 거의 없어서 공백 상태로 남아있으며, 현재로서는 3세기 말~4세기 전반경에 이르러서야 정형성을 갖춘 고구려 토기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현상은 고구려의 집권적 국가체제 성립과 궤를 같이하는 현상이다.

고구려 토기는 제작기법 및 형태상의 변화에 따라 전기(300년 이전), 중기(300년~500년), 후기(500년 이후)의 세 시기로 구분된다. 시기별·기종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고구려 토기의 일반적인 특

정으로는 고운 점토질의 니질태토와 물레나 돌림판을 사용한 성형 기법, 띠고리손잡이와 평저기형, 일부 기종의 시유(施釉)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제작기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 발전한다. 전기에는 태토에 굵은 사립이 섞인 조질토기가 많으며, 중기에 들어서 태토의 완전한 니질화가 이루어지고, 중기부터 저화도 녹갈도기가 제작되기 시작한다.

성형기법 면에서는 전기의 손으로 빚은 수제토기(手製土器) 위주에서 중기부터는 돌림판이나 물레를 사용한 윤제토기(輪製土器)로 변화된다. 표면을 마연하는 기법 역시 고구려 토기의 특징적인 요소로 생각되고 있으나, 전 시기를 거쳐 일부 기종에서만 마연이 확인되고 있다. 고구려 토기에는 문양이 시문된 토기가 드물지만 중기부터는 눌러서 찍는 압날법(押捺法)이나 그어서 새기는 음각법(陰刻法)에 의한 점열문(點列文), 연속사각문(連續四角文), 거치문(鋸齒文), 어골문(魚骨文)전나무잎무늬, 격자문(格子文), 사격자문(斜格子文), 동심원문(同心圓文), 파상문(波狀文), 중호문(重弧文) 등이 일부 기종의 어깨에 시문된다.

후기에는 이들 문양이 일부 계속 시문되기도 하지만 흔히 암문(暗文)이라고 불리는 찰과법(擦過法)에 의한 불규칙한 사선문이나 격자문, 연속고리문 등이 시문된다. 표면 색조는 고구려 전 시기를 통틀어 황색이 가장 많으나, 점차 회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중기 후반부터는 회색의 경질토기가 제작되고 이러한 전통은 발해시기까지 이어진다.

고구려 토기의 종류

고구려 토기의 기종은 모두 30여 개로 분류되며, 저장용, 조리용, 배식용, 운반용 등으로 사용된 실용기와 부장용이나 의례용으로 사용된 비실용기로 대별된다. 기종별로 보면 처음부터 의례용으로만

사용되는 것도 있으나, 초기에 부장용으로 사용되다가 실용기로 기능이 전환되는 것도 있다. 일반적으로 실용기는 부장용기에 비해 크기가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비실용기는 고분에서 출토되는 부장용기와 생활유적에서 출토되는 의례용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약을 바르거나 무늬로 장식한 것이 대부분이다. 실용기는 형태와 크기에 따라 저장용기, 조리용기, 배식기, 운반용기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 중 조리용기와 배식기는 형태에 따라 구분이 용이한데, 완류나 접시류 등은 배식기로 구분이 가능하며, 시루류는 조리용기로 구분된다. 또, 동이류, 광구호류, 반류 등은 높이에 비해 구경이 큰 기종들인데, 음식을 조리하거나 조리할 음식물을 준비할 때 사용된 조리용기로 분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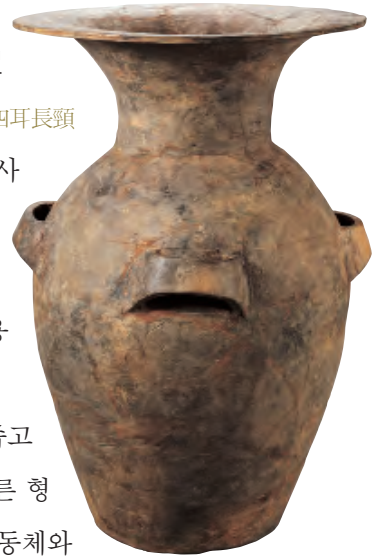
저장용기와 운반용기의 구분은 쉽지 않으며, 형태가 유사한 호·옹류에 있어서 기능의 파악은 더욱 어려운 문제이다. 하지만 호·옹류는 기종별로 크기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크기의 차이는 기능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장용으로 사용된 사이장경호류와 사이장경옹류를 제외하면, 장동호류 및 구형호류와 옹류, 그리고 직구호류와 직구옹류들의 크기는 매우 큰 차이가 있으며, 실제 내용물을 담는 것과 관련된 용량의 차이는 더욱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형태가 유사한 호·옹류 중에서 옹류와 직구옹류는 많은 내용물을 담아 저장하던 저장용기로 구분할 수 있다. 옹류나 직구옹류에 비해 크기가 작은 장동호류와 직구호류, 구형호류 등은 높이에 비해 구경이 작은 특징이 있으며, 적은 양의 내용물 특히 음료 등을 운반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교적 큰 기종인 광구호류는 조리용기로 구분할 수 있고, 이하 각 기종별로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나팔입 항아리

고구려 토기의 가장 특징적인 기종으로 나팔처럼 벌어지는 긴 목과 네 개의 띠고리손잡이(帶狀把手)가 특징적이어서 사이장경옹(四耳長頸甕)이라고 불린다. 크기와 형태에 따라 작은 것은 장경호(長頸壺)·사이장경호(四耳長頸壺), 큰 것은 사이옹(四耳甕)·사이장경옹(四耳長頸甕) 등으로 세분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의 기종이다. 몽촌토성 출토품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주로 고분에서 출토되며, 부장용이나 의례용기로 제작·사용된 기종이다.

3세기경에 네 개의 띠고리손잡이가 달린 납작한 몸체에 좁고 긴 목이 달린 사이장경호만 사용되다가 4세기가 되면서 다른 형태들이 모두 등장한다. 이 중 가장 특징적인 사이장경옹은 동체와 목이 점차 좁고 가는 형태로 변화 발전되며, 발해시기까지 계속 사용된다.



나팔입항아리
몽촌토성, 높이 59.0cm
(서울대학교박물관)

원통형 세발토기

원통형의 몸체에 세 개의 짧은 다리를 부착한 형태의 토기로 보주형(寶珠形) 꼭지가 달린 뚜껑이 덮여 있다. 이 기종 역시 특징적인 고구려 토기의 하나로 부장용이나 의례용기로 사용되었다. 중국 한대(漢代) 청동기인 렬(罍)이나 도기 회유(灰釉)를 모방한 것이다. 평양 근처의 고분에서 출토된 것과 몽촌토성 출토품이 알려져 있는데, 대체로 5세기 중엽 경으로 편년된다. 몽촌토성 출토품은 몸체 윗부분에 여러 조의 중호문이 새겨져 있다.



원통형세발토기
평양, 높이 22.5cm
(국립중앙박물관)

깊은바리

아가리가 넓고 몸체가 깊은 그릇으로 심발(深鉢)이라 불리며, 중국에서 관(罐)이라고 부르는 기종이다. 고구려 건국 초기부터 사용되는 기종으로 초기에는 어깨에 꼭지손잡이나 한 쌍의 고리손잡이가 세



깊은바리
시루봉보루, 높이 16.7cm
(서울대학교박물관)



긴항아리
구의동보루, 높이 32.7cm
(서울대학교박물관)

로 부착된 것이 많으며, 목과 아가리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동체부도 좁고 긴 것이 특징이다. 3세기 후반~4세기경에는 높이에 비해 최대경이 커지며, 이전 시기에 비해 목과 아가리의 형태가 뚜렷해진다. 이 기종은 고분과 생활유적 모두에서 출토되며, 직접 불을 받는 조리용기로 사용되었다.

긴 항아리

긴항아리(長胴壺)는 최대경에 비해 몸체가 좁고 긴 것이 특징이며, 5세기 전반 무렵부터 깊은바리를 대신하여 사용된 기종이다. 5세기 전반 무렵 고분에 부장된 일부를 제외하면 모두 생활유적에서 출토된 실용기이며, 주로 음료를 담아서 사용하던 개인용기로 생각된다. 초기의 긴항아리는 목과 몸체의 구분이 그다지 뚜렷하지 않으나, 점차 목과 몸체의 구분이 뚜렷해지고 최대경이 어깨로 올라와 어깨가 발달하는 형태로 변화된다. 가장 많이 출토되는 기종 중의 하나이다.



깔때기형 토기
아차산 4보루, 높이 20.6cm
(서울대학교박물관)

깔때기형 토기

긴항아리의 바닥과 아가리를 잘라낸 것과 유사한 모양으로 아차산 4보루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형태의 그릇이다. 긴항아리나 작은 항아리와 같이 아가리가 좁은 그릇에 물이나 액체를 담을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귀항아리
아차산 4보루, 높이 18.5cm
(서울대학교박물관)

귀 항아리

귀항아리(耳附壺)는 짧은 목과 공처럼 둥근 몸체에 두 개 또는 네 개의 손잡이가 달려 있는 형태이다. 이른 시기 출토 예는 고분 출토 품이 많으며, 5세기 이후 생활유적에서도 많이 출토되고 발해시기까지 계속 사용되는 기종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몸체의 형태가

점차 길어지며, 아가리가 작아지는 형태로 변화된다.

작은 항아리

항아리는 둥근 몸체에 짧은 목이 달린 그릇에 대한 총칭으로 가장 출토 예가 많은 기종이다. 항아리 중에서 높이 40cm 미만을 작은항아리壺라 부르며, 이보다 큰 것을 큰항아리甕이라 부른다. 작은 항아리는 목과 동체부의 형태에 따라 세 종류로 구분된다. 즉, 공처럼 둥근 몸체에 목과 아가리가 곧추선 형태와 눌린 공 모양扁球形의 몸체에 아가리가 밖으로 벌어진 형태, 짧게 밖으로 벌어진 아가리에 약간 긴 몸체를 가진 형태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은 주로 고분에서 출토된다. 첫 번째 유형은 주로 4~5세기경의 적석총積石塚에서만 출토되며, 형태상 변화도 거의 없다. 두 번째 유형은 세 유형 중 가장 크기가 작는데, 몸체가 점점 납작해지는 형태로 변화되어 발해시기까지 사용된다. 세 번째 유형은 작은항아리 중에서 비교적 몸체가 긴 형태로 실용적인 형태를 하고 있으며, 점차 몸체가 길어지고 어깨가 발달하는 형태로 변화된다. 세 번째 유형은 일부 고분에서 출토되는 예가 있으나, 주로 생활유적에서 출토되는 예가 많아 실용기로도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두 귀 달린 긴 항아리

두 귀 달린 긴 항아리兩耳附長胴甕는 길다란 몸체에 갑자기 축약된 짧은 목이 달린 특이한 형태의 항아리로 몸체에는 한 쌍의 띠고리 손잡이가 달려 있다. 이 기종은 한강 유역에서만 출토되어 5세기 중·후반 무렵에 새로이 등장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실용기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몸이 길고 목이 좁은 형태상의 특징으로 보아 액체를 저장하거나 운반하는 용도로 추정된다.



작은항아리
주월리유적, 높이 29.3cm
(국립중앙박물관)



두귀달린항아리
구의동보루, 높이 53.5cm
(서울대학교박물관)



큰항아리와 웅기항아리
(위) 구의동보루, 높이 67.0cm
(서울대학교박물관)
(아래) 20세기 충청도지역 웅기
높이 80.0cm
(연세대학교박물관)

큰항아리

큰항아리는 높이 40cm 이상의 항아리로 오늘날 사용되는 김치독과 같은 모양의 그릇이다. 이 기종은 크기와 형태에 있어서도 실용적이지만 실제로 모두 생활유적에서 출토되어 실용기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큰항아리의 용량은 평균 51 l이며, 큰 것은 100 l가 넘는 것도 있다. 일반적으로 음료나 곡식을 저장하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고구려 사람들은 이미 발효식품을 가공하여 먹었으므로 장과 같은 발효식품의 저장용으로도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주로 고구려 중기 이후에 많이 사용되며, 몸체가 세장한 형태에서 점차 넓고 어깨가 발달한 형태로 변화되어 발해시기까지 사용된다. 큰항아리의 형태와 제작기법은 이후 고려와 조선시대로 이어져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웅기의 원형이 되었다.

짧은목항아리

짧은목항아리直口壺·甕는 아가리가 짧게 곧추선 항아리로 뚜껑이 있는 기종이며, 몸체에 고리손잡이나 띠고리손잡이가 부착되기도 한다. 크기에 따라 작은항아리와 큰항아리로 구분된다. 소형의 짧은목항아리는 이미 3세기경의 고분에서 출토되며, 6세기경에는 실용기로도 사용된다. 6세기 후반 경에는 몸체가 납작하게 변화하며 발해시기까지 계속 사용된다. 짧은목큰항아리 역시 5~6세기경에 출현하는데, 몸체에 두 개 또는 네 개의 띠고리손잡이가 부착되며, 용량은 평균 98 l로 고구려 토기 중 가장 크다. 음료나 곡식, 장과 같은 발효식품 등을 저장하던 용도로 사용되었다.



짧은목큰항아리
시루봉보루, 높이 81.8cm
(서울대학교박물관)

동이

동이大鉢는 바닥에 비해 아가리가 넓고 높이가 낮은 대야 모양의 토기로 자배기 또는 버치라고도 불리며, 중국에서는 분盆이고 불린

다. 이 토기는 실용기로 음식물 조리 준비용으로 사용되었으며, 고구려 토기 중 가장 많이 쓰이던 토기 중의 하나이다.

동이는 아가리 지름이 17cm에서 60cm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대형과 소형으로 나뉜다. 5세기의 동이는 아가리 지름이 높이의 1.5배 가량 되는 것이 많으나 6세기의 동이는 아가리 지름이 높이의 두 배를 넘는 납작한 형태로 변한다. 후기에는 더욱 납작해지고 몸체에 한 쌍의 띠고리손잡이가 부착되기도 하며, 발해시기까지 계속 사용되었다.



동이
시루봉보루, 높이 29.2cm
(서울대학교박물관)

시루

시루甗는 음식물을 찌서 익히던 그릇으로 바닥에는 구멍이 뚫려 있고, 몸체에는 한 쌍의 띠고리손잡이가 부착되어 있다. 시루 역시 음식물을 조리하던 실용기지만 5세기 전반경까지는 고분에 부장되기도 한다. 이미 고구려 초기부터 시루가 등장하지만 4세기 말까지는 형태가 정형화되지 않으며, 바닥의 구멍도 작은 구멍이 무질서하게 배치되어 있다. 5세기 중반 이후의 시루는 형태도 정형화되었지만 시루의 기능을 좌우하는 바닥의 구멍에 있어서 일정한 형식을 갖추게 된다.

즉, 가운데에 지름 3cm 내외의 원형 구멍을 중심으로 같은 크기의 구멍 6개를 배치하며, 6세기 전반경에는 가운데 하나의 구멍을 중심으로 네 개의 구멍이 배치된다. 6세기 후반경에는 가운데 하나의 원형 구멍을 중심으로 주변에 네 개의 구멍을 배치하지만 주변의 구멍은 타원형으로 변하는데, 오늘날 민가에서 사용하는 시루와 유사한 형태이다. 안악 3호분의 부엌에는 시루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어서 당시 사람들이 음식을 찌서 먹었으며, 시루가 주요한 조리 용구였음을 알 수 있다.



시루와 쇠솥
구의동보루, 높이 45.5cm
(서울대학교박물관)

솔

솔^鎗은 둥근 몸체에 짧은 목이 달린 모양이며, 몸체 윗쪽에 전이 돌려진다. 바닥에는 굽이 달린 것도 있고 굽이 없는 것도 있는데, 굽이 없는 것이 늦은 시기의 것이다. 집안 지방에서 출토된 솔 중 일부는 유약을 입힌 것도 있다. 주로 고분에서 많이 출토되며, 같은 형태의 철솔이 출토되는 점으로 미루어 부장용으로 많이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사발

사발^盥은 오늘날 식탁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모양이며, 개인용 배식기로 사용되었던 대표적인 실용기의 하나이다. 사발은 이미 고구려 초기부터 사용되는데 바닥에 얇은 굽이 달린 것과 굽이 없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일부 고분에서 출토된 예를 보면 보주형^{寶珠形} 꼭지가 달린 뚜껑이 덮여 있는 예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실용기로 사용된 사발도 일부는 뚜껑을 덮어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바닥에는 ‘井’, ‘小’, ‘大’ 등과 같은 부호를 새기거나 부조한 것이 많이 있는데, 제작지나 주문처 또는 사용자를 표시한 것이거나, 벽사^{辟邪}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귀잔

귀잔^{耳杯}은 사발모양의 토기의 구연부 양쪽으로 좁은 귀를 부착한 형태의 그릇이다. 초기의 귀잔은 그릇의 아가리가 타원형이며, 아가리의 긴 변에 귀를 붙였다. 그러나 5세기 이후 아가리가 사발과 같이 둥글게 바뀌며, 여기에 약간 넓은 귀가 부착된다.

초기의 귀잔은 주로 고분에서 출토되며, 유약이 발라진 예가 많아서 비실용기로써 부장용이나 의례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



사발과 뚜껑
구의동부루, 높이 7.5cm
(서울대학교박물관)



귀잔
용마산 2보루, 높이 6.4cm
(서울대학교박물관)

고, 백옥으로 만든 것도 있다. 아가리가 둥글게 바뀐 이후에는 실용기로 사용되었으며, 나중에 백제에도 전해져 사비기 泗泚期 백제의 전달린토기와 같은 형태로 제작·사용된다.

종지

종지 鍾止는 오늘날 간장종지와 같은 형태의 작은 그릇으로 높이에 비해 아가리가 넓은 납작한 형태와 아가리에 비해 높이가 높은 깊은 형태의 두 가지가 있다.

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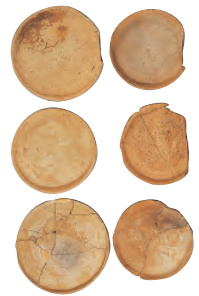
납작한 바닥에 얇은 구연이 달린 형태의 토기로 사발과 함께 개인용 배식기로 사용되었던 그릇이다. 접시는 바닥에 얇은 굽이 달린 것과 굽이 없는 것의 두 가지가 있는데, 굽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접시의 바닥에는 ‘후부도○형 後部都○兄’, ‘염모형 冉牟兄’, ‘지도형 支都兄’ 등의 명문이나 ‘井’, ‘小’, ‘x’ 등의 부호가 새겨진 경우가 많이 있다. 접시에 새겨진 명문은 주로 이 그릇을 사용하던 사람의 출신지와 이름 또는 관직명을 새긴 것이고, 부호는 벽사 辟邪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뚜껑

뚜껑은 여러 종류의 그릇에 덮어서 사용하던 것으로 하나의 독립된 기종은 아니다. 뚜껑의 크기를 나타내는 드림부의 지름은 9cm에서 48cm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크기와 형태에 따라 여섯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유형은 원반형의 몸체에 고리모양의 파수가 부착된 것으로 드림부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 유형은 가장 이른 시기에 출현



접시
구의동보루, 왼쪽 아래 지름 17.0cm
(서울대학교박물관)

하여 4세기 이후에는 사용되지 않는데, 출토 예도 매우 적다. 두 번째 유형은 납작한 형태의 개신부蓋身部에 직립하거나 또는 밖으로 약간 벌어지는 드림부가 달려 있으며, 보주형 꼭지가 손잡이로 달려 있다. 이 유형의 뚜껑은 드림부 지름이 18~26cm의 범위에 있으며, 실제 나팔입항아리에 덮인 채 출토된 예도 있어서 주로 나팔입항아리의 뚜껑으로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은 두 번째 유형과 유사하지만 드림부가 안으로 한 번 꺾여 있는 것이 특징이며, 주로 사발盃이나 원통형세발토기의 뚜껑으로 사용되었다. 네 번째 유형은 드림부가 개신부의 안쪽으로 들어가 있거나 위로 들려 있는 특이한 형태이다. 주로 병과 같이 반구형盤口形 아가리가 달린 그릇의 뚜껑 또는 마개로 사용되었다. 다섯 번째 유형은 손잡이가 없으며, 드림부가 직립하다가 짧게 꺾이면서 턱이 생긴 형태인데, 형태나 크기로 보아 합盒의 뚜껑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여섯 번째 유형은 이른바 반형盤形뚜껑으로 불리는 것으로 출토 예가 가장 많고 크기도 가장 크다. 손잡이가 없는 것이 많으나 일부 드림부에 귀손잡이 또는 띠고리손잡이를 한 쌍씩 붙이거나, 개신부 가운데에 고리손잡이나 보주형 꼭지손잡이 하나를 부착한 예가 있다. 이 유형은 주로 큰항아리나 짧은목큰항아리 등 큰 그릇의 뚜껑으로 사용되었으며, 드림부가 편평하여 뒤집어서 쟁반과 같은 용도로도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병
구의동보루, 높이 11.9cm
(서울대학교박물관)

병

공처럼 둥글거나 약간 눌린 공모양의 몸체에 좁고 긴 목이 달린 형태의 그릇으로 바닥에는 얇은 굽이 붙고 아가리는 ‘ㄴ’자로 꺾인 반구형이 많다. 초기의 병은 유약을 바른 경우가 많으며, 형태는 중국 육조六朝시대의 자기병과 유사하다. 5~6세기 경에는 토기로 제작된 병이 나타나며, 몸체의 형태도 점차 눌린 공 모양으로 납작하게

변화된다. 병은 부장용이나 의례용으로 생각되며, 실용기로 사용되었더라도 향료와 같은 귀한 액체를 담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합

합盒은 오늘날의 찬합과 같은 형태의 그릇으로 뚜껑이 있는 기종이다. 합은 구연부에 뚜껑받이 턱이 달린 것과 없는 것이 있으며, 몸체에 꼭지 손잡이나 띠고리형손잡이가 달린 경우도 있다. 초기에는 고분에서 출토되는 예가 있기는 하지만 주로 실용기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합
시루봉보루, 높이 23.0cm
(서울대학교박물관)

구절판

구절판九折板은 납작한 쟁반모양의 그릇을 칸막이로 막아 여러 칸으로 나누어놓은 형태의 그릇으로 오늘날 반찬그릇과 유사한 형태이다. 이 그릇은 아차산 제4보루에서 한 점 출토되었는데, 가운데를 원형으로 막고 주위를 네 개의 판으로 막아 다섯 칸으로 구분한 형태이다. 이 토기는 고구려 사람들이 기능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토기를 만들어 썼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구절판
아차산 4보루, 지름 25.4cm
(서울대학교박물관)

또아리병

속이 빈 또아리 모양의 몸체 한쪽에 입이 달려 있는 특이한 모양이다. 또아리병環狀瓶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된 토기는 아니고, 숨겨 좋은 도공이 가족으로 된 물병 등을 모방하여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구의동보루에서만 한 점이 확인되었는데, 표면은 흑색으로 매끄러우며, 몸체에는 여러 조의 침선이 돌려져 있다.



또아리병
구의동보루, 높이 10.7cm
(서울대학교박물관)

호자

남성전용 요강이다. 고구려 호자虎子는 두 종류가 알려져 있는데,



호자(요강)
충남 부여, 높이 21.0cm
(공주대학교박물관)

하나는 이와 같이 항아리 모양의 한쪽에 주둥이가 있고, 위에는 보주형의 꼭지손잡이가 달린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위로 굽은 배 모양의 몸체에 손잡이가 달린 것으로 후자는 오늘날 병원에서 사용하는 환자용 변기와 유사한 형태이다. 앞은 충남 부여지방에서 출토된 것으로 어깨에 증호문重弧文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사비기泗泚期 백제 토기에 전해진 고구려 토기의 한 예이다.

부뚜막

실제 사용한 것은 아니고, 무덤에 부장한 것이다. 모양은 안악 3호분 등의 벽화에 묘사된 것과 같은 형태이고, 유적에서 출토되는 온돌부뚜막의 구조와도 같다. 일부 유약을 입힌 예도 있으며, 쇠로 만든 것도 있다. 그림은 집안시 장천 2호분에서 출토된 것으로 테두리를 두른 사각형의 아궁이와 솔을 거는 자리와 굴뚝이 설치되어 있으며, 황유를 입혔다.



부뚜막
중국 집안시, 높이 30.5cm,
(교토대학교박물관)

굴뚝

굴뚝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위로 갈수록 좁아드는 긴 원통형의 몸통 위에 보주형의 갓이 달린 형태로 일반적인 민가



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사찰이나 공공건물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고분에 부장되기도 한다. 이런 모양의 굴뚝은 백제에도 전해져 부여 능산리사지에서 유사한 형태가 출토되었다. 다른 하나는 일반 민가에서 실용적으로 사용된 것인데, 형태는 원통형과 항아리형, 끝이 좁아든 원통형 등이 있으며, 크기도 다양하다.

아차산 4보루의 가장 큰 온돌에 사용된 굴뚝은 높이 81cm, 지름 47cm의 대형이며 몸체에 네 개의 띠고리손잡이가 부착되어 있다. 발달된 고구려 토기 제작기술을 볼 수 있는 좋은 예이다.

굴뚝 (왼쪽)
아차산 4보루, 높이 81.0cm
(서울대학교박물관)

벼루 (오른쪽)
평양 정릉사지, 지름 15.2cm
(조선중앙력사박물관)

〈최종택〉

백제

백제의 성장과 백제 토기의 범주

백제 토기하면 백제 사람들이 만들어 쓰던 토기라고 간단히 답할 수 있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백제 토기란 무엇인가 하고 물으면 막상 대답하기가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백제라는 역사적 실체는

700여 년을 거치면서 그 영역이 자주 변해왔고 그 안에서 사용되던 토기 역시 매우 복잡하여 주변의 토기와 접촉하면서 그 양상을 달리 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백제의 영역에 포함되었던 지역을 크게 보면 한강 유역, 금강 유역, 영산강 유역이라 할 수 있다. 한성 시기에는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여 금강 유역을 통합한 범위를 영역으로 하였으나 마지막 사비시기에는 금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여 영산강 유역을 통합한 국가였다.

백제는 한강 중류에 자리 잡고 있던 마한의 한 소국에서 출발하여 이웃한 소국들을 통합하면서 국가로 성장한다. 한편 백제 토기는 원삼국시대 마한지역의 공통된 토기문화 안에서 백제 고유의 제작 기술과 기종器種이 등장하면서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백제 토기는 국가 단계로서의 백제에서 제작 사용한 토기’¹²라고 개념을 정의하는 견해가 나왔다.

이 주장에 따르면 백제는 3세기 후반이 되면 더 이상 소국이 아니라 국가로 등장하였다고 하며 국가 형성의 물질적인 징후가 바로 마한의 공통된 토기 양식이 아닌 독특한 백제 토기의 성립이라고 한다. 그리고 백제 국가의 중심지에서 발생한 백제 토기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어 그 지역의 마한토기를 대체해 나갔다고 본다.¹³ 이 견해가 대세론으로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3세기를 국가 성립기로 보는 점과 이 무렵에 백제 양식이 성립한다고 보는 점은 무리한 생각이 아닐까 한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따르면 백제는 고구려 계통의 이주민이 남하하여 기원전 1세기에 국가를 건설하고 하남(河南) 위례성(慰禮城, 지금의 서울 송파구·강남구 일대)에 도읍을 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는 한반도 중부와 서부 일대에 마한(馬韓)의 70여 소국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으로 전하고 있으며 그 중



에 백제국(百濟國)이라는 소국의 이름을 찾을 수 있다. 물론 『삼국사기』의 기록은 신화적인 성격이고 국가의 성립이 어떤 의미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백제가 중앙집권을 달성한 국가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백제라는 정치 집단은 『삼국지』가 편찬된 3세기 이전부터 존재하였음이 분명하다.

문헌적인 증거들과 최근에 이루어진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얻은 자료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백제의 성립과 성장에 관하여 다음 두 가지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첫째로, 백제는 그 지배세력의 계통이 누구이든 마한의 여러 소국들 중에 하나로 출발하여 성장하였고 그 중심지는 서울의 한강 이남지역에 해당될 것이다. 둘째로, 몽촌토성(夢村土城)과 풍납토성(風

풍납토성
풍납토성 전경과 발굴지점(2002년 항공사진)

중국 서진대 자기편
몽촌토성 저장혈에서 발견된 전문도기편(錢文陶器片)



용원리 9호석곽묘(왼쪽)
4세기 후반부터 초기국가 백제에 복속한 지방세력들이 제 지역에 고분군을 축조한다. 지배계급의 고분에서는 환두대도나 금제귀걸이 같은 금으로 장식된 물품과 함께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자기와 정교하게 만든 한성백제의 토기 등이 출토된다.

정교하게 제작된 한성백제 흑색마연토기(오른쪽)
백제 중앙으로부터 지방권력자에게 분배되었던 위세품 중에 하나로 보인다.



納土城에서 발견된 서진대西晋代의 전문호錢文壺의 존재로 본다면 3세기 무렵의 백제는 이 일대를 중심으로 삼고 중국과 교섭할 수 있을 정도의 정치세력으로 성장하였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3세기 후반의 백제는 마한 소국 중에 우월한 정치집단일 뿐이지 주변 정치체를 통합하여 중앙집권화한 정부조직을 구축했다는 고고학적 증거는 없다.

문헌 증거나 고고학 자료로 볼 때, 백제가 주변 마한세력을 통합하여 영토를 크게 확장하는 시기는 4세기 중·후반 근초고왕 때로 보인다. 이 무렵 근초고왕은 북쪽으로 평양성을 함락하여 고국원왕을 전사시켰으며 남쪽으로 진출하여 가야와 영산강 지역의 세력을 평정하고 섬진강 하구를 장악하여 왜와의 통교를 시작했다는 것이

역사학계의 통설이다.

이러한 점에서 4세기 후반 무렵을 백제 초기국가 성립기로 보아도 틀리지는 않을 듯싶다. 최근 금강 유역과 한강 중유역에서 발견되는 지역집단의 수장묘에서는 이전에 마한의 지배집단 분묘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금공품^{金工品}, 새로운 무기체계와 백제 스타일의 토기, 그리고 중국 자기 등이 출토된다. 이러한 유물은 이 지역집단의 수장들이 백제에 복속하고 중앙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얻은 귀중품, 혹은 위세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 속에 자연스럽게 백제양식의 토기도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러한 성격의 고분군이 등장하는 시기는 3세기가 아니라 4세기 후반 이전으로 는 올려 볼 수 없다.¹⁴

초기국가 형성 이후 100년을 넘지 못하고 백제는 고구려의 압박에 의하여 도읍을 한성(漢城, 서울 강남지역)에서 웅진(熊津)으로 옮기고 다시 호남의 평야지대로 진출하기 위하여 사비(泗比)로 천도한다. 이러한 중심지의 이동 과정에서 한강 유역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하는 대신 충청·전라지역에 대한 지배권력을 확대하며 직접적인 지방 지배를 실행하면서 고대 국가의 내실을 다지게 된다. 백제가 호서 지역과 호남지역을 영역화하는 가운데 영산강 유역도 백제에 복속 되었으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이 지역은 6세기 중엽까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독자성을 잃지 않았다.

이 무렵까지 영산강 유역에는 대형의 분구묘들이 지속적으로 축조되었으며 ‘영산강 양식(榮山江樣式)¹⁵’이라 할 만한 토기 양식이 존속했기에 그러한 추론이 가능하다. 백제가 직접 지배를 위한 지방통치체제를 확대해 나가면서 재지적인 세력집단을 흡수·통합하는 과정은 6세기까지 지속된다.

백제 토기의 개념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정의해 둘 필요가 있다. 첫째로는 백제 토기가 제작되고 사용되었던 시기와 영역을 파악한 다

음, 둘째로 백제 토기의 그릇 종류와 제작기술, 그리고 형태의 다양성으로 정의해야 한다. 백제사의 전개 과정에서 보았을 때 정확한 시기를 확정하기는 어려우나 백제국(百濟國)이 다른 마한의 소국보다 월등한 소국으로 등장하는 시기에 백제 토기의 고유한 기종과 기형이 마한의 공통된 토기 양식으로부터 형성되어 나왔으리라고 여겨진다.

이렇게 성립한 한성백제의 토기 양식은 초기국가의 영역 안으로 확산되고 웅진 시기에는 금강 유역을 중심으로 범위가 축소되어 존속했다. 사비 시기 백제 토기는 생활용 토기의 기종과 질에 있어서의 커다란 변혁기로 이 기간 동안 회색연질의 일상용기, 전 달린토기, 등잔, 호자, 변기 등의 신기종, 그리고 녹유도기 등이 제작된다.

백제 토기의 형성과 발전

백제 토기의 등장

백제사의 첫 장이며 가장 오래 지속했던 한성시기의 백제 토기 양상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된 것은 몽촌토성과 석촌동고분군이 발굴되면서부터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몽촌토성에서 발견되는 백제 토기는 고구려의 장수왕이 남하하여 한강 유역을 점령한 바로 그 시기까지 사용되던 것이다. 몽촌토성에는 또한 많은 양의 고구려 토기도 발견되고 3세기 후반 수입된 서진의 시유도기(施釉陶器) 전문호(錢文壺)가 출토되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약 200년간 사용되었던 백제 토기가 퇴적되어 있는 셈이다.

몽촌토성의 자료를 이용한 백제 토기 연구의 과제는 고구려 토기를 변별해 내고 백제 토기를 시기별로 구분해 보는 작업이었다.¹⁶ 1980년대 후반에 이루어진 석촌동고분군의 발굴조사에서는 3호 적석총의 아래층에서 보다 이른 시기의 토광묘와 분구묘가 노출되었다. 이곳에서 출토된 토기는 백제 토기의 발생과 변천을 말해주

는 자료로 생각되었는데, 이 자료를 중심으로 한성백제 토기의 6단계로 편년한 연구가 발표되었다.¹⁷

원래 한강 유역에서는 원삼국시대 취락유적이 많이 조사되었고 여기에서 토기 자료가 많이 수집되어 있었다. 원삼국시대 한강유역은 한韓과 예濊가 섞여 살았던지라 이 토기 자료는 역시 마한이나 예의 토기일 터인데 기술 체계가 다른 토기 유물군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첫째로는 중도식무문토기라고 하는 것인데 70~80%가 이 종류이다. 기종 구성이 간단하여 웅甕과 발鉢과 완甁 정도가 있을 뿐이며 제작기술도 단순하여 어느 것이나 모래가 많이 섞인 원료로 점토 띠를 쌓아 성형하고 표면을 아래위로 거칠게 마



백제토기 형성 이전의 중도식무문토기 웅과 발 일상용 토기들이 무문토기 제작 전통으로 만들어졌다.



백제토기 웅과 발 일상용 토기 기종 모두가 타날기법과 물레질법이 적용되어 생산되었다.

백제의 저장 구덩이
몽촌토성 저장혈과 저장용 독.



백제의 저장용 독
몽촌토성 저장혈에서 출토된 대형 저장
용 독.



연한 정도로 마무리했다. 둘째로는 회색 타날문토기이다. 이 시기의 타날문토기는 밑이 둥근 원저단경호(圓底短頸壺)밖에 없다. 이 두 종류의 토기와 함께 가끔 회색 혹은 흑색의 평저단경호가 함께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 토기는 낙랑 토기의 기술과 연관성이 있는 듯 싶은데 어떤 유물은 낙랑에서 제작되어 수입된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낙랑의 토기를 모방하거나 그 기술을 응용하여 만들기도 한 것 같다.

원삼국시대 한강 유역에 퍼져 있던 마한 혹은 예의 토기문화를 토대로 백제 토기가 형성되어 나온다. 백제 토기의 발생은 서서히 진행된 과정으로 그 변화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타날기법과 회전성형·정면기법을 토대로 한 기술 체계의 확대과정이다. 원래 타날기법과 물레질법은 단경호류의 제작에만 적용되었는데 원삼국시대 중도식무문토기 옹이나 발에도 적용되어 적갈색연질의 타날문 옹과 발로 변화된다. 둘째로는 회색토기의 기종이 다양화되고 그 중 일부는 도질토기로 생산된다는 것이다. 새로 등장한 회색토기의 기종으로는 직구단경호, 광구장경호, 대호와 같은 중대형의 기종도 있지만 유견호와 완과 같은 소형기를 비롯해 삼죽반과 삼죽배, 고배, 기대 등과 같은 특수 기종으로 확대된다. 그리고 셋째로는 흑색마연토기와 같이 아주 정교한 마연기술과 침탄 소성기술로 제작되고 검은 광택이 나는 고급 토기의 제작이다.

한성시기와 웅진시기의 백제 토기

과연 한성백제 토기가 등장하는 시점은 과연 언제부터이며 이 한성백제 토기의 특성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몽촌토성과 석촌동고분군의 토기 자료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백제 토기의 등장 시점을 3세기 초나 3세기 후반에 둔다. 최근 풍납토성의 발굴조

사에서 확인된 경당 지구 101호 유구를 발굴자는 백제 토기가 나온 가장 이른 시기의 유구라고 주장하면서 여기서 나온 오수전과 수입된 중국 도기를 근거로 백제 토기가 3세기 후반에 등장함을 재확인하였다.¹⁸

그러나 이 연대추정에 여러 문제가 있으며 그 시기를 훨씬 늦추어 보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백제 토기의 상한 연대를 결정할 자료가 딱히 확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4세기 무렵의 어느 시점에 백제 토기의 특성이 드러나게 된다고만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한편, 서진이나 동진으로부터 수입된 도자를 모방하는 과정에서 백제 토기의 새로운 기종이 탄생되었을 것이다.¹⁹ 이를테면 직구단경호直口短頸壺, 유견호有肩壺, 삼족반三足盤과 같은 기종은 그릇의 외형은 물론이고 문양 형태까지도 중국도자의 같은 기종과 아주 흡사한 것을 보면 백제 토기의 발생에 수입도자가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요인과 과정을 살핀다면 사회변동에 따른 토기생산의 전문화가 백제 토기의 발생을 이끌어 낸 것이 아닐까 한다. 사실 수입 도자를 세련되게 모방할 수 있었던 것도 실





은 전문도공의 기술적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백제 토기로의 변화는 **옹甕**과 **발鉢**이라고 하는 생활용 토기에서 먼저 발생한 듯싶다. 이러한 변화는 중서부지방 백제 토기의 전반적인 변화이며 엄밀히 말하면 백제 토기의 발생 이전, 혹은 백제 토기의 영향 없이 시작된 것이다.²⁰ 원삼국시대에는 이 두 기종을 중도식무문토기라고 부른 것처럼 무문토기와 다를 바 없는 거친 기술로 제작되었다. 곧 전업 도공이 아닌 제작자에 의해 마을 단위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와 함께 나오는 타날문단경호는 타날법과 물레질법에 의해 전문인에 의해 생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충북 진천의 산수리유적은 3세기 말에서 4세기에 걸친 백제지역의 토기요지로 전문 도공에 의해 큰 규모로 운영되던 공방이었다.²¹

한성 백제시기 백제 토기의 대표기종
 ❶ 고배, ❷ 직구단경호, ❸ 삼족토기,
 ❹ 광구장경호, ❺ 삼족반

그런데 이 공방에서는 다른 기종은 전혀 제작이 시도되지 않았고 타날문 단경호만 생산되었다. 백제의 중심지가 아니라 외곽이긴 하지만 이 무렵까지 전문 도공들은 다양한 기종을 생산했던 것이 아니라 타날문 단경호만을 생산했던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타날문 단경호를 전문으로 제작했던 도공들이 그들의 전문 기술 체계로 옹과 발과 같은 기종을 생산하여 각 마을의 소비자들에게 광범하게 공급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백제 토기로의 전환 과정의 첫 단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나아가 이와 같이 축적된 기술로 전문도공이 중국 도자의 기종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그릇 제작을 시도함으로써 다양한 한성백제 토기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본다.

한성백제의 토기에는 중도식무문토기에서 발전되어 나온 적갈색연질의 옹과 발, 그리고 전통적인 타날문 단경호와 대호, 중국 도자의 기종을 토기로 모방하거나 목기와 같은 기물의 변안토기 혹은 새로 개발된 기종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회색토기의 기종이 있다. 그런데 회색토기는 두 가지 질의 토기가 섞여 있다. 회색의 연질에 가까운 것이 있는가 하면 회청색의 경질 즉, 도질토기陶質土器가 있다. 보통 기종에 따라 토기의 질이 다를 것이라 예상되지만 실은 같은 기종이 동시기에 서로 다른 질로 제작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백제의 중심지에서 한성백제 토기가 성립할 무렵 중서부지방에는 마한토기의 전통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 이 시기 마한토기는 주로 저분구묘低墳丘墓와 주구토광묘周溝土壙墓의 부장품으로 흔히 확인된다. 천안의 청당동, 청주 송절동과 봉명동, 공주 하봉리, 그리고 오산 수청동 고분군이 대표적으로 이 마한의 토광묘에서는 격자문과 평행선문으로 타날된 회색 단경호 여러 점과 중도식무문 토기 발鉢 한 점이 동반되어 출토된다.

이러한 성격을 지닌 마한의 토광묘는 4세기 후반이나 5세기초까

지 축조되다 소멸하고 이 무렵부터 한성백제의 중심지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지역에 새로운 성격의 고분군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천안 용원리, 공주 수촌리, 서산 부장리, 청주 신봉동, 원주 법천리고분군 등이 대표적인 유적이다. 이 유적의 각각의 매장시설 형식은 상이하더라도 출토 유물, 특히 상위고분의 부장품에서는 상당한 공통성이 있다. 여기서 상위고분에 등장하는 공통된 유물이란 백제로부터 사여받은 중국 도자와 금공위세품과 한성백제의 토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성백제의 고유 기종인 직구단경호, 삼족기, 고배 등과 함께 한성백제의 중심지의 것과 꼭 같은 장식과 문양을 지닌 흑색마연토기는 빠지지 않고 출토된다. 이러한 고분군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한성백제에 복속한 지방의 지배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고분군들의 시기는 일러야 4세기 후반을 넘지 못하며 그 분포가 금강 유역 일원에 미치고 있어 4세기 후반경에 성립한 초기국가 백제의 세력권이 어느 정도 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한성백제는 5세기 후엽 고구려 장수왕의 침입으로 몰락하고 그 지배층은 가까스로 웅진으로 패주하여 그곳을 제2의 도읍으로 삼게 된다. 웅진시기에 백제는 금강 유역 일대를 세력의 기반으로 삼아 국력 회복을 도모하면서 호남지방으로도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역사적으로 한성시기는 막을 내렸지만 한성백제의 토기는 웅진시기까지 지속되며 기종 구성이나 제작기술에서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다.

웅진시기의 왕릉이 자리 잡은 송산리고분군의 뒤편 구릉에 위치한 정지산유적은 무령왕과 왕비의 빈전이 있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6세기 전반의 짧은 시기에 존속했던 의례 유적이다. 이 유적에서 출토된 각종 호류와 고배, 개배, 삼족기 등은 한성백제의 기종 그대로이며 약간의 기형적 변화만 관찰될 뿐이다.

사비시기의 백제 토기

백제가 도읍을 부여로 옮긴 538년 이후, 백제 토기의 생산과 분배 그리고 소비 양식에서 커다란 전환을 보게 된다. 사비시기 초기에는 웅진시기의 토기 양상을 어느 정도 이어가지만 6세기 중엽으로 접어들면서 백제 토기는 성형 및 소성 기술, 외형과 장식, 생산과 분배의 방식에서 큰 변화가 일어난다.

그 변화의 배경에는 고구려 토기의 영향이 있었다는 연구가 있다.²² 사비시기의 백제 토기는 주로 충청·전라지역의 왕궁지, 성지,



부여 관북리 왕궁지에서 출토된
사비시대 회색토기 대표기종
①전달린 토기, ②유개합, ③대부명



회색토기 호자(虎子)
백제 귀족문화가 발달하면서 중국에서
자기로 수입된 남성용 변기 호자를 회
색토기로 자체 생산하여 사용했다.

사찰, 기타 건물지 및 생활유적, 그리고 토기요지와 고분 등에서 주로 출토된다.

사비시기 토기의 특징을 그릇 종류별로 보면 먼저 단경호의 경우 이전부터 있었던 둥근 바닥의 원저단경호(圓底短頸壺)가 일부 잔존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납작바닥의 형태의 평저단경호(平底短頸壺)로 변해가는 것이 눈에 띈다. 그리고 전통적인 기종인 직구단경호는 뚜껑이 달린 유개호(有蓋壺)로 변해간다. 웅진시기까지 소형 토기의 주된 기종이었던 고배와 삼족기가 사비시기 초까지 존속하지만 점차 소멸하는 과정을 밟는다. 그 대신 소형 토기로서 새로운 기종들이 나타나는데 목이 짧은 형식과 세장한 형식의 토기병, 접시, 전 달린토기, 유개함이 대유행하고 귀족문화의 산물인 호자, 벼루 등이 새로운 종류의 토기로 등장한다.

사비시기에는 생활문화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기종들이 등장하고 널리 사용되는 한편, 중앙 귀족이 사용하는 토기를 중심으로 그



청양 왕진리 강변 4호가마의 발굴모습
(왼쪽)

사비시대에는 이전 시기의 테날식 등으로와는 다른 구조의 가마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중국 수·당대 북방지역에서 유행했다고 하는 이른바 만두요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다. 사비시대에는 꼭 같은 구조의 가마를 기와를 구울 때도 쓰고 토기소성에도 쓰는 와도 겸업의 가마였다.

천안 화성리고분군에서 출토된
청자양이반구호(靑磁兩耳盤口壺)
(오른쪽)

4-5세기 무렵 백제 중앙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자기를 수입하여 위세품으로 주변의 지방세력자들에게 분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릇의 고급화와 규격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변화는 사비 중심지에서 진행되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망을 따라 차별적으로 파급된다.²³ 웅진시기까지는 백제 토기가 회청색경질 및 회색연질과 적갈색연질로 크게 구분되어 왔으며 태토에 비가소성의 사립이 일정한 양으로 포함되어 있어 다소 거친 느낌을 주었다. 그러나 사비시대에 접어들면 회청색경질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지만 일상 용기의 대부분은 흑색와기와 회색토기로 구분되며,²⁴ 특히 이 두 종류의 토기는 태토에 사립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고운 점토로 제작되었기에 표면이 매끄럽고 고운 질감을 느끼게 한다.

흑색와기는 사비로 천도한 직후부터 제작되고 회색토기는 7세기에 들어 생산이 시작된다. 이 두 종류의 토기는 제작법에서부터 이

전 시기의 토기와는 차별화된 그릇이었다. 소형의 흑색와기류와 회색토기 병, 완, 접시, 전달린토기 등은 물레에서 뽑아내는 기술로 제작하였으며 6세기 후반경부터는 물레에서 성형된 그릇을 떼어낼 때 실끈으로 바닥을 잘라내는 기법이 도입된다.

특히, 회색토기류 중에는 그릇 몸과 뚜껑이 꼭 맞아야 하는 기종의 경우에 이른바 구절기법(球切技法)이라 하는 상당히 복잡한 성형 기법을 적용하여 제작한다. 이러한 표준화된 제품을 효율적으로 대량 생산하기 위해 개발된 기법이라 할 수 있다. 사비시대에는 토기 소성을 위한 가마 시설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부여 정암리 가마터와 청양 왕진리 가마터와 같은 금강 유역에서 발견되는 가마는 수·당대 북중국에서 유행하던 이른바 만두요(饅頭窯)와 많이 닮아 있다. 이와 같은 토기 가마는 토기만 굽는 데가 아니라 기와도 함께 소성했던 와도겸업요(瓦陶兼業窯)로 알려져 있다. 사비시대 왕궁지와 사지 등에서 대량으로 출토되는 토기와 기와를 번조했던 요지들은 아마 국가권력에 의해 생산과 유통이 조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중앙의 국가권력에 의해 생산되었던 토기는 사용 계층이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직접적으로 공급되었던 지역적인 범위도 한정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고급의 칠을 바른 토기와 흑색와기는 역시 도성인 부여를 중심으로 왕궁지와 사찰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을 뚜렷이 보여준다. 중앙의 흑색와기, 회색토기, 칠토기는 지방으로 확산되더라도 익산지방을 경계로 하여 더 이상 퍼져 나가지는 않는 듯하다.

백제 토기와 그 주변

백제는 흔히 중국의 남조와 긴밀한 외교관계를 맺고 문화적으로도 남조의 영향이 컸을 것이라고 말한다. 백제는 남조 외에도 고구

려와 가야, 그리고 백제에 통합되기 이전 독자적이었던 영산강 세력, 그리고 바다 건너 왜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해 왔다.

남조로부터 수입된 도자가 백제 토기에 미친 영향은 지대할 수 있지만 일정 시기에 백제 토기는 주변의 고구려 토기 제작기술을 도입하기도 하고 가야 토기와 접촉하기도 하였다. 또한 백제 토기의 제작기술과 그릇의 종류나 양식은 주변지역의 토기 제작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일정 시기부터는 마한의 토착 문화로서 전개되어 온 영산강 유역의 토기, 그리고 가야와 왜 지역의 토기 생산과 사용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중국 수입 도자와 백제 토기

삼국시대 동아시아에서 고온의 유약이 입혀진 자기를 생산했던 나라는 중국이 유일하다. 중국의 자기생산은 동한(東漢) 시기부터 시작되지만 서진시기에 생산을 본격화한 절강성의 월요(越窯)가 중국 자기 생산의 중심지였으며 남조의 자기는 당대 가장 우수한 제품이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수입자기
무령왕릉에서만 청자호 2점과 흑갈유사 이병 1점 그리고 백자 등잔 5점 등이 출토되었다. 백제의 지배층들은 삼국시대 세 나라 중 가장 많은 양의 중국 자기를 수입하여 향유하였으며, 이와 같은 중국 도자의 사용이 토기의 생산과 사용 및 생활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었다. 중국 자기는 고구려, 백제, 신라에 각각 수입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백제를 제외한 다른 나라는 그 존재가 극히 미미하다. 유적에서 발견된 중국 수입도자가 고구려나 신라의 경우에는 10여 점 미만인데 비해 백제에서는 수 백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²⁵

몽촌토성과 풍납토성에서 3세기 후반경 서진의 전문도기錢文陶器가 출토되었는데, 이는 중국산 도자의 수입이 한성백제 때 이른 시기부터 시작되었다는 증거가 된다. 한성백제 시기에 수입된 중국 도자 중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남조계 청자이며, 최근 흑유계수호黑釉鷄首壺라는 특정 기종이 광범위하게 발견되고 있다. 이 기준은

풍납토성, 몽촌토성 및 석촌동 고분군과 같이 한성백제의 중심지에 위치한 성곽과 고분에 집중되어 출토되지만 홍성의 신금성 토성을 비롯하여 천안의 화성리와 용원리고분, 원주 법천리, 서산 부장리, 공주 수촌리고분 등 지방 고분군에서도 발견된다.

한성백제 시기에 이루어진 중국 도자의 수입은 일차적으로 백제 토기의 제작과 사용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수입 도자의 기종과 기형이 한성백제 지배층들의 그릇에 대한 기호를 자극하였고 백제 도공으로 하여금 수입 도자를 모방 제작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탄생한 기종이 견부문양대를 지닌 직구호直口壺나, 사족반四足盤, 병瓶, 호자虎子 등인데 수입 도자의 이러한 영향은 백제 토기의 기종구성을 다양화 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듯하다.²⁶ 토기의 제작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보다 더욱 큰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은 위 제품의 교환체계에서 수입 도자가 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한성백제 이후에도 무령왕릉에 다수의 중국자기가 부장되는 것



유공광구소호
영산강 양식 토기의 대표기종인
유공광구소호

을 보면 수입 자기는 당시 백제사회의 지배층에게는 매우 선호되었던 물품이었다고 여겨진다. 이와 같은 귀중품의 수입은 백제의 중앙 정부에서 독점적으로 담당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중앙 정부가 수입한 도자의 상당량은 지방의 토착세력에게 정치적 의미를 담아 분배되었던 것 같다.

특히 천안의 용원리고분, 서산 부장리, 공주 수촌리고분군에서 발견된 흑유계수호는 위세품 교환에 이용되었던 대표적인 수입 자기가 아니었던가 한다. 중국 도자의 수입은 한성백제를 지나 웅진 시기와 사비시기도 계속되지만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분배는 점차 제한되는 듯하다.

영산강 유역의 토기

문헌 해석을 통해서도 영산강 유역이 4세기 후반 근초고왕에 의해 병합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백제사의 범주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고고학 자료를 통해 보면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에도 이 지역은 백제의 중심 지와는 상당히 다른 문화적인 특색을 보여준다. 이를테면 대형의 옹관을 매장시설로 이용한다는 점이나 고분을 축조하는 관념이 백제의 그것과는 다른 분구묘의 원리를 따른다거나 하는 점은 독자적인 특징이라고 하겠다.

더욱이 대형의 분구에 화려한 위세품까지 부장된 매장시설의 존재를 고려한다면 이 지역에 독자적인 지배집단이 세력을 유지해 왔음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고고학 자료를 통해서도 6세기 중엽까지도 이 지역이 문화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정치적으로도 독자세력이었음이 주장되고 있다.²⁷

영산강 유역에서는 원삼국시대 이래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전개되어 온 토기 문화 전통이 확인된다. 특히 유공광구소호(有孔廣口小



壺, 광구소호, 개배, 및 장경호 등과 같은 도질토기 기종을 중심으로 이 지역 토기 제작 전통을 ‘영산강 양식’으로 정의하기도 한다.²⁸ 물론 백제 토기를 비롯하여 주변지역 토기와의 교류를 통해서도 영향을 주고받기는 했지만 백제 양식이나 신라 양식이 있듯이 독자적인 영산강 양식이 존속했다는 것이다.

영산강 유역에서는 원삼국시대 말기에 고분에 부장되는 토기의 종류가 정돈되는 것으로 보인다. 곧 영산강 양식 중에서 가장 이른 단계의 유물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곧이 시기의 특징적인 토기로는 짧게 직립한 목에 뚜껑받이 턱과 같은 것을 붙여놓은 이중구연의 평저 혹은 원저단경호와 아가리가 넓고 그루티 납작한 광구평저호 등이 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는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쯤

영산강 유역 토기

① 직구단경소호, ② 개배, ③ 병
영산강유역은 백제에 복속되었던 지역이었지만 정치적인 자치권과 문화적인 독자성을 6세기 전반까지 잃지 않았던 듯하다. 토기양식에 있어서도 백제토기와 양식적인 유사성이 부분적으로는 인정되지만 이 지역 특유의 기종과 제작 기법, 형태적 특성을 유지해 왔다.

④ 광주 명화동 전방후원분의 분구 주위에 배치시킨 분주토기

키가 큰 원통형을 기본으로 하고 보통 적갈색 연질로 제작되는데 영산강 지역에서만 다양한 형식이 발견된다. 분주토기는 우리나라에서 영산강 유역의 고분에서만 볼 수 있다. 분주토기는 일본 고분시대에 전국적으로 유행 했으므로 이를 통해 왜 지역과의 문화교류를 확인할 수 있다.

되면 주변 지역의 토기문화와 접촉하여 그릇 종류가 늘어난다. 우선 백제양식의 영향을 받아 타날문단경호도 백제의 것과 닮게 되고 새롭게 삼죽기가 등장하는 등 변화가 오지만, 흥미롭게도 이 무렵 영산강 유역의 토기는 가야지역의 토기와와의 접촉으로 가야계통의 기종을 받아들이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광구소호와 고배라는 기종인데 처음 영산강유역에 등장한 이 신기종의 형태는 가야 본토의 것을 빼어 닮았기 때문에 가야지역으로부터 기술이 전수되었거나, 가야 토기를 모방해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5세기에는 영산강 유역의 분구묘도 점차 대형화되고 수장묘의 부장품도 더욱 화려하게 되는데, 이 무렵 고분에서 출토되는 그릇 종류의 구성도 일정하게 정돈된다. 이와 같이 고분 부장용의 도질 토기 기종 구성이 정비되는 과정에서 백제지역의 그릇 종류가 일부 채용되어 삼죽기, 병과 장경호와 타날문단경호, 그리고 대각이 짧은 고배 등이 나타난다. 그러나 영산강 유역만의 독특한 유공광구소호, 장군橫瓶, 개배 등이 지역적인 전통도 계속 유지한다. 영산강 유역의 도질토기 양식은 이 지역에 자치적인 정치세력이 존속하는 한 지속되어 온 것 같다. 그러나 영산강 유역은 6세기 중엽을 전후한 시기에 백제에 통합되고 무덤의 양식도 이른바 사비시대 횡혈식 석실로 바뀌게 된다. 이와 함께 토기의 생산과 사용에 있어서도 백제 중앙의 양식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영산강 유역 토기의 생산과 사용에서 가장 특징적인 양상은 분구의 들레에 세워 놓은 이른바 분주토기墳周土器와 성인을 신전장伸展葬할 수 있는 대형 옹관甕棺의 독특한 발전이라 할 수 있다. 분주토기라고 하는 것은 실용적인 그릇이 아니라 대형고분의 분구 주위에 둘러놓은 의례적인 물품이다. 우리나라에는 영산강 유역에서만 발견되지만 일본 열도에서는 전국적으로 발견되며 일찍이 그들은 이를 ‘하니와壇輪’라고 불렀다. 이 양식을 우리의 분주토기보다 훨씬



전방후원형의 분구 형태를 지닌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일본 고분시대 분구의 기본형은 전방후원형이다. 이러한 형식의 묘가 우리나라 영산강 유역에서만 군데군데 발견된다는 점에서 분주토기의 존재와 함께 영산강의 정치세력이 왜 지역과 긴밀한 문화교류를 했음을 확인시켜 주는 고고학적 유물로 이해된다.



옹관
영산강 유역에서는 하나의 분구에 여러 개의 매장시설을 배치하는 분구묘가 발달하는데 매장시설의 형식이 목곽이나 목곽에서 옹관으로 교체된다. 처음에는 일상생활에서도 사용되었던 큰 항아리를 옹관으로 쓰지만 점차 옹관 전용의 토기가 매장의를 위해 특별히 제작되기에 이른다. 특히,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에 이르면 이 지역의 옹관은 대형 캡술형으로 발달하는데 큰 것은 길이가 3m가 넘는다.
(광주박물관)

이른 시기에 시작하여 장기간 유행하였다.

영산강 유역의 분주토기는 우선 길쭉한 원통형(圓筒形)과 항아리 호형(壺形)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원통형은 일본의 ‘하니와’의 형태를 그대로 모방한 형식과 영산강 유역 나름의 스타일이 가미된 형식으로 구분되며, 호형분주토기 역시 왜(倭)지역에서 발견되는 형식이다.²⁹ 형식학적인 검토를 통해 보아도 영산강 유역의 분주토기는 우선 일본의 하니와를 표본으로 하여 등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분주토기를 둘러싼 양 지역의 고분문화의 교류는 5세기 전반

에서 6세기 전반에 걸쳐 꽤 장기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결코 단순화시켜 보기는 어렵고 상당히 복잡한 정치적인 교섭을 배경으로 한 양 지역의 문화적 상호작용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고분의 매장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대형 옹관의 제작이야말로 영산강 유역의 토기문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옹관의 사용은 우리나라에서 선사시대부터 확인된다. 삼국시대에 들어오면 백제의 분묘문화 속에서도 찾아지지만 신라와 가야지역에서 더 흔히 볼 수 있는 매장의례였다. 신라와 가야지역에서는 옹관이 소아용 매장시설로 이용되었다고 보이는데, 고분에 단독 매장시설로서 축조되는 것이 아니라 묘역의 주변에 매장의 형태로 들어서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영산강 유역에서는 옹관이 주 매장시설로 쓰이는데다 성인을 묻을 수 있는 규모로 발달한다는 점, 그리고 나주 신촌리 9호분의 발굴로 드러났듯이 금동관金銅冠과 금동식리金銅飾履까지 갖추어 묻힌 수장의 매장시설로까지 사용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지역에서는 옹관묘가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진 장례문화인 듯하다. 광주 신창동유적에서 초기 철기시대 옹관묘지가 발굴된 적이 있는데, 점토대토기로 분류되는 항아리를 이용하여 장례를 지냈던 공동묘지이다. 영산강 유역에서 옹관고분이 고분문화로 정착하게 되는 시기는 4세기 경으로 추측된다. 분구묘가 이 지역의 묘제로 발달하는 단계에서 옹관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옹관고분의 변천에 대한 연구를 보면³⁰ 처음부터 매장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큰 항아리를 만들었던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 쓰던 대호大壺를 옹관으로 전용하게 된 것이 옹관고분의 발생이라고 한다. 실용 토기의 옹관화가 계기가 되는 이후 고분이 대형화되고 발전하게 되면 옹관도 발전하게 된다. 사실 이러한 대형 옹관고분군의 분포를 분석하면 당시 정치세력이 결집되는 양상을 알 수 있다.³¹ 5세기부터는 지배계급의 무덤이 발달하게 되면서 옹관도 길이 2m가 넘는 크기

로 거대화된다. 이러한 대형 항아리는 당연히 성형과 번조에 상당한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 최근 옹관을 제작했던 작업장과 가마가 발굴되고 요즘 옹기를 제작하는 도공의 작업공정을 참조해서 성형공정을 이해하려 하지만³² 둥근 바닥으로 마무리한 캡슐 모양의 거대한 옹관을 어떻게 완성했는지 아직은 완벽하게 설명해 내지 못하고 있다.

신라 · 가야

신라 · 가야 토기의 개념

신라 · 가야 토기는 시간상으로 삼국시대, 공간상으로는 신라 · 가야지역, 즉 지금의 영남지역에서 생산되고 소비된 토기라고 할 수 있다. 신라와 가야는 엄연히 구분되는 정치세력이었고 신라 토기와 가야 토기 역시 양식적으로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두 토기문화를 구분하여 서술하지 않고 신라 · 가야 토기로 통칭하여 설명하는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신라 토기나 가야 토기 모두 영남지방의 공통된 토기 양식, 즉 고식도질토기 양식古式陶質土器樣式에서³³ 출발하여 5세기 경에 신라 양식과 가야 양식으로 구분되다가 6세기 중엽 신라의 가야 정복으로 토기 양식도 다시 합쳐지게 된다. 즉 같은 토기 양식에서 출발하여 한 때 갈라졌지만 다시 신라 토기 양식으로 통합되므로³⁴ 하나의 토기 문화 전통으로 이해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신라 · 가야 토기는 영남지방의 원삼국토기로부터 발전되어 나온 것이다. 원삼국시대 분묘유적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와질토기가 출토되며 취락이나 패총 등 생활유적에서는 적갈색연질의 대 · 중 · 소형 옹甕, 시루, 바리鉢 등과 회색 연질과 경질의 단경호短頸壺 등이 출토

된다. 3세기 후반에 접어들면 타날문단경호와 소형원저단경호 등의 단경호 종류가 처음으로 도질토기陶質土器로 제작되기 시작한다.

도질토기란 두드리면 쇠소리가 날 정도로 단단한 석기질stoneware에 가까운 토기를 의미하며 표면에 자연유가 흘러내린 경우가 보통이다. 도질토기는 1200도에 가까운 고온 소성의 기술에 의한 토기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실은 물레질과 타날법을 신체로 익힌 도공이 숙련되고 규칙적인 동작으로 표준화된 그릇을 대량 생산했다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³⁵

4세기 중엽이 되면 적어도 김해와 함안의 고분에서는 도질토기로 제작된 고배, 노형토기, 파배, 광구소호, 소형기대 등 다양한 기종이 출토된다.³⁶ 아울러 종래에 회색연질이나 적갈색연질로 제작

고식도질토기의 그릇 종류(器種)

① 고배, ② 파배, ③ 광구소호, ④ 노형토기, ⑤ 소형기대.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까지 신라와 가야지역에는 신라양식이나 가야양식이나 하는 구분을 하기 어려운 상태 즉 공통 양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



3

되었던 기종들이 점차 도질토기로 전환되어 가는데, 4세기 말이나 5세기 초가 되면 모든 그릇의 종류가 도질토기로 바뀔 뿐만 아니라 도질토기 생산 시스템이 지역적으로도 확산되어 아주 변두리 지역을 제외하고는 신라·가야의 대부분 지역에서 도질토기를 볼 수 있게 된다. 5세기 초쯤 되면 신라와 가야 거의 전 지역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토기가 효율적인 성형기술을 보유한 전문 공방에서 대량 생산되기에 이른다.

4세기 무렵 영남지방은 여러 세력 집단들로 나뉘어져 있었고, 그중 함안과 김해 지역에서 토기 공방이 가장 먼저 발전하여 다양한 기종의 도질토기를 생산하게 된 셈이다. 이때 도질토기 생산이 발달한 집단에서 미발달한 집단으로 토기 생산기술이 파급되는 현상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이러한 토기 생산기술의 확산을 통해 4세기 말경에는 너른 지역에 토기 양식이 유사해지게 된다.

그러나 5세기 전반부터 낙동강 이동의 신라가 초기국가로 등장하고 가야에도 대가야, 아라가야, 소가야 등을 중심으로 지역집단들이 뭉쳐 정치세력화하면서 그 안에서만 토기 생산과 분배 및 기술적·양식적 교류가 이루어진다. 결국 이러한 정치·사회적인 변동이 토기 양식의 지역적인 분화를 촉진하여 5세기 전반부터 6세기 전반까지 약 150년 동안 낙동강을 경계로 동쪽의 신라 토기와 서쪽의 가야 토기가 양식적으로 대비되면서 가야의 소국마다 토기 양식의 특징이 나타나게 된다.

신라·가야 토기의 생산기술

신라·가야 토기는 도자기 분류상으로 일종의 토기土器: earthenware와 석기炆器: stoneware의 중간 단계쯤에 속한다. 아주 고온으로 소성된 도질토기는 석기에 가깝지만 나머지는 토기에 속한



고배 물레질 성형흔
5세기부터 신라지역의 도공들은 소형
의 그릇부터 물레질로 그릇을 뽑아내는
방법을 손에 익히게 된다.

다고 할 수 있다. 1차점토를 사용하지 않고 수성퇴적물로 여겨지는 2차점토를 원료로 사용하여 토기 태토에는 순수한 점토만이 아니라 실트성 사질이 포함되어 있고, 불순물이 들어 있어 색깔도 질다. 이러한 원료 점토는 경상도지방 저지대의 퇴적층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원료 점토의 가공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성형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비가소성 입자를 약간 혼입하거나 유기물과 같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도였을 것이다.

신라·가야 토기 성형에는 물레질로 성형하는 방법이 이용되었지만 처음부터 점토 덩이에서 그릇을 뽑아 올리는 방법이 쓰인 것이 아니었다. 점토 띠를

썰아 대충의 그릇 형태를 빚고 물레질로 다듬는 방법이 주로 적용되었다. 일정 시점부터는 소형 토기의 제작에 물레질로 뽑아내는 성형법이 적용되고 대형 토기는 늦은 시기가 되도 점토 띠를 붙여 올리는 방법으로 만들었다.

원삼국시대부터 물레질은 폭넓게 채용되어 왔는데 단경호의 목이나 그릇 입술을 다듬는 데 주로 적용되었다. 그러다가 점토 띠를 붙여 올린 후 물레질로 그릇의 2/3 이상을 성형하는 방법이 도질토기 단경호 제작에 활용되면서 물레질법은 다른 기종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³⁷ 그러나 점토 덩이에서 그릇을 뽑아내는 물레질 성형법은 5세기 중엽을 전후한 시기가 되어야 등장하며, 그것도 경주지역의 소형 토기 제작에만 도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방법이 성공하면서 소형 토기의 대량 제작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 물레질법은

경주를 벗어나 신라·가야 각 지역으로 보급된다.³⁸

신라·가야 지역에서는 토기를 소성하는 데 밀폐된 가마를 사용하였다. 토기 가마는 바닥이 아궁이로부터 굴뚝까지 경사져 올라가는 이른바 터널형의 등요登窯의 구조이며, 이 가마를 운영하는 데 다양한 방법에 적용되어 여러 가지 토기가 함께 생산되었다.³⁹ 우선 가마를 개방한 상태에서 소성 시간을 짧게 하여 소성해 낸 것이 적색토기인데 흡수성이 있고 유약하였다.

회색토기는 소성 마지막 단계에 가마의 입구나 굴뚝 및 환기시설을 모두 막아 공기가 차단된 상태에서 마무리한 것이다. 신라·가야의 회색토기는 일반적으로 고온 소성으로 강도가 높아 도질토기陶質土器라고 불리지만 실제로 그릇 종류에 따라, 그리고 시기와 지역에 따라 소성의 조건은 균일하지 않다. 매우 고온으로 소성되어 경도가 높고 표면에 녹색계통의 자연유가 흐르는 것이 있는가 하면 소성 지속 시간이 짧아서 다공질에 무른 회색토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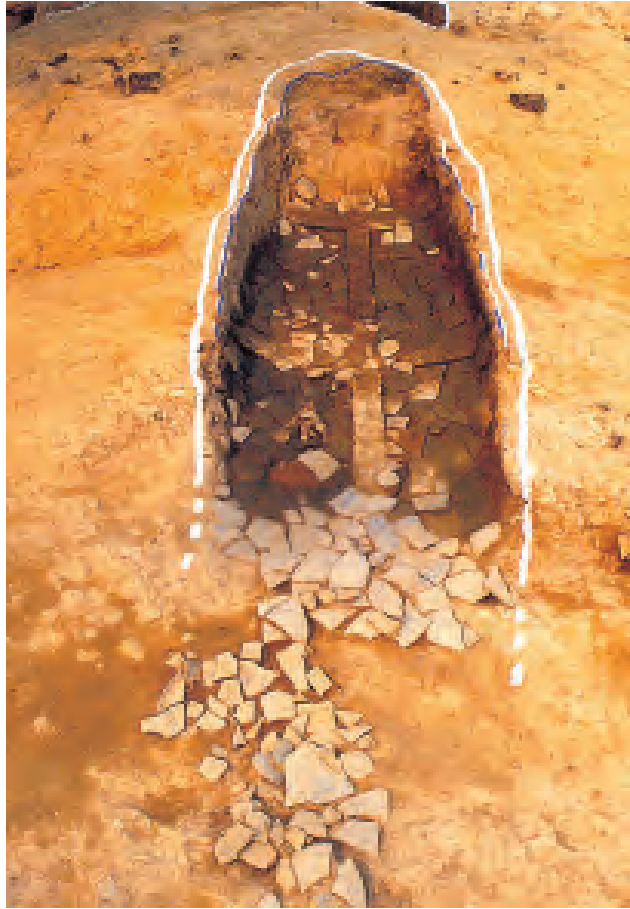
대개 5세기 전반까지 신라 토기는 그릇의 벽이 두텁고 고온 소성의 석기stoneware에 가깝지만 5세기 중엽 이후 신라 토기는 불충분한 소성의 회색토기가 대량으로 생산된다. 특히 고분에 부장하기 위해 대량 생산된 그릇들은 소성 지속 시간이 짧아서 무른 회색토기인데 실용적이지 않은 토기 제작에는 연료와 노동력을 아끼는 생산방식이 도입되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6세기 말 이후 특히 인화문토기가 출현하면서부터 고배와 같은 소형 기종이 다시 고온 소성 품으로 변하게 된다.

이와 같이 토기의 생산기술, 예를 들어 대량 생산을 위한 성형기



고온 소성으로 인한 자연유
그릇 표면이 자연유로 뒤덮인 정경호
(의성군 대리 3호분 1곽 출토)

전업적 생산시스템으로 운영된 토기요
경주 손곡동 토기요지 발굴 전경
경주 손곡동 토기요지 21호 토기가마



술이나 큰 항아리를 생산할 수 있는 대형 가마의 축조 및 운영 기술 등이 실현되려면 숙련된 노동력으로 조직되어 있어야 하고, 상당한 규모의 공방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신라와 가야 지역에서는 이러한 공방이 언제쯤 등장하는가? 현재의 발굴 자료를 검토해 보면 4세기경 함안과 창녕 지역 토기 가마 유적에서 큰 규모로 조직된 공방을 찾을 수 있다.

창녕의 여초리나 함안의 우거리 토기 가마는 단경호나 대호를 전문적으로 대량 생산하고 신라·가야 각지에 분배했던 유적으로 보인다.⁴⁰ 4세기에 가야 세력의 거점에서 발전했던 대규모 공방이 5세기가 되면 신라의 중심지인 경주의 외곽 여러 지점에도 발생하게 된다.

경주의 손곡동 요지군의 발굴로 5세기부터 대규모로 조업했던 신라 토기 공방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경주 외곽에는 대규모 토기 가마를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신라의 중심지에만 대규모 공방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지방에도 여러 곳에 토기 생산 중심지가 있었던 듯한데, 이를 테면 경산 옥산동 가마군 역시 100년 이상 대규모로 조업했던 공방이었다.⁴¹

고분문화와 토기생산

신라·가야 토기는 생산지인 요지窯址, 소비지인 취락지, 혹은 고분군에서 출토된다. 그동안 신라·가야 지역에서는 고고학 조사가 고분 발굴에만 치중되어 온 까닭도 있지만, 이 지역에는 고분에 토기를 다량으로 부장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토기하면 대개 고분 출토품이 많았다. 고분에서 발굴된 토기의 종류와 그 구성 비율은 생활유적에서 출토된 것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사회 전체에서 생산되고 소비된 토기의 양상을 알기 위해서는 모든 성격의 유적에서 출토된 자료를 다 모아서 연구해야 한다. 하지만 고분에

서 출토된 토기 자료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라·가야 토기 연구자들은 으레 고분 출토자료를 분석하고는 한다.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에 걸쳐 신라·가야의 고분에 부장되는 품목으로서 토기는 약 20여 종이 있다. 신라와 가야는 고분에 부장된 토기의 종류가 서로 달랐고 가야지역 안에서도 소국마다 토기의 종류와 그것을 부장하는 방식이 서로 달랐다. 신라고분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그릇 종류 중에 도질토기로는 유개고배, 무개고배, 장경호, 대부장경호, 유개장경호, 대부직구호, 단경호, 소형평저단경호, 파수부배, 완, 유대파수부완, 개배 등이 있고 적갈색토기로는 발鉢 혹은 유개발有蓋鉢, 파수부옹, 시루, 장동옹 등이 있다.

신라고분은 시신이 들어가는 주곽과 부장품만 들어가는 부곽이 나누어지기도 하는데, 소형 토기는 주곽의 머리위나 발치에 배치하고 부곽에는 소형 토기도 넣어주지만 대형 항아리가 많이 들어간다. 경우에 따라서는 통형기대, 발형기대, 대옹 등을 봉토 바깥 주구에 세워 제사지내기도 하고 따로 제의시설을 마련하여 토기를 묻어주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이런 토기 제사는 신라와 가야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지역에 따라 제사법이 다르므로 지역집단들마다 특색을 보여주기도 한다.⁴² 물론 시기나 지역에 따라 그



신라 부장용 토기 기종 구성
경주 월산리 A-45호 수혈식석곽묘 출토



대가야의 부장용 토기
지산동 고분군의 대가야 고분 부장용
토기 기종 구성.



성주 성산동 38호분 토기 부장상태
신라 가야의 고분에 부장하는 토기의
종류는 하나의 장례 법식으로 정해져
있었다. 장례의 법식에 따라 더러는 그
릇에 음식을 담아 부장하기도 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빈 그릇을 꺼묻어 주
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한 종류의 그
릇 수십 개씩 포개어 부장하기도 했다.

릇의 종류나 묻어주는 방식에는 차이가 많지만 신라의 영역 안이라 하면 같은 시기에 같은 등급의 무덤에는 부장품으로 배치되는 토기의 종류와 부장 규모가 비슷하다. 가야는 소국마다 나름대로의 부장 토기의 종류가 정해져 있고 신라만큼 토기의 부장 수량이 많지 않으나 대형 고분에는 상당한 양의 토기가 부장되었고 고분의 등급에 따라 뚜렷한 차이도 있었다. 이는 나라마다 신분에 따라 부장토

기의 종류와 분량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고 일정한 제사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부장 토기의 품목은 신라와 가야가 서로 다르고 그 안에서도 지역과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예컨대 대부장경호의 경우는 신라고분에만 있고 대각이 없는 유개장경호와 발형기대가 조합된 토기는 고령을 중심으로 한 대가야 세력권에서만 발견된다.

5세기 중엽부터 100년간 대가야, 아라가야, 소가야가 가야 세력을 대표했는데 각 소국마다 고분의 구조도 달랐지만 부장되는 토기의 양상도 조금씩 달랐다. 물론 공통된 기종도 있어서 유개고배, 장경호, 발형기대, 통형기대, 파수부완 등은 가야 어느 지역의 고분에



국보 195호로 지정된 토우 장식 토기
계림로30호분에서 출토된 이 장경호
어깨와 목에는 뱀과 개구리, 거북과 같
은 동물, 가야금을 타거나 성교하는 자
세를 취한 인물을 흙으로 빚어 붙였다.
(국립중앙박물관)



신라와 가야의 이형토기

- ① 경주 금령총에서 출토된 배모양토기 (국립중앙박물관)
- ② 경주 계림로 25호분에서 출토된 수레모양토기 (경주박물관)
- ③ 함안 말산리 34호분과 의령 대의면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하는 수레바퀴모양토기

서나 볼 수 있는 그릇 종류이다. 고분의 종류나 매장시설의 크기에 따라 토기를 부장하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었다. 매장시설의 크기로 보면 아라가야의 석곽石槨이 가장 큰 편이었고 같은 시기의 소가야 고분은 석곽이 좁고 길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부장되는 토기의 크기나 부장양도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신라나 가야의 고분에서는 실용적인 기능보다는 주술적이거나 상징적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되는 토기가 출토되고는 한다. 형태가 매우 특이하고 장식성이 강한 토제 유물 중에는 용기로서의 기능이 전혀 없어 토기의 범주에 넣기 어려운 것도 있다. 이를테면 경주시 내 고분에서 주로 출토되는 토우土偶는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그대로 본떠 만든 것으로 용기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다양한

형태의 토우를 고배의 뚜껑이나 장경호의 어깨에 부착하여 장식한 토우장식토기(土偶裝飾土器)도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용기의 기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특이한 형태를 가진 토기를 통칭하여 흔히 이형토기(異形土器)라고 한다. 토우나 토우장식토기는 신라고분에서만 발견되고 있는데 비해 이형토기는 가야의 고분에서도 자주 발견된다. 이형토기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상위 고분에서 발견되는 것이 보통인데, 상위 신분자를 위해 무언가 특별한 기술과 정성으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형토기 중에는 동물이나 물건, 혹은 특별한 복장을 한 인물 등을 그대로 본 떠 만든 상형토기(象形土器)도 있지만 뿔잔이나 등잔 모양 토기, 특이한 형태의 주구토기(注口土器), 찬합모양토기처럼 사물을 모방했다고 하기보다 특수한 기능에 맞게 만들다 보니 이형토기로 된 것 같다.

토우와 토우장식토기와 함께 특이한 모습은 이형토기들이 풍부하게 제작되는 것은 고구려나 백제와는 다른 신라·가야 고분문화의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왜 이형토기가 제작되고 무덤에 부장품으로 넣어주는지에 대해 전문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⁴³ 토우장식토기나 이형토기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니면 토우의 해학적인 모습에서 느껴지듯 삶과 감정의 자연스런 표출인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수레나 배와 같은 운송수단을 본뜬 토기나 새모양토기(鳥形土器) 등은 고대인의 신화와 연결되거나 죽은 이의 영혼을 명계(冥界)로 안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만들었다는 해석도 있다.⁴⁴

정치세력과 토기 양식

4세기에는 양식상으로 신라와 가야 토기를 구분하기 어렵다. 이 시기에는 함안과 김해에서만 도질토기의 공방이 번성했기에 두 지

역 양식을 구분할 수는 있었다. 하지만 신라와 가야를 중심으로 토기 생산의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아서인지 신라와 가야 토기의 구분은 불가능했다. 이 무렵 신라는 초기국가로 발돋움하던 시절이며 신라의 중앙과 신라에 복속된 지방 사이의 관계가 정립되지 못하는 탓에 초기국가로서 신라 영토 안에 문화적인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되는 이른바 신라양식 토기도 아직 성립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5세기에 접어들면 낙동강을 경계로 신라와 가야 세력의 영역이 구분되고 토기 양식군도 그렇게 나누어진다. 물론 토기의 양식이 정치세력으로서의 신라와 가야를 구분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신라와 가야의 정치적인 영역이 시기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토기의 양상은 생산과 분배와 같은 경제적인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정치적인 관계에 의해 전적으로 좌우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5세기 전반에서 6세기 전반에 걸친 시기는 정치적인 세력권에 따라 뚜렷하게 토기 양식이 구분되는 데 그만한 이유가 있다. 신라는 경주 분지 일대를 영역으로 하는 사로국(斯盧國)에서 출발하여 진한(辰韓)의 소국들을 복속시키고 낙동강 이동지역 일대에 초기국가를 건설한다. 신라가 주변 소국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신라 중심지의 정치·경제·문화적인 영향력이 주변으로 미치게 되는데 토기 양식도 그러한 영향력 중의 일부인 듯하다. 그러므로 신라의 영역 안에서는 신라양식이라고 포괄할 수 있을 만큼 일정한 정도의 양식적인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같은 신라양식이라 하여도 각 지방에 따라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신라의 중심지인 경주지역의 토기와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경산지역의 토기를 비교해 보자. 물론 이 두 지역의 토기는 같은 신라양식 토기라고 할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무언가 다른 특징이 있다. 비단 경산지역만 그런 것이 아



1



2



3

신라토기 지방 양식

신라토기 양식 내에서 지방 양식의 비교, 대표 기종인 고배의 지방양식을 비교해 보면 굽다리의 형태나 굽구멍을 뚫은 모습의 공통점을 통해 신라양식이 인정되는 동시에 창녕 양식 ①은 그릇 뚜껑의 손잡이와 짝은 무늬, 의성 양식 ②은 접시의 독특한 형태, 그리고 성주 양식 ③은 굽다리의 세부 형태에서 지방의 특색을 드러낸다.

니고 신라양식의 분포권역에 해당하는 부산, 창령, 김해, 의성, 성주 등지의 토기는 신라양식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경주 일원의 중심지 토기 양식과의 차이점을 발견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신라의 영역 안에서도 경주와 울산, 포항, 영천 등은 신라의 중심 권역이었으므로 중심지 양식, 즉 경주지역 양식이 분포한다. 그러나 이 중심지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지역의 토기는 같은 신라양식이라도 경주지역 토기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그 지역만의 특색이 일정 기간 전통으로 존속하여 창녕 양식, 의성 양식, 혹은 성주 양식 등으로 불리게 된다.

왜 이런 양상이 나타날까? 이는 당시의 토기생산이 정치사회의 구조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특히 고분에 부장되는 토기의 양상을 관찰해 보면, 왜 그런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지 설명하기 쉬워진다. 5세기경 신라는 진한의 소국을 통합하여 초기국가를 실현하였다. 그래서 신라의 영역 안에서는 복속된 소국들이 신라 중심지의 고분문화를 받아들이고 토기 제사법도 모방하면서 같은 양식의 토기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신라양식이 성립하게 된다. 토기뿐만 아니라 묘제나 그 밖의 고

분문화 제 요소에 있어서도 신라의 영역 안에서는 무언가 유사성과 질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신라 고분문화의 정형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⁴⁵

그러나 초기국가 신라는 지방을 행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완전한 중앙집권이 실현된 사회는 아니었다. 제 지역의 소국들은 정치·경제적인 자율성을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았으며 토착 지배집단의 존재도 인정했다. 그러므로 각 지방의 지배집단들은 신라 중앙의 고분을 모방하여 커다란 고분을 축조하고 자체적으로 생산된 토기를 부장했던 것이다. 물론 지방의 도공들이 신라 중앙의 양식을 충실히 모방하여 토기를 생산했지만 꼭 같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⁴⁶

신라와 가야의 토기 양식이 구분되었던 까닭은 경주에서 신라양식이 나와 낙동강을 경계로 해서 신라의 영역 안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이 두 정치세력의 양식이 구분되기 전에는 고식도질토기 古式陶質土器 양식이라 하여 정치세력에 따라 토기 양식이 구분되지 않았다. 가야 토기는 이 4세기의 고식도질토기의 양식을 많이 계승

① 대가야 양식의 그릇받침과 향아리 뚜껑을 덮은 장경호를 유대발형기대에 받쳐서 한 무덤에 여러 점 부장하는 것이 대가야 대형고분의 특징이다. 특히 유대발형기대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릇높이가 낮아지면서 형태가 뚜렷이 변해가기 때문에 편년의 기준이 된다.

② 아라가야의 전성기 토기 2단투창 고배의 늘씬한 굽다리가 하나의 특징이며 모든 토기가 녹색색의 자연유가 흙을 정도로 소성상태가 좋은 것이 특징이다.

③ 소가야 양식의 고배 짧은 굽다리에 삼각형의 굽구멍을 뚫은 것이 특징이며 소가야에서는 2단투창 고배가 생산되지 않았다. 소가야 양식 장경호의 목은 나팔모양으로 끝이 벌어지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하여 조금씩 토기 양식의 변화를 이루어 간 데 비해 신라 양식이란 4세기 말에 돌발적인 변화가 나타나 성립하게 된 것이다.

가야라는 명칭 자체가 김해지역에 자리 잡은 변한의 소국인 구야국(狗邪國)에서 유래하였듯이 초기의 가야는 낙동강 하구 김해의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번성했던 것 같다. 그러나 5세기에 접어들면 낙동강 하구의 금관가야가 쇠퇴하고 내륙에 위치한 고령의 대가야가 대두하게 된다.

이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함안과 고성에서도 가야의 정치세력이 등장하여 5세기 후반부터는 세 개의 큰 가야 세력이 지역 연맹체를 결성하고 있다가 6세기 중엽 신라의 세력 확장에 병합된다. 가야는 시종 분립된 채, 고대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좁은 범위로 지역집단을 통합하여 연맹체 정도의 정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으나 고령의 대가야만큼은 상당히 넓은 지역에 대가야 연맹체를 형성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령의 대가야, 함안의 아라가야, 고성의 소가야 등 가야의 3중심세력은 나름대로 독자적인 토기 양식을 지니고 있었으며 각자의 세력 확장에 따라 이웃한 지역으로 토기 양식이 확산되기도 하였다. 특히, 6세기 초에 고령의 대가야 토기 양식은 정치적인 세력의 확장과 함께 이웃한 합천과 거창, 함양, 산청은 물론이고 소백산맥을 넘어 장수, 남원, 임실 지역까지 확산되었다.⁴⁷

이에 비해 아라가야의 토기 양식은 그리 널리 확산되지는 못하였던 것 같다. 반면에 소가야의 토기는 고성과 사천을 중심으로 하고 경남해안과 이웃한 광양만 일대까지 확산되어 전성기의 소가야권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6세기 전반을 중심으로 한 세기가 조금 못 되는 기간 동안 가야 세력의 권역으로 나누어져 특징적인 가야 토기 양식이 분포해 있었다.⁴⁸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신라양식과 가야양식으로 크게 구분된

다 하더라도 각 양식 안에서는 지역에 따라 작은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토기를 생산한 도공이 다르고 공방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것이겠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그것이 지역 전통이 되어 100년 이상 지속된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도자의 역사에서 좁은 범위에 한정된 지역 양식의 특징이 이와 같이 흥미롭게 나타났던 적이 없었기에 삼국시대 신라·가야의 토기 양식은 아주 흥미로운 연구대상일 수밖에 없다. 신라 양식이건 가야 양식이건 그 안에서 구분되는 소지역 양식은 개별 정치체의 존재와 무관하지 않은 듯싶다. 즉, 신라에 복속한 반독립적인 정치체들이나 가야 세력에 속하는 개별 소국들은 자체적인 수요 때문에 각각 독자적으로 토기 생산 공방을 운영했던 것이다.⁴⁹

개별 지역 정치세력 중심지에는 그 지역 지배계급의 고층고분군이 형성되어 있고 그 외 곳곳에 지역집단의 고분군이 분포해 있다. 그리고 각 지역의 공방에서는 고분의 토기 제사에 쓰이는 대여섯 종의 토기를 대량으로 생산하였다. 토기 생산을 전업으로 삼았던 초창기 전문 도공은 역사상 처음으로 표준화된 그릇의 형태를 반복적으로 생산하면서 고정된 제작 행위를 습득하게 되었다.

신라와 가야의 각 공방에서 일했던 전문 도공들은 신라양식, 혹은 가야양식의 토기를 만들었지만 각자가 몸에 익힌 기계적인 동작은 조금씩 달랐기에 지역 양식의 차이가 난 것이고, 이 동작은 각 공방 안에서 전승되었기에 양식적인 전통으로 유지되었던 것이다. 소수의 전문 도공이 한 세대에 걸쳐 토기를 만들다가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그릇 형태에 미세한 변화가 나타난다. 따라서 삼국시대 신라·가야 토기 양식은 미세한 변화를 분석해 보면, 각 지역에 따라 20년 혹은 30년을 단위로 토기 양식의 변천을 추적해 볼 수도 있다.

황남대총 남분에서 출토된 고배
 황남대총은 5세기 중엽의 신라 적석목곽
 분을 대표하는 고분으로 전성기 신라토
 기를 대변해 준다. 황남대총이라는 최대
 형분에서 출토된 고배이기에 선각문으로
 그릇 전면을 시문하여 장식성이 강하다.



신라 · 가야 토기의 변천

신라 · 가야 토기의 전형적인 그릇 종류, 즉 기종 구성이 완비되
 는 시점은 5세기 중후반 경이며 이 시점이 신라 · 가야 토기 양식의
 완전한 성립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토기 양상을 보여주는 대표
 적인 고분을 각 지역 지배계급의 고분군에서 뽑아보면 경주의 황남
 대총(皇南大塚) 남분, 부산의 복천동 10 · 11호분, 함안의 말이산 34호
 분, 고령의 지산동 32호분, 창녕의 교동 3호분 등에 해당된다.

이 시기가 신라 · 가야 고분문화의 절정기인 동시에 토기에서도
 가장 전형적인 양식기라고 하여 이 시기를 신라 · 가야 토기 전성
 기 또는 중기로 설정한다. 5세기 전반은 신라 · 가야 토기의 그릇 종
 류와 종류별 형태가 정해지는 단계에 해당되므로 이 시기를 형성기
 혹은 전기쯤으로 편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6세기 전반은 토기에
 장식도 늘고 그릇의 크기도 축소되어 확실히 전성기의 신라 · 가야
 토기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후기로 편년할 수 있다.

각 지역마다 다양한 지방의 토기 양식이 존재했기 때문에 신라 ·
 가야 토기의 변천에 전반적인 경향성과 같은 것을 추출하기는 상당

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의 방향은 있다. 우선 신라·가야사회에서는 고구려와 백제와는 달리 토기의 생산과 사용의 변화가 고분문화의 전개 과정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고식도질토기 단계로부터 고분부장용 토기의 기종이 갖추어지지만 5세기 전반, 즉 전기까지는 일상생활용과 고분부장용 토기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5세기 후반에 들어서면 특히, 신라지역에서는 작은 고분에도 수십 점의 토기가 부장되므로 고분부장용의 토기가 대량 생산된다.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 성형하기 수월한 원료 점토를 사용하게 되고 따라서 토기 질은 조악하게 된다. 그러나 대량 생산으로 인하여 물레질을 통한 성형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그릇의 형태는 고도로 표준화되기에 이른다.

또 하나 신라·가야 토기의 시간적 변화의 방향이라면 그릇의 크기가 축소되는 경향이라 할 수 있다. 신라·가야 토기의 대표 기종이라 할 수 있는 고배를 예로 들면 5세기 전반에는 그릇의 크기를 뽀너러 그릇 두께도 두텁다. 그러나 5세기 후반을 거쳐 6세기 전반에 이르면 그릇의 높이가 점점 낮아지고 기벽도 얇아지게 된



단각고배와 반구장경호

6세기 중후엽 경 신라의 중심지에서 발생하여 신라의 영역 안으로 확산된다. 이 무렵 신라는 한강유역과 가야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동해안을 따라 북진을 한다. 이러한 영토의 확산을 따라 이 신라 후기 양식토기의 분포 범위는 전국적으로 확장된다.

다. 말하자면 그릇이 고분부장용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실용성이 떨어지고 명기화(明器化)되는 경향을 뚜렷이 보여주는 셈이다. 그릇의 크기로서 고분의 등급, 혹은 피장자의 위세를 나타내 주었던 그릇 받침이나 대부장경호와 같은 기종도 변화의 시점이 조금 늦어질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서 크기가 축소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며 통형기대와 같이 크기가 큰 토기들은 아예 일찍 소멸되기에 이른다.

전성기의 고배나 대부장경호는 크기도 크고 높은 굽다리를 지녔다. 그러나 축소화의 경향에 따라 6세기 중엽이 되면 굽다리의 높이가 아주 낮아진 단각고배(短脚高杯)로 변화되며 대부장경호도 굽이 낮아지고 아가리에 턱이 한 번 지는 반구장경호(盤口長頸壺)로 변화된다. 신라나 가야 토기 모두 그릇의 크기가 축소되고 점차 명기화되는 경향은 마찬가지인데, 이른바 단각고배와 반구장경호는 가야 토기가 아니라 신라 토기 안에서 발생한다. 이 두 기종을 출현을 기점으로 하여 고신라 토기는 커다란 전환을 맞이하며, 이러한 점을 강조하여 6세기 중엽부터 인화문토기를 중심으로 하는 통일신라 토기까지를 신라 후기 양식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⁵⁰

후기 양식 토기는 신라 진흥왕 때 등장한다. 이 시기는 토기 양식이 변화가 이루어진 시기로만 볼 수 없으며, 신라 사회와 고분문화의 전체적인 변동이 맞물려 진행되었던 역사적인 변혁기였다. 이 시기가 되면 매장 의례의 관념이 변하여 추가장이 가능한 이른바 횡혈식, 혹은 횡구식 석실분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묘제의 변화와 함께 부장품도 간소화되고 명기화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진흥왕 대는 신라사의 전환기였다. 이때 신라는 영역 확장을 거듭하여 한편으로는 소백산맥을 넘어 한강 유역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동해안을 따라 함경도까지 진출하였다. 이러한 여세를 몰아 낙동강을 건너 가야로 진격하여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대가야를 정복하기에 이른다. 이와 같이 확장된 영토 안에 자치적이었던 토착세

력을 무너뜨리고 중앙의 정치권력이 지방에까지 직접 미치도록 하는 중앙집권을 달성하게 된다. 이러한 중앙집권화와 지방세력의 재편은 고분문화에 커다란 두가지 변동으로 나타난다.

첫째로는 당시까지 토착 수장층의 근거지에 축조되던 고총고분이 거의 일시에 소멸되고 그대신 군사적인 요충지와 같은 곳을 비롯하여 신라 중앙정부와 연결되는 새로운 거점에 고분이 축조된다. 둘째, 신라·가야의 여러 지역에 존속하였던 지방 양식의 토기들이 빠른 속도로 소멸하고 신라 중앙 양식의 토기들이 보급된다. 특히, 새롭게 신라 영토로 편입된 한강 유역과 북부 동해안지역, 그리고 가야의 고지에도 단각고배와 반구장경호를 대표로 하는 신라 중심지의 후기 양식 토기가 확산되어 들어간다.

신라·가야 토기가 존속했던 기간 중에 토기의 양식, 생산과 분배, 그리고 소비의 방식은 정치세력의 변동과 긴밀히 맞물려 변화되어 갔으며 이러한 사실은 한 시대적인 특징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신라·가야 사회에서도 일상생활을 위해 더 많은 토기가 생산되고 소비되었겠지만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고분에 부장된 토기가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삼국시대 이 지역에서는 고분에 부장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토기를 생산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당시 철제 무기나 농공구, 그리고 토기와 같은 중요 물품은 소국 혹은 초기국가의 조정을 받는 전문 공인에 의해 생산되었고 수요와 공급은 정치권력에 의해 통제되었다. 이러한 경제체제하에서 지배층의 고분에 부장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토기를 생산했다면 그 생산과 분배는 당연히 정치권력의 통제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고분에 부장되는 토기의 종류, 형태, 일정 지역에 일정 기간 존속했던 양식, 그리고 양식의 분포범위와 시기적인 추이는 당연히 정치세력의 변동과 긴밀히 맞물려 변화되어 갔던 것이다.

03.

자기발생의 전야, 통일신라시대

통일신라 토기의 의의

우리나라 도자기 문화에서 통일신라 토기가 가지는 역사적 의의는 자못 크다.

첫째로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물리치고 정치적인 통합을 이룬 뒤 역사상 처음으로 통일된 국가의 영토 내에 통일된 생산 기술에 의한 통일된 기종과 양식의 토기를 확산시켰다는 점이다. 통일신라는 물론 고신라 토기문화의 전통을 계승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전통만을 고수한 것이 아니라 고구려와 백제의 기술과 양식도 부분적으로 흡수하여 통일된 토기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확산시켜 그릇문화에서도 통일을 이루었던 것이다.

삼국의 통일과 함께 성립된 통일신라의 토기문화는 역시 왕경을 중심으로 한 신라 지배층의 토기문화였지만 통일과 함께 정비된 지방행정조직망을 따라 빠르게 확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처음에는 신라의 왕경과 그리고 멀리 떨어진 지방과는 토기의 제작과 사용에 있어서 수준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신라 하대에 접어들

면 각 지방에서 성장한 호족세력이 독자적인 토기생산 공방을 운영하게 되면서 중앙의 토기문화와 수준차를 좁히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게 된다.

둘째로는 신라의 삼국통일과 함께 중세 귀족사회가 성립하면서 특히 지배층의 생활문화는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고 이에 부응하여 토기의 종류와 질, 그리고 장식 등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발전의 양상을 요약해서 말하라면 ‘분화’와 ‘전문화’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를테면 통일신라시대에 접어들면서 저장, 운반, 조리, 식사 등 그릇의 용도에 따라 분화가 아주 심화되어 가는 경향도 있지만 같은 용도의 그릇이라도 음식물의 종류나 저장 혹은 조리 방법에 따라서도 더욱 다양한 질과 형태로 분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⁵¹

한편, 통일신라 지배층의 문화는 이전에는 없었던 다양한 귀족적 생활양식들이 포함되면서 생활문화 자체가 풍성해졌으며 이와 아울러 토기의 사용도 다양화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과 함께 용도에 따른 그릇의 크기와 형태, 그리고 질에 보다 엄격한 기준이 매겨지고 사용에 있어서도 법식과 같은 것이 정해짐으로써 그릇의 사용이 전문화되어 간 것이다. 통일신라 토기에는 회청색의 단단한 도질토기, 회색, 혹은 흑색의 와기, 적갈색연질토기, 시유도기 등 다양한 질의 토기군으로 나누어질 뿐만 아니라 커다란 저장용 항아리에서 건축부재랄 할 수 있는 장식된 와전류, 그리고 고급스런 소형의 찻잔에 이르기까지 크기와 용도에서 천차만별이다. 이와 같이 크기, 형태, 질이 다른 제품들의 구체적인 양상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제작공방, 혹은 제작공인에 따라 일정 수준으로 전문화되었으리라 여겨진다. 통일신라 토기의 연구에서는 생산의 전문화도 중요하지만 그릇의 형태와 질에 따른 사용의 전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로는 성형기술을 필두로 한 제작기술의 발전과 토기의 고급

화 과정이다. 통일신라시대의 도공들은 그릇의 용도에 따라 무척 다양화된 그릇의 형태를 자유자재로 성형하고 대량의 수요에 맞추어 생산하면서 고도로 숙련된 물레질 성형기술을 익히게 된다. 이 물레질 기술을 바탕으로 거의 모든 그릇 모양을 아주 높은 수준의 표준화가 달성된 상태로 제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신라 말기에 왕경은 물론이고 지방의 토기요지에 가장 흔하게 생산되었던 다양한 형태의 토기병은 물레질 성형의 기법에 의한 그릇의 형태만큼은 자기의 단계에 도달하였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다. 한편, 중세 귀족적 생활문화의 수준과 안목이 향상됨에 따라 자기를 제조하지는 못하였지만 도기질 용기의 고급화가 가속된다. 특히, 당시 지배층은 당대^{唐代} 수입도자를 목격하거나 사용했던 경험이 있어 신라 도공에게 그런 수준의 그릇 생산을 요청했을 것이다. 고급의 생활용기에 대한 요청으로 인해 신라 도공들은 실험을 반복하면서 치밀한 태토의 고급 토기와 시유도기를 내놓았고 마침내 청자 생산에 성공을 거두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통일신라시대의 유적과 토기

통일신라 토기 연구자들은 경주 왕경 주변의 황혈식 석실분에서 출토된 토기나 화장한 뼈를 묻어주는 골호^{骨壺}와 같은 자료를 연구해 왔다. 하지만 이미 삼국시대 후기부터는 중앙집권화로 각지의 고분을 축조했던 자치적인 지방정권이 몰락하고 여기에 불교의 영향으로 화장 풍습이 보급되자, 통일신라시대의 고분문화는 빠른 속도로 쇠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왕경 일원에서는 그나마 고분군이 존속하지만 지방고분들은 급격히 소멸되고 남아 있더라도 군을 이루어 지속적으로 축조되

는 양상을 살피기란 어렵다. 이 시대에는 고분 부장용 토기는 기종 구성이 단순해질 뿐만 아니라 부장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이다. 더욱이 추가장으로 인해 서로 다른 시기의 유물이 섞여 있어 매장 유구의 일괄 유물은 같은시기라는 공식이 적용될 수도 없어 토기편년을 어렵게 하였다. 그러나 이시기 황구, 혹은 황혈계 석실에서 출토되는 토기자료는 엄밀한 분석을 거쳐 통일신라 이른 시기까지 토기편년의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다.⁵²

1970년대까지는 통일신라시대 유적의 조사 사례가 얼마 되지 않았고 토기가 출토된 예도 적어서 전체적인 토기문화상을 살피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황룡사지와 안압지의 발굴은 통일신라 토기의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를 제공했다. 안압지는 삼국통일 직후인 문무왕 14년(674)에 축조되어 신라의 멸망까지 사용되었던 신라왕궁의 원지(園池)였다. 기록에도 신라 경순왕 때까지 그 사용이 확인되며 고려시대 유물은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통일신라 기간 동안의 유물만 주로 매몰되어 있다고 보면 옳다. 그동안 고분 부장용 토기로만 보아왔지만 안압지에서는 고분에서 출토되는 토기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용 토기가 다양하게 확인됨으로써 안압지에서 출토된 토기유물군은 통일신라 토기를 전체적으로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⁵³

황룡사지에서 출토된 자료는 통일신라 토기의 발생과정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황룡사와 관련된 역사기록을 뒤져보면 이 가람은 단번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1차 가람이 진흥왕 14년(553)에 건축되기 시작하여 동왕 27년(566)에 완성되었고 연이어 584년에 금당(金堂)이 조성되고 645년에 9층목탑이 완성되기까지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중엽까지 축조되었다. 이와 같이 절대연대를 알 수 있는 건축물의 기단 구축토에 토기가 묻혀있다면 그 토기는 자신이 제작된 하한연대를 말해주는 것이기에 황룡사지 출토 유물은 통



보령 진죽리 오지 출토 주름무늬 병
(왼쪽 두개)

당진 구룡리 출토 녹유병
(오른쪽)

일신라 토기 발생의 연대를 연구하는데 하나의 기준 자료가 된다.⁵⁴

신라가 중국의 도성을 모방하여 조방제(條坊制) 즉 건물과 도로를 바둑판 모양으로 배치시키는 일종의 계획도시를 경주에 건설하기 시작하는 것은 늦어도 5세기 후반으로 알려져 있다.⁵⁵ 이후 6세기 중반이 되면 도시의 체제가 정비되고 왕경이 북천을 건너 용강동과 동천동 일대까지 왕경이 확장되기에 이른다. 그동안 이 도시유적의 조사와 보존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나, 1980년대 후반에 들어 경주 시가지 곳곳에서 도시유적의 발굴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신라의 조방(條坊)들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처럼 그간 발굴되지 않았던 통일신라의 도시유적이 구체 발굴로 모습을 드러내자 그에 따라 당시 일상생활에 사용되었던 토기류가 많이 출토되었다.

지방에서는 행정치소였던 성곽과 건물지의 조사에서도 통일신라 토기가 많이 나오는 편이다. 특히 신문왕5년(685) 정비된 9주5소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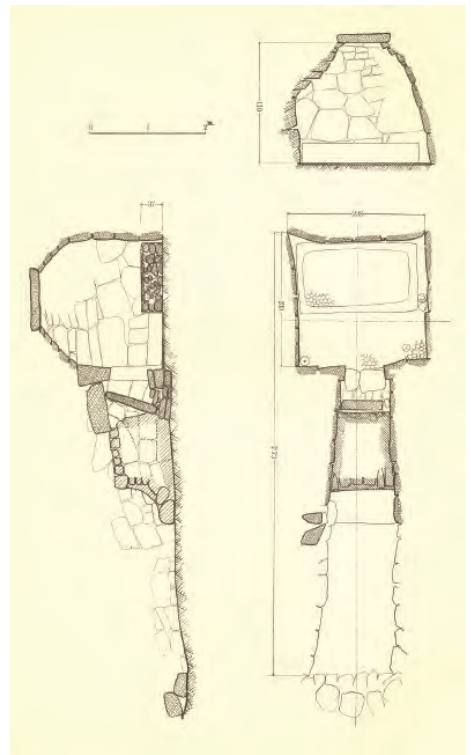
의 거점에 자리잡은 성곽과 취락에서 통일신라시대 유물을 확인할 수 있다. 삭주朔州와 사벌주沙伐州가 설치되었던 강원도 춘천과 경북 상주 등지에서는 수혈주거지로 구성된 통일신라시대 마을유적에서 당시의 일반인들의 생활용 토기가 확인되고 있다. 익산의 미륵사지, 보령의 성주사지 등을 비롯한 통일신라시대 번성했던 지방의 사찰유적 역시 당시의 생활문화와 함께 토기의 양상을 알 수 있게 해준다. 통일신라 말기에 조업을 시작했을 것으로 보이는 가마터유적으로 영암 구림리 요지와 보령 진죽리 요지가 발굴되어 여기서 나오는 유물은 이 시기 토기생산기술과 청자 발생으로 이어지는 기술적인 발전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인화문토기와 시유도기

과거 일제시대 고고학자들은 경주 충효동 고분군을 발굴하고 나서 묘제가 횡혈식석실이란 점과 출토되는 토기들이 인화문토기印花紋土器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당시까지 알려진 고신라의 묘제는 적석목곽분이고 거기서 출토되는 토기는 인화문이 없는 것이었기에 새로운 묘제인 석실분과 거기에서 출토된 인화문토기는 통일신라문화라고 생각했다.

이런 연유로 한동안 인화문토기라 하면 바로 통일신라 토기로 간주해 왔던 것이다. 물론 인화문토기가 이른 시기 통일신라 토기를 대표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출현 시기를 삼국통일 이후로 볼 수는 없다. 6-7세기대 고분군 조사자료가 늘어나고 특히 황룡사지의 발굴을 통해 삼국통일 이전 시기의

경주 충효동 10호 석실분 구조





경주 충효동 10호 석실분 출토
인화문유개합과 고배

문화층에서 인화문토기가 출토되어 아무리 늦게 보아도 7세기 초쯤이면 인화문이 등장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인화문이라는 새로운 시문기법의 등장도 중요하지만 토기 양식, 제작기술, 생산과 사용의 차원에서 무언가 중요한 변화가 시작된 시점은 6세기 중반 경이라 할 수 있다. 이후부터 진행되는 신라 토기의 변화는 한마디로 통일신라 토기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6세기 중반 이후까지 고신라의 그릇 종류나 종류별 모양새는 어느 정도 지속된다. 물론 고신라 토기 주요기종인 고배와 대부장경호, 장경호, 유대완 등이 6세기 중반 이후에도 존속하지만 그 크기는 이전에 비해 훨씬 축소되었고 그 형태는 더욱 표준화, 규격화되어갔다. 그릇이 낮고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이전의 기하학적인 새김무늬는 그릇표면에 넣을 만한 자리가 마땅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고배의 뚜껑과 장경호의 어깨와 목을 장식하던 새김무늬의 문양단위가 점점 축소되어 아주 작은 반원문(半圓文)과 삼각집선문(三角集線文)으로 된다. 이와 같이 소형화된 문양 단위로 변화되어 가자 마침내는 이를 그어내는 것이 아니라 찍어낸 무늬로 바뀐 것이 인화문인 셈이다.



경주 안압지 출토
각종 인화문 토기류



인화문 복유완

6세기 말, 혹은 7세기 초를 전후한 시기에 최초로 모습을 보이는 인화문은 처음에는 새김무늬와 함께 시문되었고 원형의 문양 요소를 하나하나 찍는데서 출발하였다. 즉 최초의 인화문이란 것은 종래에 킴파스로 돌린 원문 혹은 반원문을 대신하여 날개로 그 무늬를 찍는데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초기 원문류들은 보통 길쭉한 삼각집선문과 같은 새김무늬와 결합되는 것이 보통이며 시문의 부위나 면적도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다 점차적으로 인화문은 종류

도 다양화되고 그릇표면 찍는 면적도 확대되어 간다. 원문, 반원문, 이중반원문, 열점문, 화편문, 화승문, 연주문, 운학문, 영락문 등 통일신라시대 인화문토기가 전성기를 맞으면서 인화문의 종류가 크게 늘어난다. 그와 함께 시문부위가 그릇 전면으로 확대되는 것이 많아지고 유개합이나 그 뚜껑, 골호 등에서는 그릇 전면에 인화문이 찍힌다. 이어 초기에 문양 요소 하나하나를 날개로 찍었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문도구가 발달하게 되면 문양요소 여러 개가 종이나 횡으로 연속되어 하나의 시문단위를 구성하는 연속반원문, 연속마제형문 連續馬蹄形文, 열점문과 같은 시문구를 사용하여 찍는 방법으로 발전한다. 인화문의 도입은 화려한 장식효과란 측면에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규격화되고 고급화된 문양효과를 얻을 수 있고 시문시간을 축소하는 기술적 효율성이란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소성기술이나 태토의 질에서 통일신라는 아직 자기磁器의 시대가 아니라 도기陶器의 시대였다. 그런데 종종 도기질의 태토에 녹색 혹은 황갈색의 저온유약을 입혀 만들어진 시유도기施釉陶器가 발견된다. 이러한 시유도기는 삼국시대 신라에서 보다는 고구려와 백제지역에서 먼저 중국의 한대漢代 혹은 그 이후의 청자나 시유도기의 기술을 모방하여 생산되었던 것 같다. 물론 신라에도 삼국통일 이전에 선진 중국의 자기나 고구려, 백제의 시유도기류가 수입되어 있어 유약 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계기가 마련되어 있었다. 이미 4세기 후반경에 속하는 경주 월성로 가-5호 고분에서 고구려 계통으로 추정되는 황갈색 시유도기가 발견된 바 있다. 백제는 일찍부터 다량의 중국 자기와 시유도기가 수입되었던 지역이고, 그릇을 고급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사비시대에 이르러서는 흑색와기와 칠바른 토기와 함께 적어도 6세기 중반 경에는 녹유도기綠釉陶器를 제작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⁵⁶

시유도기란 900도 이하의 온도에서 태토가 완전히 유리질화 되

지 않은 조건에서도 유약이 녹아 그릇 표면을 덮은 도기를 말한다. 자기는 가마 안의 온도를 높이는 기술도 문제지만 고온에서도 녹지 않고 견디는 점토를 이용해야만 한다. 시유도기는 자기와는 달라서 그러한 기술적 한계를 넘어서지 않고도 화려한 질감의 그릇을 얻을 수 있었다. 통일신라의 시유도기는 백제의 녹유도기 제작 전통을 계승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⁵⁷ 적어도 7세기 초 정도가 되면 신라에서도 시유도기가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신라지역의 고분 발굴품으로 7세기 전반의 연대를 보이는 것은 김해 예안리 17호, 함천 저포리 E지구 2호묘 출토품이 있다. 통일신라의 시유도기는 녹색계통의 녹유와 갈색을 띠는 갈유, 그리고 당삼채를 모방하여 화려한 색상을 자랑하는 신라삼채新羅三彩가 있는데 그 중 녹유계통이 가장 흔하게 발견된다.

통일기에 접어들면서 시유도기는 다양하게 발전한다. 우선 통일신라의 귀족들이 장골용기로서 화려한 시유도기를 선호했기 때문에 국보 125호로 지정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인화문 녹유합綠釉盒과 경주 남산동 출토 녹유사이호綠釉四耳壺,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단각고배 형식을 한 신라삼채골호新羅三彩骨壺와 같은 정교하고 장식이 뛰어난 제품이 제작되었다. 녹유도기는 통일신라시대 귀족적인 생활이 추구되면서 일상용기를 고급화하려는 욕구로 발



신라 삼채 골호

전된 물품이었다.

예를 들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녹유발(綠釉鉢)과 같은 화려한 유물이 있으며 전남 출토품이라고 전하는 녹유인화문병(綠釉印花文瓶)은 매우 뛰어난 물레질 솜씨로 제작된 대부병이다. 이 병과 거의 같은 형식이 충남 당진 구룡리 요지에 출토되고 있는데, 통일신라 말기의 매우 발달된 녹유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시유기법은 사찰 건축물의 와전류(瓦塼類) 제작에도 적용되어 매우 화려한 장식성을 자랑한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사천왕사지 출토 녹유사천왕상전(綠釉四天王像塼, 안압지에서 출토된 녹유귀면와(綠釉鬼面瓦)와 녹유연화문와당 등을 들 수 있다.

경주 주변의 인화문토기 가마터에서는 시유도기의 파편이 종종 발견되고 있으며 인화문토기 중에는 이른 형식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때문에 통일신라기 초기부터 왕경을 중심으로 한 생산유적에서 시유도기의 생산이 증가되었던 것 같다. 통일신라 늦은 시기부터는 당진 구룡리요지, 보령 진죽리요지 그리고 영암 구림리요지와 같은 경주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 가마터에서도 일정량의 시유도기가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단계에 이르면 지방의 가마터에도 시유도기가 활발히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작기술의 발전

통일신라시대 토기에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제작기술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새김무늬에서 찍는 무늬로 바뀌는 시문기술의 발전과 시유기술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토기장식기술의 변화는 사실 7세기 초를 전후한 시기, 즉 삼국 통일 이전에 시작되었고 통일신라시대는 이 변화가 더욱 보급

되고 발전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하지만 통일신라시대 토기 제작기술의 발전은 장식기술의 변화에 국한시켜 말할 수 없으며, 원료 점토의 가공과 사용, 성형기술, 소성기술 등 전반적인 기술혁신을 포함하고 있다.

신라 왕경으로부터 나온 토기유물의 태토를 살펴보면 고급의 찻사발이나 식기, 저장용 항아리, 취사용기, 및 그 밖의 허드레그릇에 이르기까지 그 용도에 맞는 원료 점토를 이용하면서 원료에 맞는 온도와 분위기를 조절하여 소성하였다. 그래서 태토의 성질은 경도가 높은 회청색경질, 회흑색 혹은 회백색의 고운 와질, 그리고 적갈색에 다소 거친 연질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그릇은 태토가 회청색경질에 속하지만 취사용 용이나 허드레 그릇은 적갈색 연질이 많다. 저장용기, 시루, 풍로 등 일상 용기 중 일부는 회흑색, 혹은 회

다양한 질로 제작된 통일신라 토기의 기증 안압지 출토. 높이 최대 27.5cm



백색의 와질로 제작되는데 아주 고운 회백색의 와기는 식기(食器)나 음기(飲器)로 사용하였다. 통일신라 토기의 태토의 질은 회청색경질이나, 적갈색 연질처럼 고신라 토기의 소성방법을 그대로 계승 적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고운 회색연질계가 늘어나고 식기와 같은 기종에서 회백색, 혹은 회흑색 정질(精質)이 많이 보이는 것은 사비시 기 백제 토기의 영향을 살필 수 있다.

통일신라 토기는 원료 점토와 소성기술, 그리고 시유 및 장식기법에서 중요한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물레질 기술을 토대로 한 성형기법의 발전에 더욱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신라 통일 이전에 유개고배는 다리가 짧아지면서 유개합과 같은 형태로 바뀌고 대부분 장경호는 목이 가늘어지고 다리가 굽처럼 바뀌면서 병형토기에 가까운 모습으로 발전되고 있었다. 식기로서 완과 접시의 사용이 늘어나고 생활문화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기종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리고 왕경으로 인구가 집중하면서 도시민을 위해 토기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을 것임에 틀림없다. 모든 지역에서 그러한 변화가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신라 왕경과 지방의 주요 거점 지역에서는 다양한 기종의 토기를 대량으로 생산해야 하는 도공에 의해 효율적이고 표준화된 물레질법이 추구하고 습득되었을 것이다.

특히, 통일신라 말기의 토기요지와 왕경의 생활유적에서 발견된 완이나 뚜껑, 그리고 토기병 등은 개별 그릇을 손으로 빚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표준화가 달성되어 있으며 기계적으로 빚어내기 어려운 기형도 물레질을 응용하여 제작이 가능하도록 방법이 이미 고안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도기의 단계에서 자기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있어서 유약과 점토원료의 개발이나 소성기술에서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많았지만, 통일신라 시대는 물레질에 있어서만큼은 자기의 다양한 기종 제작에 어떤 기술적 한계도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생활문화와 토기

흙으로 빚어 만든 그릇은 무언가를 담는 용기이고 그 무언가는 음식물인 경우가 100%는 아니어도 그에 가까울 것이다. 음식물을 저장하고 운반하고 조리하고 식사할 때 사용하는 그릇이 토기요자 기인 셈이며 음식과 관련된 생활방식이 그릇의 종류나 질을 좌우하기 마련이다. 물론 목기나 금속기도 많이 사용되며 그 사회의 생활 방식에 따라 어떤 재질의 그릇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통일신라시대는 생활방식의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진 시대이다. 통일신라의 귀족생활의 발전으로 인해 음식의 저장, 조리, 식사 생활에서의 큰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그릇의 사용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시대였다.

경주 안압지에서 출토된 매병모양과 원통모양이 결합된 형태의 토기병은 그릇의 높이가 87cm에 달하는 것이 있고 좀 작지만 그릇 높이가 59cm의 매병모양토기에는 ‘사두오도(四斗五刀)’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⁵⁸ 대형이란 점에서 저장 혹은 운반용 그릇일 것이고 ‘사두오도’라는 명문은 용량과 관련이 있을 것이며 긴 목을 가졌다는 점에서 술과 같은 액체를 저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전문 액체 저장의 그릇은 새로운 생활문화의 반영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같은 안압지에서 나온 높이 147cm의 대형 저장용 독에도 ‘십구팔옹(十口八甕)’이란 명문이 새겨있는데 열 식구가 겨울을 나려면 8개의 독이 필요하다는 뜻의 “十口之家 八甕過冬”의 줄임말로 생각되는데 곡식저장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⁵⁹

조리기구에 있어서도 역시 통일신라에서는 이전에 사용하지 않던 종류의 조리용기가 사용되는 것 같다. 경주 동천동 왕경에서 발굴된 세발달린 솥과 같은 경우, 사실 고신라 시기에는 이러한 이동식 조리형 토기가 사용된 바 없지만 음식조리문화의 변화와 함께

❶ 대형 매병모양 토기

“사두오도(四斗五刀)” 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는 매병모양의 저장용 토기.

❷ 매병모양 토기의 명문

안압지에서 출토된 높이 147cm의 대형 저장용. “십구팔옹(十口八甕)” 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❸ 세발 달린 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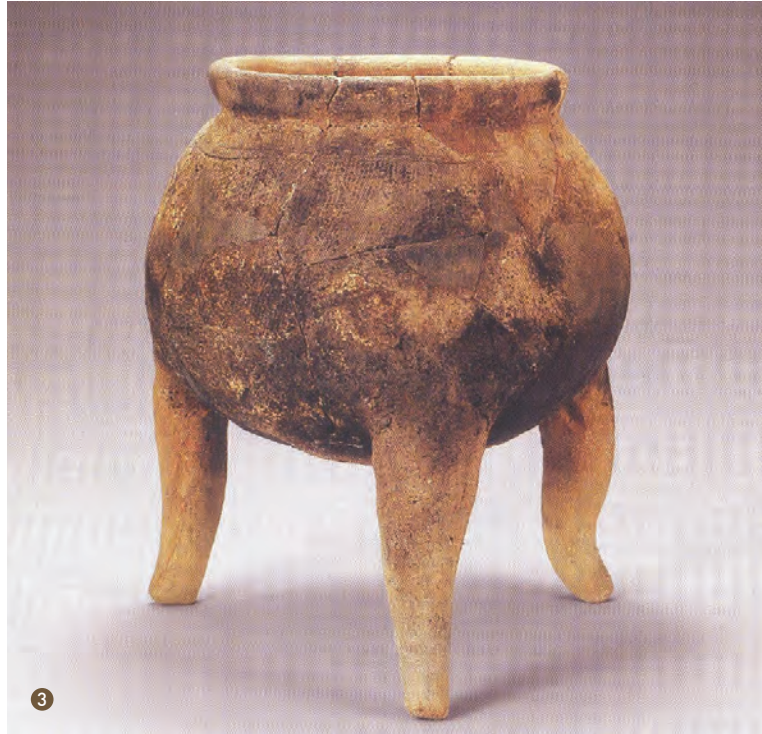
경주 동천동 왕경유적에서 발굴된 세발 달린 솥, 사용으로 표면에 그늘음이 묻어 있다.



❶



❷



❸



1



2



3

1 토제풍로

경주 안압지에서 출토된 토제풍로. 실내에서 숯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데우거나 끓이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목서명 토기

경주 안압지에서 출토된 회백색 완. 그릇 바깥 표면에 테를 두르듯 구름무늬와 초화문 그리고 ‘言’, ‘貞’, ‘茶’ 라는 글자가 목서되어 있음. 차대점으로 추정된다.

3 토기주전자

경주 동천동 왕경유적에서 출토된 토기주전자. 통일신라시대 귀족의 치문화와 관련된 유물로 추정된다.

새롭게 채용된 그릇으로 보인다. 안압지에서 발견된 풍로와 같은 경우, 삼국시대에도 이동식 부뚜막이 있지만 실내에서 숯불과 같은 연료를 이용하여 무언가를 데우거나 끓이는데 적합한 도구라고 생각된다.

특히, 통일신라시대가 되면 차를 마시는 생활 습관의 보급과 관련된 자료가 많이 보인다. 안압지에서 출토된 회백색 완은 ‘言’, ‘貞’, ‘茶’ 라는 글자가 목서되어 있는데 차대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풍로는 실내에서 찻물을 끓여 차를 마시는 용도로 쓰인다 해도 손색이 없을 듯하다.

〈이성주〉



한국문화사 32

한반도의 흙, 도자기로 태어나다

3

고려, 삼국 영혼의 도자

- 01 차 문화의 유행과 청자의 제작
- 02 고려의 색, 청자의 빛
- 03 고려의 생활과 도자
- 04 청자의 생산과 유통
- 05 국운과 함께 한 청자

01

차 문화의 유행과 청자의 제작

청자는 언제 어떻게 만들었나

한국의 청자는 한반도에서 처음 만들어낸 자기질(磁器質) 그릇이다. 자기란 고운 태토(점토)로 기물을 만들어 유약을 바른 후 높은 온도에서 구워 완성해 낸 그릇을 말한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청자가 생산되었다는 사실은 ‘도기(陶器)에서 자기로’ 도자 생산의 중심이 옮겨가는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자 제작의 성공은 부가가치가 높은 신소재의 도자 생산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영위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면 과연 한반도의 청자는 언제 시작되었을까?

한국 청자의 출현시기를 알기 위하여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고려 시대 이전의 차 문화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차는 선덕여왕(632~647 재위) 때부터 있었고, 통일신라시대에는 흥덕왕 3년(828)에 당나라에 사신으로 갔다 온 대렴(大廉)이 차 종자를 얻어오자 왕이 이를 지리산에 심게 하였다고 전한다.¹ 이를 보면 한반도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상류층을 중심으로 차가 음용되고 있었고 9세기 이후



청자골호

경주 배리에서 출토된 중국 남방의 월주요(越州窯)산 뚜껑과 장사요(長沙窯)산 몸체이다. 차문화의 유행에 따라 9세기 전반에 수입된 중국 자기로 귀한 물건이란 인식에서인지 피장자의 골호로 사용하였다.

국립경주박물관, 당·송, 9세기, 총 높이 23.8cm

부터는 차를 직접 재배하기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통일신라시대에는 당 문화의 접촉 속에서 중국의 차는 물론 차를 마시기 위한 도자용기가 수입되어 널리 이용되었다. 수입이 이루어진 중국제 찻 그릇은 주로 자기로 제작된 다완(茶碗), 다호(茶壺)로서 중국의 형요(邢窯) 백자와 월주요(越州窯) 청자, 장사요(長沙窯)의 청자가 애용되었다.² 이러한 중국산 자기들은 8세기 후반 이후 중국의 대외무역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점차 한반도로 유입되었으며, 수입된 시기는 주로 9세기였다. 국내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중국 자기들은 당시 대도시였던 경주 지역과 호족세력들의 근거지였던 지방의 중소도시, 혹은 대형 사찰이나 성(城)과 같은 방어시설에서 발견된다. 이는 차를 음용하는 계층이 어떠한 부류였는지를 추측하는데 도움을 준다.

9세기 말부터 10세기 초반 사이, 한반도는 후삼국시대에 돌입하면서 특히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전선(戰線)이 형성되었다. 불분명한

백자완
 익산 미륵사지(彌勒寺址)에서 출토된
 중국 하북성(河北省) 형요(邢窯)산 백자
 완(淺사발)이다. 넓게 깎은 굽과 입술이
 밖으로 말린 형태의 완은 형요산 백자
 완의 특징으로 9세기경 통일신라시대
 에 수입되어 대도시의 상류층과 사찰에
 서 소비되었다.
 미륵사지유물전시관, 당·唐, 9세기, 높
 이 작 : 4.6cm



경계 사이의 고을을 영토권 안에 편입시키고자 했던 치열한 전쟁은 중국과의 교류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자리 잡았다. 마침 중국도 907년부터 960년경까지 오대(五代) 10국(十國)이 난립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중국 도자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은 거의 불가능했던 것 같다. 이로 인해 중국 차도구의 국내 소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차는 고려 국초부터 국왕의 하사품이나 국가의 공식적인 대소사에 필수적인 의식절차에서 활용되어 그 수요가 줄지 않았으며 이에 필요한 각종 차 도구가 필요하였다.

확대되어 가는 차 소비와는 다르게 정치·외교관계의 불안정으로 말미암아 중국산 수입도자의 부족은 자기를 생산하지 못하던 고려 입장에서 보면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듯 10세기대에 제작된 중국 도자는 한반도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고려는 자기제 차도구를 직접 제작해야 했을 것이다.³

한국에서 청자가 처음 만들어진 시점은 시각 차이가 있으나 대략 고려 초인 10세기 전반 경부터였다. 수도 개경(開京)은 고려 초에 들어와 상주인구가 증가하고 권력이 집중되면서 최대의 자기 소비 시장이 되었다. 이를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들은 개성을 중심으로 황해도와 경기도, 충남 일부 지역에 퍼져 있는 고려 초의 가마터

자료에서 확인된다.

중서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가마터 유적중 경기도 용인 서리, 시흥 방산동, 여주 중암리, 황해도 배천 원산리의 가마는 발굴조사를 통해 고려 초부터 청자가 제작된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지역의 가마들은 약 총 길이 40m 내외에 벽돌을 주 재료로 축조한 대형 규모의 이른바 전축요(塼築窯)이다. 같은 양상을 보이는 가마 구조는 중국 절강성의 월주요의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바 있어 한반도의 전축요들이 중국 남방계 가마의 영향을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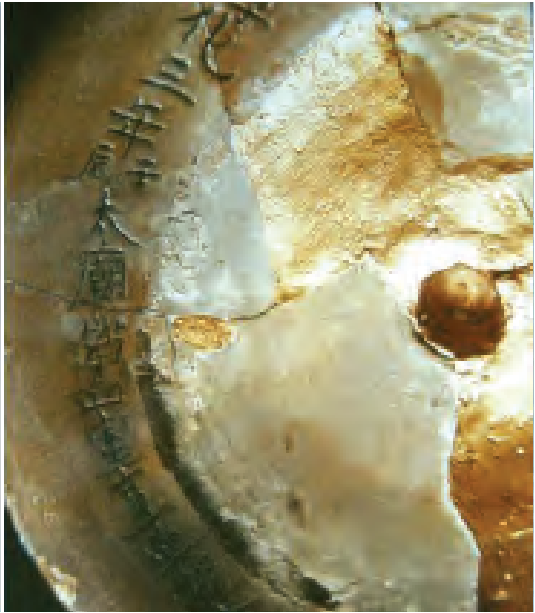
이들 가마터에서는 차를 마시기 위한 사발인 다완이 가장 많이 출토되었다. 그 밖에도 주자, 꽃형태의 접시(화형접시, 기타 접시

류, 잔, 잔받침, 소형 항아리, 장고, 제기편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차와 관련된 품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청자를 생산한 주 목적이 차도구 확보였음을 알려준다. 유물 중에는 글자가 음각되었거나 연대 추정이 가능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어 한반도의 청자 발생 시기를 추측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황해도 배천군 원산리의 2호 가마터의 최상부에서 발견된 청자고배를 주목할 만하다. 이 고배의 굽바닥에는 원형으로 글자를 돌려 명문을 음각하였는데 내용은 ‘순화3년임진태묘제사실향기장왕공탁조(淳化三年壬辰太廟第四室享器匠王公佐造)’라고 써어 있다. 이를 해석해 보면 ‘순화(송 태종의 연호) 3년인 992년, 태묘에서 광종을 모시는 네 번째 방에 (이 그릇을 넣기 위해) 제기 만든



황해도 배천군 원산리 청자가마터
1989~1990년 북한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에서 발굴 조사한 10세기경의 청자가마터로 벽돌로 축조(塼築)한 오름가마(登窯)임이 확인되었다. 벽돌로 축조한 오름가마는 중국 남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마 구조로 장작을 주원료로 활용한다. 국내의 초기 청자가마는 이러한 중국계 가마로서 주로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발견된다.



「순화 3년」 명 고배
 황해남도 배천군 원산리 2호가마터 최
 상부에서 발견된 제기이다. 굽에는 순
 화(淳化) 3년(992) 태묘(太廟)의 여러 제
 실(祭室) 중 네 번째인 광종(光宗)의 방
 에 넣기 위해 장인인 왕공탁이 만들었
 다는 글자가 음각되어 있다. 이 제기의
 발견으로 원산리 가마터는 여러 청자
 그릇들과 더불어 왕실제기를 만드는 곳
 이었음이 밝혀졌다.
 조선중앙역사박물관, 고려, 992년, 높
 이 약 35cm.

는 장인인 왕공탁이 만들었다.’ 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도 한 해 뒤인 993년에 태조의 제실에 넣기 위한 만든 제기항아리가 전해지고 있어 제작 성격이 같은 이 두 유물은 함께 배천 원산리에서 만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언제, 무엇을 위해, 누가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기록을 가진 이 유물의 존재는 고려시대 초기의 청자 제작사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 왜냐하면 이들 명문 자료들은 배천 원산리의 가마터 발굴조사 때에 가마바닥의 최상부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가마바닥의 최상부는 마지막 폐요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배천 원산리 2호 가마는 명문 있는 제기들을 포함한 청자를 구운 후 곧 요업을 중단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마 바닥의 두께가 1m에 가까운 점을 고려한다면 원산리 2호 가마는 더 이른 시기부터 청자를 구워내었던 것이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 가마가 중서부지역에는 여러 곳에 있다는 점이다. 가마의 구조나 생산품의 조형 등에서

시흥 방산동의 방산대요(芳山大窯) 발굴조사는 유사한 가마가 다른 지역에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⁴ 발굴 지역들을 중심으로 중서부 지역에 퍼져 있는 이들 전축요들은 지표조사 결과 운영시기 등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흥미로운 사실은 전축요들의 폐요 과정이 모든 가마들간에 유사하여 같은 시기에 전축요들이 폐기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배천 원산리 2호의 명문제기들은 원산리 가마유적을 포함하여 유사한 성향을 갖는 다른 전축요들의 폐요 시점을 추측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청자의 개시 시점은 10세기 후반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으며 전축요들은 10세기 말경, 혹은 11세기 초반경의 어느 때인가 사라져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고려의 3대왕 정종(定宗, 재위 945~949)의 안릉(安陵)에서 출토된 청자화형발, 청자화형대접, 청자잔탁, 청자주자뚜껑 등은 949년 정종이 승하했을 때 무덤에 부장된 유물이었다.⁵ 이와 똑같은 형태를 지닌 청자들은 중서부 지역의 전축요에서 파편으로 발견되고 있어 안릉의 부장용 청자들을 토대로 제작 시기를 판단하면 고려에서의 청자제작은 적어도 10세기 전반부터 가능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고려청자의 최초 제작 집단은 중국인 도공이었다. 가마의 축조기술이나 축조재료, 세부적인 구조물, 생산된 도자의 종류와 형태는 10세기 전반경인 중국 오대 시기의 월주요 장인들이 구사했던 기술과 동일하다. 그러나 처음 고려에 이주하여 청자기술을 전해준 중국 장인 집단의 영향력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였다. 고려가 정치적으로 안정되기 시작한 10세기 말에서 11세기 초반경 사이, 중앙정부의 행정력은 한반도의 끝자락까지 미쳤으며 전남 강진을 위시한 전남의 서남해안지역으로 요업 중심이 이동하면서 고려 도공에 의한 청자 제작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안릉 출토 청자 일괄품

청자화형발(위), 청자잔탁(가운데, 아래)
949년에 고려의 3대 임금 정종(定宗)이
송하하자 능에 장사를 지내고 안릉(安陵)
이라는 능호를 부여하였다. 이곳에서는
중국 오대 시기의 월주요 제품과 유사한
여러 점의 청자들이 확인되었다. 얇은
기벽과 예리한 마무리는 전축요 출토품
에서도 최고급에 속하는 것들로 중국의
제품과 견주어 전혀 차이가 없다.

개성시 개풍군 고남리 안릉 출토, 고려,
949년 하한,

발 구경 22,2cm, 잔탁 구경 19,5cm,



서남해안 지역은 지하에 굴을 파고 도기를 굽던 요업의 전통이 강한 곳이었다. 이곳에서의 청자 제작은 전통적인 도기가마를 지상으로 끌어올리고 자기가마의 장점을 결합하여 새로운 소형의 토축요(진흙으로 축조한 가마를 운용하면서 시작되었다. 제작품들은 도기를 만들던 장인 집단이 청자기술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보여주는 듯, 전축요 생산품 스타일의 중국식 청자 형태와 전통적인 도기식 청자 형태가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⁶



이들 지역의 가마들에서는 10세기대에 만들어진 청자와는 변화된 형태의 그릇들이 생산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면서 유색이

좋아지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기술이란 초벌을 말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특히 강진지역의 청자들은 유약층이 두꺼워지고 유색(釉色)이 진초록 빛을 띠기 시작하였다. 초벌 과정이 적용되면서 고려청자는 색조에서 중국청자와 차별화된 느낌을 주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만들어진 품목의 핵심은 차용기인 다완과 여러 종류의 관련품들이었다. 이들 중 생산 수량이 가장 많은 다완은 넓은 굽지름과 접지면, 그리고 내면에 낮게 깎은 원지름내저원각을 갖고 있어 중국의 다완과는 차이를 보이는데 사람들은 이를 흔히 해무리굽완(日暈底碗)이라고 부른다.

강진 용운리 10-4호의 가마구조
1980~1982년 사이에 발굴조사로 확인된 강진 용운리 10-4호 가마의 전경이다. 이 가마는 길이가 10m를 상회하지 않는 소형으로 경사면의 지표층을 살짝 파내고 천정부를 진흙으로 올린 토축요(土築窯)의 구조를 보여준다. 이곳은 도기 생산의 전통이 오래된 곳으로 새로운 청자 제작기술이 접목되면서 운영이 쉬운 소형의 자기가마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11세기대에 서남해안 지역에는 강진을 위시하여 그 주변 지역인

청자완
 강진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이는 고려시대 11세기의 청자완이다. 11세기경 강진에서는 확대되어가는 차문화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청자완을 대량 생산하였다. 내면에 원각(일종의 흠)을 파내고 굽을 넓게 깎은 형태의 완을 소위 '해무리굽완'이라 부른다. 이 완은 고려시대의 각종 건물지나 사찰터 등지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
 해강도자미술관, 고려, 11세기, 높이 6.2cm.



해남, 고흥, 장흥 등지에서도 청자 생산이 이루어졌다. 수요층이 확산되면서 생산된 청자의 품질은 다양하였으며 발달하기 시작한 운송 루트를 따라 이 시점의 청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소비되었다.

차 문화와 청자

고려 초부터 차는 왕실, 문무귀족, 승려 등 상류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즐기던 고급 문화의 하나였다. 차는 국가 제례는 물론이고 왕의 하사품, 외교상의 예물, 사찰의 공헌(貢獻)과정에서 폭넓게 이용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일반화되어 일상생활의 음료로 자리잡았다.⁷ 이와 같은 사실은 청자의 발전 과정에 지대한 기여를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고려 전기의 사료 중에는 왕실에서 차를 하사하거나 의식 때에 진다(進茶)하는 기록이 많이 전한다. 예종(睿宗) 때 정해진 각종 왕실의 의식에서는 태후, 왕세자, 왕자의 책봉과 함께 공주의 하가(下嫁), 원회 등의 의식과 대관전에서의 군신연회, 노인에게의 사연(賜宴), 연등회, 팔관회와 같은 행사에 차가 빠지지 않고 사용되었으며, 외국 사신을 맞이할 때에도 차를 대접한 기록이 남아 있다.

고려 중기에는 차의 현황과 습관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로

1123년 북송 사신단의 일원으로 고려를 방문했다가 기록을 남겼던 서긍의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이 참고가 된다. 다조茶組조에 이르기를 ‘토산차는 맛이 쓰고 뚱어 입에 넣을 수 없고 오직 중국의 납차蠟茶와⁸ 용봉사단龍鳳賜團⁹을 귀하게 여긴다. 하사해 준 것 이외에 상인들이 오가며 팔기 때문에 근래에 와서는 고려 사람들도 차 마시는 것을 좋아하여 차도구를 만들었다. 금화오잔金花烏盞, 비색소구翡色小甌, 은로탕정銀爐湯鼎 등은 모두 중국의 모양과 규격을 흉내 낸 것들이다.’ 라고 하여 고려인들이 중국차를 선호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⁰



고려시대에는 수많은 문인들이 차를 예찬하는 시를 남겼다. 곽여, 이규보, 이인로, 임춘, 이진, 이연중, 이제현, 이색, 한수 등 당대의 문인·문사들은 차를 찬미하고 차와 차도구 등을 선물로 주고받았으며 다선일미茶禪一味적인 성향을 보였다. 또 통일신라시대부터 사찰에서 애용된 차는 고려시대에 더 많이 확대된 듯, 큰절에는 차를 만들어 절에 바치는 다소촌茶所村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¹ 승려들이 총림이나 선원에서 지켜야 할 법규를 청규淸規라 하는데, 중국 송의 청규를 범본으로 한 1254년의 고려판 선원청규인 『고려판중침족본선원청규高麗板重添足本禪院淸規』에는 사찰 내에서의 의례와 일상에서의 행다行茶에 대하여 상세한 기록을 남기고

송 황제의 기호품 용봉단차(龍鳳團茶) 북건성 건구현(建甌縣)의 차는 송 황실에 차를 공납하였던 곳으로 동글게 만든 병다(餅茶)는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었다. 10-11세기에 이르는 동안 이곳에서는 용봉문양을 차의 표면 위에 누른 용봉단차가 만들어졌으며 대단히 귀하여 조정의 관리들도 구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고려 사람들이 이 차를 좋아했던 것은 중국 황제가 사여하는 귀한 선물이기도 했고 고급차로서 고려 토산차에 비해 맛과 향이 좋았기 때문이었다.

있다.¹²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보면 고려시대의 차 문화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문인 관료들과 승려 등 이른바 상류계 층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차도구에 어떠한 종류가 있고 무엇이 도자기로 제작되었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다. 그러나 다완이 가장 많이 제작된 것은 고고학적 발굴조사를 통해 분명히 알려진 사실이며 그 밖에도 『선화봉사고려도경』 기명조에 등장하는 다조茶組, 수병水瓶, 반잔盤盞, 정병淨瓶, 화호花壺, 탕호湯壺 등도 다구일 가능성이 높다. 차를 마시기 위한 기물의 필요성은 이미 차가 본격적으로 수입되었던 통일신라시대부터 제기되었으나 고려시대에는 초기부터 청자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차도구의 생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확실하다.

고려시대 자기로 만든 차도구의 제작 경향은 중국 차 문화의 변화 양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10세기 전반, 청



요나라 벽화묘의 차도구 그림
중국 하북성 장가구시(張家口市)에는 요나라 때의 집단묘가 있다. 그 중 1093년의 장문조(張文藻) 묘 전실 동벽에는 차를 준비하는 시동과 여러 집기 사이에서 이를 바라보는 어린 아이들을 묘사하여 놓았다. 그림에 보이는 다연, 다로, 다술 등과 같은 차도구들은 당시의 음용방식이 점다(點茶)였음을 알려준다.

자 발생기에 개경 주변의 전축요로부터 시작된 차도구 중심의 제작 경향은 요업의 중심이 서남부지역으로 이동했던 11세기에도 지속되었다. 무려 약 150년간 다완은 10~11세기에 이르는 모든 가마들에서 대략 50%가 넘는 절대적인 비중으로 생산되었고¹³ 그 밖에 잔탁, 대소의 항아리, 주자, 장고 등 차 관련 도구로 추정되는 기종까지 합치면 60~70%를 상회한다.

고려 초의 다법은 당나라 육유(陸羽(727?-803))에 의해 정리된 전다법(煎茶法)을 계승한 팽다법(烹茶法)으로, 차를 먹기 위해 가루차를 솥에 넣고 끓이면서 휘저어 탁한 차를 마신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⁴ 이 방법은 찌서 말린 둥근 차를 솥불에 구워 다연(茶碾)으로 곱게 간 다음 솥에 물과 함께 넣어 끓인 일종의 차 죽(粥)으로 해무리급완은 이를 국자로 퍼서 식히면서 먹는 그릇인 것이다.

그러나 11세기 말경, 대각국사 의천(義天(1055~1101))이 송나라 유학을 다녀온 이후 변화된 음다법이 전래되면서 차 음용법은 점다법



청자양각연편문발
2007년 태안 대섬 앞바다에서 수중 발굴로 수집된 청자발이다. 고려 중기에는 차를 거품 내어 마시는 방법이 쓰였다. 그동안 음식기명으로 이해해 왔던 고려 중기의 발들은 변화된 다법을 수용한 다구(茶具)일 가능성이 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고려, 12세기, 높이 9.0cm.



청자통형잔

『선화봉사고려도경』에서 고려인들이 '매일 세 차례 차를 마시는데 뒤이어 또 탕(湯)을 내 놓는다' 라고 하였다. 12세기 부터 새롭게 등장한 청자통형잔은 뚜껑과 한 셋트를 이루며 고려 중기의 차문화 중 하나인 탕을 마셨던 그릇으로 보인다. 해강도자미술관, 고려 12세기, 높이 11.4cm.

點茶法으로 바뀐 듯하다.¹⁵ 점다법은 등글게 찢 차를 굵지 않고 다연에 곱게 갈아 뜨거운 물과 함께 찻그릇에 넣어 휘저으면서 포말이 일어난 차를 마시는 방법으로 흔히 말차법 抹茶法이라고 한다. 이 경우 완과는 다른 용기가 필요한데 고려시대 중기 이후에 이를 대체한 기종은 발鉢이나 대접인 것 같다.

실제로 고려시대 중기 이후의 가마터인 강진 용운리 10호 요지 II층이나 부안 유천리 7구역, 음성 생리, 대전 구원동 등의 발굴현장

에서는 완이 급격히 줄어들고 발·대접의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여러 문헌기록으로 볼 때 차 문화가 고려 중기 이후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고려해 보면, 흔히 음식기로 생각해 왔던 발, 대접들이 변화된 차 문화를 반영하는 그릇일 가능성이 높다.¹⁶

고려시대 중기에 이르러 변화된 차 문화를 반영한 새로운 기종으로 통형잔의 등장을 들 수 있다. 뚜껑을 얹어 사용하는 통형잔은 보통 고려 중기 이후에 운영된 모든 가마터에서 흔히 발견되는 유물이다. 『선화봉사고려도경』의 다조茶組 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고려인들은) 매일 세 차례 차를 마시는데 뒤이어 또 탕湯을 내놓는다. 고려인들은 탕을 약이라 하는데 사신들이 다 마시는 것을 보면 기뻐하지만 간혹 다 마시지 못하면 자신들을 업신여긴다고 생각하고 원망하며 가버리

기 때문에 항상 억지로 그것을 다 마셨다.

이 기록에서 말하는 탕은 지금의 인삼차와 같은 음료로서 차를 마신 후 탕으로 입가심을 했던 고려인들의 독특한 차음용 방식을 잘 설명 해주는 내용으로 추측된다. 통형잔은 이때 필요한 기종으로 중국에서는 볼 수 없는 고려식의 차 문화에 의한 창작물이라 하겠다.¹⁷

이처럼 고려청자의 기종에는 변화된 차 문화를 반영한 그릇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때로는 일상 생활용기보다도 더 큰 비중을 보인 경우도 있어 청자의 발전에 차 문화가 갖는 역할이 매우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2.

고려의 색, 청자의 빛

새로운 기술과 조형의 수용

“푸른 빛은 쪽빛에서 나왔으나 쪽빛보다 더 진하다.” 『순자荀子』의 「권학勸學」 편에 등장하는 이 말은 고려청자의 우수성과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용어이다. 고려청자의 발생은 분명 중국 오대 월주요의 기술을 습득한 것이 틀림없으나 고려청자는 어느 순간 중국청자를 넘어서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고려청자의 우수성은 크게 비색翡色의 구현과 세련된 조형을 발전시켜간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려청자의 색조가 유달리 푸른 빛을 발한 것은 초벌을 하고 소형 가마에서 노련하게 불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청자 발생기인 10세기경, 중국으로부터 국내에 전해진 청자기술 속에는 태토의 선별, 성형방식, 각종 도구, 시유기술, 가마쌓기 등 모든 일련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증거는 전축요의 발굴 조사 결과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그러나 전축요에는 자기를 구울 때 초벌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폐기된 결과물인 초벌 파편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즉, 전축요에서는 초벌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초벌은 성형한 후 건조된 기물을 700~800도에서 구워내는 과정을 말하는데, 이때 미리 파손품을 확인하여 걸러 내고 유약통에 담가 두는 시간을 조절함으로써 유약의 두께를 달리 입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청자 제작 초창기에 이러한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품이 가마터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은 초벌 과정이 없었다는 얘기가 된다.

실제로 10세기경의 중국 가마에서는 초벌을 하지 않고 성형된 기물에 유약을 씌워 한 번에 구워내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국내에 전해진 번조기술은 바로 이렇게 한 번의 과정을 통해 자기를 완전히 굽는 단벌 번조방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유약을 입힐 때 기물을 오랫동안 유약통 속에 담가두면 그릇이 녹아버리므로 시유 과정은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우리나라 중서부지역 전축요에서는 얇은 유약층을 가진 자기들이 생산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대형 가마들은 불조절이 용이하지 못하고 환원이 쉽게 걸리지



청자안 파편 및 초벌구이 파편
보통 700~800℃로 그릇을 초벌하면 그 과정에서 파손품의 선별이 쉽고 유약을 두껍게 입힐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방법은 11세기경에 강진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으며, 이로 인해 강진 청자들의 표면에는 진초록빛의 두꺼운 유약이 입혀지게 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 강진 용운리 10호 1층 출토, 고려, 11세기, 저경 5.4cm.

얇아 청자의 색조는 올리브그린^{olive green}색을 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1세기에 요업의 중심이 서남부 해안지역으로 옮겨진 이후 강진지역에서는 초벌기술이 시도되기 시작하였다. 강진 용운리, 삼흥리 일대의 발굴조사에서는 해무리굽완을 비롯하여 각종 그릇 파편에 초벌편이 섞여 있어 이 과정이 일반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고려청자는 유약의 두께가 두꺼워졌으며 진초록빛을 띠는 고려비색^{高麗翡色}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다. 10m 내외의 작은 소형 토축요를 사용한 강진에서 양질의 청자가 생산된 것은 이 가마가 불조절이 용이하고 환원이 잘 걸리는 시설이었음을 말해준다. 옥빛에 가까운 고려청자의 제작은 이렇듯 초벌기술의 활용과 불조절이 쉬운 소형 가마를 이용한 결과였다. 이러한 전통은 12세기를 거쳐 13세기 전반까지도 지속되면서 고려청자의 유색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고려 중기의비색청자

〈청자음각운룡문매병〉

비색청자의 유색은 진초록빛을 띤다. 유약층 사이에 끼여져 있는 미세한 공기들은 빛을 받아 난반사되면서 약간 탁해지는데 이때 유약층 사이로 태토나 문양의 질감이 전해지면서 부드러운 푸른빛을 보이는 것이 고려의 비색이다. 삼성미술관 리움, 고려, 12~13세기, 보물 1385호, 높이 40cm.



우아한 청자색의 확보는 고려청자의 위상을 당대 최고의 수준에 올려놓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당시의 제작 상황을 이해하게 해주는 자료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동안 중국청자를 최고로 알고 있었던 중국인들에 의해 기록되어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게 되었다. 서긍의 『선화봉사고려도경』에는 청자술병^{陶尊}을 언급하면서 “도기의 푸른빛을 고려인들은 비색이라 하는데 근래에 들어 제작기술이 정교해지고 빛깔이 더욱 좋아졌다”고 하였고, 청자향로에 대하여는 “산에 출향^{狻猊出香} 역시 비색이다. 여러 그릇 가운데 이 물건만이 가장 정교하고 빼어나다”라고 하였다. 또 송대의 문인 태평노인^{太平}

老人의 『수중금袖重錦』 천하제일조에는 정요定窯백자와 더불어 고려비색이 당대 청자의 최고였음을 기록하고 있어 중국인들에게 고려청자의 유색이 얼마나 인상 깊은 것이었는가를 잘 알게 해준다.

11세기부터 색조가 아름다워진 고려청자는 유색에서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완성도에 있어서도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릇의 기벽은 얇게 성형하고 정리하여 크기에 비해 가벼운 느낌을 주며, 굽 밑에는 작은 규석 조각을 받쳐 구움으로써 완성한 이후 굽 하단부를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였던 것이다.

높은 완성도를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예는 17대 인종仁宗(재위 1122~1146년)의 장릉長陵에서 출토된 〈청자소문과형병靑磁素文瓜形瓶〉과 일괄 유물에서 확인된다. 이 유물들은 비색에 대한 격조와 세련된 비례, 금속기를 자기로 번안한 노련한 솜씨를 보여주고 있다.

고려청자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인으로 새로운 중국 도자의 영향을 들 수 있다. 광종 13년(962) 북송과 외교관계를 맺은 이후 고려는 성종 12년(993) 거란의 1차 침입 직후 송과의 외교관계를 끊고 요나라와 국교를 맺었다. 북송과 외교관계가 재개된 것은 문종 25년(1071)의 일로 약 80년 동안 송과는 공식적인 접촉이 없었으며 이 시기에 요나라와의 문화적 접촉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⁸

인종(仁宗) 장릉(長陵) 출토
청자 일괄품
경기도 장단군 장도면의 인종(재위 1123~1146년)의 무덤 장릉에서 발견된 청자류로 시책(漆冊)과 함께 출토되었다. 이중 침외형병은 얇은 두께와 완벽한 비례를 갖고 있으며 특히 유색은 고려 중기의 비색(靑色)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능의 조성시기인 1146년경의 청자 제작 상황을 이해하는 데 기준이 된다.
국립중앙박물관, 고려, 1146년 하한, 국보 94호, 병 높이 22.8cm.





청자음각 연당초문 호

중국 남방 월주요계 문양 표현 방식의 대표적 예 중 하나인 음각기법은 고려의 경우 12세기와 13세기 전반에 적용된 사례가 많다. 실처럼 가는 선각은 매우 정교하며 비색계열의 유약이 고르게 씌워져 있다. 이러한 사실로 고려 중기에는 조각방식에 의한 기술이 상당히 세련되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삼성미술관 리움, 고려, 12~13세기, 보물 1028호, 높이 22.4cm.

청자 생산의 경향은 11세기 후반경 송과의 국교가 다시 시작되면서 일변하기 시작한 듯하다. 오랜 기간 동안 송문화의 변화양상을 접하기 쉽지 않았던 고려에서는 11세기 후반경 이후 공식·비공식적 절차를 통해 새로운 중국 문화를 왕성하게 받아들였으며 이 과정에 도자문화도 예외일 수 없었다.

획기적인 변화는 기종, 기형, 문양 소재, 시문 기법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다. 다완 중심의 제작 경향은 다양한 반상용 생활용기와 음주용기, 건축부재, 제기, 악기, 장신구, 종교용품 등

으로 넓어져 도자기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활용하는 시점에 들어서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시문기법과 문양 소재의 영향은 11세기 후반 이후 정착된 비색만 큼이나 고려청자를 우수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였으며 청자 생산의 양적 확대에도 기여하였다.

고려청자의 발전에 기여한 기법 중 대표적 사례로는 음각기법이 있다. 가장 손쉽게 적용할 수 있던 이 방법은 북송시기에 유행한 월주요와 같은 중국 남방도자의 영향을 받아 가는 음각과 굵은 음각을 활용한 사례가 남아 있다. 발, 대접, 접시나 매병과 같은 기종에서 볼 수 있는 연관문, 앵무문, 모란절지문, 국당초문, 용문 등은 월주요를 비롯한 음각기법이 중심을 이루었던 중국 제품의 사례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새로운 기법과 문양은 당시의 정세로 볼 때 북방지역 도자의 영향이 강하여 화북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들이 고려청자에 나타났다. 그 중 하나로는 철화(혹회기법과 퇴화[백회기법]이 해당된다. 중국의 경우 철화기법은 자주요(磁州窯)를 중

심으로 한 북방지역과 서촌요(西村窯) 같은 남방지역의 여러 가마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그러나 11세기 말경부터 12세기에 걸쳐 북방과 연관성 있는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북방도자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 중기는 조각기법이 중심인 표현방식이 주류를 이루었다. 하지만 철화와 퇴화기법은 그리는 기법으로서 조각기법과는 다른 문양 소재가 묘사되어 있다. 소재는 철화기법의 경우 반구장경병, 장고, 매병 등에 간략한 당초문이나 초화문을 넣었고, 퇴화기법으로는 접시나 잔 등에 국화를 접으로 묘사한 예가 많다.¹⁹



또 하나의 중요한 기술은 압출양각기법의 수용을 들 수 있다. 중국 북방의 요주요(耀州窯)에서 시작된 압출양각기법은 틀을 이용하여 문양과 형태를 찍어내는 방법으로, 규격화된 그릇 제작을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생산량 증가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정교하고 복잡한 문양을 기계적인 작업 방식으로 간단히 표현할 수 있는 이 방법은 주로 완, 발, 접시와 같은 벌어진 그릇들에서 적용되었다. 고려청자에 시문된 문양으로는 모란문, 모란당초문, 연당초문, 포도문, 화엽문, 운학문, 국화문, 국당초문, 포도동자문 등이 있다. 이러한 압출양각기법의 시도는 북방지역의 도자문화가 국내에 많이 수용되는 11세기 말경부터 시작된 듯하며 현존하는 유물로 볼 때 13세기 중반경까지 왕성하게 시도된 것으로 보인다.²⁰

청자철화 화훼문 매병

철화기법은 고려청자 제작 초기 단계부터 부분적으로 사용된 기법이나 12세기에 들어와서 확대되었다. 이 매병은 입술부분이 수평 형태를 지니는 독특한 형태를 지니며 중앙의 화훼문을 중심으로 상하단에 보조 문양을 그려 넣었다. 유사한 형태와 문양 표현방식을 가진 매병이 중국 허북성(河北省) 지주요(磁州窯)의 제품 중에 있어 서로 영향을 받았음을 알게 해준다.

국립중앙박물관, 고려, 12세기, 높이 28.6cm.



청자사자무경 삼족항로 (왼쪽)
『선화봉사고려도경』에서 산예출향(狻猊出香)을 설명하는 대목을 보면, '비색을 띠는 이 항로는 위에 짐승이 웅크리고 있으며...이 물건만이 가장 정교하고 빼어나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 항로는 용의 아들 중 하나인 산예를 표현한 고려 중기의 대표적인 상형청자(象形靑磁)이다.
국립중앙박물관, 고려, 12~13세기, 국보 60호, 총 높이 26.3cm.

청자양각 보상당초문 원 (오른쪽)
보상당초문이 표현된 틀에 습기가 있는 상태의 그릇을 눌러 문양이 양각으로 돌출되도록 만든 고려 중기의 원이다. 압출양각기법은 중국 섬서성(陝西省) 요주요(耀州窯)에서 시작된 기법으로 고려에는 11세기 후반경 고려에 소개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오사카 동양도자미술관, 고려, 12세기, 높이 5.2cm.

한편, 고려청자에는 다양한 기법뿐 아니라 북송대의 관요와 요나라 도자에 의한 조형적 영향도 눈에 띈다. 흔히 상형(象形)청자로 인식되어 있는 각종 인물상과 거북, 기린, 사자, 해룡, 원숭이, 오리 등의 동물상과 석류, 복숭아와 같은 식물상 등이 고려 중기에 주자(注子)나 향로, 연적 등으로 형상화되어 만들어졌다. 요나라 지역의 항와요(缸瓦窯), 강관둔요(江官屯窯), 용천무요(龍泉務窯)와 같은 가마에서 제작된 상형도자와 금속기들, 북송의 여요(汝窯)에서 만들어진 각종 상형자기류는 조형적 측면에서 고려 중기에 형성된 상형자기류의 원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고려의 상형청자는 고도로 숙련된 틀작업의 정수를 잘 보여주며 조형과 아이디어는 중국 북방문화에서 차용했으나 결과는 그것을 뛰어넘는 예술성을 보여주고 있다.²¹

이 밖에 안료가 번지는 제약이 있었던 산화동을 적절히 활용한 진사청자(辰砂靑磁)와 여러 태토를 포개어 성형한 후 마무리한 연리문(練理文)자기의 제작, 까다로운 기술임에도 노련하게 구사한 투각기법(透刻技法) 등은 고려 중기에 중국 기술을 고려화시킨 대표적인 사



청자쌍룡필기(靑磁 雙龍 筆架)
 코끼리와 같은 코를 가져 상비룡(象鼻龍)
 이라 불리는 용두를 양쪽에 장식하고 세
 개의 구멍을 뚫어 붓을 꽂게 만든 12세
 기경의 청자필기이다. 이러한 형태의 도
 자는 요나라의 삼채와 똑같은 것이 전해
 지고 있어 중국 북방의 도자가 고려청자
 에 영향을 주었던 대표적 사례가 된다.
 국립중앙박물관, 고려, 12세기, 길이
 16.8cm.



요삼채 필기(遼三彩 筆架)
 고려 중기에 제작된 청자쌍룡필기의 원
 모델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요삼채
 붓꽂이이다. 삼채는 요나라 만기인 11
 세기말에서 12세기 전반 사이에 주로
 생산되었다. 이 유물은 요나라와의 문
 화적 접촉이 얼마나 긴밀했는 지를 잘
 알려주고 있다.
 소장처 불명, 요遼, 11~12세기, 길이
 16.5cm.



청자진사 연화문 표주박형 주자
 고려 무신정권시기의 최고 실력자중 하
 나였던 최항(崔沆 ?~1257년) 무덤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하는 주자이다. 표주
 박형 몸체의 각 부분은 연화(蓮花)를 세
 밀하게 묘사하였으며 포개어진 잎사귀
 의 끝부분은 산화동 안료로 강조하였
 다. 청자 중 불교의 이상적 미학을 잘
 구현한 대표적 사례이면서 제작 연대까
 지 알 수 있어 학술적 가치도 높다.
 삼성미술관 리움, 고려, 1257년경, 국
 보 133호, 높이 32.5cm.

례에 해당한다. 이처럼 고려 중기의 청자는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기술과 조형을 수용했지만 중국 자기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미감을 형성시켜 갔던 것이다.

상감청자의 제작

청자의 전개 과정에서 비색의 성취와 더불어 가장 고려적인 특색을 보이는 것은 상감청자가 제작되었다는 점이다. 태토를 파내고 다른 흙을 감입함으로써 태토와 대비되는 색조의 문양을 표현하는 상감기법(중국에서는 鑲嵌이라 한다)은 원래 중국 섬서성의 황보요(黃堡窯)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후 섬서성 요주요(耀州窯), 허북성 자주요(磁州窯)와 산서성 혼원요(渾源窯) 등지에서 시도된 상감기법은 주로 중국 북방계 가마에서 볼 수 있는 도자 표현기법 중 하나였으나²² 그리 흔한 기법은 아니었다.

고려의 경우 상감기법은 청자 발생 초기 단계인 10세기 경에 중서부 지역의 전축요계 가마에서 처음 시도되었다. 선상감 위주의 당초문과 같은 문양들을 묘사한 상감기법은 특히 장고와 같은 악기에 집중되고 있어 특별한 의미를 가진 기종에 선별적으로 시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고려청자가 중국 남방의 월주요에서 영향을 받아 개시된 상황에서 북방계의 상감기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북방에서도 기법의 일부가 함께 들어왔음을 알려주는 예가 된다.²³

청자 제작 초기 단계부터 소량 시도된 상감기법은 12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점차 비율이 증가하며 고급 청자를 묘사하는 방법으로 자리를 잡았다. 1159년에 세상을 떠난 문인인 문공유(文公裕) 묘 출토 청자상감보상당초문완은 보상화 당초를 역상감기법으로 새김으로써 고려 중기의 상감수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 1255년



청자상감 보상당초문 원
1159년에 사망한 문공유(文公裕)의 무덤에서 출토되었다고 알려진 원이다. 내면에는 역상감기법에 의한 보상당초문, 외면에는 국화와 당초문이 상감기법으로 표현되어 있다. 자료 출처의 신뢰도와 제작 시기에 이견이 있으나 상감기법이 상당히 세련되기 시작한 시점에 만들어진 것은 분명하다.
국립중앙박물관, 고려, 1159년, 국보 115호, 높이 6.4cm.



청자상감 여지문(荔枝文) 대접
중국 남방에서 나는 과일인 여지의 가지를 내면에 상감기법으로 묘사한 대접이다. 이 유물은 1916년 장단군 두매리의 명종(明宗, 재위 1171~1197년) 지릉에서 11점의 청자와 함께 출토되었다. 지릉은 1202년에 축조하였으나 1255년에 수축이 이루어져 13세기 중엽 경에 부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국립중앙박물관, 고려, 13세기, 높이 8.6cm.

에 수축된 명종(明宗, 1171~1197재위)의 지릉(智陵)에서는 여러 점의 청자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 <청자상감여지문대접>의 경우 13세기 전, 중반의 상감기법과 표현방식을 잘 알 수 있는 기준작으로 알려져 있다.²⁴

이 밖에도 축조 연대를 알 수 있는 많은 왕릉에서 발견되는 상감

청자의 상당수가 대부분 13세기와 14세기에 집중되어 있어 상감기법이 고려에서 절정을 맞이한 것은 12세기 후반 이후나 되어서야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상감기법에 의한 청자 생산이 강진, 부안과 같은 고급 청자 생산지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상감청자는 지방요에서 발견되는 사례가 매우 적고 강진, 부안지역에서도 한정된 수량만 확인된다. 결국 상감기법은 특정 상류층을 대상으로 한 도자기에 들어가는 고급 기법이었던 것이다.

청자상감인물문매병

태호석과 연꽃, 대나무, 국화꽃이 만발한 정원에서 인물들이 글씨를 쓰거나 춤추고, 악기를 연주하는 등의 모습을 표현한 회화풍 문양의 매병이다. 14세기 초, 원나라와의 교류 관계를 추측할 수 있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상하단의 보조문양은 여의두와 국화일사귀를 반복적으로 배치하였다.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고려, 13~14세기, 높이 38.5cm.



상감청자는 13세기 전반부터 청자 제작의 중심의 하나로 자리하였다. 주목되는 것은 이 시기에 강진보다도 부안 일대에서 더 많은 상감청자가 제작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강진이 우수한 품질과 장구한 시간 동안 청자의 역사를 이끌어 간 상황에서 부안지역이 갑자기 청자 제작사의 전면에 등장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우

연일지 모르겠으나 1170년경 무신의 난을 정점으로 고려 사회는 일변하였으며, 부안 요업도 함께 급성장한 것으로 보아 무신란 이후의 권력구도 변화가 부안의 청자요업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추측할 뿐이다.

고려청자의 독창성을 돋보이게 하는 상감문양의 의장意匠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공존한다. 표현방식은 문양을 마치 동양화처럼 회화적으로 표현한 계통과 디자인 풍으로 반복적인 문양을 묘사한 계통이 알려져 있으며 후자가 훨씬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상감청자에서는 문양을 배치하는 방식에서 중심 문양과 보조 문양의 구분이 뚜렷해지며 각종 동물문과 식물문, 기타 여러 문



청지상감 운학문 매병
이중원의 내면에 모란과 국화를 차례로 배치하고 나머지 여백에 상송하는 학과 구름으로 메워 도안적인 느낌을 주는 매병이다. 매병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으나 형태와 문양기법에서 고려만의 독특한 조형미를 보이면서 발전하였다. 이와 유사한 매병으로 13세기경에 부안에서 제작된 사례들이 알려져 있다. 삼성미술관 리움, 고려, 13세기, 보물 558호, 높이 31.2cm.



청동은입사포류수금문정병 (왼쪽)
청지상감포류수금문정병 (오른쪽)
금속과 도자리는 재료가 다른 정병에 중국 북방의 대표적 문양인 포류수금문을 표현한 고려 중기의 공예품이다. 청동의 입사기법과 청자의 상감기법은 물체를 파내고 다른 재료를 감입한다는 측면에서 명칭은 다르나 기법은 같다. 고려시대에는 금속제품을 보다 제작비가 저렴한 청자로 모방한 사례가 많이 남아 있다. (왼쪽) 국립중앙박물관, 고려, 12세기, 국보 92호, 높이 37.5cm. (오른쪽) 간송미술관, 고려, 12세기, 국보 66호, 높이 37.1cm.



양의 조합 예들이 화려함을 더해주고 있다. 시문된 문양의 소재로는 국화문, 국화당초문, 모란문, 모란당초문, 보상화당초문, 여지문, 여의두문, 연관문, 연당초문, 포도문, 포도동자문, 학죽문, 운학문, 구름문, 운봉문, 용문, 앵무문, 포류수금문, 유로수금문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문양은 중심문양과 보조문양으로 구획하면서 다른 기법과 혼용하여 표현한 경우가 보인다.

이 중 가장 많이 알려진 상감청자로는 13세기경 부안지역 생산품으로 추측되는 간송미술관 소장의 〈청자상감운학문매병〉이다. 좁은 입구에 긴장된 어깨부와 유려한 곡선미를 보이는 이 매병에는 원권안과 밖에 구름과 학을 반복적으로 묘사하여 공예 의장적인 표현방식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상감청자의 제작 시기에는 금속이나 나전칠기와 같은 목공예품의 제작도 활발하여 이들 간에 상호 조형적 영향을 주고받았던 흔적이 보인다. 금속 표면에 흠을 파내고 금·은과 같은 재료를 두드려 감입하는 입사入絲기법과, 목기의 표면에 얇은 금·은판을 올려 옷칠과 함께 부착하는 평탈平脫기법은 재료와 명칭만 다를 뿐 적용되는 방식은 동일하다. 실제로 국보 66호인 〈청자상감포류수금문정병〉은 국보 92호인 〈청동은입사포류수금문정병〉과 기형, 문양 소재, 표현 방식면에서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밖에도 유사한 사례는 매우 많이 남아 있다.

백자에 대한 인식과 제작

고려시대의 대표적 도자공예품으로 청자가 널리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백자의 존재는 미미하게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백자는 청자가 처음 시작된 10세기 전반경 경기도 시흥시 방산동, 용인시 서



백자완

11세기경에 제작된 백자해무리굽완으로 접지면이 넓고 내면에 둥근 원각이 패여져 있다. 이와 같은 완의 형태는 용인 서리 가마터 발굴현장의 퇴적층의 3기층에서 출토되고 있다. 용인 서리 가마는 전축요로 요업을 시작하였으나 10세기 말에서 11세기 초반경 토축요로 축조방식을 바꾸면서 생산을 지속하였다. 이 완은 가마의 재료가 전환된 시점에 만들어진 것으로 강진의 가장 이른 단계에 해당하는 청자완과 형태가 동일하다.

국립중앙박물관, 고려, 11세기, 높이 6.0cm.

리, 여주 증암리 등지와 같은 한강 이남의 몇몇 전축요계 가마에서 함께 만들어져 기원이 청자와 동일하다. 당시만 하더라도 초기 백자는 청자에 비하여 부수적인 요소였던 듯, 극히 소량만 생산되었으나 용인 서리, 여주 증암리 등지의 가마에서는 백자를 집중적으로 제작하면서 도자 생산의 중심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²⁵

한 가마에서 청자와 백자를 함께 생산하는 방식은 청자, 백자의 생산 지역 자체가 구분되어 있는 중국과는 다른 점이다. 자기의 녹는 온도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기물을 한 가마에서 구우면서 가마 내부의 온도는 용융점이 낮은 청자에 맞추었고 이러한 번조방식은 고려 중기에도 지속되었다. 그 결과 같은 가마 생산품이라 하더라도 청자는 잘 녹아서 태토의 입자가 치밀질을 보이는 반면, 백자는 덜 녹아 태토입자에 공기구멍이 많이 보이며 유약이 쉽게 떨어져가는 박락剝落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백자의 경우 유약은 녹았는데 태토는 덜 익어 불균형이 심했던 것이다. 이 현상은 같은 온도라 하더라도 태토에 따라 용융점에 차이가 있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흔히 고려백자를 ‘연질백자’로 지칭하는 것은 이러한 가마 운영 방식의 결과물인 것이다.



백자상감 모란문 매병
 참외형의 매병으로 몸체 부분을 파내고
 청자토를 감입한 후, 다시 흑상감과 백상
 감으로 문양을 넣은 고려 중기의 백자이
 다. 고려 중기의 우수한 백자는 강진에서
 도 소량 제작되었으나 주로 부안 유천리
 에서 제작된 사례가 많이 알려져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고려, 12세기, 보물
 345호, 높이 28.8cm.

11세기경 전국 대부분의 가마가 전축요 대신 토축요로 바뀌고 가마의 크기를 줄여가는 상황에서 백자의 품질은 발생 초기에 비해 오히려 하락해 갔다. 전축요를 계승한 중서부 일원의 몇몇 가마에서는 백자를 활발히 생산했으나 순수한 백점토를 사용한 예가 드물었다. 특히, 유약은 철분 함량이 포함되어 있어 청자처럼 푸른 빛을 보인다. 같은 시기에 강진을 위시한 서남부지역의 청자품질이 점점 우수해진 것과는 다른 과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요업의 중심부로 떠오른 강진 지역에서 이 단계에 백자를 제작하지 않았던 것은 특이한 일이다.

고려 중기인 12~13세기경, 백자는 서남부지역에서도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강진 사당리

와 부안 유천리 일대의 가마에서는 당대에 가장 우수한 청자를 생산한 명성에 걸맞게 정교한 백자를 생산하였다. 백자의 형태는 청자의 기종과 동일하였으며 음각, 압출양각, 흑상감, 철화기법으로 간단한 문양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성형과정에서의 높은 완성도와는 달리 번조 과정에서는 청자와 함께 구우면서 덜 익는 치명적인 약점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태토와 유약의 결합력이 약하여 완성품은 여전히 치밀하게 녹지 못하였고 후대에 이르러 유약이 박락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 이 시기의 백자 제작 수준을 알 수 있는 예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백자 상감모란문매병>이 참고가 된다. 백토로 매병의 몸체를 만들고 중앙부에 청자토를 감입한 후, 다시 여러 종류의 흑백상감문양을 넣은 이 유물은 고려백자가 상당한 수준에 있었음을 알려주는 예에 해당한다.



도자의 소비가 늘기 시작한 고려 중기에도 백자의 생산량이 적었던 원인은 깨끗한 백토를 구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과 더불어 경도(硬度)를 극복하지 못했던 것도 이유가 될 것이다. 이미 백자의 존재는 고려 초부터 자기를 사용하는 계층에게 잘 알려져 있었으며 수요도 꾸준하였다. 그러나 항상 한 가마에서 청자와 함께 굽는 제작방식을 고수함에 따라 백자를 제대로 용융시키지 못하여 경도가 약한 연질백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는 청자에 비해 실용성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진 듯하다. 고려 중기에 이르러 백자에 대한 인식과 수요가 적지 않았던 사실은 수입된 중국백자가 대체품으로 국내에서 많이 소비되었던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고려 후기에도 백자 제작 기술은 크게 진보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932년 금강산의 방화선 공사시에 발견된 < '홍무(洪武24

「홍무(洪武24년) 명 백자사리기 일괄품 일제강점기에 금강산 월출봉의 석함 속에서 발견되었다고 전하는 사리기 일괄품이다. 홍무 24년은 1391년으로 이성계가 부인 강씨를 비롯하여 삼류층 만여명과 함께 사리기를 봉안했다는 기록이 있다. 양구군 방산면으로 추측되는 명문 이 함께 음각되어 있어 금강산으로부터 멀지 않은 가마에서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고려 말-조선 초의 유일한 백자 명문 자료로 이 시기의 백자 제작 단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국립춘천박물관, 고려, 1390-1391년, 뒷줄 가운데 발 높이 17.5cm.

년' 명백자일괄품)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1391년에 제작된 이 백자발에는 이성계와 지지자들이 사리기를 사찰에 시주한 내용과 함께 제작지가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임을 알려주는 명문이 있어 제작 시기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발과 향로로 구성된 이 일괄품은 당시 최고 권력층의 시주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도가 약하고 잡물이 많은 등 질이 떨어져 당시 백자의 제작 상태가 완전한 경질백자에 이르지 못했음을 알게 해준다.²⁶

고려시대 도자의 수입과 수출

고려는 초기부터 대중교섭에 이은 문화교류로 수 많은 중국 도자가 수입되었을 뿐 아니라 수출도 하였다. 고려는 오월국, 북송, 남송, 요, 금, 원 등과 교류하면서 때로는 정치적 목적으로, 혹은 조공 관계를 통하여 공식적인 사신들의 사행과 민간 교역 과정을 통해 문화와 물자를 주고 받았다.

한반도의 경우 중국의 도자 수요가 급증한 시기는 11세기 후반경 이후부터로 추측된다. 1071년 건송사^{遣宋使}가 파견되고 1078년 송의 국신사^{國信使}인 안도^{安燾}가 방문한 이후 송과의 교류는 더욱 활발해졌다. 고려는 송을 중화^{中華}로 인식하면서 송의 선진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였다.²⁷ 이러한 상황에서 사신단의 파견과 송상들의 방문 과정에서 다양한 중국의 도자는 무역상품으로 국내에 소개되고 팔려나간 듯하다.

거란과의 관계도 중국 북방 도자문화가 수입되는 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화봉사고려도경』에는 거란의 포로 수만 명 가운데 열에 한 명 꼴로 기예를 갖춘 자가 있어 사람을 뽑아 왕부^{王府}에 머무르게 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²⁸ 거란계 귀화인들



은 현종대부터 정종시기인 1010~1046년과 선종에서 예종시기인 1084~1117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수가 귀화하고 있어 요나라 특유의 조형과 문양이 직접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²⁹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국내의 각종 건물지와 사찰터, 분묘 등 지에서는 11세기 후반부터 13세기 초에 걸쳐 생산된 중국 자기가 다량으로 발견되고 있다. 여러 성격의 유적 중에서 중국 도자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곳은 단연 사지(寺址)였다. 고려시대에 운영되었던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국내산 도자와 더불어 중국 도자를 사용했으므로 파악된다.³⁰ 이는 중국 도자의 최대 소비층이 승려를 포함한 사찰 관련 세력이었음을 말해준다.

이에 비해 고분에서 출토되는 중국도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에 불과하다. 현재까지 중국도자가 확인된 고분으로는 안산 대부도 육곡 고분군, 삼척 삼화동 고분, 단양 현곡리 고분, 충주시 단월동 고분 등이 있으며 자료 출처가 미약하나 북한지역의 희천시 서문동, 11대 문종의 경릉(景陵)에서도 발견된 예가 알려져 있다. 특히, 자강도 희천시 서문동 유적에서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단일 유적 출토품 중 최대의 중국 도자가 반출되었다. 이 유적의 성격에 대하여 알려진 바는 없으나 대다수의 도자 유물이 파손되지 않은 채 발견되어 고분유적으로 보아도 무관할 것이다.³¹

백자화형접시
익산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중국 송대의 정요(定窯)백자 접시류이다. 고려 중기는 백자의 소비 수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질 백자가 소량 생산되었다. 백자의 부족분은 중국의 수입품으로 대체하였는데 그 역할을 정요산 백자가 담당하였다.
미륵사지유물전시관, 송, 12세기, 좌 2번 입지름 11.1cm.



국내 발견 중국도자
 청백자연어문접시편(왼쪽)
 흑유인(오른쪽)
 정요백자와 함께 고려시대에 수입된 중국제 자기로는 경덕진요(景德鎮窯)산 청백자류와 건요(建窯)산 흑유자기 등이 있다. 국내에 전해진 중국 자기들은 주로 일상 생활용기로서 고가품은 아니었다. 발견지는 사찰터가 많으며 이는 중국도자의 소비계층에 승려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음을 말해 준다.
 (왼쪽)한신대학교박물관, 송, 12세기, 높이 1.6cm.
 (오른쪽)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송, 12세기, 높이 5.7cm.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국내에서 발견되는 중국산 도자는 수량의 과다를 떠나 11세기 후반부터 13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수입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수입 도자의 계통은 송과 요나라의 정요(定窯), 경덕진요(景德鎮窯), 자주요(磁州窯), 건요(建窯)계 제품으로 전국의 모든 사지와 건물지, 분묘 간의 출토품 비례가 유사하게 나타난다.³² 13세기 중반 이후의 원대(元代) 도자가 국내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는 것은 중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이전과 외교관계의 성격이 달랐기 때문일 것이다.

국내 출토 중국도자는 청자, 백자, 청백자, 흑유자기, 자주요계자기 등 여러 종류가 있으나 그중 백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려 중기의 도자 상황은 이미 중국에서조차 ‘천하제일’로 알려져 있을 만큼 양질의 청자를 생산하고 있었다.³³ 그러나 당시에 국내에서 제작된 백자는 태토나 유약에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색조가 깔끔하지 못하고 특히 경도가 약해 실용성이 낮았다. 이에 비해 중국백자는 대부분 경도가 높을 뿐 아니라 경쟁적인 생산 과정을 통해 가격 경쟁력도 높았던 듯하다. 이러한 구도는 결국 고려의 왕실이나 사찰, 상류층에서 중국산 백자를 선

호할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국내의 소비처 가운데 상위계층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적에서 중국백자의 출토율이 높은 것은 이러한 경제 논리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의 교류 속에서 고려도자는 중국에 수출되기도 하였다. 남송 조훈(曹勳, 1098~1174)의 저서 『송은집松隱集』에는 도기로 유명한 고려에서 향로가 전해졌음을 찬미하는 시구가 수록되어 있다.³⁴ 또한 『관각속록館閣續錄』 권3의 속장고기續藏古器편에는 1215년 송 황실의 비서성秘書省에 세계의 다리를 가진 고려 화분 7점이 소장되어 있음을 수록하고 있다.³⁵ 여기서의 다리가 3개인 청자화분은 청자향로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또 13세기 전반 이종(理宗, 1225~1227) 때의 책인 『보경사명지寶慶四明志』에는 남송의 수입물품 속에 고려의 청기(靑器)가 추색(靑色)에 포함되어 있는데 추색이란 품질이 높지 않은 물품을 의미한다.³⁶ 이 것으로 남송대에는 상당 수의 고려청자가 중국에 전해져 소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남송의 수도였던 항주의 황궁 근교에서 고려청자가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것은 고려청자에 대한 중국인의 선호가 높았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된다.

한편, 몽고 간섭기에도 중국에서의 고려청자에 대한 소비는 꾸준하여 사행과 민간무역을 통해 물자가 이동하였다. 구체적 예로는 “충렬왕(忠烈王) 15년(1289)에는 탐라 안무사(安撫使) 홀도탑아(忽都塔兒)가 원나라에서 돌아왔는데 중서성(中書省)이 공문을 보내 청자(靑砂)로 된 옹甕·분(盆)·병(瓶)을 구하였다”는 기록이 있고,³⁷ 1342년에 간



청자상감 수하원문 편호
과일을 즐기고 있는 원숭이를 묘사한 상감청자편호로 문양표면의 일부에 금칠이 된 화금청자(畵金靑磁)이다. 『고려사』 열전 조인규(趙仁規)전에는 원나라에 사신으로 간 조인규가 원 세조(世祖)와 화금자기를 두고 대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화금자기가 원나라 공납품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고려, 13세기말, 높이 25.5cm.



중국 사천택(史天澤)묘 출토 청자매병
이 유물은 원의 승상을 지내고 1275년
에 돌아간 사천택의 무덤에서 나온 고
려상감청자매병이다. 허북성 석가장시
(石家庄市)에 소재한 무덤은 1996년에
발굴 조사되었으며, 많은 중국제 도자
속에 매병이 포함되어 있었다. 표면을
팍 채운 원권 내외면의 운학문은 간송
미술관 소장 〈청자상감운학문매병〉
을 연상하게 해준다.
중국 허북성문물고고연구소, 고려, 13
세기, 높이 46cm.

행된 『지정사명속지至正四明續志』에는 고려청자
가 세색(細色) 품목 안에 수록되어 있다.³⁸

세색이란 고급 무역품이란 의미로 고려청자가
원의 황실과 고위관료를 대상으로 한 공물 품목이
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고려청자가 원의 공물로
납품된 기록은 『고려사』, 열전 조인규전에서
비치고 있다. 조인규가 원 세조(1260~1294) 앞에서
대화한 내용을 통해 화금자기(畵金磁器) 바친 일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충렬왕 23년(1297) 원의 성
종에게 금화옹기(金畵甁器)를 바친 기록도 이를 증명
한다.³⁹ 1387년 명 초기의 책인 조소(曹昭)의 『격고
요론(格古要論)』에서도 “고려기명 중 분청은 용천
자기에 흰 꽃이 있는 것과 같은데 심히 가치를 매
기기 어렵다”고 하여⁴⁰ 원말·명초의 사행을 통

해 상감청자류가 중국에 전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기록과 중국에서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 확인된 고려청자는
남송의 수도 항주, 원대의 북경, 요녕지역에서 출토되며, 중심 품목
은 상감기법으로 표현된 호, 표형주자, 완, 베개, 잔, 합, 고족배, 매
병, 발, 화형잔, 탁, 연적 등이었다. 형태나 문양 면에서는 중국생산
품과 중첩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 중국의 상류층이 이색적인 고려청
자에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려의 생활과 도자

제례와 도자

청자 발생기의 도자 제작 목적은 차도구의 안정적 확보였으나 차츰 사회의 다양한 소비형태에 맞는 여러 기종들의 제작이 요구되었다. 청자의 제작품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가장 확실한 주문자는 왕실로서 도자를 생산했던 가마에는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목적을 위한 그릇들이 주문 제작되었다. 그 중 왕실의 주도로 만들어진 특수한 기종에 도자제기陶磁祭器가 있다.

고려의 예제는 10세기말인 성종(982-997)대에 가서야 비로소 정비되었다. 송나라의 제례를 기본으로 각종 제례가 성종대에 시작되거나 모습을 갖추었고 이때, 비로소 국가제사가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불교적 국가에서 범본으로 삼은 제례방식은 유교의 예제를 절충한 것이었으며 후일 예종 8년(1113)에는 예의상정소禮儀詳定所를 설치하여 각종 예제와 의식, 제도 등을 정비하도록 하였다.⁴¹

『고려사』 예지禮志 길례吉禮 조에 보이는 국가 제사는 대사大祀, 중사中祀, 소사小祀, 잡사雜祀 등이 있다. 대사에는 원구圓丘, 방택方



「순화4년」 명항아리
 일제강점기 때부터 알려진 고려초기의
 제기 항아리로 굽에는 순화(淳化) 4년
 (993) 태묘(太廟)의 제실(祭室) 중 첫 번
 째인 태조(太祖)의 방에 넣기 위해 장인
 인 최길희가 만들었다는 기록이 을각되
 어 있다. 태묘는 고려 성종(成宗) 때 왕
 실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이 항아리는 이때 필요했
 던 제기로 알려져 있다.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고려, 993년,
 보물 237호, 높이 35.5cm.

澤, 사직社稷, 태묘太廟, 별묘別廟, 제릉諸陵, 경령전景靈殿 등이 포함
 되어 있다. 이들 대사에 사용하는 기명들의 대부분은 금속기를 사
 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는 도자로 제작된 사례가 알려져 있어
 경우에 따라 도자제기를 혼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고려 초부터 제작된 대표적인 도자제기로는 보籩, 궤簋, 두豆, 준
 尊이 있다. 이를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자.

보는 벼나 기장을 담을 때 쓰는 그릇으로 외방내원外方內圓, 즉
 바깥부분의 모서리가 각이 지고 내면은 둥근 형태이다. 궤는 메기
 장과 찰기장을 담는 그릇으로 둥글고 긴 형태의 몸통 내부를 네모
 형태로 성형한 내방외원內方外圓의 형태이다. 두는 털과 피, 나물,
 고기 등 희생물과 찬을 담는 그릇으로 접시처럼 넓은 음식받침과
 아래로 벌어지는 긴 나팔형의 다리가 부착되어 있다. 이와 관련한
 제기로는 배천 원산리 요지에서 수습된 <청차순화3년명고배>가 유
 명하다. 준은 맑은 물이나 술을 담아두는 제기로 산뢰山罍나 호준壺
 尊 같은 항아리류가 도자기로 만들어진 듯하다.⁴²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청자순화4년명항아리〉는 산뢰나 호준을 형상화한 것으로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의 국보 1056호인 조선전기 백자청화 철화삼산문호와 형태상 매우 유사하여 제기 제작의 전통이 매우 오랫동안 유지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10세기말 이후 국가 대사에 필요한 도자제기들은 개성 인근의 가마에서 공급한 것이 확실하다. 배천 원산리, 시흥 방산동, 용인 서리 중덕, 여주 중암리 요지 같은 초기 가마들은 국가의 수요가 있을 때 제기를 만들어 납품한 제기 생산 공장이었던 것이다. 다만 배천 원산리의 경우는 태묘라는 글귀와 제기 감조관이었던 향기장^{享器}들의 실명이 명문으로 남겨져 있어 특별히 태묘 조성 과정에서 필요했던 제기를 공급한 가마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왕이 집전하는 국가 대사는 고려중기를 거쳐 후기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고려중기의 제기 중에는 고려 초기처럼 자기로 제작된 제기를 다양하게 만들어 사용한 흔적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원래 제기는 금속기로 조성하는 것이 오랜 전통이었으므로 동기^{銅器}가 흔하게 사용되었던 고려중기에 굳이 잘 깨지는 자기를 만들어 활용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다만 제기류 중 향로와 같은 기종들은 고려 중기에 와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금속향로와 더불어 자기향로가 혼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고려시대에 제작된 자기향로는 질병이나 냄새제거, 제례용, 불교 의식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었으며 형태에 따라 치^置향로, 병^柄향로, 현^懸향로 계통이 알려져 있다.⁴³ 이 중 고려의 자기향로는 대부분 다리가 달리거나 뚜껑을 엮는 치향로에 속하며 고려중기에 집중적으로 제작된 예를 볼 수 있다. 치향로들은 박산^{博山}의 형태를 뚜껑에 형상화한 박산향로, 중국 고동기를 모방한 정형^{鼎形}향로, 뚜껑에 짐승 모양의 형태를 엮은 상형^{象形}향로 등이 있는데, 대부분

청자정형향로

1976년 강원도 삼척시 삼화동 고분에서 각종 청자, 백자, 중국자기류와 함께 출토된 청자향로이다. 고려형의 귀와 표면의 도철문, 세 개의 다리는 동기를 모방하여 제작하였음을 보여준다. 국가 대사의 하나인 가례(嘉禮)와 관련이 있는 제품으로 추측된다.

국립중앙박물관, 고려, 12세기, 높이 13.0cm.



높이가 20cm를 넘는 것들은 많지 않다.

『선화봉사고려도경』에는 재료의 구분 없이 크기와 형태에 따라 고려의 향로를 구분하고 묘사한 내용이 전한다. 이를 살펴보면, 박산로는 옷에 향 연기를 쏘이는 용도로 사용하고, 짐승 모양의 향로獸爐는 4척尺이나 되는 대형으로⁴⁴ 회경전會慶殿과 건덕전乾德殿의 공식행사에서 사용하였다 하여 가례嘉禮 시에 활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술, 형태의 정형향로는 1척에 이르며 도관이나 사찰, 신사에서만 쓴다고 했는데 청자정형향로는 이러한 형태를 소형의 청자로 제작한 것이다. 고려에서 받아들인 중국의 예서禮書들은 주로 국가 대사들 가운데 길례에 필요한 제도와 기물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점에서 고려 중기의 제례에 사용한 제기로는 청자정형향로가 그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⁴⁵

『선화봉사고려도경』에 출전하는 산예출향狻猊出香을 비롯하여 현존하는 유물 중 뚜껑에 사자, 오리, 원앙, 구룡龜龍 등을 얹은 청자삼족향로들은 강화도 곤릉坤陵의 묘도부에서 수집된 사례가 있어

반드시 길레로만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결국 고려중기에는 여러 형태의 다양한 향로들이 제작되었지만 국가의 길레와 관련해서는 정형청자가 활용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향로들은 지방요보다는 강진, 부안 일대의 가마터에서만 생산·조달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고려 초의 일부 전축요처럼 제기생산과 관련한 특정한 요장이 지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후기의 고동기형 제기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고려 중기 이후 금속 기명이 많이 활용되는 과정에서 각종 제기들은 금속기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청자상감모란당초문정릉正陵명대접〉의 경우는 돌아간 왕비의 제례를 지낼 때 사용하던 일상 생활용 기명으로 곤릉의 출토품들과 같은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찰 의식 도구와 도자 소비

고려시대 자기의 최대 수혜자는 사찰에 기거했던 승려와 사찰을 후원하던 관련 인물들이었다. 고려시대의 사찰에서는 불교의식에 필요한 각종 공양구나 의식구가 금속이나 도자로 만들어져 사용되었으며, 일상 생활에서는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음식의 섭취나 차를 마시는 기명들이 소비되고 있었다. 자기로 제작된 기물 중에는 일반 사람들이 거주했던 공간에서 흔히 발견되기 힘든 유물로 불보살상을 비롯하여 정병, 향완, 사리용기, 발우, 두침頭枕 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찰터에서 발굴되는 도자는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상 용기들이 주류를 이룬다.

의식에 필요한 기물로 신앙의 대상이 되었던 부처의 상은 몇몇 사찰터와 가마터에서 확인되고 있다. 전남 함평 용천사에서 수집된

〈청자나한상〉, 강진군 도암의 용혈사지 출토 〈청자보살머리과편〉과 〈청자나한머리과편〉, 동원東垣 기증품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청자나한상〉,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불신佛身의 과편과 대좌 등은 강진이나 혹은 지방요에서 제작된 인물 상들로서 고려중기에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다.⁴⁶ 이 중 용혈사지에서 확인된 불보살 과편들은 제작 수준이 매우 뛰어나고 색조가 비색을 보이고 있어 강진 일대에서 제작된 것임을 알게 해준다. 대부분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불보살상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수준이 떨어지는 편이다. 크기가 소형으로 국한되어 있고 발견지가 대형 사찰이 아닌 경우가 많다. 이는 철불이나 대형 석불을 안치하기 어려웠던 암자나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소형 사찰, 혹은 불심이 돈독했던 개인 신자들에게 주로 소비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가마에서 제작된 증거가 확실한 사례로 용인 보정리 요지 출토품의 청자보살상과 나한상 등이 있다. 보정리 요지에서는 보살좌상과 나한상을 포함하여 보관, 나한머리편, 불신 단편 등 무려 32점에 이르는 많은 불보살상들이 발견되어 이곳에서 상당량의 산양상들이 제작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청자보살좌상〉은 과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높이는 약 40cm를 상회하여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불보살상에 비해 크기가 크다. 물레로 기본형을 만들고 장신구나 신체 부위를 붙이는 기법은 이 가마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⁴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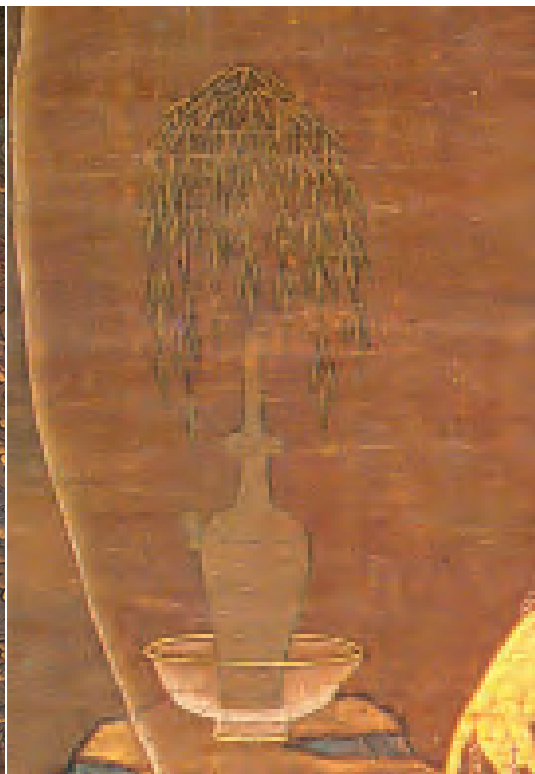
사찰에서 발견되는 도자기 중 주목해야 할 몇 개의 기종이 있다. 고려중기의 가마유적에서 흔히 발견되는 정병은 생산량 자체가 많지 않았으나 어느 가마에서든 늘 확인되는 유물이기도 하다. 정병은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와 같은 고려불화나 금동불, 석불 등의 조상 사례에서 관음보살이 들고 있는 지물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그 의미는 ‘정갈한 물을 담아 중생을 구제하는 데 사용했던 의식용

기’ 정도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선화봉사고려도경』의 정병조에는 ‘존귀한 사람과 나라의 관원, 도관과 사찰, 민가에서 다 쓰는데 다만 물을 담을 수 있을 뿐이다’ 라는 구절이 나온다.⁴⁸ 또 귀부(貴婦)조에는 “부잣집에서는 큰 자리를 깔고 시비(侍婢)가 곁에 늘어서서 각기 수건과 정병을 들고 있는데 비록 더운 날이라 하더라도 괴롭다 하지 않는다”⁴⁹ 라는 내용이 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정병은 관청이나 민가에서 물병으로 사용했으나 사찰에서는 불교의식 용구로 활용하여 소비처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두침(배게) 역시 고려 중기의 사찰터에서 주로 발견되는 기종에 속한다. 두침은 이미 통일신라시대의 사찰에서도 중국 당삼채두침을 수입하여 사용한 예가 알려져 있으며 같은 시기의 일본에서도

양류관음도(楊柳觀音圖)와 정병
1323년 서구방(徐九方)이 그렸다는 화기(畫記)를 갖고 있는 고려 불화이다. 달이 비친 바다 한가운데 금강보석(金剛寶石) 위에 앉아 있는 관음보살 옆 바위에는 투명한 수반안에 청자로 보이는 정병에 버드나무가 꽂혀 있다. 정병은 불교의식구이기도 했지만 일상 생활에서 물을 담아 사용하는 병의 기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 쓰미토모가문(住友家), 고려, 1323년, 165.5×101.5cm.





백자발우(白磁鉢盂)

식사 과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백자발우 셋트로 고려시대 승려들의 생활사를 이해할 수 있는 유물이다. 이 그릇은 크기가 각각 달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서로 포개어 보관이 가능하며 굽을 만들지 않아 밑면이 편평하다.

해강도자미술관, 고려, 12~13세기, 큰 발우 높이 8.8cm.

동일한 양상이 확인된다.⁵⁰ 이 도자배개가 실용성이 있던 기물인지는 알 방법이 없으나 실생활 용기들과 함께 주로 사찰터에서 발견되는 점으로 보아 도자배개의 중심 수요 대상이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향완香碗은 일종의 고배형 향로로 대부분은 금속기로 제작되었지만 청자로 제작된 향완도 많이 알려져 있다. 향완에 기록된 ‘...배排’ ‘...전前’이라는 명문은 안치, 혹은 배치한다는 의미로 불단 앞에 설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글자로 이해되고 있다.⁵¹ 청자향완들 중에는 측면에 범자梵字를 흑상감한 예가 많이 남아 있어 향로와는 다르게 향완이 불교의식 용구로 사용되었던 것이 확실하다.

이 밖에 뚜껑과 몸체가 한 벌을 이루는 납작한 합, 구멍뚫린 귀에 뚜껑을 끈으로 고정할 수 있는 소형 향아리, 유개합 등이 고려시대의 각종 부도에서 발견되고 있다. 또 승려의 시신을 화장한 후 나온 사리를 넣은 사리기로 활용된 사례가 많이 남아 있다. 또, 평굽

모양의 사발들을 크기별로 포개두었다 사용하는 승려들의 음식용기인 발우 등은 일상생활에 사용한 그릇이나 사찰에서만 볼 수 있는 생활 용기에 해당한다. 이처럼 불교가 국교였던 고려시대의 수많은 사찰이 전국에서 운영되면서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각종 의식용구와 생활용구가 청자로 제작된 것은 고려에서만 볼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의 결과물일 것이다.

무덤 속에 넣어준 고려청자

고려시대의 문헌자료에는 계층 간 장례나 무덤 조성, 관리하는 일들을 법제화한 기록이 남아 있다. 고려시대의 무덤은 문무양반의 직급에 따라 무덤을 조성하는 원칙을 정하였다. 우선 경종 원년(975)에는 1품부터 6품에 이르는 묘지의 규모를 한정된 금령^{禁令}을 내려 국가에서 정식으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면서 규격화하였다.⁵² 이는 품계 간 규모차이를 뒀으로써 신분의 차이에 따른 분묘 축조를 규정한 최초의 기록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평민의 경우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금령에서 거론한 6품 이하에 해당하는 30보^步에 높이 8척^尺보다는 분명히 크지 않았을 것이다. 신분이 낮거나 경제력이 약한 사람들은 분묘를 만들지 않고 버리거나 그대로 썩게 하고 심지어는 동물 먹이가 되도록 방치하는 등 분묘가 없는 것이 허다하거나, 있다 해도 형식에 그친 것이 많았던 듯하다.

즉, 고려시대의 분묘 조성은 왕실을 비롯하여 문무양반의 경우 신분과 직급에 따라 무덤의 규모가 다르게 조성되었으며 평민의 경우도 6품 이하에 준용된 것을 절대 넘지 않았던 것이다. 또 평민이라 하더라도 가난한 자나 신분이 미천한 노비는 분묘조차 쓰지 못할 정도로 환경이 열악하여⁵³ 도자를 동반하는 분묘의 주인공은 적

어도 하급관리나 최소한의 경제적 능력이 있던 평민층 이상의 신분을 가진 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의 분묘는 왕실을 비롯한 왕실가족과 같은 최상위 계층의 경우 석실묘石室墓⁵⁴ 형태를 갖고 있으며 귀족이나 상위 관료층은 석실이나 석곽묘石槨墓, 하위 관료층이나 토호, 평민들은 토광묘土壙墓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⁵ 여기에는 청자와 백자, 도기, 금속기 등이 부장되었으며 도자 유물은 가마에서 생산된 기종이 모두 망라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청자이다. 부장용기로서 생활성이 강한 기명들이 선호되었던 이유는 고려시대의 도자가 기본적으로 부장을 전제한 그릇들이 아닌 식생활 문화를 반영하는 일상 용기 중심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고려의 분묘문화에 따른 도자기의 매장양상을 알 수 있는 몇 예를 살펴보자. 발굴조사로 확인된 왕릉 중 분묘의 구조와 매장품을 확인할 수 있는 예로는 임시로 강화도에 수도를 두었던 강도시기江都時期(1232~1270)의 곤릉坤陵 출토품을 들 수 있다. 곤



강화 곤릉(坤陵) 발굴 전경
곤릉은 강종(康宗 재위 1211~1213)의 비인 원덕태후(元德太后)의 무덤으로 1239년경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분이다. 이 무덤 안에서는 당대 최고의 품질을 보이는 청자 파편들이 수집되었다.

릉의 피장자인 원덕태후는 22대왕인 강종(康宗)의 비이다. 원덕태후 유씨는 고종 26년(1239)에 돌아가 능을 조성함에 따라 출토품들은 1239년을 하한으로 하는 시대적 특징을 보여준다.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한 석실 내부에는 도굴을 당하여 도자기가 거의 출토되지 않았으나 석실문 비석 앞 묘도부에서는 제례의식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8점의 청자가 수습되어 최상급 소비층 분묘의 자기 소비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발견된 청자는 모두 당대 최고의 품질을 보이는 청자들로 삼죽향로, 역상감문뚜껑, 압출양각화형접시류, 압출양각상감문발 등이 있으며 형태가 긴 도기 매병도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최상위 계층의 분묘에는 매장을 위한 각종 도자류와 금속제품 등이 다양하게 들어갔으나 차상위 계층의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석곽묘나 토광묘의 경우는 경우가 다르다. 한 예로 안산 대부도 육곡 고분군은 고려시대의 중기에서 후기에 조성된 석곽묘와 토광묘가 존재하고 있다. 이들 중 7호 토광묘에서는 고려의 청자접시와 발 각 1점, 그리고 정요계로 추정되는 백자편 4점과 청동인장 1점, 11세기 후반~12세기 초반의 각종 중국 동전이 동반 출토되었다.⁵⁶

삼척 삼화동 고분은 정식 발굴품은 아니지만 발견 당시 주변에 석재가 사방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석실묘로 조성된 분묘이다. 여기에서 발견된 유물은 총 41점으로 양이 대단히 많은 편에 속한다. 수집 유물로는 청자압출양각완, 청자주자, 청자향로, 청자잔탁 3점, 청자타호, 청자발 3점 등과 함께 도기정병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요계와 경덕진요계의 중국백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⁷

단양 현곡리 고분군은 34기의 고려시대 석곽묘와 토광묘가 조사된 곳이다. 이 중 석곽묘인 30호 고분에서는 고려의 청자상감과형주자와 압출양각의 청자완, 퇴화문접시, 잔 등이 보고되었으며, 도기반구병 등과 더불어 정요계로 추정되는 경질의 백자완 1점이 수습되었다.⁵⁸ 토광묘와 석곽묘가 뒤섞여 있는 충주 단월동 묘역에서도 정



강화 곤릉 출토 청자파편 일괄
 곤릉에서 출토된 것으로 발, 접시, 매병
 뚜껑, 삼족항로 등이 수집되었다. 이 출
 토품들은 13세기 전반경의 최상급 청
 자들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 지에 대하
 여 많은 정보를 준다.
 국립문화재연구소, 고려, 1239년 하한,
 발 높이 7.8cm.

요계로 추정되는 소형의 백자접시 1점이 확인되었는데 품질이나 유
 색은 단양 현곡리 30호 고분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하다.⁵⁹

그러나 대부분의 석곽묘와 토광묘에서 발견되는 유물은 매우 수
 량이 적으며 발견되는 양상도 분묘의 축조 시기에 따라 조합상에
 변화가 보인다. 즉, 10~11세기에 해당하는 고려 초기에는 발(대접포
 함), 접시, 병이 중심이 되는 청자류에 완이 끼게 되고, 여기에 도기
 류의 발이나 반구병이 포함되어 한 벌을 이룬다. 12~13세기 경의 고
 려중기에는 주요 기종 이외에 완, 잔, 잔탁, 호가 때에 따라 추가되
 며, 도기에서는 완이 빠지고 병, 매병, 호가 동반된다. 14세기 고려
 후기에는 청자의 경우 발·접시·잔이 부장되나 도기의 경우는 병,
 혹은 매병이 일부 동반되는 양상을 보인다.⁶⁰

고려 중기에는 도자기를 함께 매장하는 고분 수도 증가할 뿐 아
 니라 출토되는 유물의 양이나 기종 또한 많아지고 다양화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또 출토 비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청자와
 도기는 상호 보완 관계로, 청자는 반상기로서의 소형 기명이 중심
 을 이루고 도기는 발을 제외한 나머지 기종들이 이동이나 임시저장

을 위한 중형급 그릇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의 분묘에서 출토되는 양상을 보면 유물들은 부장시에 청자와 도기가 서로 겹치지 않는 선에서 일괄품을 만들어 넣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시 일상 생활에서 실제로 그릇을 사용할 때 활용했던 그릇의 조합과 일치했으리라 판단된다. 또한, 부장된 유물의 과다는 피장자나 혹은 무덤을 조영한 후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가감되었을 것이다.



지방 분묘출토 청자반구병

석곽묘나 토광묘에서 출토되는 도자 유물중에는 청자, 혹은 도기반구병이 많다. 흔히 발, 접시와 공반되는 이 유물은 생활 유적지보다는 분묘에서 출토되는 비율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신을 매장한 후 간단히 제례를 지내는 과정에서 병의 목을 깨는 것이 관례였던 듯, 분묘 출토품 중에는 상부가 결실된 예가 많다.

국립광주박물관, 전남 무안 출토, 고려, 12세기, 남은 높이 23.0cm.

04.

청자의 생산과 유통

고려청자의 제작 체제

고려시대 청자의 생산 체제를 조선시대의 관요 시스템처럼 일관된 제도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것은 시기마다 생산 여건과 소비 여건이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고려시대의 청자 제작 단계를 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여 알아보자.

먼저 고려초기는 중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전축요가 운영되면서 가마들의 구조나 축요방식, 규모, 생산품 제작에서 일정한 틀을 유지하고 있었다. 발굴조사를 통해 알 수 있듯 전축요들은 약 40m의 길이와 7개의 측면 출입구가 있고 가마의 보수나 개축 과정도 공통점이 있다. 생산품도 중국 옥환저완(玉環底碗)계통의 선해무리 굽완에 집중되어 있으며 각종 차 관련 도구들과 일상생활용기, 그리고 제기 등을 동반 제작한 모습이 확인된다. 즉, 기종의 조합 양상에서 각 가마들은 모두 유사한 비율을 갖고 있으며 기형 또한 동일하게 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번조도구의 경우도 각

종 갑발이나 받침 등 요도구의 양상에서 같은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가마들 간에 구조와 생산품의 양상이 동일하게 발견되는 현상은 초기 청자 제작기의 가마 운영이 개인에 의해 운영된 사유私窯가 아닌 왕실이나 중앙 정부에서 주도했을 가능성을 높여준다.⁶¹ 특히, 초기 청자 제작기에 한반도에서 청자요업을 주도한 사람들은 중국인 도공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폭적인 국가의 지원 없이는 이러한 거대한 규모의 가마 운영이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축요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예는 태묘太廟와 각종 국가 제사에 사용될 제기의 조달을 담당했던 것에서도 나타난다. <청자순화삼년명고배>와 <청자순화사년명호>는 태묘에 소용될 제기였다. 초기 전축요에서 볼 수 있는 보鬮나 궤籩와 같은 제기들은 국가의 제사에 활용하기 위한 왕실 제기로서 관영 수공업 체제에서나 제작될 수 있는 의미를 지닌다. 운영 체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실은 먼저 ‘소所’의 운영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최근 경기도 고양시 지역에서 발견된 건자산소市子山所는 소로 지정될 마땅한 산물이 발견되지 않는 대신 전축요인 초기청자가마가 위치하고 있다.⁶² 만약 이것이 자기소라면 고려시대 자기소로 알려진 강진의 대구소大口所, 칠량소七良所보다 빠른 시기에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같은 전축요라 하더라도 서산시 오사리와 경기도 용인시 서리 지역은 성연부곡聖淵部曲과 처인부곡處仁部曲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⁶³ 전축요들이 모두 소의 편제가 아닌 부곡의 조직 체제 속에서 운영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청자 생산의 중심이 남서부 지역으로 이동한 10세기말에서 11세기 초반 경에는 강진에서는 본격적으로 자기소 체제가 완성된 듯하다. 생산품의 고급화, 초벌기술의 습득과 같은 기술적 진보는 강진의 요업체계가 안정된 바탕 위에서 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강

진의 대구소, 칠량소는 10세기말에서 11세기초, 관영 수공업 체제의 기능을 상실한 전축요의 자리를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1세기 경의 강진요는 생산량이 증가하고 품질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생산품의 일부는 왕실이나 개경의 주요 관청에 납품되었을 것이며, 나머지는 상품으로써 사찰이나 고급 수요층에게 팔려나갔을 것이다.

11세기 후반 이후부터 새로운 중국 도자의 조형과 제작기술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고려청자는 크게 변하며, 이를 중기의 시점으로 볼 수 있다. 강진 일대와 부안 진서리, 유천리 일대에서는 음각, 압출양각, 상감기법 등에 의한 양질의 청자들이 제작되었고 이들은 폭이 넓어진 수요 계층을 위해 유통되었다. 이 시기에 해남과 인천 지역에서는 품질이 매우 떨어지는 청자류가 생산되면서 값싼 청자들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품질 간의 편차는 매우 다양하였다. 특히, 12세기 중반 이후 중부 내륙 지방에서는 지방 수요를 위해 많은 가마들이 생겨났는데, 이곳에서의 생산품들은 압출양각과 음각 기법으로 강진의 청자를 모방한 제품을 만들어 팔았다.

고려초부터 강진의 대구면과 칠량면에 존재했던 자기소는 고려 중기까지 지속된 듯하다. 그러나 부안 지역은 부곡部曲과 같은 특수 촌락의 형태로 운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⁶⁴ 이 밖에 사찰에서 운영했을 가능성이 있는 가마로 제천시 송계리에 있는 사자빈신사지獅子瀕迅寺址의 가마터를 들 수 있다. 인근 지역이 험준하여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별로 없고 다른 소비처를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가마는 바로 사찰에 필요한 청자를 조달했음이 틀림없다. 이와 같은 사례는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고려중기에 활동한 지방요 중에는 군·현郡縣체제 속에서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 가마들이 많이 존재한다. 중부 지방의 청자 양식은 강진청자와 유사하여 강진의 조형양식이 전국의 지방요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이해되나, 한편으로 일정한 패턴을 유지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부내륙의 지방요들은 민요의 개념에 가까운 사요라기보다는 특수 촌락이나 군현의 통제를 받는 가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에서 고려중기에 볼 수 있는 청자의 생산체제는 강진, 부안이 중심이 되는 양자 구도가 아니라 지방요가 확산되면서 여러 가지 생산방식이 공존하는 다원적 체제 속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원간섭기 이후 고려는 각종 물자를 수탈당하였고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였다. 원의 지나친 공물 요구에 따른 과중한 공역 부담과 권력층의 소所 점탈 등은 소의 해체를 가속화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⁵ 고려후기에 들어서면 그동안 기명의 중요한 일부를 담당했던 동기銅器를 대체하여 청자의 수요가 증가한다.⁶⁶ 이 시기의 청자 생산은 고려중기까지 고급 청자 생산의 중요한 축이었던 부안의 요업이 약화되고 대신 강진과 다른 지역의 생산이 급증하는 현상을 보인다.⁶⁷

당시의 청자 요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는 1389년 조준趙浚이 올린 상서를 통해 알 수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용司饗에서는 각 도에 관리를 파견하여 궁중에서 쓰는 자기의 제조 감독을 일년에 한 차례씩 했는데 공을 빙자하여 사익을 취한다. 한 도에서

대전 구원동 청자가마터(왼쪽)
12세기 후반-13세기 전반경에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 고려 중기의 청자가마터로 생산품은 강진 제품과 유사하며 압출양각기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청자의 지방확산기에 내륙지방에 우후죽순으로 생긴 생산시설 중 하나로 유사한 사례가 전국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고려 중기의 지방청자 생산품(오른쪽)
대전 구원동 청자가마터 출토품으로 외부에 연판문을 음각하거나 내면에 압출양각의 문양을 넣은 기물이 상당히 많다. 굽에 유약을 묻히지 않은 채 유약을 입히는 방식은 지방 청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해강도자미술관)

가져가는 것이 80~90 수레에 이르나 서울에 이르는 것은 1/100이고 모두 사취하니 폐가 이보다 심함이 없다” 고 하였다.⁶⁸

이 기록을 통해 우리는 왕실에서 필요한 자기를 감소하되 각 도에서 수급을 받았고 일정한 시기에만 공납품을 제작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강진뿐만 아니라 지방의 다른 가마들도 공납품을 제작하였다는 것을 말해주며 강진의 전통적인 자기소로서의 위상은 14세기에 상실되었음을 의미한다.⁶⁹ 이 단계의 지방요들을 민요로 보아야 하는지는 의문이지만 필요에 따라 감조를 받으면 되므로 14세기의 청자 제작 체제는 국가나 관청의 관여에서 어느 정도 자유스러웠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서해안에서 발견되는 보물선

최근들어 한반도의 서해안 일대에서는 수중 인양 작업을 통해 고려시대의 선박과 함께 청자들이 발견되는 사례가 많다. 이는 도자를 비롯하여 지방의 각종 토산 공물들이 생산지에서 적재된 후 소비처를 향해 운송하던 중 풍랑을 만나 난파를 당하여 바닷속에 가라 앉은 것들로 이해된다. 서해안의 연안항로는 원래 고대부터 이용된 해상 루트였지만 고려시대에 들어와 개경에 수도가 정해지면서 지방의 각종 물자들을 운송했던 서해 바닷길은 전보다 체계화된 과정을 통해 관리되었다. 바닷속에서 발견되는 도자 유물에 특별히 청자가 많은 것은 고려시대에 정비된 물류체계가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한다.

국가의 재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세(租稅)와 공물(貢物)은 지방 통치체제의 정비와 운송체계의 확립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가와 관련이 있다. 이것은 토산 공물의 대상이었던 도자기가 어떻게 서

해안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는지를 이해하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

고려의 지방통치체제 확립 과정은 국초인 태조 23년(940)에 군현 제도를 개편하면서 처음 시작되었다.⁷⁰ 광종 즉위년(949)에는 각 주현州縣에서 내야 할 공물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전국적 규모의 조세수급이 체계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어 성종 2년(983)에는 지방제도를 개편하고 향리로 하여금 군현의 조세 수취를 책임지게 하였는데 이는 조세제도의 완성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⁷¹

각 주현에 배정된 곡물과 포布 중심의 조세는 양과 무게가 많이 나가 육로보다는 해로나 수로를 통해 개경으로 이동되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각 지역의 물자를 집합시키는 조창漕倉이었다. 고려에서는 정종 때에 조운제漕運制를 정비하여 12조창漕倉을 설립하고 조운선의 종류와 수를 정하였으며 문종 21년(1067)에는 황해도 장연에 안란창安瀾倉을 추가하여 모두 13개의 조창을 운영하였다.⁷² 각종 소所에서 생산된 지방 토산 공물 역시 이들 조창에 결집되어 조운로를 따라 수도로 이송된 듯하며 여기에서 자기는 중요한 적재 품목 중 하나였던 것이다.

13개의 조창 중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영암의 장흥창長興倉과 부안의 안흥창安興倉이다. 장흥창은 대구소, 칠량소가 있는 강진만, 해남의 산이면 일대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안흥창은 부안의 유천리, 진서리 같은 도자 생산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고려시대의 조운로와 조창(漕倉)
고려에서는 국초부터 지방의 군현제도를 정비하면서 세금을 용이하게 걷기 위해 전국에 12개의 조창을 설립하였다(후에 13개로 확대). 이 중 내륙에 소재한 2개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안가에 설치하여 해로를 통해 물자를 개경으로 이송하였다. 청자가 서해안에서 주로 인양되는 것은 이 경로를 따라 움직였기 때문이다.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해안가에 접해 있는 청자 생산물들은 조창으로 이동한 후 선적되어 개경과 같은 대형 소비지로 이동했을 것이다. 다양한 품질의 청자 생산이 가능했던 이들 지역이 조창과 인접해 있는 점은 서해안에서 발견되는 도자 유물의 생산지가 강진, 해남, 부안일 가능성을 높여준다. 조사 결과 수중 인양 유물의 상당수는 이들 지역의 자기로 추측되고 있어 조운로의 개설과 강진, 해남, 부안자기의 수급체계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초부터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한 서해안의 도자기들은 최근에 이르러 발견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983~1984년에 조사된 완도(11세기 후반), 1987년경의 보령 앞바다(1329), 1995~1996년의 무안 도리포(14세기 후반), 2002년의 군산 야미도(12세기 전반), 2002~2003년의 군산 비안도(12세기 후반), 2003년의 군산 무녀도(12세기), 2003~2004년의 군산 십이동과도(11세기 말~12세기 초), 2005년 보령 원산도(13세기), 2007년의 태안 대섬(12세기), 2008~2009년 태안 마도(13세기 초) 등의 수중 발굴은 서남부 일대의 가마에서 끊임없이 자기가 올라가고 있었음을 보

군산 앞바다비안도 출토 청자

2002~2003년 사이 비안도에서 인양된 수 천여 점의 청자는 부안 유천리에서 출발하여 조운로를 따라 개경 등의 소비지로 향하던 중 침몰된 것으로 보인다. 서해안 일대에서는 각종 물품과 함께 도자기가 인양되고 있어 고려청자의 유통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여준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수중에서 발굴된 유물의 연대가 11세기 후반 이전으로 올라가는 것은 없다는 점이다. 즉, 전형적인 한국식 해무리굽완의 제작 단계인 11세기 중심의 초기 청자들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된 것인지, 11세기 전반부에는 자기 운송 루트가 해로가 아니었는지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 그러나 국내의 여러 소비처에서 강진산 청자해무리굽완이 폭 넓게 발견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11세기 초, 중반에도 서해안을 통해 청자들이 이송된 듯하다. 향후 수중 발굴이 추가되면 이와 관련한 청자들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조운제의 정립과 성종~현종시기의 지방제도 개편, 서남부지역 가마의 흥기는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초부터 조세 체계를 확립하고 수취하는 과정에서 10세기 말~11세기 초에 지방제도가 개편되었고 이때부터 서남부 일원 요업단지의 생산량 증가와 품질 향상이 이루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생산된 자기들은 이후 조운로를 이용하여 개경을 위시한 대도시로 운송되었고 이동 중에 침몰한 운반선에서 우리는 지금 보물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도자의 운송은 조운창에서 하부가 깊고 넓은 곡식 운반선인 초마선哨馬船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초마선은 내륙 수로용보다 해상운반용의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⁷³ 도자기들은 같은 기종끼리 묶어 차곡차곡 선적되었다. 여기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목간木簡의 존재이다. 2007년에 태안 대섬 앞바다에서 발견된 해저인양 유물 중에는 ‘탐진에서 개성의 대정(하급장교) 인수仁守에게 보냄 耽津亦在京隄正仁守’ 이라든가 ‘개성의 ○안영택安永宅에 도자기 한 꾸러미를 부침在京○安永戶付沙器一?’, ‘최대경 덕에 올림(崔大卿宅上, 대경은 종3품 벼슬)’ 등의 내용을 담은 목간이 몇 점 발견되었다. 목간들에서 우리는 생산지와 운송체계, 도착지, 거래관계, 수요자 등이



태안 대섬 앞바다 출토 목간 (왼쪽)
 발견된 여러 점의 목간에서는 생산지, 도착지, 직급, 수신인, 수량 등이 기록되어 있어 유통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물표는 선적된 도자기의 꾸러미에 붙었던 것으로 고려시대에 현대적 개념의 택배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소중한 자료가 된다.

도자의 선적상태 (오른쪽)
 2007년 태안 앞바다 대섬 부근의 수중 발굴조사에서는 선박의 잔해 속에서 청자의 선적상태를 알 수 있는 꾸러미가 확인되었다. 연출된 이 전시품을 통해 은발, 향아리, 접시 등 형태가 같은 그릇이 어떻게 포장되었는지를 잘 알려준다.



적혀 있음을 보게 된다. 이것은 강진의 옛 지명인 탐진에서 개성으로 도자기를 배달하면서 직접 도자기를 받는 수납자와 수량을 명기하여 붙였던 물표였던 것이다. 고려관 택배 시스템의 증거가 되는 목간을 통해 우리는 이미 고려시대에 강진에서 주문을 받아 배를 이용하여 도자기를 소비처에 납품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도자기의 유통과 관련하여 고려 후기의 기록은 매우 중요한 단서를 준다. 『고려사』 열전에는 충혜왕의 비인 은천옹주의 아버지가 사기를 파는 상인이었으며 사람들이 이를 빗대어 사기옹주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있다.⁷⁴ 이를 보면 고려 후기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기점이 있었고 도자를 사고 파는 상행위가 일반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한 제도를 통해 도자가 생산, 유통되고 소비되었다. 목간이나 문헌 자료로 볼 때, 청자의 소비층은 다양했으며 어느 시점에서는 매매를 통해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

국운과 함께 한 청자

간지명 상감청자의 제작

고려시대 후기의 상감청자 중에는 그릇의 한 부분에 간지(干支)를 상감으로 새겨넣은 예들이 나타난다. 흔히 간지명 상감청자라 불리는 자기류는 간지의 존재로 인하여 연대 추정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이와 유사한 조형 양식을 비교하면 청자의 제작시기를 추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미 일제강점기부터 알려진 이들 청자류는 1987년 보령 앞바다에서 기사(己巳)명 대접과 함께 100여 점의 상감청자가 인양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현재까지 알려진 60개의 간지 중 청자의 명문으로 발견되는 간지들은 기사(己巳), 경오(庚午), 임신(壬申), 계유(癸酉), 갑술(甲戌), 임오(壬午), 정해(丁亥), 을미(乙未) 등 8종이 있다. 간지명 청자는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7호 요지와 계율리 18호 요지, 수동리 1호 요지 등에서 생산된 예가 알려져 있으며 소비처로는 개성의 만월대, 화순 운주사, 고흥 제석사, 강화 선원사 등지에서 발견된 예가 보고되었다.

청자상감 화훼문 기사(己巳)명 대접
 14세기 전반 경 고려의 중앙 권력은 약
 화되어 지방으로부터의 세금 공출이 쉽
 지 않았다. 세금 품목 중 하나였던 도자
 기도 중간에서 사취가 심해짐에 따라
 이를 표시하기 위한 제도로서 간지를
 새겨 넣도록 하였다. 이 대접은 내면에
 1329년에 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기
 사(己巳)라는 글귀가 상감되어 있다.
 해강도자미술관, 고려, 1329년, 높이
 7,6cm.



청자에 간지를 새긴 목적은 대몽항쟁 이후 저하된 품질의 향상과
 납품 과정에서 토산 공물이었던 강진 청자가 중간 관리층에 의해
 포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⁷⁵ 당시의 시
 대상 황을 통하여 간지를 새긴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자.

14세기에는 집권층에서 사선私膳, 별선別膳의 형태를 통해 공물을
 무리하게 징수하는 예가 빈번하였고, 지방 관리들까지도 국가의 수
 취체제를 잠식함으로써 그 폐해가 끊이지 않았다. 특산물을 생산하
 는 각종 소에서는 국가적, 개인적 차원의 세금 징수가 생산능력을 초
 과함으로써 생산에 종사하는 계층은 상당한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⁷⁶

생산과 관리, 수취를 담당했던 중간 관리층 역시 무거운 부담을 회피하고자 권력자에게 기탁하는 예가 적지 않았으며 그 결과 공역의 의무가 있던 소에 대한 수취권 역시 미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도자기 제작을 담당하고 있었던 자기소의 경우에 있어도 예외가 아니었던 듯하다. 14세기에 이르러 자기소의 운영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사실상 줄어들고 유산 계급이나 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용의 관리들에 의한 사적 침탈이 심했던 것이다. 1389년 조준(趙浚)이 올린 상소에서 “사용 산하의 자기소에 관리를 년 1회씩 관리를 파견하여 내용 자기를 감조하게 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 언급한 것은⁷⁷ 이미 붕괴된 자기 수급 체계를 확인해 주는 기록이라 할 수 있다. 문헌 자료로 볼 때 결국 도자의 공납 과정에서 발생했던 각종 폐해를 방지할 수 있던 방법이 글자를 직접 새기는 것이었고 이것이 간지명을 새기게 한 이유가 분명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간지명 청자는 공납 자기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간지를 새긴 기종은 대접, 접시, 사이호, 잔, 고죽배 등에서 주로 나타나며 문양은 상감기법을 이용하여 화훼조충문, 유로수금문, 여지문, 운학문, 국화문, 운봉문, 연당초문 등 고려 후반에 유행했던 문양들을 표현하였다. 문양의 표현 방식은 여백을 많이 남기고 문양을 새긴 도장으로 간단히 찍어 상감하였으며 문양 간에 대칭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같은 시기에 제작된 다른 상감청자에 비해 비교적 품질이 우수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성형을 두껍게 하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등의 모습은 청자의 품질이 저하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간지명 청자가 명문있는 청자들 속에서 주목을 받아온 이유는 간지가 언제인가에 따라 같은 양식을 보이는 청자들의 제작 연대가 연대해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1960년대의 강진 사당리 7호요지 발

「정해(丁亥)」 명 삼감청자

‘정해’ 명 삼감청자는 1960년 강진 사당리 7호 요지의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정’ 명 파편과 함께 발견되었다. 지정연간의 정해는 1345년으로 현재 확인된 8종의 간지명 삼감청자 중 가장 늦은 시기에 해당한다. 색색에 가까운 색조와 거친 마무리 등은 1345년경의 청자 제작 상태가 좋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고려, 1345년, 각 지역 발굴조사품.



청자상감 「지정(至正)」 명 파편

강진 사당리 7호 요지에서 수습된 파편으로 중앙부에는 ‘지정’이라는 글자가 흑상감되어 있다. 지정은 1341~1365년 사이의 원나라 연호로서 공민왕 5년(1356)에는 원의 연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교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 명문청자는 1341~1356년 사이에 제작되었을 것이다.

해강도자미술관, 고려, 1341~1365년, 굽지름 6.8cm.



굴조사에서는 원나라 연호인 지정(至正, 1341~1367)명 파편과 함께 정해명 파편이 동반 출토된 사례가 보고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정해명은 1347년경에 제작된 것이 밝혀졌다.

그에 비하여 다른 간지명 청자들은 정해명 파편에 비해 문양표현 방식이나 제작 상태, 유색 등 여러 면에서 품질이 좋아 대부분 13세기 후반에 만든 것으로 이해해 왔다. 이렇게 해석했을 때 간지명 청자는 13세기 후반에 집중 제작되다가 수 십년동안 중지된 후 14세기 중반에 다시 만들게 되는 셈이 된다. 이러한 해석상의 어색함과 최근 고고학적 성과물의 증가에 힘입어 최근에는 모든 간지명 청자가 14세기 전·중반 사이에 집중적으로 제작되다가 사라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가와 운명을 함께 하다

14세기의 고려 사회는 극도로 혼란한 시기였다. 대외적으로는 고려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중국 원나라의 간섭을 심하게 받고 있었고 원·명의 교체기(1367, 원 멸망) 이후에는 명과의 관계가 소원한 상태였다. 국내 상황은 정치력, 경제력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던 친원과 권문세족에 의한 부패로 국가 재정은 곤핍을 면하기 어려웠다. 공민왕 이후 신진사대부들이 각종 개혁을 주장하였지만 사회질서는 이미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각종 산업에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수취 체제의 문란을 감내해야 했던 도자산업에서는 그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고려말에 나타난 신분 상향 현상, 무원칙한 남설로 과다하게 늘어난 지방의 관청,⁷⁸ 경쟁적인 사치풍조와⁷⁹ 유동^{諭銅}의 절대적인 부족 현상⁸⁰은 궁극적으로 도자기 사용의 확대를 예고하고 있었다. 위기의식을 느낀 신진사대부들의 잇따른 상소는 그 사실을 잘 말해준다. 공양왕대의 중랑장 방사량^{房士良}이 “유동은 본토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아니니 이제부터 동철의 사용을 금하고 오로지 자기와 목기를 써서 습속을 고치도록 하소서”⁸¹라고 건의한 내용은 그 중 하나이다. 분명 소비계층이 늘어나고 그릇 제작의 중심 재료 중 하나였던 동의 부족은 자기 생산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가 자기 생산의 양적 확대로 이어졌는지는 미지수이다. 왜냐하면 14세기에 청자를 생산한 가마의 개체 수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11세기 경부터 지속적으로 요업이 지속되어 오던 강진의 경우 충정왕 2년(1350)을 기점으로 끊임없이 출몰한 왜구에 의해 도자 생산은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미 13세기 후반 이후 공물의 수취 과정에서 나타난 중앙 정부의 통제력 약화와 중간 관



청자상감모란당초문 「정릉(正陵)」 명대접
이 대접은 1365년 세상을 떠난 공민왕
비 노국공주(魯國公主)의 정릉에서 사
용하기 위해 제작된 그릇으로 내면 바
닥에는 정릉이라는 글씨가 백상감되어
있다. 권력의 실세였으면서도 청자는
문양 표현 수준이나 상태 등이 불량하
여 고려 말기의 청자 품질이 하락했음
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고려, 1365년, 높이
8.4cm.

리층의 농간에 의한 노동 강도의 증가는 청자의 품질관리가 더 이상 무의미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화려하고 다양했던 기종들이 대부분 사라지고 몇 종의 음식용 기명만이 겨우 명맥을 유지했을 뿐 품질은 급격히 하락했다. 생산 계층인 도공에게 물려드는 주문을 소화할 수 있던 방법은 빠르고 손쉬운 제작방식을 택하는 것이었다.

도자의 생산 과정은 일단 대충 성형한 후 굽과 기벽을 깎고, 작은 도장으로 몇 군데에 반복적인 문양을 찍고는 상감토를 감입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다. 간단한 의장, 문양의 반복시문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다. 가마 속에는 갑발을 사용하지 않은 채, 포개구이

나 가마바닥에 한 줄씩 깔아 적재한 후 구웠고 이로 인해 대부분의 청자에 재 흔적이 남게 되었다. 아름다움을 보여주려는 예전의 시도들은 모두 배제되었고 시간이 걸리는 과정은 모두 생략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14세기의 청자는 그릇의 무게가 무거워지고 예리함을 상실하였으며 반복적이고 도식적인 문양 소재만이 표현되는 방향으로 나갔던 것이다.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대표적 유물의 하나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인 <청자상감모란당초문 「정릉(正陵)」 명 대접>이다. 정릉은 1365년 돌아간 공민왕의 부인 노국대장공주의 무덤으로 대접은 정릉에서 제례 때 쓰기 위해 제작한 왕실 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에 앉아 있는 재의 흔적이나 엉성한 문양, 완성도가 떨어지는 제작방식은 열악했던 도자 상황을 잘 보여준다. <청자상감버드나무문 「을유사온서(乙酉司醞署)」 명 매병>도 마찬가지이다. 사온서는

왕실의 술을 담당하던 관청으로 이 기관이 존속했던 시기와 을유년이 겹치는 연도는 1345년에 해당한다.

고려중기의 화려했던 매병과 비교하면 품질이나 문양의 상태는 도저히 같은 계통의 기물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만큼 엉성하다. 이 밖에도 제작 연대를 구체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14세기의 많은 청자자료들은 고려가 기울어가면서 함께 쇠퇴해 간 청자의 모습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청자는 고려의 개국 이후 생산이 개시되었고 국가가 융성할 때는 함께 전성을 구가하였으며 쇠락할 때에는 운명을 같이했던 고려의 분신이었다.

〈이종민〉



청자상감버드나무문

『을유사은서(乙酉司醞署)』 명 매병
 사은서는 고려시대에 정부의 술을 관장하던 기관이다. 사은서가 존속했던 기간 동안의 을유년은 1345년으로 명문은 14세기 중반의 관청 납품용 그릇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문양의 흐트러짐과 거친 완성도는 이 시기에 청자 품질이 매우 좋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국립중앙박물관, 고려, 1345년, 남은 높이 30.1cm.



한반도의 흙, 도자기로 태어나다

4

조선 전기의 도전과 위엄, 분청사기와 백자

- 01 전통의 계승과 소박한 파격의 미, 분청사기
- 02 왕실백자의 제작지, 경기도 광주
- 03 위엄과 권위의 상징, 관요백자
- 04 중국백자의 영향과 관요백자의 새로운 선택

01

전통의 계승과 소박한 과격의 미, 분청사기

조선왕조의 새로운 시작은 정치, 경제, 사회질서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조선왕조는 왕권강화와 안정을 위하여 신분제도와 토지제도 개혁을 시행하고 고려 말의 정치적 혼란기를 틈타 다소의 힘을 과시했던 지방세력도 규합하였다. 아울러 제반 사회질서의 안정을 꾀하고 농지개간과 농업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경제력을 향상시켰으며 과학기술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였다. 또한 중국과의 관계 유지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여진정벌을 행하고 해안가를 무대로 노략질을 일삼던 왜구의 침탈을 불식시켰다.¹

도자사에서 조선 전기는 고려청자의 제작 전통이 계승, 변화되어 분청사기가 만들어지고, 백자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면서 다양한 도자문화를 형성한 시대였다. 분청사기는 조선초기의 활기찬 사회분위기를 담아낸 듯 다양하고도 독특한 장식기법과 개성이 넘치는 소재와 표현방법으로 고려청자나 조선백자와 구분되는 도자문화를 구축하였다. 또한 전국 각지의 가마에서 만들어지고 공통의 제작 경향을 보이는 한편, 제작지에 따라 장식기법과 소재의 선택에 변화가 엿보인다. 더불어 격식과 화려함을 갖추고 있으면서 일상의

해학과 자유로움이 함께 나타난다.

분청사기와 함께 백자의 발전도 눈부시다. 백자는 조선의 어기로 채택되면서 왕실의 위엄을 상징하는 제작 기법과 특징이 갖추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왕실과 관청용 백자를 전담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한 곳이 바로 경기도 광주이다. 여기에 조선시대 왕실과 관청용 백자를 제작하던 관요가 설치되었으며, 현재까지 수많은 가마터가 분포되어 있고 각종 자료에서도 관련 기록이 다수 나타난다. 최근 문헌기록에 대한 해석과 유적조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조선백자의 특징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더 나아가 가마의 구조와 시기별 설치 지역, 운영 방법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 지역에서 수백 년에 걸쳐 왕실과 관청용 백자만을 제작해 온 광주는 과거 도자기 제작으로 찬란한 영광을 누렸던 중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대의 자기 제작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분청사기는 15~16세기에 걸쳐 제작된 자기의 한 종류이다. 고려청자의 제작 전통을 바탕으로 장식기법과 문양 소재, 제작방법이 새롭고 다양하게 발전하면서, 청자와 구분되는 개성과 특징을 갖춘 자기로 탄생하였다. 15세기 전반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릇의 종류와 소재, 장식으로 크게 발전하였다. 이후 15세기 후반에는 경기도 광주에 관요가 설치되면서 분청사기의 장식기법과 소재, 질, 성격 등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는데, 이 시기에 개성이 강한 독특한 유물이 다량 제작되었다. 이후 16세기에는 조선

청자상감어룡문매병

매병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초기까지 제작되며 몸체 아랫부분의 너비가 좁아지는 변화가 나타난다. 어룡을 재미있게 장식한 후 고려 후기 상감청자에서 유행하던 물새와 연잎으로 주변을 마무리하고, 전면에 담록색 유약을 고르게 씌웠다. 삼성미술관 Leeum 소장, 조선, 15세기, 보물 1386호, 높이 29.6cm.



백자의 유행과 증가로 장식이 단순해지고 질이 거칠어지면서 수요자를 잃고 제작이 중단되기에 이른다. 분청사기의 제작은 정치·경제·사회 현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변화되었는데, 자기 수요의 증감, 금속기의 문제, 관요 설치와 관요 백자의 제작, 중국과의 교류 증가 등이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청자에서 분청사기로, 새로운 탄생

분청사기라는 말은 『조선왕조실록』 등 사료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유물이 제작되던 조선 전기에 사용되던 단어도 아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인 학자나 골동수집가들에 의해 ‘미시마三島’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은 유래나 의미가 불분명하여, 한국인 미술사학자였던 우현 고유섭 선생은 유물을 분류하고 특징을 정리하여 분장회청사기라고 이름을 붙였으며,² 분청사기라고 줄여 부르고 있다. 그릇 표면의 일부 혹은 전면에 백토가 얇게 칠해져 있고 유물이 대체로 회청색을 띠는 사기(자기와 동일한 의미로 혼용되었음)라는 의미로 고려시대의 청자나 조선시대의 백자와 구분되는 특징을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한 것에서 유래한다.

청자나 백자와 구분되는 분청사기의 대표적인 특징은 표면에 백토를 바르고 그 위에 갖가지 기법으로 다양한 소재를 장식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상감기법으로 장식된 분청사기는 그릇 표면에 백토를 칠하지 않은 것이 많고, 장식기법이나 소재, 색 등에서 고려시대 상감청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구분이 모호하기도 하다. 보물 1386호인 <청자상감어룡문매병>은 15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분청사기가 아닌 청자로 분류된다. 왕조가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었지만 고려 말기의 청자 제작전통은 조선초기에도 지

속되었고, 이 과정에서 제작된 유물이 청자로 분류된 것이다. 따라서 고려시대의 청자와 조선초기의 분청사기는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없어, 보는 이에 따라 청자도 되고 분청사기도 되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도자사 연구에 커다란 과제로 남아 있다.

조선은 개국 직후 금속원료의 부족으로 금속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는데, 이 정책은 결과적으로 도자기의 수요와 제작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금속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은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은 물론 동으로 만든 것도 대상이었다. 조선 조정은 중국 명나라에서 강요받은 금은그릇의 세공이 재화를 고갈시키자 공납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왕실과 일반인의 소용을 줄이고 신분제에 따라 일정량을 할당하는 방법으로 민간이 갖고 있던 금과 은을 거두어들였다.³

당시 조선에서는 금광이나 은광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필요한 금속의 물량은 쉽게 조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개국 초기에 왕실이나 민간이 보유하고 있던 금은그릇의 절대량은 고려 후기에 중국 원나라와 교역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국내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였다. 금속원료의 부족 현상은 동도 마찬가지였다. 군수물자 제조와 동전 및 금속활자의 주조에 원료가 되는 동은 개국 이후 더욱 많은 양이 필요하였다. 특히, 세종 때에는 동전의 주조에 막대한 양의 동을 사용하여, 국가나 민간에 심각한 물량 부족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그 부족분을 일본에서 수입하기도 하였다.⁴

금속에 대한 강력한 규제

분청사기우형제기

조선초기에 제작되던 금속기를 모본으로 만든 것이다. 개국 직후 금속원료의 부족으로 금속제 제기를 대신하여 분청사기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일부 16세기까지 제작이 지속되었다.

삼성미술관 Leeum 소장, 조선, 16세기, 높이 17.9cm.





분청사기 인화원권문 김해 장흥고명 접시
 조선초기에 분청사기로 제작된 전형적
 인 형태의 접시이다. 표면에 인화기법으
 로 크기가 작은 원을 가득 장식하고 안
 바닥 중앙에 지방의 이름인 김해 를
 상감하고 외면에는 관사의 명칭인 '장
 흥고' 를 장식했다. 지방 이름과 관사명
 을 함께 새긴 예는 호, 항아리, 대접, 접
 시 등 다양한 종류에서 발견된다.
 삼성미술관 Leeum 소장, 조선, 15세기,
 높이 4.5cm.

로 인해 금속그릇을 자기로 대체해 사용
 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1407년 성석
 린은 금은그릇을 대신해 나라 안이 모두
 사기와 칠기를 쓰게 하자고 주장하였는
 데, 절치부심하는 조선의 입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1418년에는 전사典
 祀에서 금속제기를 자기로 만들자는 의견
 이 제시되기도 하였다.⁵ 이후에도 금속그
 릋을 자기로 대체하려는 노력은 꾸준했
 다. 제례를 중시하던 왕실은 물론 지배층
 도 금속제기의 사용이 어려웠으므로, 이

를 대신한 자기의 제작은 이전보다 활발했다.

이와 같이 조선 개국 이후 집중된 금속그릇 사용 규제와 자기로
 의 대체는 분청사기의 수요나 제작이 급증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분청사기의 수요 증가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관청에서 세금으로 거두어 사용하던 분청사기를 도용하거나 사장
 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417년 공물로 바
 치던 사기와 목기에 '장흥고' 석자를 새기게 하고 다른 관청에 납
 부하는 것도 각각 관청의 이름을 새겨 바치게 하였다.⁶ 실제로 분청
 사기 대접과 접시, 항아리 등 다양한 종류의 그릇 표면에 관사의 명
 칭이 새겨진 유물이 다수 전하고 있다. 유물에 새겨진 관사의 명칭
 은 공안부 恭安府, 경승부 敬承府, 인녕부 仁寧府, 덕녕부 德寧府, 인수부
 仁壽府, 내자시 內資寺, 내섬시 內贍寺, 예빈시 禮賓寺, 장흥고 長興庫 등
 으로 다양하다. 명칭은 그릇의 안팎면에 도장으로 찍거나 칼로 새겼
 으며, 관사의 명칭과 함께 지방의 이름이 나타나기도 한다. 지방의 이
 름은 고령, 함천, 경주, 성주, 경산, 밀양, 창원, 양산, 진주 등이 주

로 발견되는데, 특이하게도 경상도지역이 대부분이다. 특정 지역이 집중되는 이유나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의 지명이 고르게 나타나지 않는 원인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 분청사기 중에서 특정한 시기에 설치되고 사라지는 관사명이 있는 유물은 당시의 제작 경향, 기술 수준, 발전 과정, 제작지의 운영 시기를 파악할 수 있어 학술자료로 중요하다.

분청사기의 수요와 제작이 증가하면서 조선 조정에서는 품질의 향상에도 관심을 갖는다. 1421년에는 공물로 진상하는 그릇이 단단하지 않아 깨지므로 장인의 이름을 쓰게 하여 함부로 만든 그릇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전세품이나 가마터에서 출토된 파편을 살펴보면, 1420년대 이후 1430~1460년대 사이 만들어진 분청사기는 질이 개선되고 장식이 정제되어 있다.⁷ 한편, 이 시기를 전후해 분청사기와 관련된 중요한 자료가 『세종실록지리지』에 전한다.

1424~1432년 사이 자료조사를 한 『세종실록지리지』의 토산조에는 전국에 자기소 139개소, 도기소 185개소 등 모두 324개의 도자소가 운영된 것으로 나타난다. 각지에 흩어져 있는 도자소에서는 분청사기를 주로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⁸ 수요가 급증하고 다양한 종류의 그릇 제작이 확산되었던 당시의 상황을 대변한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에서 사용할 금속원료의 부족으로 금속그릇의 사용을 제한하면서 더욱 확대되었고, 국가의 안정과 경제력 향상, 그리고 새로운 신분질서 등으로 자기의 수요가 증가한 데서 비롯된다.

편년자료와 분청사기의 변화

관사의 이름이 있는 유물 이외에도 분청사기 중에는 구체적인 제작시기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편년자료’라고 부른



분청사기인화국화문사이호
 정소공주의 묘에서 출토된 2점의 유물
 중 하나로 전면에 상감과 인화기법으로
 활짝 핀 꽃을 장식하였다. 조선초기에
 제작된 다른 항아리에 비하여 형태는
 특이한 편이며, 구체적인 제작 시기를
 알 수 있어 장식기법과 장식 경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 1412~1425년, 높이 21.2cm.

다. 분청사기의 전체 수량에 비하면 편년자료의 수는 적지만 그릇의 특징, 장식기법, 소재의 변화 과정, 그리고 동시기에 제작되던 백자와의 관계에 대한 개략적인 파악이 가능하다. 15세기 편년자료의 숫자는 백자에 비해 분청사기가 많은데, 당시 관청이나 일상생활에서 분청사기가 주로 사용되고 백자는 상대적으로 소량 제작되어 공납되거나 일부 계층에서만 쓰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분청사기 편년자료는 개국 초기부터 1460년대 사이에 주로 분포하며, 백자는 1450년대부터 16세기까지 밀집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왕실과 관청에서 사용할 백

자의 제작을 전담하던 관요가 설치된 이전과 이후 시기에 따른 제작 경향의 변화로 해석된다.

분청사기 편년자료의 종류는 잔, 대접, 접시, 반을 비롯하여 원통모양 묘지석, 태항아리 등 각종 유물이 알려져 있다. 이 중에는 경승부(1402~1418), 공안부(1400~1420), 인녕부(1400~1421), 덕녕부(1455~1457) 등 관사의 명칭이 새겨진 유물이 다수를 차지한다. 세종대왕의 따님이신 정소공주의 묘에서 출토된 1412~1424년 사이의 <분청사기사이호>를 비롯하여, 온녕군 묘에서 출토된 1454년 <분청사기접시·호>, 월산군의 태호로 1454~1462년 사이에 제작된 <분청사기인화국화문태호>가 대표적이며, 개국 초부터 1460년대 초까지 왕실에서 분청사기를 다수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편년자료를 살펴보면 15세기 초에는 접시나 대접에 상감과 인화장식이 있는 분청사기가 공존하지만 중반에는 인화장식이 많아지는 변화가 확인된다. 이후 후반에는 철화나 귀얄장식으로 대체되

며, 유물의 종류가 묘지석(墓誌石)으로 단순해지고 수량도 이전에 비하여 급격하게 감소한다. 이 시기를 즈음하여 백자에 대한 사대부의 인식과 수요에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예를 들면, 1445년 도순찰사 김종서가 고령에 들러 백자를 보며 칭찬하거나, 1447년 병조판서 이선이 백자를 선물 받은 일로 탄핵되는 등 백자에 관한 다양한 기록이 각종 문헌에 나타나기 시작했다.⁹ 이와 같은 문헌기록은 1440년대에 일부 지배층 사이에서 백자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이후 경기도 광주에 왕실과 관청에서 사용할 백자를 생산하는 관요가 설치되어 본격적인 제작체계를 갖추었다. 조선의 백자는 급속하게 발전하였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지배층 사이에서 동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관요가 설치되고 백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분청사기는 공물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왕실 및 지배층의 관심과 수요에서 멀어져 수요자의 폭과 범위가 더욱 좁아졌다. 결국, 편년자료를 통해본 분청사기는 15세기 중반까지 왕실이나 지배층의 취향에 맞추어 제작되지만 후반부터는 지방 수요에 따른 새로운 장식기법과 소재로 급격하게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16세기에는 세부 장식을 생략하고 당시 유행하던 백자처럼 표면을 하얗게 보이려는 변화를 시도하기도 하지만 끝내 제작이 중단되고 말았다. 분청사기는 백자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제작되고 변화되며 사라졌던 것이다.

일곱 가지 장식기법의 유행과 개성

분청사기는 그릇의 종류도 많지만 장식기법과 소재가 다양한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장식은 그릇 표면에 백토를 얇게 칠하거나 뽀



분청사기상감연화문매병
고려청자의 장식에 유행하던 상감기법을 사용하여 연꽃의 풍경을 소재로 물고기, 학, 연꽃의 모습을 재미있게 표현하였다. 소재의 위치와 크기의 비례가 독특한데, 고려청자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분청사기만의 특징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 15세기, 높이 25.8cm.

족한 도구로 새기거나 칼로 긁거나 도장으로 찍거나 붓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여러 기법을 사용했다. 기법에 따라 각각의 생김새나 분위기가 달라지고 유행하는 시기도 다르며, 제작지에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장식기법은 상감, 인화, 조화, 박지, 철화, 귀얄, 덤병 등 일곱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는 장식방법이나 재료에 따라 종류를 나누고 이름 붙인 것으로 두 가지 이상의 기법이 함께 사용되기도 하였다. 장식기법은 특징에 따라 크게 세 종류로 정리할 수도 있다. 하나는 그릇 표면에 칼이나 도장으로 직접적인 변화를 주고 흠을 채우는 방법이다. 둘째는 표면에 백토를 얇게 발라 장식한 것이다. 셋째는 붓으로 안료를 찍어 그림을 그리거나 덧칠한 것이다. 장식소재는 식물과 동

물 모두 사용되었는데, 물고기, 학, 새, 거북, 용, 어룡, 개, 구갑, 연꽃, 연잎, 당초, 국화, 모란, 버드나무, 초화 등이 등장하며, 이외에 추상적인 선과 문자文字도 확인된다. 소재는 한 가지 혹은 몇 종류를 함께 그리거나 장식했으며 기법에 따라 특징이 분명하고 개성도 뚜렷하다.

분청사기는 시기에 따라 유행이 변화되고 지역에 따른 개성도 나타난다. 고려 말기 전라남도 강진은 대표적인 청자 제작지였지만 해안가에 왜구의 노략질이 늘어나고 치안이 불안해지자, 사기장들이 전국으로 흩어졌고 이후 각지에 소규모 청자가마가 설치, 운영되었다. 조선 개국 이후 1420년대까지도 장식기법이나 소재, 구성은 여전히 고려 말기의 상감청자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특징을 보인다.

상감장식 분청사기는 표면에 음각을 한 후 움푹 파인 부분에 백토나 자토를 채워 장식하는 기법으로 색의 대비에 의해 장식 효과를 낸다. 전국 각지의 가마에서 즐겨 사용되었으며, 물고기, 파도, 학, 새, 버드나무, 거북, 모란, 연꽃, 용 등이 소재로 사용되었다. 대접과 접시를 주로 하여 병, 매병, 호, 합, 자라병, 주자, 장군, 잔이 제작되었고 흑백의 선상감으로 다양하게 장식했다. 매병의 경우, 몸체가 공처럼 둥글고 아랫부분에서 나팔 모양으로 폭이 좁아지다 바닥에서 넓게 벌어지는 형태로 역동적인데, 전체의 비례나 세부 모습, 표현된 문양까지도 고려 말기의 청자매병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인화장식이 많아지고 오히려 상감장식이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변화가 나타난다.

이후 1430년대부터 1460년대까지 인화장식은 절정기를 맞았는데, 이전에 비하여 그릇의 종류와 형태의 변화는 작지만 장식 소재의 크기가 작아지고 장식 사이의 간격이 좁아 더욱 치밀해진다. 인화는 단순한 형태의 문양이 새겨진 도장을 그릇 표면에 찍은 후, 그

분청사기인화국화문호 (왼쪽)
분청사기로만 제작된 전형적인 형태인데 상감기법으로 연잎을 간략하게 장식하고 인화기법으로 작은 국화를 전면에 가득 채웠다. 인화기법으로 상하좌우의 간격을 맞추어 매우 조밀하고 정교하게 장식하여, 인화장식 전성기의 특징이 잘 나타난다.
삼성미술관 Leeum 소장, 조선, 15세기, 높이 35.8cm.

분청사기인화승려문 '경상' 명사이호 (오른쪽)
인화기법이 거칠게 변화된 모습이 잘 나타나는 전형적인 형태의 분청사기호이다. 몸체 곳곳에 몇 줄의 횡선을 대충 그어 문양대를 구획한 후 전면에 인화장식을 했지만 빈 공간이 많고 성글며, 백토도 무심하게 칠한 듯 전체적으로 전성기 인화기법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어께에 '경상(慶尙)' 이라고 새겨져 있어, 15세기 후반 경상도에서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삼성미술관 Leeum 소장, 조선, 15세기, 높이 35.6cm.



흙에 백토를 채워 장식 효과를 내는 기법으로, 넓은 의미로 보아 상감과 동일하다. 전국 각지에서 유행했으며 경상도에서 특히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국화, 동그라미, 꽃잎 등 문양은 몇 종류에 지나지 않으며, 도장으로 반복적이고 조밀하게 표면을 장식한 것이 특징이다. 표면에 내섬시, 장홍고와 같은 관사명을 새긴 예도 있다. 호의 경우, 전체의 비례와 양감이 뛰어나며 표면 가득 장식을 하였는데, 어깨와 저부에 상감으로 연잎을 배치하고 몸체 중앙 전면에 크기가 작은 국화문을 꼼꼼하게 채워 넣어 변화된 장식의 특징이 뚜렷하다.

1466~1468년 사이 경기도 광주에 관요가 설치되면서,¹⁰ 분청사기는 질과 장식기법, 성격 등이 크게 변화되었다. 백지는 눈부시게 발전한 반면 분청사기는 지방의 관아용이나 그 지역의 민수품으로 장식이 변화되고 수요가 줄어들었다. 이후 분청사기의 질과 장식이 거칠어지기도 하며, 한편으로 상감이나 인화장식의 틀에서 벗어나 장식의 표현이 다양해지고 지역별로 서로 다른 기법이 개발되어 개성이 뚜렷해진다. 이 시기에 인화장식은 경상도 등 일부 지역에서 지속되기도 하지만 도장에 새긴 문양의 크기가 커지고 장식의 짜임새나 짙은 상태가 거칠며, 장식이 차지하는 공간도 줄고 백토의 감입도 지저분한 것이 많다.

그러나 전라도에서는 독특한 조형과 미감을 보이는 조화나 박지 기법으로 장식한 분청사기가 새롭게 등장해 유행하였다. 조화는 그릇 표면에 귀얄로 백토를 얇게 칠한 후 그 위에 뽕족한 도구로 그림을 그려 장식하는 기법이다. 윗면의 백토와 그 밑에 드러나는 회색의 태토가 색의 대비를 이루며 장식효과를 낸다. 소재의 선택이 자유로우며 쉽고 빠르게 장식할 수 있다. 연꽃, 모란, 국화, 버드나무, 당초, 물고기, 새, 거북, 게, 개, 추상선 등이 많이 그려졌으며, 동일한 소재라고 해도 각각의 모습과 세부 표현이 서로 달라 재미



분청사기박지연어문편병

몸체가 둥근 병을 만든 후 양쪽면을 납작하게 두드린 전형적인 형태의 편병이다. 표면에 연못 속의 연꽃과 물고기를 조화기법으로 재미있게 그린 후 박지기법으로 배경면의 흰 흙을 긁어 장식이 도드라지게 했다.

호림박물관 소장, 조선, 15세기, 국보 179호, 높이 22.7cm.

있다. 박지는 조화기법으로 그림을 그린 후 소재 배경 면에 남아 있는 백토를 긁어 장식 효과를 내는 기법이다. 흰색의 백토와 회색의 바탕흙이 이루는 색의 대비는 물론 요철에 의해 양각한 듯한 효과도 난다. 물고기, 모란, 연꽃, 당초, 풀꽃 등 생활주변의 소재를 회화적이고 자유분방하며 활달하게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 시기에 제작된 그릇의 종류는 대접, 접시를 비롯해 병, 편병, 호, 장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종류가 주류인데, 특이하게 장식은 대접이나 접시보다 병, 편병, 호, 장군 등에 주로 나타난다. 그 중에도 편병이 많은데, 물레에서 둥근 병을 만든 후 양쪽 면을 두드려 납작하게 만든 것이다. 거친 질감과 투박해 보이는 형태에, 주변에



분청사기철화연지어문장군 (왼쪽)
장군은 술병의 일종으로 분청사기로 다수 제작되었다. 둥글고 너그러운 보이는 형태에 표면에는 귀알로 백토를 어지럽게 칠한 뒤 그 위에 철안료로 새가 물고기를 잡으려는 순간을 묘사하였다. 긴장감 넘치는 장면과 물결을 표현한 빠른 붓질, 강렬한 흑백의 대비가 뛰어나다. 일본 동양도자미술관 소장, 조선, 15세기, 높이 15.4cm.

분청사기귀알문편병 (오른쪽)
비독알을 세운 듯한 몸체에 주둥이와 굽을 따로 만들어 붙였는데, 일반적으로 둥근 병의 몸체를 두드려 만드는 편 병과는 차이가 있다. 귀알로 백토를 이리저리 쓱쓱 칠해 장식하고 말았지만, 대담하고 시원스러운 붓 자국은 현대작품을 연상케 할 정도이다. 삼성미술관 Leeum 소장, 조선, 16세기, 높이 21.5cm.

보이는 물고기나 새, 모란, 연꽃 등 친근한 소재를 자유분방하게 표현하였다. 세부 묘사를 생략하거나 특징만을 극대화시켜 선으로 나타내거나 배경면의 백토를 긁어 개성과 재미가 넘치는 새로운 미감을 만들었다.

한편, 같은 시기에 충청도 계룡산 일대에서는 철안료를 붓에 찍어 그림을 장식하는 철화기법이 성행하였다. 철화는 얇게 바른 백토 위에 산화철을 안료로 그림을 그리거나 칠하여 장식하는 기법이다. 흰색의 바탕 위에 칠해진 검은색 안료가 빛어내는 강렬한 색의 대비와 속도감 있는 붓자국, 거친 질감이 매력적이다. 물고기, 새, 연꽃, 모란, 당초, 풀꽃이 즐겨 그려졌으며, 백토가 충분히 자화(磁化)되지 않아 표면 일부가 벗겨진 것도 있다. 충청남도 공주 학봉리 계룡산 일대에서 주로 제작되어 ‘계룡산 분청사기’ 라고도 불린다. 대접과 접시, 병, 호 등이 많이 만들어졌으며 붓을 활용했기 때문에 회화적인 표현이 더욱 뛰어나다. 특히 흰색과 검은색이 빛어내는 강렬함과 빠르게 움직인 붓의 흔적은 다른 기법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미의 경지를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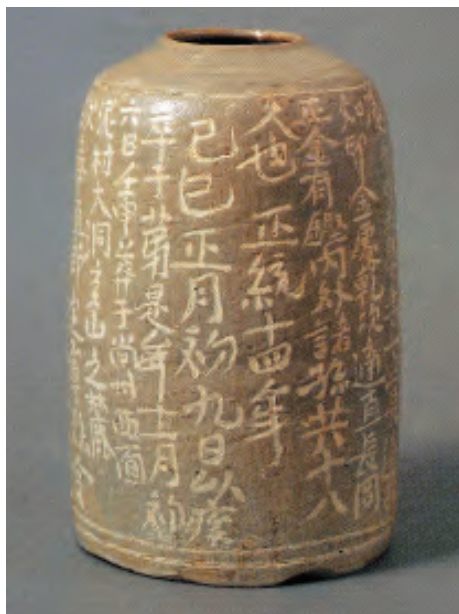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전반 사이 분청사기는 그릇의 종류가 줄

어늘고 장식이 더욱 간략해진다. 지역적인 개성을 보이던 장식도 변화되어 그릇의 일부 혹은 전면에 귀얄로 그릇 표면에 백토를 살짝 칠하는 정도로 마무리되었다. 귀얄기법은 풀을 바를 때 쓰는 넓은 붓인 귀얄로 백토만을 얇게 바른 것이다. 회흑색 바탕에 이리저리 빠른 속도로 백토를 칠할 때 나타나는 붓 자국의 굵고 가는 질감과 속도감, 그리고 색의 대비가 특징이다. 조화나 박지, 철화장식을 하기 위해 백토를 곱게 바르던 것과 다르게 귀얄기법은 흙을 대충 바른 듯 쓱쓱 칠하거나 장식 효과를 고려한 때문인지 붓 자국이 선명하고 힘찬 것도 있다.

귀얄장식이 꾸준히 사용되는 한편, 이전에 비하여 덩빙기법으로 표면에 백토만을 곱게 씌운 분청사기의 제작량이 증가한다. 덩빙은 그릇의 굽을 잡아 거꾸로 들고 백토를 탄 물에 담갔다가 꺼내어 표면을 흰흙으로 얇게 씌워 장식하는 기법이다. 백토물에 담갔다가 꺼내어 덩빙 혹은 담금이라고 하며, 분장이라고도 부른다. 고르게 백토가 씌워지므로 언뜻 보아 조선 전기의 백자와 비슷한 시각적인 효과를 낸다. 그러나 외면만 백자와 유사해 보일 뿐 수요자들이 선호하던 백자는 아니었으며, 서서히 설 자리를 잃어갔다. 따라서 분청사기의 제작이 완전히 중단된 시기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분명한 것은 16세기 후반에 이미 백자의 사용이 확대되고 수요가 증가하며 전국 각지의 가마에서 백자를 제작했다는 사실이다. 분청사기는 16세기 중반을 전

분청사기분청문잔 및 받침
표면에 백토를 얇게 씌워 백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곳곳에서 분청사기의 어두운 흙이 드러나 보인다. 잔과 잔받침의 형태는 조선초기에 제작된 백자에서 발견되는 것과 매우 유사하지만, 세부 표현이 약간 거칠다.
삼성미술관 Leeum 소장, 조선, 16세기, 높이7.9cm.





분청사기상감원통형묘지석
 분청사기 묘지는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었는데, 이 유물처럼 원통모양의 경우도 드물게 발견된다. 묘지의 인쪽은 비어 있고 뒷면에 둥근 구멍을 뚫어 제작 과정에서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표면에 백토를 상감하여 묘주의 행장을 새겨 넣었는데, 그 내용은 역사 연구의 자료로 사용되기도 하고 분청사기의 제작 경향을 규명하는 연구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삼성미술관 Leeum 소장, 조선, 1449년, 높이 20.8cm.

후하여 제작이 중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양한 기법으로 장식한 일상용기 외에 각종 의식에 필요한 분청사기도 다수 제작되었다. 다양한 제례의식에 필요한 제기, 아기의 태를 담아 위치 좋은 곳을 선정하여 땅 속에 매장하는 데 사용했던 태항아리, 그리고 묘 주인공의 행장을 간략하게 기록한 묘지석 등이 그것이다. 태항아리는 몸체와 뚜껑을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고정시킬 수 있도록 어깨에 네 개 정도의 작은 고리를 부착하였으며, 표면을 상감이나 인화, 조화와 박지기법으로 장식하였다. 이외에 묘지석은 왕실에서 장방형의 석제 묘지석을 사용하는 규식이나 선례에 영향을 받아

유행했는데, 원통, 사각기둥, 세숫대야, 위패 모양, 납작한 사각판형 등 크기와 형태가 다양하다. 이 중에서도 분청사기로 제작된 위패 모양 묘지석은 고려의 불교문화가 반영된 것으로 제례나 장례의식을 중히 여긴 유교문화의 결합을 보여 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¹¹

전국에 남아 있는 제작지

분청사기를 제작하던 가마터는 중부와 남부지방에서 주로 발견되며, 북부지방에도 가마가 소수 설치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종 조사결과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등지에서 가마터가 다수 확인되었는데, 1424년부터 1432년의 조사 기록인 『세종실록지리지』에 보이는 도자기 제작지의 숫자가 중부와 남부지방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과도 부합한다.¹²

이러한 현상은 연료인 땀나무 및 재료인 흙의 조달과 연관이 있

으며, 분청사기의 소비지와도 관계가 있다. 현재까지 분청사기 가마터가 발견된 지역은 경기도 강화·양주·광주·안성·여주·용인·안성·가평·연천·충청북도는 충주·진천·괴산·보은·옥천·영동, 충청남도는 서산·아산·천안·예산·연기·청양·공주·보령·부여·대전·대덕, 전라북도는 완주·김제·진안·부안·고창·임실, 전라남도는 영광·장성·담양·곡성·함평·광산·광주·화순·



충청남도 공주시 학봉리 분청사기 가마터 1992년과 1993년에 걸쳐 발굴된 분청사기 가마터의 일부 모습이다. 상감과 인화장식이 있는 분청사기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특히 '계룡산 분청사기'로 불리기도 하는 철화장식이 있는 각종 파편이 다량 출토되어 유명하다.

무안·나주·영암·장흥·강진·고흥·해남, 경상북도는 문경·예천·상주·의성·칠곡·경주·고령·경산·청도, 경상남도는 울주·울산·밀양·산청·진주·양산·광산·진해·김해·부산·통영·하동, 강원도는 철원·횡성·강릉 등이며, 조사가 거듭될수록 발견되는 지역이 넓어지고 그 수도 증가하고 있다.

가마터는 1980년대를 시작으로 근래 더욱 활발하게 지표조사와 발굴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방대한 양의 자료가 수집되고 지역적인 분포와 특징도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현재까지 발굴된 가마터 중에 대표적인 몇 곳을 살펴보면, 충청남도 공주군 반포면 학봉리 가마터는 1927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발굴되었다가, 이후 1992년 국립중앙박물관과 호암미술관에 의하여 재발굴이 진행된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¹³ 가마는 길이 19~42m, 너비 1~2.3m의 등요登窯였다. 학봉리 가마터는 철화분청사기의 제작지로 유명하며, 연록, 미백, 연갈색의 유색에 물고기, 연꽃, 당초를 그

린 병이나 항아리가 많다. 또한 인화와 귀얄장식의 분청사기도 함께 제작되었다. 철안료로 ‘성화 23년(1487)’, ‘홍치 3년(1490)’, ‘가정 15년(1536)’의 글자를 적은 묘지석 파편이 출토되기도 했다.

전라남도 광주시 북구 충효동 가마터는 1963년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해 부분 발굴이 진행되고 1991년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전면 발굴을 시행했다.¹⁴ 모두 4개의 가마가 출토되었고 그 중 2호 가마는 길이 20.6m, 너비 1.3m의 등요였다. 이곳에서는 회록, 회갈, 암록 등의 유색을 띠는 대접, 접시, 마상배, 합, 뚜껑, 매병, 병, 편병, 장군, 항아리, 벼루, 보와 같은 제기 등이 출토되었다. 상감, 인화, 조화, 박지, 귀얄 등 여러 기법으로 국화, 나비, 모란, 물고기, 연꽃, 새, 동물을 장식했다. ‘광光’, ‘공公’, ‘산山’, ‘정윤이丁閔二’ 등 제작지나 제작 시기를 의미하는 다양한 글자가 확인되었고, ‘성화정유成化丁酉’의 문자가 있는 묘지석 파편이 출토되어 운영 시기를 추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전라남도 고흥군 운대리 가마터는 2000년부터 2001년 사이 국립광주박물관에 의하여 발굴되었다.¹⁵ 2000년에 발굴된 가마터에서 길이 21m, 너비 1.3m의 등요와 분청사기 및 소수의 백자가 출토되었다. 분청사기는 회록, 회청, 미백의 유색이 많고, 상감, 인화, 조화, 귀얄, 덩병 등 다양한 기법으로 승령, 연관, 국화를 장식한 대접과 접시, 잔, 합, 병, 호 등이 발견되었다. 2001년에 조사된 가마터에서는 3개의 가마가 확인되었는데, 그 중 1호 가마는 길이 24.4m, 너비 1.2~1.6m의 등요로 역시 진흙을 재료로 축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분청사기만 출토되었는데, 회록, 회청, 미백의 유색이 많고 상감, 인화, 귀얄기법으로 우점, 연관, 승령, 국화, 나비, 조화, 모란, 연주를 장식하는 등 전라도지역의 제작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16세기 분청사기의 제작경향이 뚜렷하게 확인된 곳이 경상남도

진해시 웅동면 두동리 가마터인데, 2001년 경남발전연구원에 의해 발굴되어 가마와 다량의 분청사기, 그리고 소량의 백자가 출토되었다.¹⁶ 2호가마는 잔존 길이 24.5m, 너비 1.3~1.9m로 돌과 진흙을 이용해 축조한 등요였다. 암회색, 연회색, 갈회색의 유색을 보이는 귀얄분청사기가 대부분이지만 인화기법으로 우점이나 선 등을 장식한 예도 많으며, 대접, 접시, 잔, 마상배, 병, 항아리, 제기 등 주로 일상용기를 제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출토품 중에는 일본 다인들이 선호하던 이도다완과 유사한 유물이 많아 주목받기도 했다.

한편,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화심리 가마터가 2005년 전북문화재연구원에 의해 발굴되었다. 분청사기를 굽던 가마를 비롯해 받, 접시, 호, 잔, 병, 장군, 합, 뚜껑, 제기 등 다양한 종류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가마는 길이 33.4m, 너비 1.3m의 크기이고, 그릇의 표면에는 인화장식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상감장식도 사용되었다. 그리고 대^大, 봉^峯, 국^國봉^鳳, 막^莫생^生, 막^莫삼^三 등 여러 명문과 함께 내^內瞻^瞻의 관사명이 있는 예도 확인되었다.¹⁷

02.

왕실 백자의 제작지, 경기도 광주

경기도 광주 일대는 사용원이 관리하는 관요가 설치되어 조선 말기까지 왕실과 관청에서 사용할 백자를 제작했던 곳으로 유명하다. 사용원은 어선을 바치거나 궐내에 음식 제공하는 일을 담당했지만, 관요 설치를 즈음하여 역할이 확대되어 왕실 및 관청용 백자의 제작을 주관하였다.

관요를 광주에 설치한 이유는 기록이 전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수도 한양과 가까운 거리에 있고 연료로 사용할 땀나무가 무성하며 강을 끼고 있어 수로를 통한 물자의 운송이 가능했기 때문일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요의 운영과 관리

광주에는 300여 곳에 가마터가 남아 있으며 설치 시기에 따라 분포지역이나 가마의 이설, 가마의 수에 차이가 있다. 퇴촌, 중부, 광주, 초월, 도척, 실촌, 남종 등 7개의 시와 읍, 면에서 고루 발견되

며 해발 고도 50~185m 사이에 설치되었다.¹⁸ 가마터의 수는 15~16 세기에 설치된 곳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수요 증가에 비례하여 제작량이 늘었던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들 가마터의 분포상황을 보면, 광주 중부와 북부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수가 집중되어 있다. 또한 한강과 접하는 비교적 커다란 계곡의 물줄기를 중심으로 수목이 무성한 곳을 택해 설치된 특징이 나타난다.

관요 설치 이전 광주에서는 분청사기와 함께 백자도 제작되었다. 『세종실록지리지』 토산조에는 광주 7곳에 도자소가 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1425년 세종대왕의 명에 따라 중국 사신 윤봉에게 줄 ‘백자장군’을 만들 정도로 수준 높은 제작능력과 기술이 갖추어져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1442년부터 6년간 김숙자(1398~1456)가 고령현감으로 있을 때 사기장에게 사기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세공하던 백사기의 질이 광주보다 훌륭해졌다는 『점필재집』의 기록에서도 확인되는데, 최고 품질의 백자를 비교할 때 광주를 언급한 것이 주목된다. 기록에서는 광주와 남원, 고령에서 해마다 백자를 진공했다고 하였는데, 관요설치 이전에 운영된 광주 우산리 가마에서 ‘인仁’, ‘사司’ 등 관사명 파편과 궁중 소용을 의미하는 ‘내용內用’ 명이 있는 백자 파편이 발견되어 당시의 상황을 짐작하게 한다.¹⁹

관요는 1466~1468년 사이 설치되어 일정한 운영체계에 따라 백자를 제작했다. 설치 이후부터 16세기까지는 ‘사기소’ 혹은 ‘사용원 사기소’로 불렸으며, 17세기부터는 사용원의 지점이라는 의미의 ‘분원’이라는 명칭이 주로 사용되었고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다. 관요 설치와 사용원의 운영은 국가의 새로운 요업체계 확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백자 ‘사(司) 명파편
 사용(司囊) 혹은 사선(司膳)을 의미하는 명문이 인쪽 바닥 중앙에 새겨져 있어, 관요설치 이전에 광주 가마에서 제작되어 관청에 공납되던 백자인 것을 알 수 있다.
 해강도지미술관 소장, 조선, 15세기, 우산리 17호 출토.



조선백자의 흐름을 왕실과 관청에서 주도하는 계기가 되었고 백자가 조선시대에 가장 중요한 도자공예품으로 자리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관요의 운영과 관리는 사용원 관리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왕실용 자기의 제작을 감독하던 실무 책임자는 관요 설치 이전과 이후에 차이가 있다. 물론 관요 설치 이전에도 조선 조정의 관리와 감독을 받았는데, 예를 들면, 1411년 “내수 안화상을 경상도 중모, 화령 등의 현에 보내 화기 만드는 것을 감독하게 했다” 는 기록에서 확인된다.²⁰ 그런데 『고려사』 에도 “사용이 매년 사람들을 각도에 파견해 내용 자기의 제작을 관리하고 감독한다” 고 나타나므로,²¹ 전국 도자소에 관리를 파견해 왕실용 자기의 제작을 감독하던 고려 말기의 제작 체계가 수십 년이 지난 조선초기에도 꾸준히 행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왕조가 바뀌었지만 왕실용 자기를 제작, 관리하는 방법에는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²²

조선초기에 전국 도자소에 파견된 관리는 내수 안화상을 비롯한 내시였는데, 이러한 운영체계는 늦어도 고려 말기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조선 개국 후에도 계속되었지만 내시의 관리, 감독이 언제까



광주 분원리 번조관 공덕비

광주 남종면 분원리 분원초등학교가 위치한 곳이 1752년~1884년까지 관요가 운영된 분원 가마터이다. 운동장 한쪽에 흩어져 있던 번조관의 공덕비를 모아 나란히 전시하고 있다. 번조관의 이름과 업적 등을 칭송하는 글귀가 간단하게 새겨져 있다.

지 지속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그렇지만 관요 설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용원 관리가 감독하는 체제로 변화된 것은 분명하다.

관요에서 실무를 감독하던 사용원 관리를 ‘번조관^{燔造官}’이라 불렀다. 『동국여지승람』이나 『용재총화』에는 ‘사용원관’으로 표기되어 있을 뿐이어서 언제부터 ‘번조관’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1540년 “사용원 봉사 한세명은 지금 사기번조관으로 외람된 것을 많이 저질렀다”고 하는 기록에서 비로소 나타난다.²³ 즉, 관요를 관리하기 위해 종 8품 봉사가 번조관으로 파견되었던 것이다. 관요 설치 이전 내시는 전국 도자소에 내려가 왕실용 자기 제작을 감독하는 것이 임무였지만, 관요 설치 후 번조관은 왕실 및 관청용 자기 제작의 관리와 감독은 물론, 가마운영, 화원의 인솔, 사기장 관리까지 맡는 등 역할에 변화가 생겼다. 번조관이 관요에서 얼마동안 체류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매년 사용원 관리를 관요에 파견하며 좌우변으로 나누어 봄부터 가을까지 백자를 제작, 감독하여 어부에 수납한다”는 『용재총화』의 기록으로 보아 결빙기인 2~3개월을 제외하고 장기간 상주했으며, 이것은 380명의 사기장도 마찬가지였다.

사기장들은 번조관의 성품에 따라 일희일비했다. 예를 들면, 사용원 봉사에 관한 기록에서 “사기번조관으로서 사기장에게 외람된 것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데리고 있는 장인들에게 사적으로 쓸 사기를 일률적으로 얼마씩 징납했습니다”라고 하는 등 번조관이 직분에서 벗어나 관요백자를 강제로 빼돌리는 부조리도 행해졌다. 번조관의 횡포는 사기장들을 관요에서 이탈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도 초래했다. 관요 설치 후 수십 년이 지나 관요 사기장들이 본격적으로 이탈을 하게 되는데, 일도 힘들었지만 번조관의 전횡에도 원인이 있었다.

사기장은 사용원 소속으로 매년 380명이 관요에서 왕실과 관청

『경국대전』의 사기장

각 관사에 소속된 장인의 종류와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 사기장 380명이 경공장으로 사용원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工員										
沙器匠 ¹³³	炭匠	紡織匠	花匠	紙匠 ¹³⁴	瓷匠	木匠	雕刻匠	鑄匠	刻字匠 ¹³⁵	
				四		二	八	一八	十四	
三百八十										
	二	三十	二		八					
	二	三十			八					
					八					

匠員										
印出匠 ¹³⁶	均字匠 ¹³⁹	治匠		木樨匠 ¹³⁸	草染匠 ¹³⁷	紡織匠 ¹³⁵	鍊絲匠 ¹³⁴	鑄匠 ¹³⁴	洗踏匠 ¹³⁸	
二十	四十	六	【被書匠】	四	六					
			【司藥匠】							
			【內資寺】							
			【內贖寺】		四	二十	七十五	十四	八	
			【司議寺】				二			

용 백자를 제작하였다. 관요 설치를 전후하여 지방 제작지에서 질이 좋은 자기를 만들던 장인들을 선별하여 대규모로 사용원 소속 경공장으로 편성하고 역을 지게 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사기장들이 속해 있거나 운영하던 지방 제작지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유능한 장인이 사용원 소속 사기장이 되면서 전국 각지의 자기 제작은 줄어들었다.²⁴ 또한 매년 일정한 양의 자기를 수납했던 국가가 이를 줄이거나 없애 전국적 제작지는 살아남기 위해 민수용 도자기의 제작에 힘써야 했다. 즉, 관요백자는 빠르게 발전했지만 지방의 제작지는 그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며 제작되던 분청사기는 질과 장식기법이 크게 변화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매년 사용원의 관리가 어기를 제작한다”는 『신증동국여지승람』 광주목조의 내용으로 보아도 관요 설치 후 관리를 파견하는 등 왕실과 관청용 백자는 나날이 발전했다. 이 과정에서 380명의 사기장이 어떻게 역할을 분담했고 대규모의 인원을 어떠한 체제로 운영했는가에 대한 조선초기의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비록 후대이지만

1625년 『승정원일기』에는 “호와 봉족을 합해 1,140명이던 분원의 사기장이 해마다 핑계를 대고 도망해 겨우 821명만이 남아 있다”고 적고 있어 사기장의 운영은 ‘분삼번입역제(分三番入役制)’가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²⁵ 그러나 1,140명 정원이었던 사기장은 힘든 작업과 번조관의 전횡으로 이미 16세기 초반 소속에서 이탈하기 시작했다. 이후 17세기 전반에는 821명으로 줄었고, 19세기 후반 관요의 규모와 규정을 기록한 『분주원보등』에는 총인원이 552명으로 되어 있어 관요의 인원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관요에서 백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인 백토와 땔나무의 공급이 중요한 문제였다. 백토는 16세기에 “사기를 만드는 백점토는 이전에 사현이나 충청도에서 가져다 썼지만 지금은 양근에서 파다 쓴다”는 기록이 있고,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에는 양구, 봉산, 진주, 선천, 충주, 경주, 하동, 곤양 등지에서 상황에 따라 채취하였다. 이와 아울러 18세기 중반에는 “사용원 번조사기의 원료로 광주, 양구, 진주, 곤양 등지의 백토가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 등 광주에서도 질이 좋은 백토가 채취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²⁶

한편, 백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자기 제작에 소용되는 땔나무(燧木)의 조달이었다. 관요는 백자 제작에 필요한 연료인 땔나무를 구하기 위해 숲이 울창한 지역을 조정에서 분할받아 그 곳에서 나무를 채취해 사용했다. 땔나무 조달은 관요 운영이나 가마 이설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였고, 현재 광주에 수많은 가마터가 산재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당시 관요 이설에 주기가 있었던 것인지, 있었다면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 수 없다. 후대 기록인 1676년

백지음각간지명대접파편
담청색의 유약이 씌워진 백자 파편으로
굽 안쪽 바닥에 간지 등 명문이 쓰여 있
다. 간지를 통해 정확한 제작 연도를 확
인할 수 있으며, 파편이 발견되는 가마터
의 운영 시기와 제작 경향을 확인할 수
있어 도자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조선, 17
세기, 광주 선동리 2호 가마 출토.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대략 10년이 주기였다. 기존에 발굴된 관요 중에서 운영 시기가 확인된 대표적인 곳이 선동리 2호 가마인데, 이곳에서 간지가 적힌 백자 파편이 다수 출토되었다.²⁷ 간지는 10년 분(1640-1649년)으로 관요가 땀나무 수급 때문에 약 10년을 주기로 이설했다던 문헌기록의 내용이 확인되었다. 즉, 관요는 연료인 땀나무가 고갈되면 이설했으며, 한 곳의 제작 기간이 일정하지 않지만 대략 10년이 주기였던 것이다.

가마의 주기적 이설은 1752년까지 계속된 후, 이후에는 현재의 남종면 분원리에 가마를 고정하고 땀나무를 운송해 사용하는 방법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가마의 이설주기가 반드시 지켜지지는 않았으며 경우에 따라 12년 동안 지속되거나, 혹은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설치되기도 했다. 현재까지 조사된 관요 중에 구체적인 설치 기간이 파악된 곳은 일부에 불과하지만 기록을 통해 살펴본 것과 같이 설치 시기가 불규칙한 경우도 확인된다. 현재까지 가마가 10년 정도 운영된 곳은 선동리와 송정리 등 소수 확인될 뿐이며, 오향리나 금사리 가마와 같이 주기가 지켜지지 않고 더욱 짧거나 길게 가마가 운영된 곳도 다수 존재한다.

관요의 성격과 가마 구조

관요가 설치된 1466~1468년부터 이설을 멈추고 현재의 남종면 분원리에 고정된 1752년까지의 기간을 모두 합하면 약 280년이다. 여기에 기록이나 발굴에서 확인된 가마의 이설주기가 대략 10년 이므로 관요는 모두 28번 정도 옮겨 설치된 셈이 되며, 다시 관요의 숫자를 이설횟수로 나누면 10년을 주기로 한 지역에 설치된 가마의 수를 추정할 수 있다. 물론 이 숫자는 전체의 현상을 살펴보기



백자대접 · 잔파편

관요에서는 양질과 조질백자를 함께 제작하였지만, 제작방법이나 질, 형태, 유약의 색깔, 굽의 모양, 받침재료 등에 차이가 분명하다. 흰색을 띠는 양질백자는 굽의 지름이 크고 역삼각형으로 고운 모래를 받쳐 구운 흔적이 있으며, 조질백자는 굽의 두께가 두껍고 깎음새가 거칠며 흙을 받침 재료로 사용했다.

조선, 15~16세기, 광주 가마터 수습.

위해 현재까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평균치임을 전제로 하는데, 10년에 대체로 8개를 전후하여 가마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상정된다. 그런데 발굴된 가마터들은 가마 벽이나 구조물, 퇴적에서 출토되는 파편의 양과 특징 등으로 보아 최소한 몇 년 이상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마는 매년 순차적으로 축조된 것이 아니라 일정 개수가 동시에 공존했던 것을 알 수 있다.²⁸

조선 전기의 가마터에는 백자의 질과 형태, 세부의 마무리가 매우 좋은 파편도 있지만 대조적으로 질과 세부의 마무리가 좋지 못한 백자가 더욱 많이 발견된다. 즉, 양질백자를 제작하던 가마와 조잡한 질을 주로 만들었던 곳으로 대별되는데, 이것은 양질백자를 제작하는 가마와 상대적으로 조질품을 만드는 여러 개의 가마가 동시에 설치되어 운영된 것을 의미한다. 가마터는 백자의 질과 세부의 특징, 그리고 갑발의 존재 여부 등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다시 말해 갑발로 백자를 제작한 가마터에서는 왕실용 백자 파편이 출토되지만, 조질백자를 만들던 가마터에서는 갑발이 발견되지 않는다.

중국 강서성 경덕진 주산지구
관요지 전경

최근 발굴된 중국 명나라 15세기 후반에 운영된 경덕진 관요의 모습이다. 유자광이 입부(立釜)라고 표현한 가마로 벽돌을 재료로 쌓았으며, 광주 관요에서 사용하던 와부(臥釜), 즉 등요의 모습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중국, 15~16세기, 길이19.0×8.7, 현재 높이0.5~1.66m.



광주 번천리 5호 가마터 전경

원만한 경사면을 이루는 등요로 가마의 끝부분이 파손되어 정확한 전체 길이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주변에 공방터가 함께 발굴되었고, 1554년 제작된 백자 묘자석이 함께 출토되어 조선전기 도자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조선, 1554년 전후, 현재 길이 23.0 너비 1.7~2.2m. (사진: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번천리 5호 발굴보고서)



현재까지 발굴된 조선 전기의 가마 구조는 두 종류의 가마 사이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 실례로 1550년대 동 시기에 운영된 번천리 9호와 5호 가마가 있다. 번천리 9호에서는 왕실용 백자인 ‘천지현 황天地玄黃’의 명문이 새겨진 파편과 갑발 등이 발견되고, 200여 m

떨어진 번천리 5호에서는 명문이나 갑발이 출토되지 않고 그릇을 포개어 쌓아 굽는 방법을 사용해 상대적으로 질이 좋지 못한 백자를 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²⁹ 이 두 가마는 관요의 설치와 운영방법, 성격을 대변하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관요는 일정 시기에 왕실용 최상질 백자를 제작하던 1~2곳과 관청용으로 다량의 그릇을 만들던 6~7곳이 동시에 작업했던 것이다.

광주의 가마는 공간구성과 크기에 차이가 있지만 모두 완만한 경사면에 터널 모양으로 축조된 등요이다. 물론 일부 가마만이 발굴되었으므로 향후 전혀 다른 구조가 나타날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다. 1493년 사옹원제조 유자광이 광주의 백자 가마는 와부畠釜인데, 제작 과정에서 그릇이 변형되거나 잘못되는 예가 많으므로 실패율이 낮은 중국의 입부立釜로 대체하자고 임금에게 아뢰었던 사실이 있다.³⁰ 그런데 발굴결과 15세기는 물론 16세기 중반에 운영된 번천리 9호와 5호 가마는 모두 와부, 즉 등요로 확인되었다. 기술 혹은 축조 재료에 원인이 있었는지 혹은 와부의 단점을 개선할 수 있었던 때문인지, 중국식 입부를 세우려던 계획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관요의 구조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다른 하나가 조선 후기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이희경(1745~1805)의 기록이다. 연암 박지원의 제자였던 이희경은 『설수외사』에서 “분원을 지날 때 자기 굽는 것을 본

광주 번천리 9호 가마터 평면도
가마터에서 질이 좋은 왕실용 백자와 갑발이 다량 출토되었다. 가마는 등요로 연료인 나무를 때는 아궁이 부분이 오래 전 하천 정비공사로 파괴되었다. 1552년 제작된 묘지석과 청화백자 등 다양한 종류의 백자가 발견되었다.
(도면: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번천리 9호 발굴보고서)

적이 있는데 모두 와요였다” 고 적고 있으므로, 이들 기록을 종합하면 관요는 15세기는 물론 19세기까지도 변함없이 와요가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사이에 운영된 광주 분원리 관요밭굴에서도 등요가 출토되어 기록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까지 발굴된 조선전기의 관요는 모두 등요이며, 구조 파악이 어려운 것을 제외하고 다수가 하나의 방처럼 꾸며진 단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10~15도 정도의 구릉이나 경사면에 앞이 낮고 뒤가 높게 축조하여 불길이 잘 빠지도록 만들었다. 가마는 터널모양으로 천장의 구조가 돔형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없어 가마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길이는 26~27m 내외이지만 차이가 있고 너비는 1~2.2m로 운영 시기가 경과하며 뒤쪽이 약간 넓게 벌어지는 경향이 있어 가마의 아래쪽과 뒤쪽 너비의 편차가 커지기도 한다.

가마를 약간 경사지게 하고 앞쪽에 비해 뒤쪽의 폭을 좀 더 넓게 만드는 것은 가마 속에서 불길이 원활하게 빠져 나갈 수 있도록 만든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가마가 조금씩 변화되며 가마 중간에 2개 정도의 불기둥(停焰柱)이 설치되었는데, 불길이 한쪽으로 몰리지 않게 분산시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한 새로운 시도였다.³¹

백자의 제작량과 요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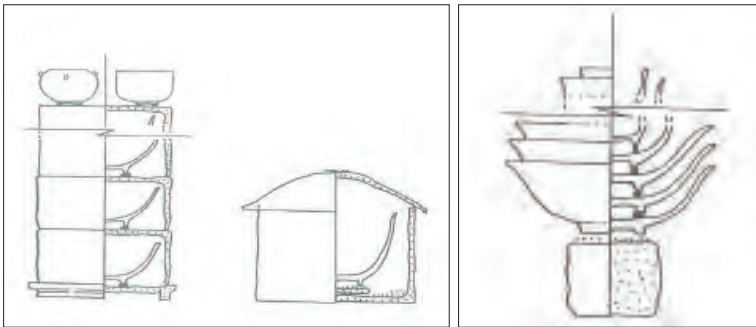
자기를 굽기 위해 가마 안에 그릇을 쌓는 재임방법은 백자의 성격과 질에 따라 달랐다. 재임은 크게 두 가지로 그릇에 갑발을 씌워 불길이나 재티로부터 보호하는 갑번(匣燔)과 그릇의 종류나 크기가 다른 몇 개를 포개어 쌓아 가마에 그릇을 그대로 노출시켜 굽는 상

번常燔으로 나누어진다. 채임방법은 백자의 질이나 가마의 성격을 대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 갑번은 왕실용 백자의 제작에 사용되었으며 도마리 1호, 우산리 9호, 번천리 9호 등에서 확인되고, 상번은 관청용 백자제작에 주로 채택되었고 번천리 5호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각각의 채임방법은 백자의 제작량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갑번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산리 9-3호 가마의 발굴결과 갑발을 세워 가마바닥에 한 단으로 배열한 후 그 속에 한 점의 백자를 넣고 위에 삿갓모양의 뚜껑을 씌워 구웠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마에 그릇을 놓았던 공간의 크기만 알면 관요에서 한 번에 어느 정도의 백자가 제작되었는지 추정이 가능하다. 우산리 가마는 그릇을 놓아 굽는 번조실의 총길이가 16m, 너비는 평균 1.7m이며, 이곳에서 출토된 갑발의 지름이 20~30cm이다. 따라서 단순하게 계산하면 번조실 길이 16m×너비 1.7m 공간에 대략 지름 20cm 갑발인 경우 80×8줄인 640개, 30cm 갑발인 경우 53×5줄인 265개를 구운 셈이다. 그러나 실제로 갑발 위에 씌워지는 뚜껑의 지름이 갑발보다 약간 크고 갑발을 놓는 사이마다 약간의 간격이 있으며 불기둥이 차지하는 공간 등을 고려하면, 계산보다 적은 수량이 구워졌을 것이다.

갑발을 사용하지 않고 그릇만을 포개어 쌓아 굽는 상번은 관청용

갑번 (왼쪽)
고려시대 갑번(왼쪽) 조선시대 갑번(오른쪽)
왕실용 백자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갑번이라 하는데, 흙으로 원통 모양의 도구인 갑발을 만든 후 그 속에 백자를 넣고 삿갓 모양의 갑발뚜껑을 씌워 바닥에 한 단만 놓아 굽는다. 백자의 표면에 이물질이 붙지 않아 깨끗한 그릇을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번 (오른쪽)
관청용 백자나 지방가마에서 백자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백자를 크기에 따라 몇 개를 포개어 쌓아 저렴한 비용으로 한 번에 많은 양을 제작할 수 있다. 이물질이 붙고 그릇에 받침흔적이 남으며 굽는 과정에서 쓰러지거나 하여 불량이 생길 경우 주변의 그릇에 영향을 주는 단점이 있다.
(도면: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우산리 9호 발굴보고서)



건업리 백자 각종

발과 접시, 잔 등 일상 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종류가 주로 제작되었다. 질은 대체로 좋지 못하는데, 흙에 미세한 잡티가 섞여 있으며, 가마 안에서 그릇을 포개어 쌓아 놓고 구워 표면에 지저분한 자국이 남아 있는 것이 많다. 해강도지미술관 소장, 조선, 15세기, 건업리 2호 출토.

백자를 제작하던 다수의 가마에서 사용되었다. 그릇을 포개어 쌓은 경우에도 1회 제작량을 대략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가마의 크기와 그릇을 포개어 쌓은 수에 따라 제작량이 크게 달라진다. 그릇을 포개어 쌓았던 최대의 개수가 가마터에서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광주 건업리 2호 가마의 경우, 발, 접시, 잔이 평균적으로 3~4점 포개어 구워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건업리 가마는 일부가 파괴되어 전체 규모를 확인할 수 없지만, 1m 단위로 제작량을 단순하게 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곳에서 출토된 백자발의 평균 입지름이 15.5cm 이고 가마의 너비가 1.2m이므로, 이 둘을 나누어 보면 가로 한 줄에 최대 7.7개, 세로 한 줄에 6.5개의 그릇을 재입할 수 있었다. 따라서 1m의 공간에 최대 50개 정도의 백자를 놓을 수 있었으며, 여기에 3단으로 포개구이할 경우 150개, 4단일 경우 200개를 동시에 구울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갑번에 비하여 보다 많은 수량을 제작할 수 있었던 것인데, 굽는 과정에서 실패할 확률도 그 만큼 높았다.

갑번이나 상번으로 백자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각종 받침을 비롯해 몇 종류의 도구가 필요한데, 이들을 요도구라 부른다. 관요에서는 가마 바닥과 퇴적에서 백자 파편과 함께 요도구가 다수 발견된다. 요도구는 갑발과 받침류로 나눌 수 있는데, 갑발은 왕실용 백자를 제작했던 가마터에서 다량 출토된 바 있다. 형태는 높이보다 입지름이 큰 원통형으로 높이 10~20cm, 너비 20~30cm, 두께 1~2cm가 대부분이다. 받침류는 형태와 크기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원주형圓柱形과 원반형圓盤形이다.

원주형 받침은 관요 설치 이전에 운영된 가마에서 주로 발견되는

데, 높이 9.7~15.1cm, 윗면지름 8.8~15cm, 바닥지름 8.6~10cm 정도이다. 대체로 높이가 높고 윗면이 약간 넓은 것이 특징으로 시간이 경과하며 전체 크기가 약간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원반형 받침은 높이 1.6~4.7cm, 입지름 8~15cm가 대부분으로 매우 납작하며, 관요에서도 출토되지만 크기나 형태에서 원주형과 원반형의 차이가 모호한 것이 많아진다.

16세기 초에 왕실용 백자를 제작한 도마리 1호에서는 원주형 받침의 경우, 높이 3.8~12.2cm, 입지름 4.6~11.4cm 크기가 발견되었고, 원반형은 높이 1.2cm 내외, 입지름 8.7~14.2cm로 낮고 넓은 크기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16세기 중반 왕실용 백자를 만들던 변천리 9호에서는 변화된 양상이 나타난다. 이전에 사용되던 원주형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원반형은 높이 0.6~6.6cm, 입지름 4.4~17.8cm로 높이가 낮고 입지름이 작은 것에서부터 전체의 크기가 매우 큰 종류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관요 설치 이전에 사용되던 원주형은 관요 설치 이후 높이가 낮아지는 변화를 보이다가 16세기 중반 경에는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원반형 받침도 관요 설치 이후에는 높이가 더욱 낮아져 매우 납작



원주형 받침
원주형 받침을 가마 바닥에 세워 놓고 그 위에 그릇을 올려 굽는데 사용한 도구의 일종이다. 높이와 너비는 올려놓는 그릇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시간이 경과하며 높이가 낮은 원반형 받침의 사용이 주류를 이룬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 1505년 전 후, 도마리 1호 가마터 출토.



원반형 받침

16세기에 많이 사용되었으며, 가마 바닥이 놓은 후 그 위에 그릇을 올려 굽부분에 지지분한 모래나 흙이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는 데 사용하던 요도구의 하나이다. 납작한 원반형이므로 적당한 높이를 필요로 할 경우 몇 개를 포개어 쌓아 올린 후 그릇을 놓아 굽기도 했다.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조선, 16세기, 무갑리 10호 가마터 출토.

한 형태로 변화되었는데, 필요한 경우 납작한 몇 개를 포개어 쌓아올려 원주 모양으로 높게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크기가 작은 종류도 다수 제작되었다.

요도구는 관요에서 제작된 백자의 종류와 형태, 크기에 따라 변화되었으며, 백자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외에 원주형과 유사하지만 몸체를 속이 빈 원통형으로 만

들고 주둥이를 나팔 모양으로 벌인 후 가장자리를 톱니 모양으로 깎아 향아리 뚜껑 등을 제작할 때 받침으로 사용한 예도 있다. 톱니 모양으로 다듬은 받침은 왕실용 백자를 제작하던 곳에서 다수 발견된다. 또한 발이나 접시 등 제작 과정에서 잘못되어 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할 파편을 재활용하여 받침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한편, 관요백자의 받침 재료는 크게 두 종류로 태토비짐과 입자의 크기가 작은 깨끗한 모래가 그것이다. 태토비짐은 주로 조질백자를 포개어 구울 때 사용했으며 관요 설치 이전부터 쓰기 시작하여 관요 설치 이후에도 꾸준히 받침재료로 채택되었다. 모래는 크기가 작고 깨끗한 것이 특징이며 왕실용 백자의 제작에 쓰였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변천리 5호에서처럼 포개구이를 하지만 일부 질이 좋은 백자를 만들 경우에 쓰이기도 하였다.

위엄과 권위의 상징, 관요백자

조선 전기 백자의 제작배경은 크게 두 가지 현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왕실이 추구한 백자 사용 규제 정책과 양반의 백자에 대한 관심과 수요이다. 이들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지만 자기 문화의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번영하면서 왕실에서는 백자에 대한 관심이 커져갔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재료인 청화안료와 백토를 관리하는 한편, 관요를 설치하여 왕실과 관청용 백자를 제작하면서 사용을 독점하게 된다.

조선 조정의 정책과 양반의 인식

1454년 편찬된 『세종실록오례의』 명기조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삽도와 함께 소개되어 있어, 당시 사용하던 자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약 20여 종의 다양한 그릇이 등장하는데, 이 중 ‘주병은 분청사기 매병이지만, 잔, 반발, 갱접, 찬접은 백자에



『세종실록오례의(世宗實錄五禮儀)』
주병(酒瓶)

『세종실록』에 수록되어 있는데, 형태가 동시기에 제작되던 분청사기매병과 동일하다. '매병'이라는 명칭은 20세기에 붙여진 것으로 제작당시의 이름이 주병이었고 용도는 술을 담는 그릇이었다.

서도 발견된다. 같은 해 세상을 떠난 온녕군의 묘에서도 분청사기가 출토되어, 분청사기 모두를 대신할 만큼 백자의 생산과 수요가 급증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미 백자의 제작과 사용은 증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김종직의 『점필재집』을 통해 1442~1447년 사이 광주, 남원, 고령에서 백자가 제작되었고 1442년 이전부터 공물로 바치기도 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문집에서 이전에 진상되던 백자의 질이 거칠다고 적고 있어 제작 수준이 높지 못하고 수요자의 폭도 넓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 시기를 전후하여 백자의 제작과 수요에 변화가 나타난 것은 분명하다. 나아가 1447년에는 문소, 휘덕전의 은그릇을 백자로 대신하는 등 신성한 왕실 조상의 혼전에 백자를 사용하고 있어,³² 이전과 다른 변화를 짐작케 한다. 백자는 늦어도 1440년대에 들어서면 제작과 수요가 늘어나고 1450년대를 지나면서 더욱 본격적으로 만들어졌다.

백자 수요의 증가는 재료인 청화안료와 백토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개발과 관리에 대한 조선 조정의 정책도 펼쳐졌다. 청화안료는 중국에서 수입한 '회청回靑'을 사용했지만 중국에서도 안료가 일시 고갈되어 구할 수 없게 되자, 1463년부터 1469년 사이 국내에서는 '토청土靑'을 개발하려 노력하였다. 기록을 보면 경상도 밀양, 의성, 울산, 전라도 강진, 순천에서 경차관이나 관찰사가 직접 구해 바치는 등 백자 장식에 필요한 안료를 찾기 위하여 수년에 걸쳐 노력이 지속되었다.³³

한편, 1440년대부터 1460년대에 백자 수요가 증가했지만 양반들의 사적인 백자 사용을 규제하거나 재료인 백토를 관리하지는 않았다. 당시까지는 왕실이 백자제작을 통제 하지 않았다. 그러나 1466년부터 백자의 제작과 사용을 규제하며 왕실과 관청이 백자를 독점하기 시작했다. 이후 1469년 『경국대전』에 청화백자를 사용하는 자는 장 80에 처하는 등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은 계속되었다.

관요백자의 재료인 백토도 통제하였는데, 1530년 백점토를 이전에는 사현이나 충청도에서 갖다 썼지만, 지금은 양근에서 파다 쓰고 있다고 적고 있어, 16세기에도 백토의 관리는 꾸준했으며, 필요에 따라 산지를 바뀌가며 백토를 채취하던 사실이 확인된다. 1538년에도 함경도 같은 먼 지역에서도 광주의 백자를 사가니 그 폐를 고치라고 하는 기록이 확인되므로, 관요 백자의 사용 규제가 심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조정이 백자 사용을 규제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양반 사이에서는 백자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관심이 꾸준히 증가했다. 1440년대부터 양반들의 백자에 대한 선호도와 수요가 증가하는 정황이 문헌기록 곳곳에 나타난다. 1445년 도순찰사 김종서가 고령현에 들러 고령의 백자를 칭찬하고 선물로 바랄 만큼 관심이 확대되고 있었다. 또한 1447년에도 백자가 값진 선물로 주고받을 만큼 지배층 사이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백자의 제작지로 알려진 곳은 전국 몇 곳에 불과했으며 제작량도 많지 않았다.³⁴ 이후 백자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가하였는데, 술자리에서 사용하던 술잔을 가져가거나 백자 잔을 선물로 주고받을 만큼 양반 사이에서 백자에 대한 인기가 고조되고 있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 시기를 즈음하여 1466년 공사간의 백자 사용과 제작을 금지하였고, 1469년 『경국대전』 형전에서는 신분의 변별을 위하여 청화백자의 사용도 제한하였다. 이와 같이 백자 사용이 금지되자 관심이 고조되어 있던 양반들 사이에서는 생산과 수요가 통제되는 조선백자에서 벗어나 급기야 중국산 청화백자로 관심을 돌리기도 하였다. 1475년에는 밀무역으로 유입된 중국산 청화자기를 사용하는 풍조가 사회에 만연하였고, 이후 1477년까지도 중국산 청화자기 수요 증가와 그로 인한 폐단이 지속되었

다. 사회에 만연한 사치풍조는 귀근, 훈척, 척리, 거상, 부고, 호부 등 사대부가 주류를 이루었고 여염의 백성들까지도 따라하였다. 이러한 사용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양반들의 청화백자 사용은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조선 정부는 1498년 청화백자의 사용을 금하고 있음을 거듭 밝히지만 정책대로 사용 규제가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1537년 6진과 같은 조선의 최북단에서도 광주의 백자를 사용할 정도로 수요는 확대되어 갔다. 왕실의 존엄과 상하 신분의 변별, 그리고 사치풍조의 배격 등을 이유로 사적인 백자 사용을 금했지만,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왕실문화에 대한 동경과 백자나 청화백자를 통한 과시 욕구가 끊임없이 수요를 만들어냈다. 통제를 통해 독점하려는 정책이나 여기에서 벗어나 백자의 사용을 실현하려는 개인들 모두 조선초기에 백자가 제작되고 발전하는데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관요백자, 품격과 의식의 발현

광주의 가마터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백자 파편이 출토되었으며, 관요에서 제작된 백자는 전세(傳世)유물로도 다수 전한다. 몇몇 가마

터가 발굴되고 자료가 축적되어 백자의 크기, 형태와 변천 과정, 장식 등이 체계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가마는 관요 설치를 기준으로 이전에 운영된 가마와 이후에 제작활동을 벌인 가마로 구분된다. 관요 설치 이전에 운영된 곳으로



백자 '내용' 명대접 파편
 우산리 2호 가마터 발굴에서 다양한 종류의 백자와 함께 그릇 안쪽 바닥에 내용(內用)이라는 글자를 새긴 파편이 소수 출토되었다. 궁중용을 의미하지만, 유색이 어둡고 질이 좋지 못하며 상반으로 포개구워 당시의 제작 상황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해강도자미술관 소장, 조선, 15세기, 광주 우산리 2호 가마터 출토.



관요 출토 백자와 청자
관요에서는 순백자를 주로 제작했지만, 이외에 청화백자와 청자도 소수 만들었다. 발과 접시 등 생활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종류의 수가 많이 제작되었는데, 특히 왕실용 백자가마에서는 그릇의 종류는 물론 크기도 매우 다양하게 제작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 1493년 전 후, 광주 귀여리 11호 가마터 출토.

우산리 2호와 17호, 건업리 2호가 대표적이다. 이곳에서는 1440년대에서 1460년대 사이에 백자 발, 접시, 잔과 함께 소수의 마상배, 대발, 호, 병, 제기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그릇을 제작하였다. 장식은 없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당초무늬를 흑상감한 파편도 소수 발견되며, 흙 속에 잡티가 있거나 색이 약간 어두워 회청색이나 회록색을 띠는 백자가 주류이다. 특히, 궁궐에서 사용하는 물품이라는 의미의 ‘내용(內用)’ 명문이 새겨진 파편이 발견되었고, 사옹원(司饔院)이나 사선서(司膳署)의 앞 글자를 의미하는 ‘사(司)’라는 글자를 새긴 예도 있어, 공납용 백자가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전기에 운영된 관요는 소수만 발굴되었는데, 도마리 1호, 우산리 9호, 번천리 5호 및 9호가 그곳이다. 순백자를 비롯해 청화백자가 출토되었으며, 이외에 상감백자, 청자가 발견되었고, 중국산 청화백자 파편도 확인되었다. 종류도 발, 접시, 잔, 잔받침, 뚜껑, 합, 마상배, 병, 호, 반, 장군, 향로, 제기, 묘지석 등 다양하지만, 발, 접시, 잔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은 이전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화형잔, 육각잔, 연적, 세반(洗盤), 편병 등 새로운 종류를 비롯해 양이 잔(兩耳盞)이나 잔받침과 같이 금속기를 모본으로 제작한 예가 있다.

백자 현(玄) 명발

왕실용 백자 중 발이나 접시 중에는 굽 안바닥에 천지현황이나 좌우, 별 등의 글자를 음각한 예도 있다. 그 중 하나로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으나 왕실용 물품을 보관하던 창고 혹은 제작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삼성미술관 Leeum 소장, 조선, 15-16세기, 국보286호, 높이 10.5cm,



이러한 변화는 관요 설치 이후 왕실과 관청에서 백자의 용도가 분화되고 사용이 더욱 다양해졌던 것을 의미한다. 물론 왕실용 백자의 경우 식생활뿐만 아니라 일부 의식행사에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의식용기와 동일시할 만큼 왕실용 백자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굽바닥에 ‘천지현황天地玄黃’, ‘별別’, ‘좌우左右’의 글자를 각각 새기기도 하였는데, 천지현황은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중반사이에 나타나고 별은 추가로 제작한 별번別燔, 좌우는 16세기 후반부터 등장하며 두 개로 구분된 제작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요백자는 태토의 질, 유색, 굽의 모양, 받침방법, 번법 등에 따라 양질과 조질로 구분되는데, 질의 확연한 분화는 관요백자의 특징이기도 하다. 왕실용 백자는 설백색을 띠며 역삼각형굽에 모래를 받침 재료로 갑발에 넣어 구운 것이 대부분이고, 관청용 백자는 담청색이나 연회색을 띠며 죽절굽에 태토비짐을 받쳐 포개어 구웠다. ‘을축 팔월(乙丑八月, 1505)’의 글자를 음각으로 적은 사각봉, ‘임인壬

寅’ 명, ‘가정삼십삼년嘉靖三十三年’ 명 등이 새겨진 묘지석 파편도 출토되었다.

광주에서 제작된 백자는 성격과 종류에 따라 제작 시기별로 크기에 차이가 있다.³⁵ 수량이 가장 많은 발의 경우, 평균 크기를 비교하면 높이 7.3cm에서 8.8cm, 입지름 16.0cm에서 16.6cm, 굽지름 5.7cm에서 7.0cm로 관요에서 더욱 커졌다. 변화는 접시나 잔받침 등 대부분의 종류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므로, 관요에서 다양한 크기의 백자가 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형태에도 차이가 있는데, 발, 접시, 잔 등 그릇의 측면이 완전한 곡면으로 변화되고 안바닥이 넓어져 양감이 좋으며, 주둥이 가장자리가 짧게 벌어져 부드럽고 당당한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관청용보다 왕실용 백자에서 두드러진다. 이 차이는 사용자, 즉 왕실용과 관청용으로 나누어 제작하는 과정에서부터 구분했기 때문이며 백자의 크기와 형태, 질은 사용자의 신분 차이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양질과 조질 사이의 차이와는 별개로 시간이 경과하며 왕실용 백자의 형태도 달라진다. 예를 들면 발의 경우, 16세기 중반부터 입지름이 약간 작아지고 안바닥의 깊이가 상대적으로 깊어진 오목한 형태도 나타나며, 이후 17세기 중반에는 그 특징이 더욱 완연해진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용자 미감의 차이이거나 제작상의 편의에 따른 점진적인 변화로, 관요 설치 이후 100여 년 이상 오랜 시간이 경과해 나타난 것일 뿐 조선 조정의 정책적인 변화는 아니다. 오히려 발과 같은 동일 기종이 오랜 기간 유사한 형태로 꾸준히 제작된 것은 유교의 통치이념에 따른 왕실백자의 전통과 변화에 대한 보수성을 대변하는 것이다.

백자태호

정확한 제작 시기를 알 수 있는 백자태호 중에서도 빠른 제작년대를 갖고 있는 유물이다. 내호에 아기의 태를 담은 끈으로 뚜껑과 몸체를 고정한 후 외호에 넣고 다시 묶은 후 비단으로 외면을 썼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조선, 1476년, 높이57.7cm.



발굴 출토품과 전세품 중에 제작 시기를 알 수 있는 유물을 편년 자료라고 하는데, 그 수는 많지 않다. 이 중에 다수를 차지하는 종류가 백자태호와 묘지석이다. 태호는 아기의 태를 담아 외면을 비단으로 감싼 후, 땅 속에 묻어 보관하는 용도의 항아리로 내호와 외호로 구성된다. 뚜껑이 있고 항아리 어깨에 반원형 고리가 4개 정도 부착되어 서로를 끈으로 묶어 고정시킬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유물이 1476년 〈백자태호〉인데, 뚜껑 윗면에 음각으로 연꽃을 장식했다. 색깔은 연회색이며 표면을 꼼꼼하게 다듬지 않아 물레 흔적도 남아 있다. 세부에서 약간의 차이가 발견될 뿐, 전체 형태, 비례, 뚜껑의 모양, 고리, 질 등은 1481년과 1485년 태호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15세기 말까지 제작 전통이 일정하게 지속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506년 유물에서는 변화가 보이는데, 뚜껑이 납작해져 윗면이 편평해졌고 어깨의 양감이 줄었다. 이 변화는 16세기 말에도 지속되어 1581년 태호에서는 뚜껑이 원반형이고, 외형도 사선에 가까운 정련된 형태로 바뀌었다. 태호는 의식에 사용하던 백자이므로 형태나 크기, 장식 등이 정해진 규식이나 전통에 충실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형태나 기능과 연관된 구조는 지속되지만 전체

의 비례나 세부의 표현, 크기, 질 등은 달라진다.

새로 태어난 사람을 위한 백자가 태호라면 죽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백자가 묘지석이다. 묘지석은 묘주의 행장을 적은 것으로 백자로 제작하여 무덤 앞에 땅을 파고 묻었다. 1456년 〈백자청화인천이씨명묘지석〉은 청화안료로 행장을 적었는데, 청

백자태호

내호와 외호로 구성된 전형적인 백자태호로 각각 어깨와 뚜껑에 끈을 묶어 고정할 수 있는 고리가 달려 있다. 뚜껑이 납작해지고 몸체는 어깨에서 아랫부분으로 갈수록 너비가 자연스럽게 줄어지는 변화가 나타난다.

삼성미술관 Leeum 소장, 조선, 1506년, 높이 41.0cm.



화백자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 광주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지만 정확한 제작지는 알 수 없다. 묘지석과 관련하여 1422년 『산릉제도』에 지석은 길이가 4척 4촌이며, 너비가 3척 4촌, 두께가 4촌 5분인 커다란 장방형의 판형이라고 나타나고, 1474년 『국조오례의』에 지석은 두 개를 만드는데 하나는 다른 하나의 덮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백자묘지석도 이러한 규식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⁶



백자청화 인천이씨명 묘지석
조선시대 청화백자 중에서 제작 시기를 알 수 있는 유물 중 하나이면서 가장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유명하다.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조선, 1456년,
27.1×37.8×1.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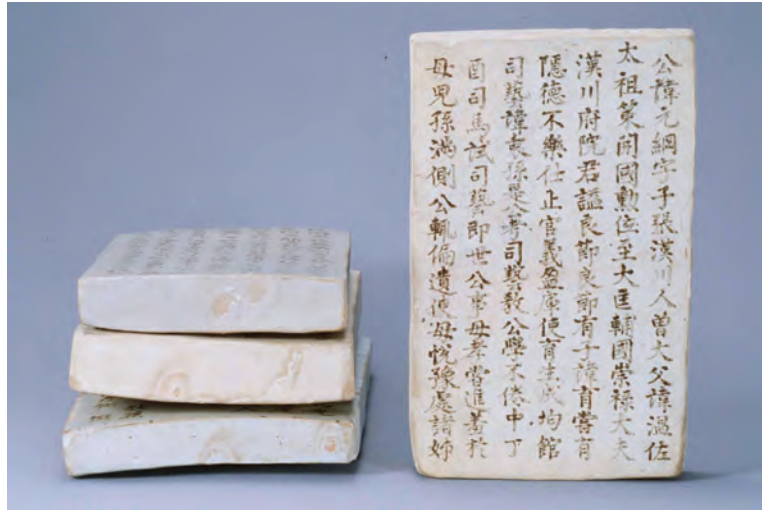
묘지석은 제작 시기별로 특징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1488년 〈백자음각서거정묘지석〉은 크기가 크고 당당하며 윗면에 바둑판 모양으로 종횡의 선을 미리 긋고 각각의 칸에 맞추어 묘지문을 적은 것이나, 적어 내린 묘지석의 방향이 가로인 점에 차이가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음각으로 묘지문을 적은 것인데, 이 유물을 시작으로 1559년 〈백자음각한기묘지석〉을 비롯해 16세기 중반까지 음각된 묘지문이 즐겨 사용되었다. 그러나 음각기법 이외에 안료를 사용해 묘지문을 적기도 하였는데, 청화와 철화가 있다. 먼저, 철화는 16세기에 간헐적으로 제작되었는데, 1512년 〈백자철화 조원망묘지석〉이 대표적이다.

당시 묘지문의 작성에 음각기법이 주로 사용되었고 16세기 후반에는 청화안료가 유행하여 철안료로 묘주의 행장을 적은 묘지는 처음부터 제작량이 적었다. 철안료를 사용한 묘지문의 구성이나 묘지의 형태, 크기 등은 동시기에 제작되던 음각묘지석과 유사하다. 한편, 청화묘지석 역시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중반까지는

백자철화조원망묘지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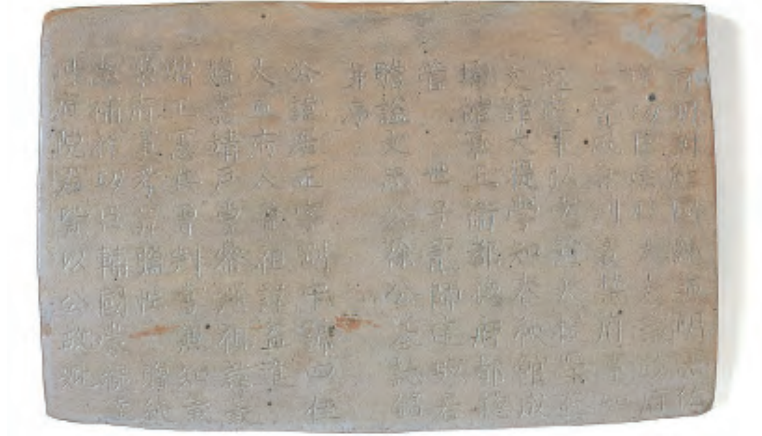
모두 4장이 한 세트를 이루는 묘지로, 두께가 두꺼운 장방형의 묘지에 철안료로 행장을 적었다.

삼성미술관 Leeum 소장, 조선, 1512년, 15,5×23,2×2,0cm,



백자음각서거정묘지석

백자묘지석은 내용을 세로로 구성해 적은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 유물은 음각기법을 사용해 가로로 적고 있어 특이하다. 경기도박물관 소장, 조선, 1488년, 30,0~35,0×20,0~28,0cm.



제작량이 적었다. 1456년 <백자청화인천이씨묘지석> 이후 오랜 동안 공백상태를 보이다가 1564년 <백자청화상진묘지석>을 비롯하여 1576년 <백자청화박공묘지석> 등 다수를 제작하였으므로 유물로 본다면 1560년대에 청화안료로 묘지문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관요 설치 이전에는 백자의 제작이나 안료 사용에 통제를 받지 않았지만, 관요 설치 이후 1550년대까지 청화안료의 사용이나 청화백자의 제작이 집중적인 규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묘지문은 주로 음각되었으며, 음각묘지석이 상대



백자철화 박공묘지석

모두 7장이 하나의 세트르, 이중에는 표지에 해당하는 묘지석이 포함되어 있다. 이전에 비하여 두께가 얇아지고 전체 크기가 약간 커진 형태로 16세기 중후반에 제작된 백자묘지석의 전형을 보인다. 백자의 질이나 받침재료 등으로 보아 광주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미술관 Leeum 소장, 조선, 1576년, 19.8×24.0×1.1cm.

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도 이러한 사정 때문이다.

다만, 철화의 경우 청화안료에 비하여 안료 구입이 쉽고 통제가 적어 청화묘지석보다 이른 시기인 1508년부터 등장했지만 주로 사용되던 기법이 아니며, 청화묘지석이 본격 제작된 이후에도 소수만이 만들어졌다. 묘지석은 크기에다 차이를 보인다. 15세기에는 크기가 큰 편이고 16세기 초에 급격히 작아지기도 했지만 이후 가로 18~19cm, 세로 23~24cm, 두께 1~2cm 정도의 묘지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16세기 말에는 두께가 1cm 정도로 얇게 만들어졌다. 묘지석은 부장용품으로 형태나 크기의 변화가 매우 적은 것으로도 생각되지만, 시간이 경과하며 서서히 전체 크기와 두께가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된다.³⁷

청화백자의 장식, 화원의 솜씨

청화백자는 호, 병, 편병, 잔받침, 뚜껑, 양이잔, 팔각잔, 화형잔, 연적, 개합 등 다양한 종류가 제작되었고 순백자와 형태, 크기, 세부의 특징, 제작방법 등이 동일하지만 수량은 상대적으로 적다. 청화백자가 관요에서 제작되고 수요자도 왕실로 한정되어 그림장식의 소재나 구성이 서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예가 많다. 이것은 그림장식에 화원이 참여하면서, 왕실 취향의 그림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청화백자와 관련하여 관심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안료의 출처에 대한 문제이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1463년, 1464년, 1469년 등 국내 각지에서 안료를 찾으려는 노력이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전라도 강진과 순천부, 경상도 밀양부와 의성현, 울산군 등지에서 회회청, 회회청상사석, 심중청, 토청, 삼청 등을 채취하기도 하고 나아가 채색을 찾는 사람에게 포상을 내걸기도 하였다. 안료의 조달은 청화백자의 제작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데, 관요 설치 이후에도 공급이 일정하지 못했다. 실제로 1488년 화원 이계진이 중국에

서 회회청을 사오려 했으나 실패하였는데, 회회청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 쓰는 것도 아니어서 구하기 어려웠다. 결과적으로 회회청을 국내에서 찾으려는 노력이 시도되긴 했지만 관요 설치 당시부터 중국에서 공무역의 형태로 구입해 쓰고 있었던 것이다.

백자청화송월문잔받침피편

왕실용 백자를 제작한 도마리 1호 가마터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 하나로 조선 전기에 청화백자의 장식으로 즐겨 그려지던 소나무가 보인다. 소나무 주변에는 달과 별이 나타나는데, 일부가 파손되었지만 달밤의 풍경을 묘사한 듯 재미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 1505년 전후, 도마리 1호 가마터 출토.



1525년 편찬된 성현(1439~1504)의 『용재총화』에는 “회회청을 중국에서 구하여 술병과 술잔에 그림을 그렸는데, 중국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회청이 드물고 귀하여 중국에서도 많이 얻을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림 그린 사기그릇이 매우 적다” 고 기록하고 있어, 중국을 통한 안료 수입도 어려웠으며 안료 부족이 청화백자의 제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던 상황을 엿볼 수 있다.³⁸

도마리 1호 청화백자 16점, 우산리 9호 청화백자 10점, 변천리 5호 청화백자 1점, 변천리 9호 청화백자 9점 등 관요 발굴에서만 수천 점의 순백자 파편이 출토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청화백자는 희귀하므로 당시 기록이 사실이었음을 알려준다. 중국에서 회회청을 구입하는 일은 16세기 중반에도 계속되어, 1541년 천추사가 중국에서 회회청의 구입을 시도했지만 무역하지 못하기도 했다. 임진왜란 직후인 1618년에도 “조정 의 연향 때 사용하는 화준이 난리를 치른 후 하나도 남은 것이 없어 청화안료를 사다가 구워내려 했지만 사을 길이 없었다.” 고 하는 등 기록으로 보면 조선 전기의 청화백자는 중국산 청화안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³⁹

청화백자는 다양한 기형이 만들어졌지만 특이하게도 가장 많은 수량이 제작된 발과 접시에 그려진 예는 거의 없다. 발이나 접시와 같은 일상 용기보다는 특정한 종류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제작된 것으로 이해된다. 백자에 보이는 청화장식은 비중에 따라 주 문양과 보조 문양으로 나누기도 한다. 중심부에 그려지는 주 문양은 소나무, 대나무, 매화, 국화, 보상화, 보상당초, 당초, 포도, 수목 등 식물과 사슴, 학, 새, 용, 말 봉황, 호랑이, 물고기 등 동물, 이외에 인물, 산수, 초충, 달, 별, 구름 등이 있다. 보조 문양은 몸체 상단과 하단, 밑면, 혹은 가장자리, 주 문양의 사이에 크기를 작게 하거나 성글게 장식하기도 하며 모란, 연잎, 보상, 당초, 국화 등 식물 소재



백자청화보상당초문 받침
왕실용으로 제작된 청화백자 중 하나로
그림이 정교하고 솜씨가 매우 뛰어나다.
빈 공간을 두지 않고 전면엔 장식을 가득
채웠는데, 중앙의 꽃을 중심으로 주변의
꽃과 덩굴이 도식적이기도 하다. 유사한
구성방법이 중국 명나라 초기에 제작된
청화백자에서도 나타나므로, 광주 관요
백자와 중국 백자 사이의 영향 관계를 추
정 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일본 동양도자미술관 소장, 조선, 15세
기, 높이1.8cm.

가 주류이고 드물게 동심원이나 구름도 보인다. 그림은 병, 호, 잔 받침에 집중적으로 그려졌고 소나무, 매화, 대나무가 즐겨 채택되었다.

청화장식은 소재의 구성이나 표현방법에 따라 크게 세 종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도식화된 소재이고 다른 하나는 회화장식이며, 마지막 하나는 시를 적은 것이다.

먼저, 도식화된 장식의 대표적

인 소재로 보상당초, 연판과 여의두, 화엽, 칠보문이 있다. 보상당초는 백자의 형태나 공간에 맞추어 소재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다양한 변화와 변형을 추구했는데, 〈백자청화보상당초문잔받침〉이 대표적이다. 연판과 여의두, 화엽문은 폭이 좁은 띠를 두르듯 형으로 장식하였다. 회화장식으로는 매화, 대나무, 소나무, 물고기와 수초, 운룡, 말 등이 그려졌다. 매화는 즐겨 그려지던 대표적인 소재로 단독 혹은 대나무, 새와 함께 나타난다. 대나무는 제작시기에 따라 개체의 크기와 세부 표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1489년 제작된 〈백자청화송죽문홍치이년명호〉의 대나무는 매화와 비슷한 크기로 세부까지 섬세하게 그렸지만, 16세기 〈백자청화매죽문양이잔〉에서는 크기가 눈에 띄게 작아졌고 한 번의 붓질로 하나의 잎을 그리는 등, 전체 혹은 세부를 간략하게 묘사하는 변화가 있다. 이외에 회화장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재가 용으로 관요에서 용이 그려진 파편이 출토되기도 했다.

여러 종류의 백자 중에서도 잔받침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장식이 시를 적어 놓은 것이다. 관요에서 출토된 파편 가운데 중국 당나



라를 대표하는 시선 이태백의 ‘대주부지待酒不至’ 라는 오언시의 일부가 적힌 예도 알려져 있다.⁴⁰ 잔받침에 쓰여진 시가 언제, 누구에 의해 지어진 것인지, 모두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조선 전기의 문학적 조류나 수요자의 취향과 맥을 같이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시는 모두 술과 관계된 것이어서, 이들 백자는 술잔의 받침과 같은 용도로 알려져 있다. 청화장식의 대체적인 흐름은 도식적인 장식에서 회화장식, 시문으로 주류가 바뀌어갔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이 변화되었을 뿐 이들이 순차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 도식적인 문양이 많이 그려지던 초기에 그림 장식이 사용되기도 하였고, 회화장식이 주로 등장하던 때에도 소수 도식적인 장식이 채택되기도 하는 등 공존하였다. 이 과정에서 보조 문양의 생략 등을 통한 화면의 구성이나 소재의 구도, 세부의 표현도 변화되며, 다양한 특징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광주 가마터에서는 상감장식이 있는 백자 파편도 발견되는데, 대체로 질이 거칠고 연회색 또는 진회색을 띠거나 담청색을 보인다. 상감백자는 관요 설치 이전의 가마에서도 만들어졌고, 관요에서는

백자청화승죽문홍치2년명호(왼쪽) 형태도 힘이 넘치지만 대나무와 소나무가 어우러진 그림 솜씨가 뛰어나며, 조선전기에 제작된 청화백자 중에서 정확한 제작 시기를 알 수 있는 유물로도 유명하다. 굽 안쪽 면에 홍치(弘治)의 명문이 남아 있다.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조선, 1489년, 국보 176호, 높이 48.7cm.

백자청화매죽문양이잔(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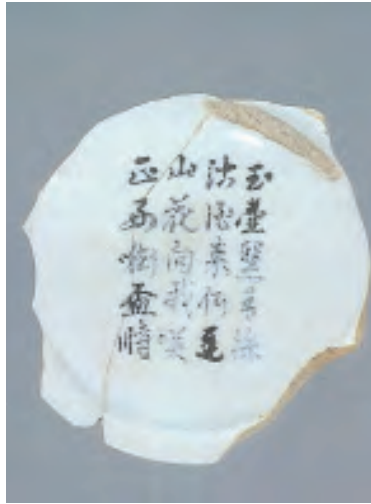
크기가 작은 잔으로 측면 두 곳에 귀모양의 손잡이가 있어 양이잔이라고 불린다. 손잡이는 제작 시기에 따라 별 혹은 활짝핀 꽃모양을 보이기도 한다. 전면에 그려진 매와 대나무는 조선전기 청화백자의 그림 장식에 즐겨 사용된 소재이다. 시간이 경과하며 대나무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주변에 여백이 나타나는 변화가 보인다.

삼성미술관 Leeum 소장, 조선, 16세기, 높이 3.7cm.

백자청화시문반침 (위 왼쪽)

왕실용 백자를 만들던 도마리 가마터에서 다량의 순백자와 함께 출토된 청화백자 파편으로 안바닥에 시가 적혀 있다. 시를 장식한 청화백자는 몇 점이 전세 유물로 전하기도 하지만, 이 유물이 대표적인 예로 유명하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 1505년 전후, 도마리1호 가마터 출토



백자상감모란문병 (위 오른쪽)

상감백자는 15세기에 주로 제작되었으며 16세기에는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하다가 제작이 중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광주 가마에서 주로 발견되며, 질은 좋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다. 장식은 모란이나 당초 등을 간략하게 도식화한 것이 많지만, 드물게 나무 등 특이한 예도 나타난다.

호림박물관 소장, 조선, 15세기, 보물 807호, 높이 29.6cm.

백자철화매죽문발(아래)

조선 전기에 제작된 철화백자 중 하나로 발의 형태나 장식소재, 구성 등이 동 시기에 제작된 청화백자와 동일하다. 질과 형태, 장식 등으로 보아 왕실용 백자를 제작한 관요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미술관 Leeum 소장, 조선, 16세기, 높이 6.7cm.



관청용 백자를 제작하던 가마에서 주로 제작되었다. 특히, 상감백자의 형태와 소재, 장식기법에서 분청사기의 영향이 일부 확인된다.

그러나 16세기 중반 관요에서 출토된 상감백자의 연잎장식은 청화백자에 그러지던 보조 문양을 차용한 것이어서, 청화백자의 특징도 엿볼 수 있다.⁴¹ 청화장식의 영향이 상감백자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며, 15~16세기 철화백자에도 나타난다. 철화백자의 대표적인 장식이 매화와 대나무인데, 소재와 구성 모두 청화장식과 동일하다. 현재까지 조선 전기에 철화백자를 제작한 곳으로 확인된

가마터가 몇 곳에 지나지 않고 유물도 소수에 불과한 점, 유물의 형태와 질, 굽, 받침, 장식 소재나 구성이 관요의 순백자 혹은 청화백자와 동일한 점, 그리고 당시 청화백자가 활발히 제작되었고 수요자 역시 청화백자를 선호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철화백자는 청화안료의 부족으로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즉, 철화백자의 제작은 수요자의 취향보다는 중국으로부터 청화안료의 조달이 여의치 못했을 경우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안으로서 소수 제작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5~16세기 백자의 장식은 두 개의 커다란 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상감백자는 관요 설치 이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청화장식의 요소를 새롭게 차용하면서 16세기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만들어진 축이다. 다른 하나는 청화장식으로 관요 설치 이후 본격적으로 화원의 그림이 장식되기 시작하여 16세기 말까지 계속되었으며, 소재와 구성, 표현 방법 등이 화풍에 따라 변화되거나 새로워졌다. 이 과정에서 청화장식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철화장식이 필요에 따라 제작되었다.

04.

중국백자의 영향과 관요백자의 새로운 선택

관요백자의 특징을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 자기와와의 관계이다. 중국 경덕진 청화백자는 조선 전기의 관요백자 제작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 실제로 관요 발굴에서 경덕진 백자가 출토되고 전세유물 중에도 유사한 장식과 형태를 보이는 예가 있다.

문헌기록과 출토품으로 본 중국백자

중국의 자기가 조선에 유입되는 경로는 중국에서 직접 반입되거나, 일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었다.⁴² 조선은 두 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신 왕래와 무역을 하였고 국경을 드나드는 물품 중에는 자기도 포함되어 있었다. 백자는 중국에서 황제가 조선 국왕에게 하사하거나 사신이 진상하였으며, 전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수량을 차지한다. 일본은 조선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각종 물품을 진상했는데, 이들 물건 중에 자기가 있었



다. 당시 일본은 자기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 필요한 것은 중국과 교역을 통해 충당했다. 그러므로 일본에서 조선에 바친 청자와 백자는 중국에서 구입한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조선에 유입된 자기는 중국산이었다.

중국과 일본에서 조선으로 들어온 자기의 대부분은 궁중에서 사용되었으며, 관요백자의 종류나 형태, 장식에 영향을 주었다. 실제로 관요백자의 제작지였던 도마리, 우산리, 번천리 가마터에서 중국산 청화백자 파편들이 출토되었고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관요백자도 전하고 있다. 조선에 유입된 중국 자기에 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 잘 나타난다. 관련 기록은 모두 31건인데, 중국에서 유입된 횡수는 총 19건이고 일본을 통해 들어온 경우도 12건에 이른다. 대부분 백자와 청자로 확인되지만 분색사기, 주기, 자완, 사발과 같이 막연하게 표기된 경우는 어떤 종류인지 추정이 어렵다.

당시 중국은 경덕진에서 백자를 활발하게 제작했고 용천에서는 청자를 만들어 내수 혹은 수출용으로 사용했으므로 기록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자기는 완을 비롯해 종, 발, 대접, 병, 반, 분, 잔, 향로,

백자청화화당초문점시 파편 (왼쪽)
중국 명나라 때 백자제작지로 유명한 경덕진에서 만들어진 청화백자 중예 하나이다. 이러한 형태의 백자가 16세기 중반 운영된 관요인 번천리 9호가마에서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어, 둘 사이의 영향관계를 짐작케 하는 유물이기도 하다.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소장, 중국, 16세기, 경덕진요, 번천리 9호 출토.

『세종실록오례의』 청화운룡백자 주해 (오른쪽)
몸체에 용이 그려져 있고 뚜껑이 갖추어진 독특한 종류의 향아리이다. 1430년 중국 황제가 세종에서 보낸 백자로 추정되기도 하지만, 기록만 남아 있을 뿐 유물은 전하지 않는다. 명칭에 보이는 '주해'는 술향아리를 의미한다.

주해, 주주 등 여러 종류였으며 형태나 크기, 장식 등은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1430년 황제가 보낸 <청화운룡백자주해>의 경우는, 유입시기, 명칭, 운룡장식, 종류로 보아 『세종실록오례의』에 수록된 <백자청화주해>로 알려져 있다.⁴³

『조선왕조실록』 기록에는 중국산(청화)백자의 유입이 세종연간(1418~1450)에 집중되고, 문종(재위 1450~1452)의 즉위년인 1450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될 뿐 이후에는 뚜렷한 자기 교류가 나타나지 않는다. 점차 중국 자기의 유입이 감소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세조연간(1455~1468)에 관요 설치를 자극하게 되고 전국에서 청화안료를 찾으려는 노력의 배경이 되었다. 따라서 관요 초기에 제작된(청화)백자 중에는 중국 자기와 유사한 형태를 만들거나 표면을 장식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관요 운영이 활발하던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사이에는 중국산(청화)백자가 조선에 공식적으로 유입되지 않았으므로, 이 시기에 중국에서 유행하던 청화백자의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을지는 의문을 갖게 한다.

관요와 함께 전국에 분포한 소비유적지에서 중국산(청화)백자 파편이 발견된다. 경기도 광주 도마리, 우산리, 번천리, 관음리, 대쌍령리에 위치한 관요에서 중국 백자가 출토되었는데, 가마는 모두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사이에 운영된 곳이다. 관요에서 중국산 청화백자가 확인됨에 따라, 관요백자의 제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출토된 중국산 청화백자와 동일한 그림이 그려진 관요백자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백자청화당초문발

중국 경덕진 민요에서 제작된 청화백자 중에 하나로 충청북도 청주에서 출토되어 당시 중국 자기가 조선에 유입되어 실생활에서 사용되기도 하였던 증거 자료이기도 하다.

국립청주박물관 소장, 중국, 16세기, 경덕진요, 청주 용정동 출토.



한편, 중국산 청화백자는 소비유적지에서도 발견되어, 실생활에서도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및 장교동을 비롯해, 경기도 양주 회암사지, 용인 임진산성, 충청북도 청주 용정동, 경상남도 구미 진평 등이 대표적인 출토 유적이다.⁴⁴ 을지로에서는 접시·완·잔·대접이 장교동에서는 완·대접이 출토된 것을 비롯해, 회암사지에서 청화백자반·완·파편이 발견되었다. 이외에도 청주 용정동 유적에서 발, 경기도 임진산성에서 범자와 ‘대명선덕년제’ (1426~1435), ‘장춘가기’ 라는 문자가 적힌 청화백자가 확인되었다. 그런데 관요나 소비유적지에서 출토된 중국 자기는 경덕진 민요 혹은 주변의 제작지에서 만들어진 품질이 낮은 예들이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15세기 중반까지 경덕진 관요 품이 공식 교류를 통해 유입되다가, 그 이후에는 밀무역 혹은 사무역으로 수준이 떨어지는 경덕진 민요산 청화백자가 조선에 들어왔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중국산 청화백자의 영향과 변용

명나라 청화백자의 장식은 관요백자에도 나타나는데, 대접, 완, 잔, 잔받침, 병, 항아리에서 유사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표면에 그려진 그림은 용, 말, 보상당초, 국화절지, 연화절지가 대표적이다. 이 중 현재까지 용을 장식한 관요백자는 우산리에서 출토된 호의 파편과 〈백자청화운룡문병〉 두 점이 있고 여기에 더하여 1430년 황제가 보낸 〈청화운룡백자주해〉를 그린 것으로 보이는 그림이 『세종실록오례의』에 남아 있다.

용은 중국 선덕연간(1426~1435)에 만들어진 〈백자청화운룡문선덕년제명호〉의 모습과 매우 닮아 관요백자의 장식이 15세기 초반

백자청화운룡문병 (왼쪽)

조선 전기에 다수 제작되던 전형적인 형태의 병에 구름을 배경으로 여의주를 희롱하는 용의 모습이 그려진 드문 예이다. 용의 세부 모습과 구름의 표현 등은 15세기 전반 중국에서 제작된 청화백자의 장식과 유사하다.

삼성미술관 Leeum 소장, 조선, 15~16세기, 보물 785호, 높이 21.5cm.

백자청화선덕년제명운룡문호 (오른쪽)

15세기 『세종실록』에 그려진 <청화운룡백자주해>와 가장 근사한 특징을 보이는 유물로 명나라 15세기 초반에 경덕진에서 제작된 것이다.

일본 이데미츠미술관 소장, 중국, 1426~1435년, 경덕진요, 높이 52cm.



에 만들어진 중국산 청화백자의 그림을 모본으로 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말을 그린 경우도 유사한데, 변천리에서 출토된 파편의 그림은 명나라 초기 청화백자의 장식과 매우 비슷하다. 파편이 출토된 변천리 가마는 16세기 중반에 운영되던 곳이지만, 장식은 명나라 초기에 제작된 청화백자 모본이 지속되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 백자의 어깨나 저부, 문양 사이의 빈 공간도 도식적인 장식으로 채웠는데, 구름, 구갑, 격자, 칠보, 여의두, 연화절지, 보상화, 모란덩굴, 연잎, 꽃잎, 문자가 대표적이다. 이 중에 꽃잎은 <백자청화매죽문호>의 어깨와 저부에 반복적으로 나열하듯 장식되었는데, 줄기로 보이는 선이 있고 좌우에 꽃 문양을 두었다. 이와 유사한 장식 표현은 명나라 초기에 제작된 주전자, 호, 병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관요백자와 중국산 청화백자 사이에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도 발견된다. 먼저 그릇의 종류에 따른 장식의 선택에서 구별되는 특징이 나타난다. 중국에서 용문양은 호, 완, 접시에 등장하지만 조선에서는 병, 호와 같은 특정한 그릇에만 장식되어, 중국의 예를 철저히 모방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관요백자의 장식은 16세기가 되면 도식적인 문양이 줄어들고 회화장식 위주로 변화된다. 더불어

시詩나 포도 같은 새로운 소재가 등장하여 변화와 개성이 뚜렷해진다. 따라서 중국백자의 영향은 일부이며 그마저도 다양하게 응용하여 채택하였다. 다음으로, 백자에 장식된 그림의 유행시기에서도 차이를 꼽을 수 있다.

관요백자의 그림은 15세기 말에서 16세기에 걸쳐 그려진 것인데, 이와 유사한 장식의 중국 청화백자는 15세기 전반으로 비정되는 유물이 다수였다. 동시기에 제작된 중국의 청화장식이 관요백자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출토품에는 상당한 시차가 확인되는 것이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광주 관요나 소비 유적지에서 출토된 중국산 청화백자는 발과 접시가 대부분이다. 접시의 경우, 먼저 16세기 중반에 운영된 번천리가마 출토품 중에는 크기, 비례, 주둥이 가장자리 및 측면의 곡선, 편평한 안바닥 등 중국백자 접시와 거의 동일한 예가 전한다. 또한 백자발도, 관요백자와 명나라 백자 사이에 차이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한 유물이 있다. 이와 같이 관요백자 일부에서는 명나라(청



백자청화말문뚜껑 파편
 향아리의 뚜껑 파편으로 산을 배경으로 뒤를 돌아보면 힘차게 뛰는 말의 모습이 그려진 파편이다. 16세기 중반에 운영된 광주 번천리 9호 가마터에서 출토되었는데, 이 소재는 중국 명나라 초기에 제작된 청화백자에서도 나타난다.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조선, 1552년 전후, 번천리 9호 가마터 출토.

백자청화포도문반침

16세기 조선 화단에서 많이 그려지던 포도를 활달하고 능숙한 붓질로 그려 장식하였다. 먹으로 그린 듯 포도의 농담표현과 당굴의 유연한 선이 일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일본 개인 소장, 조선, 16세기, 높이 2,3cm,



백자청화매죽문호

조선 전기의 청화백자를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로 당당한 형태와 순백의 바탕 위에 당시 회화에 즐겨 그려지던 매화와 대나무를 가득 장식했다. 전체 표현이 사실적이며 세부를 꼼꼼하게 묘사하였고, 어깨와 저부에는 도식적인 문양대를 배치하여 마무리 했다.

삼성미술관 Leeum 소장, 조선, 15세기, 국보 219호, 높이 41,0cm,



화)백자의 영향이 뚜렷히 확인된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시기 차이가 큰 15세기 전반 선덕 연간을 전후해 만든 중국 백자를 모본으로 한 듯한 장식이 대부분이고 그릇의 종류도 제한적이다. 1493년 사용원제조 유자광이 관요인 와부를 중국식 입부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관요를 전통적인 방법으로 축조해 사용했던 것처럼 관요백자의 모든 종류와 형태에 중국백자의 특징이 반영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잔이나 잔받침과 같이 금속기를 본 뜬 예와 편병, 연적, 제기 등 중국에서 보이지 않는 독특한 형태도 만들어졌다. 나아가 조선의 지배층 사이에서 회자되던 시를 백자에 적기도 하고 회화에서 유행하던 포도를 그려 넣기도 했다. 이처럼 단순한 모방이 아닌 선별적 수용과 창조적 응용력은 탄탄한 요업 체계를 갖춘 관요의 역량을 토대로 한 조선의 문화적 자부심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수용과정의 해석과 의미

중국 자기의 영향을 수용하는 과정에는 쉽게 설명되지 않는 몇 가지 주목되는 부분이 있다. 우선 관요에서 출토되는 중국산 백자의 질에 대한 것이다. 관요에서 출토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덕진 관요의 양질백자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오히려 민요품인 질이 좋지 못한 유물이 다수이다. 특히, 중국백자 파편이 발견된 가마는 주로 왕실용인 양질백자를 제작하던 곳이어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관요 출토 중국 자기는 모두 청화장식이지만, 영향을 받아 유사한 그림이 그려진 관요백자는 발견되지도 않았고 전세유물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로서는 중국산 조질 청화백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단정할 수 없다.

두번째는 관요에서 제작된 청화백자의 장식에 대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5세기 초에 제작된 중국 자기의 장식을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사이 관요의 문양으로 채택한 것은 의문을 갖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청화백자의 그림이 도화서 화원에 의해 그려졌다는 사실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화원은 관요에 내려가기 전에 장식할 그림에 대한 연습이나 숙지가 필요했을 것이다. 또한 매년 자기에 따라 새로운 그림을 만들기보다는 장식에 필요한 ‘화본(畵本)’을 제작해 두고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연습과 숙지, 혹은 화본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국 경덕진 청화백자를 화원은 어디에서 보았을까? 아마도 세종연간과 문종연간 사이 국내에 다량으로 유입되어 보관되어 있던 경덕진 관요의 청화백자가 모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세조연간 이후에는 경덕진 관요의 청화백자가 공식적으로 유입된 기록이 없고 관요에서 15세기 말에 제작된 청화백자에 15세기 초반 선덕년간에 그려지던 소재와 구성이 나타나는 점도 상황을 뒷받침한다. 즉, 관요백자의 청화장식 중 일부는 15세기 초반에 제작된 중국산 청화백자를 모본으로 장식 소재를 반복적으로 그리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부를 변화시키기도 했던 것이다.

세번째는 관요백자의 종류와 형태의 선택에 대한 문제이다. 관요백자는 수많은 중국 자기의 영향을 모두 받은 것도 아니고 중국산 백자와 전부 비슷한 것도 아니지만, 일부 유사한 종류와 형태를 언제 어떻게 선택하고 제작하였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남는다. 이러한 의문 역시 청화장식의 경우와 같은 맥락으로 세종과 문종연간 사이에 국내에 유입되어 있던 중국 청화백자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관련된 예가 중국에서 유입된 『세종실록오례의』에 그려진 〈백자청화주해〉를 들 수 있는데, 유사한 백자가 도마리, 우산리, 번천리에서 출토되며 전세유물로 남아 있다. 특히, 이 호는 왕실용 백자

를 제작하던 가마에서 양질로 제작된 파편만이 출토되고 전세유물 역시 수준 높은 유물만 알려져 있다.

분청사기와 백자는 조선 전기 도자문화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다. 분청사기는 고려 말기에 전국으로 확대되던 청자의 제작 전통을 잇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활기찬 사회 분위기와 일상생활 속의 풋풋한 아름다움이 가미되어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때로는 일정한 격식을 갖추고 위엄이 넘치기도 하며, 정교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또는 거칠고 투박하지만 미소를 자아내는 친근한 장식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이처럼 분청사기의 얼굴은 실로 다양하여, 조선 전기 도자문화를 한층 풍요롭게 하였다.

한편, 관요의 설치와 왕실용 백자의 제작은 조선시대 도자사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국가 주도의 조직적인 요업체계를 구축하여 관요 운영의 초석을 세웠으며, 왕실용으로 대표되는 양질백자의 개발과 발전을 통해 한 차원 높은 수준의 백자문화를 이룩하였다. 또한 관요백자는 왕실이나 관청뿐만 아니라 양반의 감성을 자극하여 수요의 확대를 가져 왔고 조형과 그림 장식 등에서 중국과는 다른 백자의 제작 전통을 확립하며 공예문화를 주도하였다. 분청사기와 백자는 조선 전기 왕실과 양반, 일반 백성의 다양한 미감이 투영된 삶의 흔적이며 우리 문화의 자부심인 것이다.

〈전승창〉



한반도의 흙, 도자기로 태어나다

5

조선 진경의 정수, 후기백자

- 01 조선, 그리고 후기 백자
- 02 잿빛 백자에 철화용이 날고
- 03 우윳빛 달항아리에 푸른 새가 날고
- 04 청화 반상기를 수놓은 길상문

01

조선, 그리고 후기 백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엄청난 국난을 치른 조선은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야 했다. 사회적으로는 신분제의 변동이 일어나 계층 간 이동이 발생하여 반상(班常)의 구분이 일부 모호해지게 되었다. 도자 장인의 경우도 전반적인 신분의식의 고양과 그릇 생산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커지면서 조정에서도 장인의 모집과 대우에서 전대와 다른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경제적으로는 대동법의 시행 등으로 상품 경제의 싹이 트면서 그릇의 유통도 보다 활발해졌다. 이에 따라 백자도 상품으로 인식되어 상품 가치에 따른 가격의 차등이 이루어졌다.

국초부터 백자는 성리학을 국시(國是)로 한 조선에서 지배계층인 왕실과 사대부들의 이념을 표출하는 도구로 여겨졌다. 이에 따라 그릇의 사용에 있어서는 엄격한 제한을 두었으며 『경국대전(經國大典)』을 비롯한 여러 법전에서 구체적인 제한 조항을 두어 이를 어길 시는 국법으로 다스렸다.¹ 그러나 조선 후기 들어 백자는 이념 표출의 도구뿐 아니라 장식과 신분의 과시를 위한 사치상품으로 떠올랐다.

백자 소유의 평등

17세기들어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왕실만이 소유가 가능했던 백자를 공식적으로 사대부 계층까지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왕실 뿐 아니라 일반 사대부, 나아가 백성들까지도 비록 왕실용 청화백자와 같은 고급은 아니지만 지금껏 동경에 그쳤던 분원 백자나 인근의 지방 가마에서 생산된 백자 등을 일정 재화와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경향(京鄕)을 불문하고 상하 신분이 다른 계급이 백자라는 동일 품종의 그릇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하층민들에게는 고무적인 일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더욱이 추상적이고 간결한 문양에 단순한 조형의 식기류나 제기류의 제작은 지방 가마 어디에서도 가능했고 구매비용도 그리 많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으로부터 비싼 값에 사와야 하는 청화 안료인 회회청(回回靑)은 열악해진 경제 사정과 배척(排淸) 감정이 팽배했던 사상적 환경 탓에 수입이 거의 단절되었다. 대신 조선 어디서나 손쉽게 구할

회회청 안료
회회청은 청화백자의 안료를 달리 부르는 말이다. 산화코발트가 포함된 코발트 광석을 정제한 후 여기에다 점토와 장석 등을 혼합하여 잘 갈은 후 물을 섞어 제조한다. 고온에서 환원이 되면 푸른색으로 변하며 실제 붓칠을 할 때는 붓이 잘 나가도록 기름을 칠하기도 한다.
분원 백자관 소장.





철화백자포도문형이리

철화백자에 사용되는 산화철 안료는 휘발성이 강해서 농담 표현이나 필치에서 청화보다 불리하지만 일부 17세기 철화백자에는 숙련된 필치와 농담 표현을 찾아볼 수 있다. 탐스런 포도가지 사이에 원숭이를 표현한 한 폭의 목포도화 같은 느낌을 준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 17세기 말~18세기 전반, 국보 93호, 높이 30.8cm.

수 있는 산화철을 안료로 사용하는 철화백자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 철화백자의 안료는 취득이 용이해서 분원이나 지방 가마 모두 철화백자 제작이 수월하였다.

숙종연간인 17세기 말로 들어서면 점차 경제력이 회복되고 청과의 상호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분원의 청화백자 생산도 재개되었다. 또한 분원제도의 정비도 점차 본격화되고 분원에 품질 좋은 원료 공급이 원활하게 되었다.

이후 중국과 일본과의 증계 무역 등으로 부를 쌓으면서 이전에 비해 경제적, 정치적으로 그 위상이 높아진 사대부와 중인中人들은 왕실 전용의 청화백

자에 대한 강한 소유욕과 동경을 실천에 옮기게 되었다. 이것이 가능해 진 결정적인 계기는 분원 경영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17세기말 분원 장인들에게 사사로이 그릇을 구워 판매할 수 있는 사번私燔의 허용이었다.² 이에 따라 일반 사대부들도 비용만 지불한다면 청화백자의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제 왕실 전용의 청화백자는 고급 상품으로 탈바꿈하였다.

결국 17세기 들어 전국적인 백자 생산과 철화백자의 유행은 그릇을 통한 신분 상승의 욕구를 누리고자 했던 많은 이들에게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셈이다. 이런 의미에서 17세기는 전쟁의 후유증이 있긴 하나 일부 왕실 전용 그릇을 제외하고 경향의 각 수요층이 보편적인 양식의 그릇을 통해 신분의 평등을 누릴 수 있었던 시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부와 품격의 상징

17세기 말 분원 장인들에게 사변이 허용되면서 분원 백자는 왕실 그릇뿐 아니라 보다 상품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용봉문(龍鳳文) 등이 시문된 왕실 표상의 그릇을 제외하고 누구라도 경제력만 갖추면 있으면 왕실이 사용하던 최고급의 청화백자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그릇은 신분과 부(富)의 상징이자 왕실을 비롯한 다양한 수요층의 품격과 미적 취향이 반영된 정신성의 표상으로 자리하였다.

18세기 들어서는 이전에 비해 청화백자와 같은 고급 그릇에 대해 광범위한 수요층이 형성되었다. 또한 경제적인 여유와 사회 분위기의 변화 등으로 수요층들이 장식적인 그릇 사용에 보다 적극적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곧 백자의 양식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왕실 이외 가장 큰 수요층으로 자리한 문인 사대부층은 ‘학예일치(學藝一致) 사상’에 따라 자신들의 미적 취향이 그릇에 반영되길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회화적인 산수문이나 화훼문 등에 시를 적어 넣은 문인 취향의 자기 생산이 활발해졌다. 절제된 청화문양과 순결한 유백색의 유색(釉色)은 이 시기 문인들의 서정성을 잘 대변해 주었다. 또한 영조 후반 이후 양반의 수가 증가하면서 문인들의 전유물인 문방구류의 생산이 증가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기형에 있어서도 달항아리 등 조선 고유의 것이 있는가 하면, 각형(角形) 기형 등 중국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기형도 등장하였다.³

한편, 왕실 전유물이던 청화백자를 일반 사대부뿐 아니라 부를 갖춘 중인 계급들까지도 널리 사용하면서 그릇의 상하 구분은 애매해지게 되었다.⁴ 신분제 사회인 조선의 지배계급으로서 이러한 현상을 결코 묵과만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복식이나 가옥과 마찬가지로

로 그릇은 신분을 드러내는 장치이자 도구로 규제와 간섭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더구나 장식이 과다한 청화백자의 제작에는 적지 않은 재물이 소요되므로, 청화백자의 제작은 사회 전반적인 사치 풍조를 염려한 임금들에 의해 제재를 받기에 이른다. 급기야 영조 30년(1754)에는 사회 전반적인 사치풍조를 염려한 나머지 청화백자 금지령이 내려지게 되었다.⁵ 그러나 영조의 금지 조치는 사회 전반에 퍼진 사치풍조와 청화백자 수요층이 강고하게 자리한 탓인지 실제 출토된 자료 등을 보면 별로 실효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 정조 역시 도자기뿐 아니라 청 문물의 유입과 사치품의 만연에 따른 사회풍조를 몹시 염려하였기에 보다 통제가 가능한 백자 제작에 직접적인 금제 조치를 내렸다.⁶ 사대부는 마땅 검소한 그릇을 사용하고 사치품을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임금 스스로 화려한 청화백자보다는 아무 문양이 없고 질이 떨어지는 보통 그릇을 사용하여 모범을 보이기도 하였다.⁷ 또한 정조는 청으로부터 들어오는 그릇들을 천박한 상업문화의 일단으로 생각하였는데 자기는 사대부의 그릇으로 검소한 면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⁸ 영·정조 시기에는 이처럼 도자기뿐 아니라 복식과 머리모양에 이르기까지 금제 조치가 많았는데 이는 역으로 소비에 있어 사치가 심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19세기에 들어서면 세도정치에 참여하거나 부를 축적한 중인人, 상인商人계급은, 서울을 중심으로 경화사족京華士族을 형성하여 사치스러우면서 활발한 분위기를 이끌어나갔다.⁹ 이들은 경제적인 힘으로 신분상승을 꾀하거나 골동과 서화수장에 열을 올리게 되었다. 시대풍조에 편승하여 특히 화려하고 장식적인 중국 자기를 선호하였으며 이들 그릇을 모방하거나 호사스럽고 화려한 장식의 백자를 선호하였다.

왕실과 경화사족 등이 19세기 백자의 주 수요층으로 자리하면서



분체모란팔보문 의자
 조선 후기 중국에서 수입된 자기 중에는 청화백자 이외에도 유약 위에 안료를 칠하고 다시 한번 굽는 오채와 분체자기가 있었다. 특히 온갖 색상 표현이 가능한 분체자기는 청 18세기 옹정기에 완성되어 간롱기에 크게 유행하였는데 이들 그릇은 조선의 궁궐에서도 사용되었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중국 19세기.

전 시대 문인 취향의 고아한 품격과 격식보다는 중국 자기를 모방한 장식성이 강한 자기가 크게 유행하였다. 여기에는 잦은 연행 燕行에 따른 청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청조 고증학 清朝考證學의 유행, 청 문물의 유입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중국에 가서 직접 중국 그릇의 사용 실태를 접하거나 조선에 유입된 중국 그릇들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반면 이들에게 19세기 조선 그릇은 장식과 제작 기술적인 면에서 중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수요층의 기대에 못 미쳤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조선 백자의 수요층들은 외국 그릇에 더욱 경도되게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02.

잣빛 백자에 철화용이 날고

고난 극복과 분원제도의 정비

임진왜란 직후 조선의 상황은 피폐, 그 자체였다. 경제적 어려움 뿐 아니라 신분제의 동요로 나라는 마치 벌거벗은 민둥산 같은 처지가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궁궐에서의 그릇 사용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의례儀禮 시 사용되는 은기나 유기鑪器들이 전쟁으로 거의 파손되어 사용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종묘 제향에 사용할 유기와 은기들을 사기로 대체하였고, 이를 사신 접대 등의 국빈 대접용으로 사용하였다.¹⁰

신분에 따른 그릇 사용도 해이해져서 광해군 8년(1615)에는 궁궐에서 사용하는 그릇을 심지어 민간에서 대여하는 일까지 발생하자 이전의 규정대로 대전에서는 백자를, 동궁東宮에서는 청자를, 사신 접대를 담당한 예빈시禮賓寺에서는 청홍아리화靑紅阿里畵를 사용토록 채차 규정하였다.¹¹ 청홍아리화는 청화백자와 같은 채색장식이 가미된 그릇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17세기 초반 광주 분원의 탄벌리와 학동리 가마 등에서는 청화백자가 거의 출토되지 않았다.¹²

따라서 조선전기처럼 신분과 경우에 맞게 그릇을 사용해야 하는 당위성을 다시 주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¹³ 또한 조선 청자는 청자 태토에 백자 유약을 시유하거나, 백자 태토에 청자 유약을 시유한 것으로 조선 전기부터 꾸준히 제작되었지만 그 수량은 많지 않았다. 특히, 백자와 달리 청색을 내는 특성 탓에 왕실 가운데서도 동궁에서 애용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¹⁴

전란 후 경제적 궁핍은 백자, 특히 청화백자 제작에도 영향을 미쳤다. 비싼 가격으로 북경에서 사와야 하는 청화 안료는 상대적으로 청화백자 제작에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

다. 청화 안료의 구입이 용이치 않게 되자 조선 조정에서는 여러 가지 궁여지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였다. 이마저 뜻대로 되지 않자 철화백자로 이를 대신하게 되었고 효종대 이후에는 반청(反淸)감정까지 더해지면서 청화백자 생산은 상당 기간 중단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광해군 10년(1617) 북경에서 청화안료를 사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조정에서는 신하들이 바친 파손된 청화백자용문(龍文)항아리나 가화(假畫)를 각종 연례에 사용하였다.¹⁵ 여기서 가화란 초벌구이한 항아리에 먹이나 안료로 용과 구름 등을 그린 후 그대로 사용한 항아리를 일컫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조연간의 기록에 가화 용항아리를 운반할 때, 문양이 뭉개지고 닳았다는 기록이 있어 위와 같은 추정을 뒷받침한다.¹⁶ 이밖에도 아예 중국에서 청화백자용문항아리 한 쌍을 사



청자항아리
청색은 동쪽을 상징하고 왕세자가 궁궐의 동편에서 거주했기에 청자는 동궁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호림박물관 소장, 조선 15세기, 높이 23.4cm.

오기도 하였다.¹⁷ 광해군 14년(1621)에는 청화백자가 더욱 귀해서 대신들에게 가지고 있는 청화백자 용항아리를 바치도록 권유하여 상까지 내렸다.¹⁸ 인조 2년(1624)에도 역관 등이 북경에서 청화안료를 사오지 못해 청화백자 용항아리를 제작할 수 없게 되자 가화(假畫)로 대신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마저 계속 벗겨지자 결국 석간주로 용을 그려 사신 접대용으로 사용하였다.¹⁹

석간주(石間朱)란 산화철이 주원료인 광물성 안료로 국내에서는 여러 곳에서 출토되어 구하기 용이하였다. 초벌구이한 백자에 석간주로 문양을 그리고 재벌구이를 하면 주로 갈색이나 적갈색을 띠어 푸른 청화에 비해서는 하얀 바탕을 고려할 때 산뜻한 느낌이 줄어든다. 게다가 안료의 휘발성이 강해서 농담 조절과 붓질이 어렵고, 가마에서 소성 시 안료의 화학적 상태가 불안정하여 청화와 같은 선명한 문양을 얻기는 매우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석간주를 안료로 사용한 철화백자는 거칠지만 대담한 표현과 회백색의 색상으로 이 시대를 주도하였다.

한편, 이 시기 경제적 어려움은 왕실 전용 그릇 공장인 사옹원(司饔院) 운영과 그릇 생산에도 영향을 미쳤다. 경제적 어려움은 물력의 부족으로 이어져 성리학의 국가인 조선이 가장 중요시하던 제기(祭器)마저도 제대로 제작하지 못하였다.²⁰ 이에 내섬시(內贍寺)를 제외한 각사(各司)의 그릇을 전부 도기(陶器)로 대체 사용토록 하였다.²¹ 정묘호란 직후인 인조 6년(1628)²²과 병자호란 직후인 인조 15년(1637), 인조 24년(1646)에는 물력을 아끼고 민폐를 줄이기 위해 1년간 분원에서 장인을 모집하지 않고 아예 백자 제작을 중지하기도 하였다.²³ 그릇의 운반도 불안정해서 인조 26년(1648)에는 진상(進上) 그릇을 궁궐로 운송하는 도중에 귀중한 용항아리뿐 아니라 전체 상납 그릇의 1/4가량이나 파손되는 일이 발생하였다.²⁴

철화백자 운룡문항아리

17세기 들어 청화백자 생산이 곤란해지자 철화백자가 그 자리를 대신하여 각종 연회에 사용되었다. 특히 운룡문항아리는 분원과 지방 가마 등지에서 여러 개가 제작되었고 일부 문양은 극도의 양식화 과정을 거친 것들도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 17세기 전 반, 높이 41.5cm.



경영의 어려움과 신분제의 동요로 분원 사기장의 모집과 운용은 더욱 힘들어졌다. 원래 분원 사기장의 정원은 380명으로²⁵ 전국의 사기장들이 차례대로 돌아가며 일하였고, 분원에 오지 않은 외방^{外方} 사기장들은 세금으로 가포^{價布}를 바쳤다. 외방사기장 총수^{總數}가 원래는 1,140명이었으나 전란 이후 그 수가 점차 줄어들어 821명에 불과하였다.²⁶ 장포를 바치는 외방장인들이 장포를 바치지 않거나, 분원에 들어와 일해야 할 장인도 힘든 노역을 피해 상대적으로 일하기 쉬운 다른 군역^{軍役}을 택해 떠나는 일이 벌어졌다.²⁷ 이에 분원의 백자 생산이 위축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분원에서 사용하는 백토는 산지의 백성들이 산비탈에 올라가 바위 덩어리 백토를 캐서 운반해 와야 했고, 그 대가로 노역을 지불받게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노임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인조 연간 원주토의 경우 제때에 백토 채굴이 안 되었고²⁸ 효종 때에도 백토 채굴에 따른 백성들의 고초가 거듭 보고되었다.²⁹ 이 시기 사용된 백토 산출지로는 황해도 곡산, 강원도 원주, 충청도 서산, 평안도 선천, 경상도 경주 등이 있었다.³⁰ 전국 각지의 태토 중에서도 이들 지역의 것이 백자 제작에 가장 적합하여 왕실용 그릇 생산에 주로 사용되었다.

17세기 후반인 숙종연간에 접어들면서는 정치, 경제적 안정에 힘입어 분원제도의 정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전란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분원을 경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사번^{私燔}의 허용이었다. 사번이란 왕실용 그릇을 진상하고 남은 그릇을 분원 장인들이 생계를 위해 시장이나 민간에 판매하는 것을 지칭한다. 원래 조선 전기부터 분원의 장인들은 암암리에 사번을 해왔으나 왕실 종친이나 고관대작들의 묘지 제작 정도의 적은 양이었고 그나마 사용원 제조인 중



동화백자 박증구 묘지명(1684)

17세기 사번은 동화백자에서도 찾아 볼 수 있었다. 산화동을 안료로 사용하는 동화백자는 청화나 철화백자에 비해 안료의 소성 온도도 높고 휘발성도 높아서 제대로 된 것을 얻기 어려웠다. 더구나 적색을 사치를 상징하는 색으로 여긴 탓에 17세기 후반에야 비로소 제작이 가능하였다. 이 묘지명은 음각을 하고 그 위에 산화동 안료를 바르는 식으로 제작되었다.

오사기시립동양도자미술관 소장, 조선 1684년.

친들이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어서 장인들의 생계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³¹

숙종 23년(1700)에는 기근이 심해지고 장인들의 고통이 더욱 극심해지자 정부는 아예 공식적으로 사번을 허용하였다.³² 이에 분원 장인들은 생계의 고통을 덜면서 왕실뿐 아니라 새로운 수요층으로 등장한 문인의 취향에 맞는 자기 제작에 점차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사번은 향후 청화백자와 같은 고급 그릇들의 수요층 확대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는데, 주로 갑발匣鉢에 넣어 굽는 갑기와 청화백자가 사번의 주류를 이루었다.³³

숙종연간에도 광주 분원에서 사용하는 백자 원료는 전국에 걸쳐 다양하게 채취되었다.³⁴ 원료를 캐고, 운반할 때는 사용원의 하급 관리인 낭청郎廳이나 장인 중 우두머리인 변수邊首가 파견되어 채굴의 철저함을 기하였으며 실험을 거쳐 최고의 태도를 선별하였다.³⁵

태토를 운반할 때는 원거리인 선천토宣川土와 경주토는 그곳에서 수비水飛하여 적당한 크기로 나누어 분원까지 운송하게 하였다.³⁶ 운송은 인근 읍에서 말도록 하였고 최종적으로 육로와 수로를 이용하여 분원까지 운반하였다. 가마 축조 및 갑발용 흙과 유약 원료인 나무 재도 동일한 방식으로 굴취·운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³⁷

조선시대 분원은 초벌구이와 재벌구이에 소용되는 막대한 땀값 조달로 대략 십 년 정도에 한 번씩 다른 지역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되었다.³⁸ 이동 시 새로운 작업장 및 숙소의 건설과 필요한 자재의 운반은 모두 장인들의 몫이어서 분원의 이



동은 장인들에게 엄청난 고역이었다. 또한 분원 이전에 막대한 비용이 들며, 게다가 이전해 갈 장소에 광주 백성들이 들어와 화전火田 농사를 짓는 일이 빈번해졌다. 따라서 차라리 분원을 고정시키고 땀값을 운반하는 합리적인 방안이 고려되었다.³⁹

한편, 이 시기에 지방 가마는 급속도로 증가하였는데 수요층의 증가와 상품 경제의 확산으로 지방에서도 백자 수요가 증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발굴된 지방 가마 중에서는 당시의 제작기술을 잘 보여주는 것들이 몇몇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장성 대도리 가마⁴⁰는 가마

대도리 가마 전경
장성 대도리 가마에는 불완전하긴 하지만 칸과 칸 사이에 반도염식 가마의 핵심인 격벽이 등장한다. 격벽은 가마 안의 불꽃 순환이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격벽의 출현은 조선 전기와 후기 가마를 가름하는 기술적 발전의 중요 요소 중 하나이다.

바닥이 거의 수평에 가깝고 굴뚝부로 갈수록 넓어지는 사다리꼴 형태를 하고 있다. 전체 길이는 23.5m에 평균 너비 2.8미터로 마지막 칸은 초별칸으로 최대 너비가 3m에 달한다. 이는 조선 후기의 전형적인 가마 형태이다.

다음 부여 갓점꼴 가마는 길이 19.6m, 너비 1.73~2.25m로 너비는 장성 대도리에 비해 좁으며 경사도는 약 17도를 이룬다. 갓점꼴 가마는 불창 기둥과 기둥 위 격벽 설치의 흔적을 비롯해서 각 칸이 계단을 이루는 등 좀 더 반도염식^{半倒炎式} 가마에 가깝게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⁴¹ 위와 같은 17세기 지방 가마의 가마 구조를 통해 형태가 온전히 남아 있지 않은 분원 가마의 구조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철화백자에 나타난 새로운 전범^{典範}

17세기 분원은, 발굴 수습된 편년자료를 통해 탄벌리를 거쳐 상림리(1631~1636)와 선동리(1640~1649), 효종 연간에 송정리(1649~1653), 현종과 숙종 초반에 걸쳐 신대리(1665~1676), 지월리(1677~1687), 궁평리, 관음리(1690년대)를 거쳐 숙종 43년(1717)에는 실촌면 오양동으로 이전한 것을 알 수 있다.⁴²

이들 관요의 출토품을 보면 먼저 17세기 후반 이후에는 더 이상 청자가 보이지 않아 청자 제작이 중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 전기 세자^{世子}가 청자를 사용한다는 규정이 변화된 것을 의미하며 왕과 왕세자의 그릇 사용에 있어 이전과 다른 규범이 적용되었거나 엄격한 구분이 사라졌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다음 청화백자의 출토는 극히 적은 반면 철화백자는 1630년대 상림리 가마부터 등장하여 17세기 중·후반에 걸쳐 꾸준히 출토되

었다. 이는 조선 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석간주를 사용하여 용문
항아리 등을 제작한 기록과도 일치한다.⁴³

세 번째로 백자의 굽 안에 음각으로 간지干支에다 좌左 또는 우右,
혹은 숫자를 새긴 간지명 자기가 1600년대의 탄벌리 가마에서 1670
년대의 신대리 가마에 이르는 시기에 출토되었다.⁴⁴ 간지를 새기는
것은 그릇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간 사취 등의 문제를 사
전에 방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된다. 하지만 모든 그
릇에 간지가 새겨진 것이 아니고 주로 완과 발의 일부에만 존재하
므로 관련 자료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끝으로 당시의 어려운 분원 상황을 반영하듯 원료의 정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철분이 많이 섞인 회백색의 백자가 주를 이루
었다.

한편, 이 시기 백자의 조형은 관요 중 1640년대 선동리 출토품을
비롯해서⁴⁵ 여러 가마 출토품을 비교하면 대강의 윤곽을 알 수



송정리 가마 출토 간지명 백자편
간지를 음각하여 제작 시기를 표기한 것
은 분원에서 서울 사용원 본원으로 운송
도중에 자주 그릇이 깨지거나 중간 관리
들의 농간으로 유실되면서 이를 막기 위
한 방편이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있다. 먼저 항아리는 둥그런 단지 형태와 키가 큰 항아리로 구분된다. 단지는 몸통을 약간 눌러놓은 주관알 같은 타원형 형태로 이전에 비해 크기가 커지고 굽은 안으로 움푹 들어간 오목굽으로 바뀌었다. 구연부는 45도 각도로 밖으로 벌어진 형태와 밖으로 벌어졌다가 다시 안으로 꺾여서 향하는 다이아몬드 형태, 수직으로 직립하는 형태 등 대개 세가지이다.

특히 단지와 같은 둥그런 항아리는 17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굽과 구연부, 최대 지름과 높이가 유사한 이른바 달항아리로 바뀌어 이 시기를 대표하는 항아리로 자리 잡게 된다. 달항아리는 이전 시기 항아리보다 몸집이 훨씬 커져서 상하 몸통을 별도로 만들어 접합하여 제작하였다. 달항아리의 용도는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소형의 경우는 음식 저장용으로, 대형의 경우는 의식용 화준이나 감상용으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백지달항아리

조선후기에 나타나는 달항아리는 상하 접합의 흔적이 뚜렷해서 성형을 숙이지 않는 정직함이 있고, 몸은 비록 한쪽으로 기울어도 그대로 있는 당당함이 있다. 동시기 중국이나 일본에선 찾아볼 수 없는 무기교의 독특함을 지니고 있다.



병은 조선전기 팽만한 형태에서 점차 가늘고 긴 날씬한 형태로 바뀌었다. 상대적으로 목 부위가 길게 변화하면서 조선 후기 병의 전형을 보여준다.

접시는 굽을 기준으로 하면 4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V자형의 높은 굽과 낮은 굽, U자형의 넓은 굽, 안으로 파진 오목 굽 등이 제작되었다. 특히 오목 굽과 높은 굽은 이 시기 크게 유행하였다.⁴⁶ 이들 거의가 가마에서 번조 시에는 조선전기 태토를 빚어서 받침으로 사용했

던 것과 달리 모래를 받침으로 주로 사용하였다. 또한 외반된 구연부와 안바닥에 음각이 있으며 굽이 안으로 굽은 형태에서 점차 안바닥에 음각이 사라진 수직굽의 형태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 잔과 완도 점차 안 바닥에 등근 음각이 있던 것에서 음각이 사라지는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

문양은 관요 출토품과 전세품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시기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철화백자가 유행하였는데, 청화백자와 달리 안료가 잘 번지고 붓이 잘



나가지 않아 농담 표현이 쉽지 않았다. 후대 영조가 이 시기 철화백자에 대해 “물력物力이 부족하여 비록 색이 일정치 않고 형태가 불분명하지만 사대부의 검소함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한 것을 보아도 철화백자의 문양 표현이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⁴⁷ 이 시기 철화백자는 휘발성이 강한 안료로 인해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으나 이를 검소함의 표상으로 여겼던 수요층의 사상과 미감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철화백자 문양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와 파격을 보인 것은 용문양이었다. 용은 말 그대로 왕실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교하고 섬세하게 표현되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나 17세기 철화백자에 그려진 용은 정교하고 엄격한 모습부터 윤곽선만으로 간략하게 그려져 그 형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까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이화여대박물관 소장품의 철화백자의 용의 목은 마치 커다란 스카프를 두른 듯한 형태로 몸통으로 연결된다. 등의 가시는 작고 가늘며 비늘은 촘촘하고 정교하게 시문되었다. 또한 여의두형 구름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훨씬 더 정교하게 그려진 것을 알 수

철화백자시명전점시
구연부 테두리가 밖으로 외반한 점시로 가운데를 구획하여 칠연절구의 시를 적어 놓았다. 구연부에는 대나무와 매화를 간단하게 묘사하였는데 필치는 떨어지는 편이다. U자형 굽바닥에 정사조(丁巴造)라고 철화로 적혀 있어 1617년 혹은 1677년에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호림박물관 소장, 조선 1677년, 지름 22cm.



철화백자운룡문항아리

17세기 철화백자운룡문항아리 중에서 대개 종속문양이 있는 것은 정교하고 섬세한 표현이 많아 연례 때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종속문이 없는 경우는 자유분방하고 격식에서 벗어난 파격적인 문양 구도와 필치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화여대박물관 소장, 보물 645호, 높이 45.8cm.

있다. 그릇의 형태는 구연부가 직립하고 둥근 어깨와 비스듬하게 굽까지 연결된 윤곽선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용문양은 일부 과장된 몸짓과 해학적인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상하 종속문 사이에 정제된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 이와 상반된 모습의 용이 대략 17세기 중·후반인 숙종 이후에 등장한다. 철화백자운룡문달항아리는 항아리의 가로, 세로의 길이가 거의 같아 마치 둥근 보름달을 연상시키는 달항아리이다. 종속문은 생략되고 오직 용과 신속하게 윤곽선만으로 그려진 구름만이 항아리 가득 포치해 있다. 커다란 타원을 그리며 꺾어진 목과 아동만화의 한 장면처럼 허공에 떠 있는 한쪽 눈, 정교함을 찾아볼 수 없는 비늘 채색, 천진난만하게 앞 이빨을 다 드러낸 표현 등은



이 시기 왕룡의 석물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서 시대 양식의 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용항아리는 왕실뿐 아니라 민간에도 유통되면서 보다 양식화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기도 일대 가마에서도 익살맞은 운룡문이 커다란 철화백자항아리에 그려진 것이 출토되어 지방에서도 사번私燔으로 유통되었던 것 같다.

한편, 용에서 보이는 만화 같은 이미지는 호랑이에서도 발견된다. 조선시대 철화백자호로문호鐵畫白磁虎鷺文壺에는 무시무시했던 호랑이가 천진난만하게 묘사되었다. 호랑이는 이전부터 벽사의 의미로 궁궐 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세화歲畫와 문배門排 그림으로 크게 유행하였지만 도자기에는 이 시기 들어 처음으로 등장한다.

철화백자운룡문항아리

17세기 후반에는 양식화된 용의 표현이 종속문이 없는 철화백자항아리에 많이 나타난다. 지렁이나 혹은 지네 같은 몸매에 과장된 얼굴과 신속하게 채색한 비늘 등은 이 시기만의 독특한 특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미감의 발로는 동시기 월남의 청화백자나 중국의 민요 청화백자에서도 일부 발견된다.

국립광주박물관 소장, 조선 17세기 후반, 높이 33.9cm.



철화백자호로문항아리 (왼쪽)
17세기 들어 나타난 호랑이 문양은 매우 희화화(戲畵化)되어 마치 민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한다. 이 항아리의 경우 호랑이 이외에 백로, 연꽃, 대나무 등이 앞뒤로 묘사되어 재미있는 문양 표현과 더불어 다양한 상징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오사까시립동양도자미술관 소장, 조선 17세기, 높이 30.2cm.



철화백자매죽문항아리 (오른쪽)
매화와 대나무는 전통적으로 문인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특히, 당대 화풍과 많은 유사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항아리처럼 전통적인 증속문 구도에 흐트러짐 없는 필치는 어몽룡이나 이정 등의 화풍과 유사하여 17세기 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 17세기, 국보 166호, 높이 41.3cm.

그러면 이처럼 양식화된 용이나 호랑이 문양이 17세기 철화백자에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양식화된 문양들은 주로 증속문이 없는 그릇에 나타난다. 이들 그릇들은 궁궐의 공식 행사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대부나 민간의 주문품일 가능성이 크다. 최고 권위를 상징하는 용문양의 그릇들이 왕실의 상징이 아니라 벽사와 감상용, 혹은 민간 신앙의 차원에서 널리 사용되면서 양식화되었을 가능성을 점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문인을 상징하는 매화와 대나무의 표현에서는 당대 화풍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조선 전기 청화백자에 나타난 매죽문이나 송죽문이 당대 화풍을 충실히 따랐던 것처럼 17세기 철화백자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다. 17세기 전반의 경우 매화문의 구도는 중앙을 비워 입체감을 강조하였고 반원을 그리듯 굽어 올라 간 가지, 부러진 굽은 줄기와 과장된 용이가 표현되어 17세기 전반의 화풍과 유사하다.⁴⁹ 또한 대나무의 죽절과 죽엽 등에 나타난 구도와 강렬한 명암대비, 묘법 등은 선조 연간 묵죽화의 대가였던 탄은(灘隱) 이

정(李震, 1554~1626)의 묵죽도와 유사하다.⁵⁰

반면 17세기 후반에는 매화 잎을 윤곽선으로 형식적으로 처리하고 가지는 굵게 채색하였다. 뒷면의 대나무는 산만하게 3갈래로 갈라진 잎을 거칠게 표현하여 화풍으로는 17세기 후반 허목, 김세록(金世祿, 1601~1689), 이징 등의 대나무 화풍과 가깝다.

왜관 다완 - 한·일 공동 프로젝트

조선과 일본은 임진왜란이라는 혹독한 전쟁을 치렀지만 일본의 강력한 요청으로 양국간의 교류는 지속되었는데, 특히, 이 시기 조선과 일본 간의 도자 교류는 매우 흥미롭다. 사실 도자를 매개로 한 교류는 조선전기부터 말기까지 꾸준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임란왜란이라는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다수의 장인들이 납치된 상황이었던 터라 일반적으로는 교류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상황이 이루어졌다.

당시 조선과 일본의 도자 교류 양상은 일본 최초의 백토를 발견했던 이삼평을 비롯한의피랍도공의 활동과 대마도의 요청에 따라 다완을 번조해 주었던 왜관요로 대표된다.⁵² 이 중에서도 왜관에서 벌어진 도자 무역은 당시 양국의 현실적 이해 관계와 일본 내의 조선 다완에 대한 기호의 변화 등이 맞물려 약 100여 년간 지속되었다.

임진·정유 왜란 이후 조선과 일본은 임란 이전 사용하던 왜관을 통해 무역을 재개하였다. 무역의 주체는 부산 첨사와 동래 부사 그리고 일본은 대마도주對馬島主였다. 무역품 중에는 자기도 포함되어 있었다. 일본은 대마도주가 에도 정부에 선물로 보내기 위해 자기가 필요했다. 이는 무로마치 시대 이후 일본의 상류 계층에서 조선 다완에 대한 애호가 상당했기 때문이다.⁵³ 반면, 조선은 많은 인력



아리타 이삼평비

일본 큐슈의 아리따와 가고시마 등 여러 곳에는 임진왜란 당시 납치되었던 장인들의 자취가 남아 있다. 이들은 백자 태토를 발견하거나 제작기술을 전수하는 등, 일본자기 제작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이삼평 역시 아리타에 끌려온 조선도공 중 한 사람으로 현재는 도조(陶祖)로 추앙받고 있다.

과 물력이 소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이후 일본으로 잡혀간 포로의 귀환과 일본과의 교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시혜적 차원에서 다완 번조 요청에 응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의 다완을 토산품으로 활용했던 일본과 달리 조선은 사기번조를 위해 흙과 연료, 장인 등을 왜관 안으로 조달해야 했으며 이로 따른 민폐를 감수해야 했다. 이에 따라 거절하는 경우도 빈번하였고, 구청求請 과정에서도 숙종 29년의 예처럼 명분과 격식을 중히 여겨 이에 합당치 않으면 단호히 거절하였다.⁵⁴ 이는 일본에 대한 당시 지배층의 생각이 화이관華夷觀에 입각한 문화적 우위를 바탕으로 비우호적이었음을 잘 보여준다.⁵⁵ 즉, 그들의 요청에 따른 시혜적 차원의 교류였을 뿐 우리가 그들로부터

받은 영향은 찾아보기 힘들다.⁵⁶ 그럼에도 좀처럼 보기 힘든 한·일공동 그릇 제작이 왜관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이후의 역사를 살펴볼 때 더욱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류관련 문헌 기록에서 도자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은 광해군 3년(1611) 왜관의 동관과 서관을 신축 하자마자였다.⁵⁷ 이때 왜인들이 요청한 것은 다완이었고, 이에 동래부사는 김해의 장인들로 하여금 만들어주도록 하였다. 조선 다완에 대한 일본인들의 선호는 조선 전기부터 있던 것으로 일본의 각종 다회茶會에 조선의 다완을 사용할 정도로 일본 내에서는 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인조 17년(1639)에는 그릇 제작의 우두머리인 두 왜頭倭 등이 각종 다완의 견본을 가지고 와서 장인과 백토, 나무 등을 왜관 안으로 들여와 다완을 제작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일본은 다

완 제작을 감조하기 위해 왜관 안에서 번조를 원했지만 조선은 진주와 하동의 장인들을 불러 왜관 밖의 가마에서 제작하도록 하였다.⁵⁸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주문한 다완의 제작이 끝나면, 조선 장인들은 원래의 가마로 돌아갔다.⁵⁹ 인조 22년(1644)에는 보다 구체적인 원료와 장인의 수까지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다완 번조에 사용되는 백토와 황토, 유약 원료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약토藥土가 등장하였고 장인의 수는 5~6명으로 증가되었다. 이후 인조 25년(1647)에는 아예 사기번조를 담당할 번조차왜燔造差倭가 번조를 청하였다.⁶⁰

효종 1년(1650)에는 다완과 백토, 장인을 요청하였는데,⁶¹ 이전과 달리 왜관 안에서 그릇 번조가 이루어져 명실 공히 왜관요에서 다완 제작이 개시된 것으로 여겨진다. 효종 7년(1656)에는 사기번조차왜沙器燔造差倭 외에도 장인왜匠人倭가 서계를 가지고 찾아와 번조 요청을 하였다.⁶² 왜관 안에서 번조가 이루어지면서 아예 번조 과정에 동참하기 위해 장인왜까지 조선에 파견한 것으로 보인다.⁶³ 이후 현종 14년(1673)에도 사기번조를 위해 번조두왜와 공장왜 등이 장인과 토목 등을 요청하였다.⁶⁴

숙종 3년(1677)에는 새로이 사기번조 감역왜監役倭가 등장하는 등 일본 측이 보다 적극적으로 구청에 임하였으나 가지고 온 서계書契에 문제가 있어 이를 되돌리는 일까지 발생하였다.⁶⁵ 숙종 7년(1681), 대마도주는 에도의 새로운 관백關白이 많은 그릇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에 부응하기 위해 더 많은 각종 사기번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감역왜뿐 아니라 실제 작업을 하는 공장과 서공書工, 조각을 맡는 각 2인의 왜인 등을 파견하여 실제 작업에 참여시키고자 하였다.⁶⁶ 숙종 13년(1687) 역시 경주 백토 45석, 진주 백토 45석, 곤양 백토 45석, 하동 백토 45석을 비롯해서 김해 적감토 90석, 울산 약토 90석 등 총 360석을 요청하였고 사기장 2인은 양산과 기



왜관요 다완

조선전기부터 17세기까지 일본 다도의 연회에서 사용되는 다완 중에 조선의 다완들이 꽤 인기를 끌었는데 대부분 조질의 백자나 분청사기에 가까운 것들이었다. 이들 다완들은 18세기 들어 일본 내에 이를 모방 제작하는 가마들이 생겨나면서 점차 인기가 시들해져 갔다.

장에서 각 1명 씩 왜관 안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⁶⁷

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이 요구하는 사기번조의 양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조선의 민폐도 만만치 않아 구청을 거절하는 경우도 빈번해지게 되었다. 또한 점차 주문하는 도자기의 양식도 일본식으로 변하여 조선식 다완을 선호했던 초기와는 양상이 달라져 초기에 내세웠던 번조의 명분도 희미해졌다. 이후 조선의 빈번한 번조 거부와 대마도의 경제 사정 악화, 일본 내 조선 다완을 모방 제작하는 가마들이 생겨나면서 무역 이익이 감소하자, 대마도의 조선에 대한 다완 번조 요청은 속종 말엽 막을 내리게 되었다.⁶⁸

우윳빛 달항아리에 푸른 새가 날고

숙종 말기 정치, 경제적 안정에 힘입어 분원제도 정비가 완성되면서 그릇 생산도 활력을 되찾게 되었다. 백자의 색상도 회백색에서 정갈한 유백색으로 변했으며 뽀얀 바탕의 표면에 우아한 필치와 화격(畫格)이 풍겨 나오는 문양이 그려졌다.

이화여대박물관 소장의 철화백자포도문항아리는 상하로 접합된 것으로 한 폭의 묵포도도를 연상시키는 포도가 시문되었다. 항아리 상반부에 횡으로 길게 늘어진 가지와 포도알, 포도잎이 어우러진 전체 구도는 16세기 황집중과 이계호의 포도도와 유사하다. 잎맥의 표현에서 보이는 정교함과 가지의 굴곡과 구도, 선명한 포도알 하나하나에 나타난 철화, 농담 조절에 의한 묵법의 변화는 정제가 잘 된 유백색의 유색과 어우러져 회백색의 백자가 유행하던 17세기와는 다른 새로운 국면을 여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포도가 지니는 상징성에 대해서는 명 초기 명필가이자 포도 그림의 명가로 활약했던 악정(岳正, 1418-1472)이 쓴 「화포도설(畫葡萄說)」에서 포도를 청렴함과 강직함, 겸손과 화목 등의 사군자에 버금가는 것으로 인식했음을 읽을 수 있다.⁶⁹



철화백자포도문항아리
조선백자는 번조 후 수축률이 20%에
가깝고 강도가 그리 높지 않아 대형으
로 만들기 쉽지 않다. 그러나 17세기 후
반에는 상하 접합 방법을 이용한 대형
항아리의 제작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
이는 원료 정제와 성형 기술 발전의 결
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화여대박물관 소장, 조선 18세기 전
반, 국보 107호, 높이 53.8cm.

숙종기를 지나 흔히 문예부
흥기라 부르는 영·정조기에
들어서면 정치·경제적 안정
과 학문과 예완(藝玩)을 겸비한
군주들의 후원을 바탕으로 조
선백자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된다. 수요층이 확대되었고 문
인풍의 양식이 개화를 맞이하
였다. 17세기에 크게 유행했던
철화백자뿐 아니라 청화백자
와 동화백자, 또한 두 가지 이
상의 안료를 사용한 그릇들이
다양하게 제작되었다.

한편, 18세기 중반부터는 많
은 수는 아니지만 왕실 행사에

서 중국 그릇의 사용이 발견되고 있어 주목을 끈다. 영조 35년(1759)
『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는 당보아(唐甫兒), 당대접, 당사발, 당
종자 등의 기록이 등장하고,⁷⁰ 당사기고(唐沙器庫)가 1칸이 별도로 마
련되었다.⁷¹ 이후 정조가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의 회갑잔치를 열었
던 1795년에는 분원의 각종 갑번자기뿐 아니라 화당대접, 화당사
발, 화당접시, 채화동사기(彩花銅沙器)가 사용되었다.⁷² 이를 통해 영
조와 정조 모두 사치풍조를 염려하여 청화백자와 갑번자기 등의 제
작 금지를 명하고 중국 자기의 사용을 경계하였다. 그러나 한편으
로는 왕실의 권위를 위하여 각종 연회에서 이들 그릇이나 이들 그릇
을 모방한 그릇을 사용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고유 양식의 개화

영조 연간은 백자 제작기술과 양식, 생산체제에서 조선의 고유성이 마음껏 발휘되어 꽃을 피운 시기였다. 시서화(詩書畵)에 능했던 영조는 일찍이 사용원 도제조를 지냈는데,⁷³ 당시 분원 관리들이 중간에서 그릇을 가로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석간주(石間朱)로 진상다병(進上茶瓶)이라 쓰게 하여 진상시키기도 하였다.⁷⁴ 또한 산수와 화훼 등의 도자기의 밑그림을 직접 그려 분원에 가서 구워 오라고 명하기도 하였다.⁷⁵

경제적 안정과 청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무역을 하면서 청화백자의 안료인 회회청을 쉽게 살 수 있게 되자 자연스럽게 청화백자의 제작이 활발해졌다. 사대부의 최고 덕목인 청렴 결백을 나타내는 절제된 문양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유백(乳白)색의 백자가 금사리 등지에서 제작되었다. 여기에 조선 중화의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듯 조선 고유의 기형과 문양이 중국풍의 것들과 조화를 이루어 시대 양식을 이끌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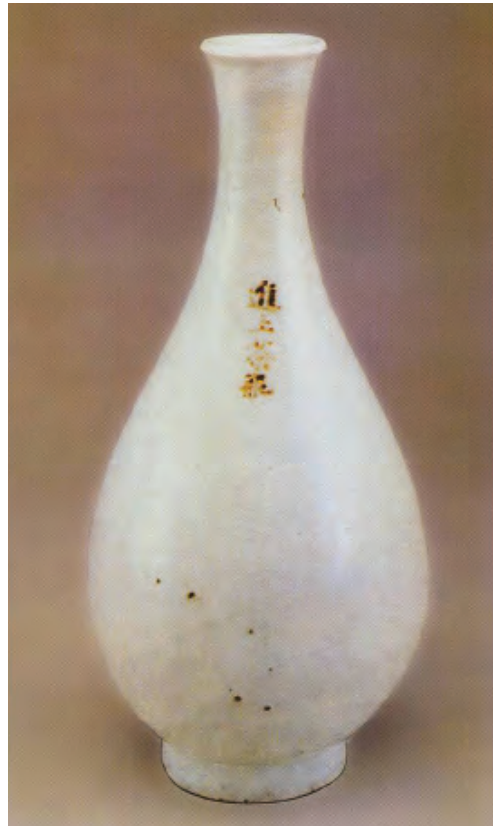
중국에 대한 인식도 변화되었다. 당시 조선 사대부들은 계속된 연행(燕行)을 통해 청을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는 중국 문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를 마련하여 이들이 선호하던 도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⁷⁶

당시 문인 사대부들은 경제적인 여유와 사회 분위기 탓에 점차 주문 기명의 수량과 종류를 확대해 나갔으며 이에 따라 이들의 예술적 취향

철화백자진상다병명병

다병은 다례에 사용되던 것으로 조선시대 다례가 보편화되면서 제작량이 증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병은 목이 길고 몸체가 둥글게 형성되어 기형상으로 17세기 병과 거의 차이가 없으며 기록에는 수백 개를 한 번에 제작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해강도자미술관 소장, 조선 1720년대, 높이 39.5cm.



이 적극적으로 자기에 나타나게 되었다. 산수문과 사군자가 새롭게 주 문양으로 등장하였고, 달항아리와 떡메병을 비롯해서 양반을 상징하는 연적과 필통 같은 문방기명(文房器皿)의 생산이 확대되었다. 여기에 중국자기의 양식적 특징인 각형 기형이나 여러 가지 장식기법도 유입되었다.

영조 연간 분원의 태토를 캐낼 때는 사용원에서 낭청이 파견되어 이를 감독했으나 이들의 폐단이 심하여 낭청 파견을 금지시켰다. 대신 현지 현감을 차사원으로 정하여 굴취를 전담시키고 개굴은 본현에서 운송은 인근 읍에서 맡도록 하였다.⁷⁷ 이런 가운데 광주(廣州)·진주·곤양·양구 등이 태토의 주요 원산지로 법전에 등재되었고 곤양토는 유약의 원료인 물토로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⁷⁸ 이들 원료들은 강원도와 경상도 등지에서 배편으로 한강 변의 분원까지 운송되었다.

연료는 대개 일 년에 8,000여 거(法)의 막대한 양의 나무가 소용되는데 분원 부근의 나무를 장인들이 직접 베어 가마 번조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10년이면 거의 소진되어 가마를 옮겨야 했다.⁷⁹ 이 동 시에는 장인들이 옮겨갈 장소를 물색하고 건물을 짓고 원료를 운반하는 등 그 노고가 보통이 아니어서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연료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이에 가마를 옮기지 않고 직접 땀나무를 사기 위해 새로운 세원(稅源)을 찾던 중 광주 시장(柴場) 내의 가호미(家戶米)와 화전세로 우천 강변을 지나는 나무를 땀나무로 사도록 하였다.⁸⁰ 그러다 여기에 우천강을 지나는 상인들의 나무에 10%의 세금을 붙여 이를 토대로 분원의 땀나무를 구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우천강 목물수세(木物收稅)로 영조 원년인 1724년부터 시행되었다.⁸¹

또한 영조 30년 경에는 화원이 내려가지 않아도 청화백자가 분원에서 제작되었다는 기록으로⁸² 보아 이 시기에는 분원 안에도 그



림을 담당하는 화공들이 존재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전까지 청화백자의 문양은 조선 최고의 화원들이 담당했으므로 분원 내에는 화공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사변이 허용되고 안료의 가격도 싸지면서 분원 내에도 자연 그림을 담당한 화공이 생긴 것으로 여겨진다.

분원강 전경
 팔당댐 건설로 지금은 조선시대 분원 일대의 풍경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원료 창고 등은 강가에 배치하고 가마는 산기슭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서 한강을 따라 창덕궁 사용원 분원까지, 배편으로 진상할 백지를 운반했을 것이다.

한편, 경종 연간 남종면 금사리로 이전된 분원은, 이후 기록들을 보면 당분간 이설된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⁸³ 그 후 금사리에서 30여 년을 정착한 분원을 좀 더 수상 운반에 편리한 곳으로 옮기게 되었으니 그곳이 바로 분원리다. 영조 28년(1752) 봄에 분원리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쳐지는 수운의 편리함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⁸⁴

그릇의 유통을 보면 궁궐 이외 각 관사에서 소용되는 자기들은 공인(貢人)들이 사기전(沙器廩)을 통해 각사에 납품하였다. 오늘날 정부에서 필요한 물자를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였지만

관리들의 지나친 간섭과 부정으로 효종 8년(1657) 해체되었다.⁸⁵ 이후 다시 복구되었지만 폐단이 심해져서⁸⁶ 공조에서 별도로 사기를 무역하거나 사기점인(沙器店人)에게 수세하기도 하였다. 또한 진상 자기 중 수납이 거부된 수량의 반을 공조에서 받아 충당하였다. 그러나 당시 장인들이 사기전을 열거나 매매행위에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것은 여러 견제를 받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으로 여겨진다.⁸⁷

청화백자초화문 팔각항아리
원형의 항아리를 팔각으로 각을 낸 형태는 이전에는 볼 수 없던 것으로 아마도 중국자기의 각형 형태에서 힌트를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처음부터 보통의 항아리보다 두껍게 성형을 해야 하므로 건조 과정에서 잘 터질 수 있다. 또한 모퉁이 과정에서도 비례를 고려하고 주판알 형태로 잘 다듬어야 하므로 상당한 솜씨를 요구한다. 항아리 이외에도 팔각병도 18세기부터 등장한다.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소장, 조선 18세기 전반, 높이 24.7cm.

백자에 재현된 조선 진경

영조 전반 분원이 위치했던 금사리의 가마(1720~1752) 도편에서 많이 발견되는 청화백자 문양으로는 패랭이꽃, 붓꽃, 국화, 난초, 선인초 등의 초화문을 들 수 있다. 이들 초화문은 간략한 선묘로 처리되었는데 그 모양은 조선의 들녘 어디에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청화백자초화문팔각항아>리는 능화형을 사면에

배치하고 능화형 안에는 난초와 석죽(石竹), 선인초, 국화를 시문하였다. 이들 문양들은 아래에는 지면을 연상시키는 태점(苔點)을 서너 개 찍어서 야생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강조하였다.

특히, 난초는 이전까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으로 18세기에 처음 등장하였다. 이들 문양들은 완전한 사군자의 모습은 아니나 석죽을 대나무로, 선인초를 매화로 본다면 국화와 함께 사군자의 형태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두 면에 걸쳐 능화형을 배치하고 모



서리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으로 초화문을 묘사하였는데 사군자에 능숙하지 않은 화원이라면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산뜻한 초화문은 향아리 이외에도 병, 연적, 필통 등에 주제 문양으로 자주 사용되었다. 초화문에 보이는 여백을 중시한 공간 운영은 조선백자만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초화문은 점차 화분에 분재된 형태로 등장하거나 수석과 어우러져 시문되기도 하였다.

초충문草蟲紋 역시 이 시기 백자에 자주 등장하는 화제다. 회화에서는 신사임당이 그린 것으로 전해지는 초충도草蟲圖가 있지만 조선전기 청화백자에는 많이 그려지지 않았다. 조선후기 들어 다양한 소재와 구성으로 초충도가 그려졌는데 간송미술관에 소장된 <청화백자철채동채국란초충문병>이 좋은 예이다. 기다란 목의 둥그런 몸통에 국화와 난초가 청초하게 표현되었고 여기에 한 두 마리 작은 곤충이 덧붙여져 한 폭의 초충도가 완성되었다. 전체 구도는 우측으로 비스듬히 올라간 산화동과 산화철로 채색된 국화와 좌측으로 가느다랗게 뻗은 세 줄기 난초가 청화로 채색되어 화사함을 자아내고 있다. 국화의 좌측 상단에 그려진 곤충은 공간을 메워 잘 짜여진 구도를 보여주

청화백자철채동채난국초충문병
원래 조선백자의 장식은 시대 분위기나 사대부들의 미감과 장식 의지에 어울리는 모노크롬이 대부분이었지만 점차 폴리크롬의 세계로 전이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이나 일본의 채색자기의 유입과 사회 경제적 발전에 따른 화사하고 장식적인 분위기의 선호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서도 여백을 중시하는 문양과 구도, 은은하면서도 선명한 색상 대비로 중국과는 다른 장식미를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간송미술관 소장, 조선 18세기 후반, 높이 42.3cm.





청화백자조어문떡메병

이 병은 구연부가 밖으로 벌어져 있고 몸통은 타원형 원구(圓球)를 세워 놓은 것 같아 마치 떡메와 닮았다고 해서 떡메병이라고 불린다. 이러한 형태는 18세기부터 볼 수 있는데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음식 저장 용기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간송미술관 소장, 조선 18세기 후반, 높이 25.4cm.

고 있다. 기법이나 장식을 보면 난초는 솜씨 좋게 양각한 후 코발트를 원료로 하는 푸른 청화안료로 양각된 부위를 채색하였다. 국화 가지는 양각한 후 철화안료로 진하게 채색하였고, 잎은 하나 하나 별도로 만들어 부착한 첩화기법을 사용하였다. 국화잎은 아래 한 송이, 위 세 송이를 배치하였는데 산화철을 사용하는 철화와 산화동 안료로 백국(白菊)과 홍국(紅菊), 흑국(黑菊)으로 소담스럽게 재현되었다. 두 마리 나비는 정교하게 양각된 후 날개 끝만 연하게 철화나 청화로 채색되었다.

이처럼 서정성과 사실성을 갖

춘 국화와 난초 문양은 당대 화풍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이 병에는 당시 조선의 도자 기술로는 좀처럼 동시에 얻기 힘든 청화, 철화, 동화의 세 가지 색상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달향아리를 연상케 하는 하반부와 정선의 초충도나 심사정의 국화도, 석죽도와 유사한 구도, 여백을 중시한 공간운영 등 조선 후기 백자의 대표적 작품으로 추정된다.

초화문 이외에도 낚시 장면을 그린 어부도(漁夫圖) 역시 이 시기 청화백자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원래 낚시하는 장면은 그 의미상 은둔이나 탈속(脫俗)을 상징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나이가 지긋이 든 어부가 홀로 조대(釣臺)나 낚싯배에 앉아 여유롭게 낚시를 하는 조어도(釣魚圖)와 낚시를 마치고 귀가하는 귀어도(歸漁圖), 그 외중에 나무

끈을 만나는 장면을 그린 어초문답도漁樵問答圖 등의 세 종류가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18세기 들어 산수 배경 등을 생략하거나 간략화하면서 실제 어민의 풍속 장면이나 낚시 장면에 담긴 시정詩情까지 표현하는 것으로 방식이 바뀌었다.

이러한 회화의 경향이 백자에 그대로 재현된 것이 간송미술관 소장 청화백자떡메병에 그려진 동자조어도童子釣魚圖다. 문양은 깎아 지른 절벽 아래 홀로 낚시하는 동자를 사실적으로 그려 넣었다. 우측에 그려진 바위는 부벽준을, 나머지는 간결한 세필로 운곽선을 표시하여 조선 사대부의 미적 취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회화에

주로 등장하는 어옹漁翁 대신 순진 무구해 보이는 떠꺼머리총각이 의자에 앉아 두 발을 물에 담근 채 대나무 낚싯대를 드리우고 있다. 강물은 짧은 선으로 능숙하게 묘사되었고 뒤편에는 두 마리 오리가 총각 쪽으로 헤엄치며 다가오고 있다. 배경 문양은 전부 생략되었고 오직 총각 뒤의 커다란 바위와 풀만이 남아 있다. 부벽준의 바위는 굵게 운곽선을 그리고 그 안에 물결 이리저리 칠한 붓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어 농담을 잘 구사하였다. 그려진 문양을 파노라마처럼 죽 늘여서 펼쳐 놓으면 이 시대 청화백자에서만 볼 수 있는 서정성과 회화적 완성도가 그대로 느껴진다.



중국 청화백자산수문병

이 병은 1653년에 제작된 것으로 무릉도원을 연상시키는 넓게 펼쳐진 산과 계곡사이의 구름, 근경의 커다란 수목과 고사의 담교 장면 등을 정교한 필치로 표현하였다. 보는 이를 짓누를 것 같은 커다란 바위, 다층으로 농담이 달리 표현된 원경의 산, 담체의 기하학적 운곽선의 산들이 골고루 나타나 절파 화풍의 영향을 가늠케 한다. 특히 병의 어깨 부분에 시문이 곁들여 있어 당시 명말청초 중국 청화백자에 자주 등장하는 시화서사(詩畫書辭)의 경향을 그대로 보여준다.

상해박물관 소장, 중국 1653년, 높이 44.4cm.

청화백자산수운룡문연적

이 연적은 상부에는 운룡문을, 측면 팔면에 동정추월(洞庭秋月)에서 강천모설(江天暮雪)에 이르는 소상팔경 여덟 개의 주제 문양을 사각 테두리선 안에 시문해 놓았다. 대개 팔각 형태를 제외하고는 8장면을 다 화면에 담는 것은 어려워, 대개는 한두 장면만이 시문되었다. 삼성미술관 Leeum 소장, 조선 18세기 후반, 높이 12.5cm.



정선(1676-1759)의 동정도

이 그림은 일반적인 동정추월도에서 악양루(岳陽樓)를 오른쪽 근경에 배치하고 중경을 비워 놓아 아득한 공간감을 연출하였다. 원경의 산은 수평구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갈수록 점차 채색이 옅어지고 크기도 작아져서 무한한 깊이를 보이고 있다. 원래의 동정추월 도상을 재구성하여 여백을 보다 확대시켜 공간감을 강조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간송미술관 소장, 조선 18세기, 견본담채, 22×23.4cm.



한편 영조 연간 들어 주목할 것은 여러 문양 중에서도 산수문이 백자에 등장한 사실이다. 조선전기 청화백자 문양은 왕실을 상징하는 용봉문을 비롯해서 청림결백과 기개, 문인의 품격을 상징하는 송죽매松竹梅와 약간의 길상문, 화조문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당대 회화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던 산수문은 백자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중국의 경우 청화백자산수문은 14세기 원대元代부터 배경 문양으로 등장하다가 17세기 명말청초기明末清初期 청화백자에 본격적으로 주제문으로 사용되어 유행하기 시작하였다.⁸⁸ 중국 청화백자에 산수문이 등장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문인 수요층의 확대와 당대 회화에서 관화나 화보집 간행의 유행 등 도자에 산수문을 옮기는 데 용이한 상황이 전개된 것을 들 수 있다.

조선백자의 경우도 아마 사변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어 사대부계층이 주 수요층으로 부상하면서 왕실을 상징하는 문양 이외에 눈을 돌릴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중국에서 『개자원화전芥子園畫典』과 같은 화보의 전래와 진경산수화와 남종문인화의 유행 등 회화에서의 괄목할 만한 변화와 함께, 계속된 연행燕行에 따른 중국 자기의 유입이 한몫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바야흐로 회화와 도자의 본격적인 만남이 백자에 산수문이 시문되면서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조선과 중국의 청화백자 산수문을 비교할 때 가장 주목되는 것은 조선 청화백자에는 주로 소상팔경도瀟湘八景圖가 많이 그려졌다는 사실이다. 소상팔경은 소강과 상강이 만나는 중국 동정호洞庭湖 중에서 8가지 경치를 말하는 것으로 조선전기 이후 그림과 시를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직업화가뿐 아니라 문인화가들 사이에서도 그려졌다. 18세기 들어서도 정선은 물론 그 다음 세대인 김득신, 심사정, 최복 등도 소상팔경도를 남긴 것을 보면 여전히 인기 있는 화제畫題였다.⁸⁹ 청화백자에 소상팔경이 가장 많이 소재로 등장한 것은 아마도 일반 사대부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고 구도와 필



청화백자산수매죽문호

이 항아리에 묘사된 산시청람은 좌측 사선구도를 따라 근경 나무 아래 바위 위에 환담하는 두 사람을 배치하였고 원경의 산 위로는 달이 걸려 있다. 산시청람의 주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소재인 이야기하는 두 사람을 길게 뻗어 나온 근경 바위에 배치하여 산시청람임을 암시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 18세기 후반, 높이 37.5cm.

치, 농담 등이 백자에 그리기 용이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18세기 조선 청화백자에 나타난 소상팔경문은 그림과 달리 백자의 기형에 맞게 강조할 곳은 강조하고 생략할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면서 입체 기형에 맞는 새로운 소상팔경문으로 탈바꿈하였다. 이는 당시 수요층이 그릇과 그림의 조화를 통해 장식성과 회화성을 동시에 만족하고픈 욕구에 부응한 결과로 생각된다.⁹⁰

소상팔경의 8가지 주제 중에서 조선백자에 가장 시문 빈도가 높았던 것이 산시청람도(山市晴嵐圖)와 동정추월도(洞庭秋月圖)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청화백자산수매죽문호〉는 여의두문과 연관문이 상하 종속문으로 사용되었고 그 사이 능화형 테두리 안에 각기 동정추월과 산시청람을 묘사해 놓았다. 이 항아리는 조선시대 의례 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잘 생긴 항아리로, 먼저 동정추월도의 경우 약양루로 보이는 누각을 화면 오른쪽 하단에 배치하였고, 원경에는 물결에 휩싸인 봉우리와 달의 표현이 뚜렷해서 동정추월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중경은 거의 비워놓아 볼록한 항아리의 기형과 어울려 공간감을 더욱 느끼게 한다. 물결을 나타내는 단선은 달빛이 고요한 강 풍경에 운치를 더해준다. 근경과 원경을 이어주는 왼쪽의 배와 우측 사선 구도로 공간 활용의 폭을 넓힌 약양루의 부각은 정선의 〈동정도〉와 유사하다.

변형된 소상팔경과 반대로 중국식 도상을 충실히 옮겨놓은 것들도 있다. 일본에 소장된 청화백자사각병의 동리채국(東籬採菊) 장면은 〈만고기관첩(萬古奇觀帖)〉에 그대로 실려 있어서 중국 화첩을 모본으로 한 그림들도 청화백자의 화제(畫題)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각병의 반대 면에는 섬세한 필치의 하정납량도(荷亭納涼圖)를 그려



청화백지산수문사각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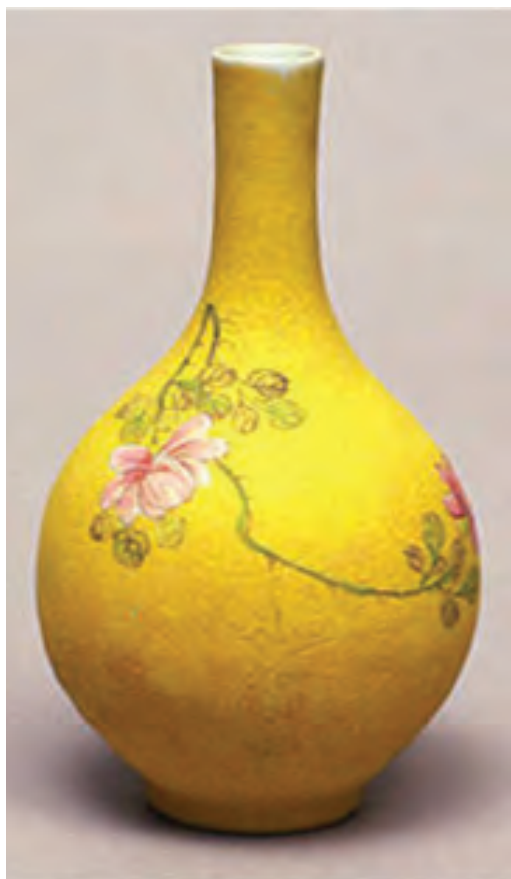
사각병은 18세기 이후에 등장하는 것으로 제작방법은 각 면을 별도로 제작하여 접합하거나 점토를 처음부터 사각 덩어리로 만들어 건조시킨 후 속을 파내기도 하였다. 등그런 항아리보다 묘사가 편리해서 각종 그림이나 시구를 적어 넣은 경우가 많다.

오사카시립동양도지미술관 소장, 조선 18세기 후반, 높이 22.9cm.

넣었는데 이 역시 <만고기관첩>에 실려 있는 한후량^{韓後良}의 황혼^{黃昏} 침량^{沈涼}과 구도와 포치에서 유사성을 보인다.⁹¹

저변 확대와 장식화의 심화

정조 연간에는 무엇보다 서울의 도시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사대부, 중인 등의 생활 관습도 변화하였다. 이들은 분재를 키우거나 서책과 그림, 골동을 수집, 완상하고 차를 마시며 여가를 즐기는 도시민의 취미활동을 영위하였다.⁹² 특히, 중국 골동에 대한 관심이



화유옹주(和柔翁主)묘 출토품
 영조의 10째 따님인 화유옹주묘에서
 출토된 일군의 청화백자와 분채황지장
 미문병은 당시 중국 자기에 대한 조선
 사회의 열망을 잘 보여준다. 화유옹주
 (1740-1777)의 부군인 황인점은 1732
 년 태어나 1753년에 귀인 조씨의 딸
 인 화유옹주와 결혼해 부마가 되었고,
 1802년 타계하였으므로 이들 그릇은
 영조 후반에서 정조 연간 황인점이 연
 행 당시 구입했거나 선물로 받았던 것
 으로 여겨진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중국 청 18세기
 후반, 높이 14.3cm.

높아서 당시 북경을 다녀온 연행 사신들의 연
 행일기에 중국의 도자와 골동 등에 감탄을 아
 끼지 않았고 많은 물건들을 구입해서 돌아왔
 다는 기록이 있듯이 중국 도자에 대한 열망이
 강하였다.⁹³ 중국의 골동을 제대로 고르기 위
 해 사는 장소와 구입 방법에 대해 조언을 주
 고받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다.⁹⁴

이러한 분위기는 당연 조선백자에 영향을
 미쳐 더욱 화려하고 장식적이거나 중국 자기
 의 장식을 모방한 양식이 등장하게 만들었다.
 구체적으로는 양각이나 첩화기법을 사용하여
 장식을 더하거나 마름모꼴, 사각형 등으로 형
 태를 변형시키고 그릇 전체에 채색 안료를 칠
 하고 백자 유약을 시유하기도 하였다.

한편, 영조 이래 사치품으로 규정된 청화백
 자와 갑발에 넣어 구운 그릇들은 검소함을 덕
 으로 여긴 정조에 의해 호된 규제를 받기도

하였다. 정조 17년(1793)에는 갑발에 넣어 구운 그릇과 청화백자 같
 은 기이하고 교묘한 그릇들을 다시는 변조하지 말라고 하였고,⁹⁵
 정조 19년(1795)에도 갖가지 기교가 나타난 갑발에 넣어 구운 그릇들
 이 제작되어 이를 정식으로 다시 금지하였다.⁹⁶ 정조의 정책 배경
 에는 분원에서 원래 진상하는 자기 이외에 별도로 제작하는 별번자
 기와 갑발에 넣어 굽는 갑번자기의 생산 증가에 따른 분원 장인들
 의 고통을 덜어줌과 동시에 사치품 생산 억제를 통한 물가 조절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⁹⁷

그러나 왕의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분원 경영에 깊이 관여했던
 종친 제조들은 이전처럼 사익을 위해 시책을 어겼으며 일부 관리들

은 기교자기의 제작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었다.⁹⁸

당시 분원에서 생산된 백자의 종류는 더욱 다양해서 제기와 항아리와 병 같은 저장기, 각종 크기의 사발, 대접, 접시, 종지 등이 반상 盤床을 이루어 진상되었다.⁹⁹ 특히, 반상기의 유행은 경제적인 여유와 다양해진 식생활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백자의 장식은 기교와 화려함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았다.

장식적인 분위기와 기교는 왕실을 상징하는 운룡문청화백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영·정조기 청화백자운룡문항아리들은 궁궐 행사가 빈번해지면서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높이가 50cm를 넘는다. 이러한 대형의 백자는 당연 의례용으로 궁궐의 연회에 꽃을 꽂는 화병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용의 선묘도 17세기보다 훨씬 정교하고 농담 표현도 입체적인 느낌을 준다. 구름이나 종속문도 채색이 가해져 선묘만으로 이루어진 17세기 철화백자와는 사뭇 다르다.

청화백자운룡문항아리 (왼쪽)

용의 발톱 수는 원래 중국 황제를 상징할 때 5개, 황태자는 4개, 왕은 3개였으나 조선백자의 경우 조선 전기에는 주로 3개만 나타나다가 17세기 후반 이후에는 조선의 분위기와 중국과의 관계를 말해주듯 5개와 4개 짜리가 등장하였다. 이 항아리는 크기도 상대적으로 작고 발톱 수도 적어서 아마도 왕세자용이 아닐까 추정된다.

일본 고려미술관 소장, 조선 18세기 중반, 높이 43.5cm.

청화백자운룡문항아리 (오른쪽)

대형의 운룡문항아리로 여의두문이 보다 화려한 영지 문양으로 비뚤었으며, 하부 종속문은 3단으로 증가되었다. 육중한 몸무게를 지닌 것 같은 용은 움직임이 둔화되어 영금영금 여의주를 쫓아가는 형상이고 눈은 동그랗고 작은 안경을 낀 모습이다. 5개의 발톱이 선명하게 이는 왕실 연회용 백자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 18세기 후반, 높이 54.6cm.





청화백자산수문병신명(丙申銘)팔각병
이 병은 굽바닥에 정조의 즉위년인
'병신(丙申)'이라는 간지가 새겨져
있어 1776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유색은 연한 청백색에 팔각의
두툼한 병으로 키는 작은 편이다. 3면
에 걸쳐 능화형을 앞뒤로 그리고 그 안
에 소상팔경 중 산시청람과 동정추월의
두 장면을 각기 시문하였다.
삼성미술관 Leeum 소장, 조선 1776년,
높이 22.2cm.

예를 들어 일본 고려미술관 소장 청화백자운룡 문향아리는 사실적인 표현과 정교한 붓질이 입체적이고 화려한 용의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구연 부가 직립한 당당한 풍채의 향아리로 18세기 청화 백자에 자주 등장하는 문양 구도인 하단부에 두 줄의 지선을 그어서 공간을 구획하고 그 안에 용과 구름을 그려 넣었다. 여의두문을 상부에 종속 문으로 배치하고 그 아래 바람에 날리어 뒤로 빗겨진 갈기와 수염을 가진 용을 묘사하였다. 비늘과 수염에 나타난 정교한 선묘와 농담 조절에 의한 비늘의 입체감이 잘 살고 있으며 쪽 뺨은 다리와 날카로운 발톱은 용의 위엄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

소상팔경문은 정조 연간에도 지속적으로 그려

졌다. 능화형 안에 산수문을 그려 장식적인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였지만 문양의 각 요소들이 일부 도식화되거나 생략이나 변용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상팔경문 이외에 적벽부도(赤壁賦圖) 같은 산수문이 그려지거나 길상문양 등과 합쳐져 산수 본연의 은둔이나 와유보다는 장식적인 효과가 더욱 중시되었다.

또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 시기 백자에는 장식적인 요소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 길상적 의미의 상징 도안을 첨가하거나, 아예 수壽·복福 두 글자를 도안화하여 문양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글자 도안은 중국에서 유행했던 백수백복(百壽百福)도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전서나 해서체의 문자를 사각 테두리 안에 넣어 여백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길상 문양으로는 다산을 상징하는 석류와 복숭아, 부귀를 상징하는 모란과 봉황이 그려졌고 당시의 서정성을 반영하듯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관상용 장미가 흥



채로 묘사되기도 하였다.

청화와 산화동, 석간주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사용하는 기법은 항아리나 병뿐만 아니라 연적과 필통 같은 문방구에도 행해져 화사함을 더해 주었다.

정조 연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백자 문양에는 동 시기 민화나 궁중화에 보이는 것들도 있다. 이런 문양들은 대개 화려한 화조화나 까치, 호랑이 등의 영모화가 대부분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청화백자까치호랑이문항아리>의 문양은 각 모티프의 길상적 의미뿐 아니라 까치와 호랑이가 지니고 있는 전통적 설화와의 결합에 관심이 가는 문양이다. 먼저 구도를 보면 이단 횡선의 상하에 문양을 배치하고 횡선 아래에는 변형 여의두문만을 시문하였다. 상단에는 세밀하게 붓질한 길게 뻗은 소나무가지가 화면 중단까지 내려와서 잔뜩 얼굴을 찡그린 호랑이의 머리와 닿을 듯한 지경에 이르렀고 바로 위 가지에는 유유자적한 까치가 앉아 있다. 이 도상

청화백자동채복숭아형연적 (왼쪽)
장수를 상징하는 복숭아 형태의 연적으로 복숭아 위에 앉아 있는 매미는 별도로 조각하여 부착하였다. 유백색 백자에 청색의 매미와 잎, 녹홍색의 가지까지 한껏 기교를 부린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중국에도 유사한 모티프의 연적이 있지만 비례와 색상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삼성미술관 Leeum 소장, 조선 18세기, 높이 10,8cm.

청화백자까치호랑이문항아리 (오른쪽)
조선시대 까치 호랑이는 새해를 맞이하여 화를 멀리하고 복을 부르는 여러 상징물 중의 하나였다. 그림으로 그려 세화(歲畵)로 선물하거나 집의 대문에도 그림을 붙이기도 하는데 이 경우 그림을 문배(門排)라 부른다. 호랑이는 이미 17세기 철화백자에서도 보였듯이 해학적인 모습으로 도자기에 그려진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 18세기, 높이 42,5cm.

청화백자송죽록문항아리

복록수(福祿壽) 중 장수를 상징하는 육상과 수상, 천상의 상징물들이 모여 이룬 것이 십장생이다. 조선시대에는 새해 왕이 신하들에게 십장생 그림을 하사하기도 하였고 병풍으로 제작되어 왕실에 장식되기도 하였다.

일본 고려풍관 소장, 조선 18세기 말, 높이 42cm.



과 동일한 문양이 민화에 시문되어 이후에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런가 하면 장수를 상징하는 길상문들이 집단을 이룬 십장생이 이 시기 청화백자에 등장하였다. 고려풍관 소장 <청화백자송죽록松竹鹿문항아리>는 십장생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요소를 거의 갖추고 있는 항아리다. 직립한 구연부에 상하 접합기법으로 완성한 풍만한 항아리로 어깨에는 여의두문 종속문대를 그렸고 그 아래 소나무와 사슴, 영지, 구름, 대나무를 준수한 필치로 그려 넣었다. 가장 눈에 띄는 소나무는 수직으로 뻗은 나무에 수평으로 길게 늘어진 가지와 방사선 형태의 솔잎을 사실적으로 그렸다. 이러한 구도와 필치는 단원 김홍도의 소나무 그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소나무 뒷면의 대나무는 조선 전기와 달리 마치 버드나무

와 같은 죽엽과 죽간을 묘사하여 화풍의 변화를 더욱 느끼게 한다.

결국 18세기 청화백자에 나타난 문양들은 동시대 화보 등을 참조하면서 이전과 다른 수요층의 미감을 잘 반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전기 운룡문과 매조문, 송죽매문 등이 주를 이룬 반면, 17세기 철화백자의 운룡문과 초화문, 당초문 등이 18세기 들어 산수문의 등장과 함께 사군자와 보다 다양한 길상문 등으로 대체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또한 필치와 구도, 농담 등은 당대 회화의 경향과 궤를 같이 하면서도 도자만이 갖는 표현의 특수성을 잘 나타낸 것으로 여겨진다.

04.

청화 반상기를 수놓은 길상문

19세기는 정치, 경제, 사상적으로 급변하는 상황의 연속이었다. 세도정치가 자리를 잡으면서 소수 문벌들이 정치를 좌우하였고 경제적으로는 서울을 중심으로 활발한 소비가 이루어지고 국경 무역은 더욱 성행하였다. 고증학의 유행과 더불어 청 문물 선호 경향은 더욱 심화되었다.

왕실을 비롯한 경화사족京華士族이라 일컬어지는 서울 거주 사대부와 중인 계층은 거듭된 연행燕行과 수입 중국 문물에 경도되어 새로운 기호의 백자를 선호하게 되었다. 수요층이 다양화되고 선호하는 자기의 장식이 이전과 변화하면서 이들의 기호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도자 양식도 19세기 들면서 새로운 경향을 띠게 되었다. 과장과 장식, 실용이라는 주제가 어울릴 정도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띠게 되었다. 제작뿐 아니라 유통도 다양화되어 분원 자기뿐 아니라 지방 사기와 중국이나 일본에서 수입된 자기를 사고 파는 사기전沙器塵이 서울 여기저기에 세워졌다.

한편, 왕실의 공식 연회에도 18세기 말부터 중국 그릇이 등장하였는데 19세기 들어 그 수와 종류가 급격히 늘어나서 이전과 다른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먼저 순조 27년(1827)의 진작進爵에서는 중국 그릇인 당사발唐砂鉢이 410개 사용되었다.¹⁰⁰ 1828년 순원왕후純元王后의 사순四旬을 경축하기 위해 거행된 진작에는 중국 그릇과 유사한 모란화준과 헌천화병, 화병 등이 사용되었다.¹⁰¹ 다음 1848년 대왕대비 순원왕후의 육순을 축하하기 위해 베풀어진 진찬에는 모두 9,465개의 자기가 소용되었다.¹⁰² 이 중 중국 그릇은 520개로 순조 27년(1827)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어 고종 연간 대왕대비 신정왕후 조씨의 회갑연을 위해 열린 1868년 진찬에는 총 5,593점의 그릇이 쓰였고,¹⁰³ 이 중 중국 그릇은 345점이었다.¹⁰⁴ 고종에게 존호

를 올린 것을 축하하기 위해 거행된 1873년의 진작시 사용된 중국 그릇은 485점이었다.¹⁰⁵ 그러나 고종의 보령 망오望五를 축하하기 위해 거행된 1892년의 진찬에는 총 48,159개의 자기가 사용되었지만,¹⁰⁶ 일본 그릇인 ‘왜화자기倭畫磁器’가 새로이 등장하여 강화도 조약 이후 변화된 대외 환경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양식적으로는 중국 자기의 기형을 모방한 병과 향아리, 길상적 문양을 위주로 한 과장된 문양 시문과 포치, 중국 채색자기를 흉내낸 청화와 철화, 동화의 혼용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이전 시기의 산수문 이외에 다양한 길상문이 선을 보였고 화조문과 기하문 등이 장식 문양 소재로 이용되었다. 또한 반상기의 유행과 함께 다양한 음식기명이 선을 보였고 크기와 품질에 따라 가격이 매겨져 유통되었다.

19세기 백자의 유통과 관련하여 끝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한글로 간지·사용처와 시기·수량 등을 표기해 놓은 일련의 접시와 합·발 등이 있어 주목된다. 이들 명문백자들은 주로 현종(1834~



진찬의례 화준(규장각 14372, 1848)
조선시대 왕실 연회 장소의 한 가운데 놓이는 화준이 중국 자기라는 사실은 중국 자기에 대한 왕실의 취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 화준처럼 몸체 가득 연화당초문과 박쥐문 아래 ‘龍’ 자가 시문된 것은 동일한 청대 자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청화백자임자큰던고간오명사각접시
 한글 명문으로 임자년인 1852년 대전
 공간에 사용된 다섯 개의 접시 중 하나
 임을 알 수 있다. 이들 한글 정각자기
 는 대부분 가례와 궁의 신축을 기념하
 는 연회에 주로 사용된 별번(別燻)의 고
 급품이란 공통점이 있다. 또한 명문을
 새긴 것도 분원에서 제작할 당시가 아
 니라 이들 자기들이 최종적으로 진상된
 후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오사카시립동양도자기미술관 소장, 조선
 1852년, 높이 2.8cm.

1849) 이후 나타나는데, 한글 명문은 백자
 뿐 아니라 왕실용 목기와 칠기 등 기타 공
 예품에도 동시에 등장하였다. 이들은 바닥
 이나 측면에 한글로 수량과 최종 진상처,
 시기 등이 정각되었다.¹⁰⁷ 정각을 한 이유
 는 당시 궁궐의 각 사와 전에서 사용되는
 자기들은 상호 대여해 주는 관례가 있었는
 데, 이때 분실을 방지하고 제대로 돌려받
 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대여 관
 습은 이전부터 있던 것이지만 이 시기 들
 어 중간 유실의 증가로 보다 눈에 띄기 좋
 게 표기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학파의 질타와 중국 그릇에 대한 열망

18세기 이후 서울을 생활권으로 하는 경화사족들은 정조대를 거
 치면서 정치와 경제, 사회 등의 면에서 더욱 크게 대두하였다. 정계
 와 경제계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핵심적 문벌로 학계를 주도하였다.
 여기에 대청, 대왜對倭 무역의 확대로 조선 사회는 국제적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었다. 특히, 국제 무역의 활성화에 따라 청과 왜의 자기
 들도 유입되었고 이들의 양식을 모방한 조선 백자들도 제작이 시도
 되었다.

사상적으로는 영조 후반 이후 청조 문물과 학술, 문예의 수용을
 주장하는 북학이 대두되었고 이후 고종학이 성행하면서 정통 주자
 학보다는 중국이나 서양의 선진적인 문물에 관심을 표명하고 적극
 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도자 부분에도 나타나 북학과와 이용후생학과 등의 조선 백자에 대한 관심 표명과 제작기술의 문제점, 소비 관습 등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반성이 제기되었다.

먼저 대표적 북학과인 박제가(1750~1805)는 연경사행을 통해 중국의 자기 실용과 자기 제작기술의 발전을 직접 목도하였고, 중국과 일본자기와 비교하여 조선 그릇의 제작기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자 정책과 제도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하였다. 또한 중국과 일본의 선진기술과 정책을 소개하면서 조선도 이를 본받을 것을 주장하였다.¹⁰⁸

이회경(1745~1805 ?)은 자기 사용의 보편화와 중국처럼 정교한 그릇의 생산에 관심을 둘 것을 촉구하였다.¹⁰⁹ 정조임금의 갑기 금지령의 폐해를 지적하면서,¹¹⁰ 갑기를 금하거나 채화를 없애는 것이 결국은 자기의 질을 저하시킨 주요인으로 여기고 이를 비판하였다.¹¹¹ 조선의 가마 구조나 성형, 채색 등은 중국과 비교할 때 너무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성형기술 역시 상하 접합에 의한 대형 항아리의 성형은 유지되지만 비대칭의 불안정한 형태에 정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불순물이 많고 유색도 균질하지 못하였다.

또한 조선의 자기 소비는 서울에서도 아직 동이나 유기에 비해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었다.¹¹² 이에 비해 중국은 자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여 대조적인 소비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¹¹³ 또한 중국과 비교해 우리도 분원이 설치되어 진상자기를 제작하는 막중소임을 다하고 진상 후 남은

분원리 가마 전경

19세기 후반 분원의 가마는 아궁이에 서 굴뚝까지 직사각형이 아닌 사다리꼴 형태로 굴뚝 방향으로 갈수록 폭이 넓어졌다. 칸과 칸 사이 기둥의 숫자도 많아졌고, 칸과 칸 사이의 높이의 차가 커져서 불꽃의 효율이 높아지긴 했어도 기술적으로는 유럽이나 일본, 중국에 비해 뒤쳐져 있었다.



것은 민간에 내보내는 사번의 형태를 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
와 재료의 사용에서 몹시 낙후되었다고 비판하였다.¹¹⁴

19세기 중반 고증학이 유행하면서부터는 보다 실증적인 기록들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서유구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를 들 수 있다.¹¹⁵ 이 책에 의하면 당시 서울 부호들이 사용하던 중국산 자기들은 대부분 완과 접시 같은 청화백자였다.¹¹⁶ 또한 중국 골동 그릇들이 선호되어 송대 가요(哥窯) 자기나 금화칠보, 금벽채를 사용한 일본의 화려한 합과 우리 관요 것을 비교하면 품질에서 우리 것은 감상할 만한 대상도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¹¹⁷ 또한 조선에서는 조석 반찬지기를 반상기로 부른다 하여 반상기의 정의와 칠첩에 해당하는 각기 구성을 서술하였다.¹¹⁸

대개 정조 이후 상차림에 있어 반상기법이 정형화됨에 따라 각양각색의 반찬과 이를 담는 그릇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반상풍조는 경제적 여유로 생긴 다채로운 음식 수요의 증대와 당시의 사치풍조와 맞물려 상류층뿐 아니라 중인들에게까지도 하나의 유행처럼 번져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조선 수요층의 중국 자기에 대한 애호는 이를 모방, 제작하려는 경향으로 이어졌다. 빙허각이씨의 『규합총서(閩閩叢書)』에는 중국의 단색유자기를 모방하여 청채나 철채를 가한 채색자기가 제작되었음을 기록하였다.¹¹⁹ 또한 이규경은 골동으로 꽤 조선에서 인기를 끌었던 가요문자기 등의 제작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 청 자기에 대한 선호 경향이 강했음을 알 수 있다.¹²⁰ 실례로 왕실 궁궐 안을 장식했을 책가도 병풍에도 고급 중국 도자와 고동기가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어 이를 완상하던 당시 지배계층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¹²¹

중국 골동에 대한 관심은 경화사족인 신위(申緯, 1769~1847)가 자신이 소장한 골동품 목록을 읊은 1820년의 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는 중국의 역대 고동기와 문방기명에 ‘고려비색존高麗秘色尊’과 ‘고려오니휴병高麗烏泥拂瓶’ 등을 기록하여 눈길을 끈다.¹²² 또한 19세기 후반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이 소장한 골동품 안에도 역시 ‘고려비색청자’와 함께 ‘서양화존西洋畫尊’이라는 청의 범랑채자기가 포함되어 있었다.¹²³ 여기서 고려청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매병이나 철채상감병 등이 아닐까 추정된다. 실제 중국 골동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大明宣德年製(대명선덕연제)’라는 명문이 새겨진 청화백자팔괘문투각연적이나 접시 등을 통해서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이는 같은 조선 청화백자이면서도 훨씬 중국 골동의 분위기를 자아내어 상품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이형록, 문방책가도
도화서 화원이었던 이형록의 그림에 나타난 도자기들은 전부 중국제로서, 당시 중국 문물 애호 바람이 드센 사회풍조와 유행 경향을 그대로 보여준다. 19세기 조선의 상류층들은 이 그림에서 보이는 고급 중국 그릇을 최고로 여겼고, 이들 그릇을 함유하기 어려웠던 계층들은 이 보다 격이 떨어지는 중국 도자와 조선백자를 향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삼성미술관 Leeum 소장, 조선 19세기 중반, 지본 채색, 139.5×421.2cm.

사기전과 분원공소

17세기 이후 서울에는 곳곳에 사기전이 설립되어 각 관공서에 그릇을 공납하거나 일반인에게 백자를 판매하고 있었다.¹²⁴ 이러한 사기전을 운영하는 자는 중인이나 다른 신분의 사람들로 분원 장인

들의 설전設塵을 철저히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숙종 연간 분원 장인들에게 사번이 허용된 후, 진상하고 남은 그릇의 판매를 위해 분원 장인들이 서울의 사기전 부근에서 설전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기존의 사기전인들이 침징侵徵이라 반발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¹²⁵

이 시기 서울에서 사기전이 열린 곳은 종로, 이현, 칠패 등의 난전이 열렸던 곳으로 현재의 종각 부근과 동대문 근처, 서소문 일대다. 사기전은 그릇을 일반에게 판매하는 것 이외에 분원 진상기명이 부족할 때는 대전大殿에 그릇을 대여하였다. 또한 당시는 중간도매상이 있어서 사기전과 분원이나 지방 가마와 같은 생산지를 연계시켜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들은 이후 공인貢人이 되거나 전문 판매업자로 나서게 되었다. 이들은 분원자기뿐 아니라 중국 그릇도 판매하여 당기중도아唐器中都兒라고 불렸다.¹²⁶

김준근, 사기장사

조선 말기 들어 전국적인 그릇 유통의 확대로 분원은 물론 지방 가마의 백자 생산도 활기를 띠었다. 사기전 같은 곳에서 대량의 질 좋은 그릇들이 판매되기도 했지만 기존 시전들의 많은 견제로 대부분은 보부상처럼 그릇을 짊어지거나 좌판에서 많이 판매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기메박물관 소장, 조선 19세기 말, 지본 담채.



19세기 분원백자의 원료는 고종 연간 완성된 『육전조례六典條

例』에 나타난 것처럼 진주와 곤양, 양구, 광주 등의 백토와 물토 등이었다.¹²⁷ 일부 사용하는 백토의 양이나 기타 원료의 양과 가격은 18세기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유사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실제 19세기 분원백자들은 대부분 청백색을 띠고 있어서 산지는 같으나 원료의 성분이 다르거나 철분 제거 등의 원료 정제가 충분치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분원의 운영체제와 원료 채굴방법, 분원강 목물수세, 광주와 양근 시장柴場에서 거둬들이는 시곡柴穀 수세 등은 이전과 비슷한 것으로 여겨진다.

19세기 후반 들어 왕실 재정의 악화로 분원 경영은 점차 어려워졌다. 장인들에 대한 대우는 열악하고 원료와 연료 수급도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진상한 그릇 값을 제때 받지 못하여 생산 책임을 담당한 분원 변수邊首들이 도산하는 경우도 빈번하였다. 여기에 솜씨 좋은 장인들을 꺾어 다른 민요로 데려가거나, 진상할 물건들을 사변으로 빼돌리기도 하여 이미 왕실용 자기 공장으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1874년 공포된 『분원변수복설절목』은 진상한 그릇의 값을 조정에서 제때 받지 못한 변수들이 도산하거나 오로지 분원자기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려 했던 일부 변수들의 문제점을 소상히 기록하고 있다.¹²⁸ 이를 보면 1870년대 분원이 원래의 설치 목적과 달리 얼마나 변질되었는지 잘 말해주고 있다.

고종 후반 들어 재정 지출이 더욱 증가하자 조정은 국가 재정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감생청減省廳을 구성하고 조직과 인원을 감축하는 구조 조정을 단행하였다.¹²⁹ 이 과정에서 사옹원 분원은 아예 민간 변조를 허용하고, 그 운영을 공인들에게 이양함으로써 공인들로 하여금 왕실용 그릇을 바치도록 하였다.¹³⁰ 세조 연간부터 운영되어 온 국영도자기 공장인 분원이 거둬지는 재정 악화로 1884년 분원공소로 바뀌는 경영 형태의 일대 전환을 맞이한 것이다.

분원 민영을 공포한 『분원자기공소절목分院磁器貢所節目』을 보면, 분원은 관의 관여를 받는 공소貢所로 조선 정부는 공인들에게 여전히 백자의 원료와 장인들의 급료를 지급하였고, 우천강수세牛川江收稅와 시장세柴場稅와 같은 지원을 하고 있었다.¹³¹ 이런 점에서 당시 분원은 완전한 민영화가 되었다기보다는 공인들에게 진상을 책임지게 한 반관반민의 경영을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진상을 책임지게 된 분원공소는 대신 서울의 주요 그릇 시장에 진출하여 그릇

거래의 주도권을 장악하였으며, 서울과 경기지역에 대한 그릇 판매 독점권을 얻어내어 판매 특권과 이익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분원공소는 진상 그릇을 납품하고도 이전처럼 수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경영은 악화되어 갔다. 분원공소의 공인이었던 지씨가 기록한 『하재일기荷齋日記』에 의하면,¹³² 당시 정부로부터 미수금의 규모가 너무 커서 1894년에 이르러서는 채산성 악화로 아예 공소를 과하자는 의견이 대두될 정도였다.¹³³ 이후 분원공소는 경영 악화를 이겨내지 못하고 문을 닫기에 이르렀다. 대신 1897년 경에는 분원공소의 생산력을 부활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의 자본과 손을 잡은 번자회사燐磁會社가 설립되었다.¹³⁴ 이 회사의 본사는 서울 광교에 있었고 광주의 분원은 제조장 역할을 하였다.

당시 조정에 진상된 그릇의 가격은 품질에 따라 원진상가元進上價와 별번別燐과 예번例燐으로 나뉘어 가격의 차별이 이루어졌다. 여기서 예번은 연례적인 진상그릇을 지칭한 것이고, 별번은 원래 진상하던 것 이외에 왕실 혼례 등으로 별도 주문을 한 그릇으로 대개 청화백자나 갑발에 넣어 구운 고급 그릇들이었다.

『분원자기공소절목』에는 그릇의 명칭과 가격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가격이 비싼 것은 13량의 양각칠첩반상기로 3칸 집 한 채 값과 같을 정도였다. 그릇의 단위는 종류에 따라 각각이다. 사발, 탕기, 접시, 보아·종지·등잔·연적 등은 개個·항아리·합·향로 등은 부部·용준과 대병大瓶은 좌坐·잔과 잔대盞臺·다종茶鐘·반상기는 건件·채연彩硯은 면面·합과 찬합·대야·식소라는 좌座 등이 사용되었다.

한편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에는 분원 이외에 전국에 걸친 자기와 도기, 백점토의 산지와 시장 등이 기록되어 있다.¹³⁵ 자기의 경우 총 37곳에서 산출이 될 정도로 관요 이외에도 지방 가마의 활동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서유구는 당시 지방 가마의 그릇들은 분

원자기와 비교할 때 색상이 지저분하고 질이 좋지 못하여 농민들의 새참용 밥그릇으로 사용할 정도의 하품이라 지적하였다.¹³⁶ 그러나 이러한 지방 가마 그릇들은 가격의 저렴함을 무기로 서울에서 암암리에 판매가되어 분원 그릇 상인들과 빈번히 마찰을 빚기도 하였다. 그 중에서도 황해도 해주의 석간주나 백자들은 서울에서도 꽤 인기가 있었던지, 해주 향아리의 유통과 판매를 저지하고 심지어 제작한 장인들까지 잡아들이는 일도 있었다.¹³⁷

분원자기나 지방 자기뿐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의 수입 자기도 유통되고 있었다. 당시에는 같은 중국 자기라 하더라도 책문(柵門)보다는 연경(燕京)의 것이 우수하고 순백자가 부호들에게는 더욱 비싼 값으로 인기가 있었다.¹³⁸ 일본 자기의 경우 화려하고 정미하며 금채로 수복(壽福) 문자를 가운데 써넣어 장식한 것 등이 유통되었다.¹³⁹ 이러한 수입 자기는 조선백자보다 질이 높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다. 특히 이규경 같은 학자는 일본자기가 백색도(白色度)가 좋고 얇게 성형이 가능한 것은 심지어 중국보다도 우수하다고 생각하였다.¹⁴⁰

석간주팔각항아리

석간주는 산화철이 주성분인 안료나 유약을 지칭하는 말이다. 철유와 달리 갈색조를 띠며 조선 말기 저장용기로 많이 사용되었다. 19세기에는 지방 가마에서 제작되어 전국적으로 널리 유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개인 소장, 조선 19세기, 28cm.

19세기 말로 갈수록 일본과 중국의 수입 자기는 더욱 광범위하게 조선에서 유통되었다. 1895년에는 아예 일본인이 조선에 가마를 차리고 국장(國葬)에 소용되는 그릇을 진상하기도 하였다.¹⁴¹ 당시 일본의 그릇 제작기술 수준은 상당하였고 조선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였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유



럽에서 자기 제작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대량 생산의 기틀을 갖추었다. 또한 아리따^{有田}를 중심으로 조선에 수출용 그릇 생산을 위한 가마를 설치하는 등 조선 그릇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기술적으로도 실제 일본의 자기는 상회백자를 포함해서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었고 유럽 수출에 이어 파리박람회 등의 출품으로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었다. 조선 대신 어운중이 분원에서 연소자 10여 명을 선발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추진하려고까지 한 것은 이를 대변한다.¹⁴²

중국도 경덕진의 어기창^{御器廠}이 태평천국의 난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데다 대내외 적으로 어려움에 싸여 있어 이전만큼의 질 좋은 그릇을 생산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조선에 대한 영향력은 여전하였다.

이처럼 조선 말기 청일 양국 자기의 조선 내 유입과 유통 장악은 조선의 상권이 양국 상인들에게 장악되어 가던 조선의 경제 실정과 다를 게 없었다. 이에 조선 도자 생산은 큰 타격을 받아 점차 쇠퇴

안중식, 한일통상기념연회도
19세기 말이 되면 왕실에서도 이미 조정의 공식 행사에서 중국이나 일본, 유럽의 그릇들을 사용하고 있었다. 1883년 안중식이 그린 한일통상기념연회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조선백자와 화려한 중국 분채자기를 동시에 발견할 수 있다.
송실대학교 부설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1883년, 건본 채색, 53.9×36.5cm.



의 길로 접어들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 이외에도 조선의 실정을 반영하듯 서양의 그릇들도 점차 왕실 사용이 증가하였다. 궁 내부에서 연회 시 사용할 그릇의 차용을 위해 건양(建陽) 2년(1897)에 낸 공문을 보면 양(洋)유유기, 포도주잔, 양대접시, 양소접시 등의 서양 그릇들이 등장한다.¹⁴³ 이처럼 왕실에서 청과 일본뿐 아니라 유럽의 자기를 사용하게 된 것은 조선의 자의적인 선택도 있겠지만, 외국 자기를 쓸 수밖에 없었던 조선의 처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¹⁴⁴

다양한 실용기명과 중화풍 양식의 유행

19세기 조선백자는 그 시대적 배경이나 분위기 탓인지 기존의 제작 기법 이외에 상형과 투각, 양각뿐 아니라 향로나 병에 고리를 다는 중화풍의 양식이 유행하였다. 18세기 중국 자기에서 유행하던 단색의 코발트 유자기를 모방하여 청화안료를 그릇 전면에 바른 청화채 백자들이 제작된 것 역시 좋은 예이다. 단지 중국 자기는 유약 자체를 코발트 안료를 사용하여 청유를 시유한 것에 반해 조선백자는 청화를 이용하여 색을 내려한 것이 다르다.

중국의 단색유를 모방하려는 경향은 청유 뿐 아니라 산화동을 이용한 홍색유 분위기의 자기에서도 발견된다. 또한 중국의 상회 자기를 모방한 청화와 철화, 동화의 혼용이 상대적으로 빈번해졌다. 이런 중화풍 모방 경향이 심화된 것은 왕실을 비롯한 수요층이 분원자기보다는 중국 자기를 더욱 선호했기 때문일 것이다. 장식뿐 아니라 그릇의 기형이나 문양 역시 모방 경향이 강하여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19세기 사용된 그릇의 종류는 앞에서 살펴본 고종 21년(1884)

백자양각매화문청채각병

19세기 들어 눈에 띄는 장식 중 하나는 중국의 단색유자기를 모방하여 그릇 전면을 청채나 홍채하는 것이다. 또한 양각이나 투각 등의 조각 장식도 장식성을 높이기 위해 이전보다 빈번히 사용되었다. 이 병은 매화와 모란 문양은 양각을 하고 여백은 전부 청채를 한 것으로 19세기 중국 자기 모방 성향을 잘 보여준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 19세기.



백자 문방구류

조선시대 사대부의 상징인 문방구는 19세기에 접어들면 다양하게 생산된다. 기형과 문양에서 장식성이 강조되었고 이중 투각기법과 같은 이전에 보이지 않던 기법이 사용되었다. 연적과 필통뿐 아니라 묵호, 필세, 필가 등 이전보다 다양한 종류의 백자로 제작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 19세기.



공표된 『분원자기공소절목』을 통해 대략 짐작할 수 있다.¹⁴⁵ 절목에 명기된 그릇들을 보면 완과 사발, 보아, 접시 등을 비롯해서 대·중·소 크기에 따른 분류까지 합하여 근 100여 가지에 이른다. 음식과 관련된 대접·사발·보아·조치와 같은 각종 식기와 강판(薑板), 19세기 들어 확고하게 상품으로 자리 잡은 흡연을 위한 담뱃대 같은 생활용구, 필통과 연적뿐 아니라 필세와 필가 등으로 제작 폭이



청화백자 담뱃대

조선중기 이후 시작된 흡연은 그 중독성 탓에 후기 들어 크게 유행하였고, 담배는 조선의 중요한 상품 작물로 자리잡았다. 술과 더불어 담배는 사치와 풍속 교정을 위해 영·정조기에 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했지만 왕실에서도 필요한 물건이었고 이미 기호식품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 19세기에 들어서는 이처럼 청백색의 유색에 쌍희(雙喜)자를 시문한 청화백자 담뱃대가 등장하였다. 일본 고려미술관 소장, 조선 19세기, 지름 2.6cm.



백자 '낙동김서방댁덕리향' 명 향아리 조선후기 서울 사대부 집안에서 과실주나 계장 등을 담을 때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 향아리는 바닥에 갈색 산화철로 '낙동김서방댁덕리향'이라 적혀있다. 이를 한문으로 옮겨보면 "駱洞 金書房宅 茶禮缸" 씬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례는 머루, 다래와 같은 과실로 다래향은 바로 다래로 술을 담근 향아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19세기 생활용품으로 사용된 백자의 실태를 잘 보여준다. 몸통이 직립하고 구연부가 밖으로 벌어진 형태의 향아리는 이 시기 자주 발견된다. 간송미술관 소장, 조선 19세기, 높이 22cm.

넓어진 문방구 등 이 시기 그릇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 가를 알 수 있다.

특히 연적의 경우 다양한 모티프를 본 떠 제작되었는데 잉어, 해태, 학, 감, 복숭아, 금강산, 원형, 사각, 부채, 가옥 등이 그 예다. 이들 다양한 상형 연적이 유행하게 된 것은 이들 연적이 일상 생활용 기로서뿐 아니라 장식품으로서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으로 여겨진

청화백자연어문병

메기와 쏘가리, 잉어, 청어(鯖魚) 혹은 붕어 등은 원대(元代) 이후 청화백자 문양에 자주 사용된 것들로 청렴결백을 상징한다. 특히 여기에 연꽃이 첨가되면 그 의미를 배가시킨다. 목이 길고 배가 볼록한 이 병의 문양들은 그 상징의미를 제외하고라도 메기와 다른 물고기, 새 등이 원근과 크기를 무시한 채 구름 위를 같은 방향으로 자유스럽게 나는 것으로 묘사되어 19세기 분원 백자의 특이한 문양 묘사를 잘 보여준다.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조선 19세기, 높이 28cm.

다. 이 중에는 중국과 유사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담하고 질박한 조선풍 디자인을 하고 있다. 중화풍 양식의 홍수 속에서도 투박하지만 소박하게 조형된 것은 이 시대 백자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미적 가치를 떠나 실제 조선 주택의 생활공간에서 목가구와의 조화와 상차림에는 화려한 일본이나 중국 그릇보다는 조선백자가 한결 어울릴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로운 음식의 출현과 식습관에 따라 이전에 보이지 않던 우유를 담아 마시던 제호탕항(醞糊湯缸), 경옥고를 담았던 항아리, 기름병 등이 새롭게 선을 보였다. 반상기의 경우도 기본이 되는 오첩에서 칠첩과 구첩, 십이첩까지 판매되고 있었으며 청화백자와 양각백자, 순백자 등으로 제작되고 있었다. 결국 전통적인 제기와 식기, 문방구, 화장용구 이외에도 다양한 생활용구가 제작되었다.¹⁴⁶



한편, 문양은 길상문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복록수를 상징하는 다양한 길상문들이 주를 이루었다. 도자의 속성상 길상문이 주를 이루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특히 이 시기는 복록수를 문자화하여 노골적으로 그 의미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장수를 상징하는 십장생이나 잉어, 부귀길상의 모란, 다산을 상징하는 석류와 불수감(佛手柑) 등이 시문되었고 중국어의 동음이의(同音異義)어 방식에서 유래한 상징의미를 지니는 문양들도 있다. 예를 들어 연꽃은 연속의 ‘連’ 이나 첩렴의 ‘廉’ 을 상징하고, 복(福)과 발음이 같은 박쥐가 복(蝠)을 상징하는 것 등이다. 국화 역시 ‘菊’ 의 발음이 ‘길’ 과 같아 길상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사군자와 별개로 각종 사발·합 등에 단독으로 큼직하게



청화백자함풍년제(咸豐年制) 명다각접시 (위 왼쪽)

19세기 백자에 나타난 용의 모습은 머리가 커지거나 용트림이 과도한 모습을 보이는 등 과장되고 부자연스런 경우가 많다. 또한 발톱의 수도 4개로, 이전의 5개에서 줄어 들었다. 이 접시처럼 다각형에다 청의 연호까지 새긴 것은 더욱 중화풍의 분위기를 자아낸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 1850년대 이후, 지름 21.3cm.



운현명청화백자모란문항아리(위 오른쪽)

19세기 후반 등장하는 '운현(雲峴)' 명 그릇들은 운현궁이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거쳐하던 곳이어서 19세기 후반으로 편년이 가능하다. '운현'이란 명문은 접시와 항아리, 대접 등 일상 생활 용기 등에 고루 시문되었다. 이 항아리는 구연부가 밖으로 경사졌고 몸체는 원통을 살짝 눌러놓은 듯한 이 시기 특유의 형태를 하고 있다. 절지 형태의 커다란 모란은 부귀길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주전자와 병, 접시와 발 등에 두루 시문되었다.

일본 개인 소장, 조선 19세기 후반, 높이 21cm.

청화백자동채십장생문다각병(아래)

양각백자는 조선말기 분원백자의 가격을 적어놓은 <분원공소절목> 에도 청화백자보다 가격이 비쌀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다. 이는 제작상의 어려움과 장식적 효과 때문이다. 이 병은 몸체와 구연부를 별도로 만들어 접합한 보기 드문 육각병이다. 양각으로 십장생을 조각하고 여백을 청채한 후 굵 부근을 산화동으로 채색하였다. 다각병은 19세기에 기존의 팔각 뿐 아니라 육각이나 다이아몬드 형태의 12각 등 다양하게 제작되었다.

삼성미술관 Leeum 소장, 조선 19세기 후반, 높이 22.5cm.



청화백자십장생문편호

편호는 조선 전기에도 제작되지만 후기로 가면 굽이 타원형으로 바뀌고 몸체는 두 장의 접시를 별도로 제작하여 접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중화풍의 반룡 등을 좌우 측면에 접합하여 장식성을 배가시키기도 한다. 이 편호에 나타나는 문양은 십장생의 모든 요소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역동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구름 속을 날아다니는 사슴과 얼굴을 뒤로 돌린 거북에서 사실성을 뛰어넘은 19세기 조선백자만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소장, 조선 19세기 후반, 높이 23cm.

장식적으로 묘사되었다.

문양의 펼치는 아쉽게도 18세기와 비교할 때 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이는 왕실과 사대부 등 고급 수요층이 조선백자뿐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그릇에 좀더 관심을 두면서 화원에 의한 시문이 필요한 고급 백자의 수요가 줄고 이에 따라 장인들에 의한 문양 시문이 더 많아진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시문 방식은 대개 주제 문양과 종속문 등을 윤곽선 위주로 거칠고 신속하게 그리든

가 공필(工筆)로 기하문 등을 그려 넣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문양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과격적인 구도와 배치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시기 즐겨 그려진 십장생은 각각의 문양 소재 크기가 무시된 채 독립적으로 배치, 시문되어 있다. 이는 당시 유행하던 민화의 구도, 배치와 유사점을 보이는 것이다. 마치 하늘을 나는 듯한 육중한 사슴, 금방이라도 물 속을 헤집고 나와 하늘로 도약할 태세의 거대한 거북처럼 각각의 크기나 위치와 상관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붓 가는 대로 그려낸 동화의 세계가 19세기 청화백자에 펼쳐진 것은 이 시기만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조선후기 백자는 급변하는 주변 정세와 수요층의 변화를 잘 소화하고 내면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당면한 조선의 현실을 문양과 기형, 색상에 그대로 반영하였다. 수요층의 요구에 따라 때로는 중국 그릇을 있는 그대로 모방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체적인 취사선택이 엿보이기도 하였다. 고난의 순간에도 있는 그대로의 단점을 드러내는 과감성과 자신감을 보여주었다.

철화백자운룡문항아리와 좌우 비대칭의 달항아리, 다양한 청화백자 문방기명에서 각 시기마다 수요층의 미감이 그대로 묻어 있었다. 또한 조선 최고의 화원들이 그린 문양의 필치와 구도는 당시 회화의 화풍을 따르면서도 백자에 어울리는 변형이 시도되어 조선의 특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나 분원은 피폐한 환경을 극복하지 못한 채 재정악화와 내부 관리들의 부패로 분원공소로 바뀌었다. 그나마 오래지 않아 회사의 형태로 전환되면서 일본이나 중국과의 그릇시장 경쟁에서 점차 설 땅을 잃었던 것은, 조선 말기 조선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듯하다.

〈방병선〉



부 록

주석 및 참고문헌
찾아보기

제1장

토기의 등장과 확산

● 주석 ●

- 1 칼라 시노폴리 저, 이성주 역, 『토기연구법 (Approaches to Archaeological Ceramics)』, 도서출판 고고, 2008, p.28의 그림 1-1 참조.
- 2 위의 책, p.39.
- 3 위의 책, p.64.
- 4 강창화·오연숙, 『제주고산리유적』, 제주대학교 박물관, 2003.
- 5 姜昌和, 「濟州地方 初期 新石器文化의 形成과 展開」, 『제26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한국고고학회, 2002, p.24.
- 6 「韓國 黃海沿岸의 第四紀後期 및 홀로세(現世)의 海水面과 氣候」, 『黃海沿岸의 환경과 문화』, 1987, 학연문화사.
- 7 한반도 용기문토기와 관련된 방사성탄소연대 값은 동해안의 오산리유적: $7,050 \pm 120\text{B.P.}$, 남해안의 상노대도패총: $6,430 \pm 180\text{B.P.}$, 동삼동패총 최하층: $5,280 \pm 140\text{B.P.}$, $5,500 \pm 100\text{B.P.}$, $5,160 \pm 120\text{B.P.}$, $5,190 \pm 130\text{B.P.}$, 송도패총 III-C층: $5,440 \pm 170\text{B.P.}$, 송도패총 IV층: $5,430 \pm 170\text{B.P.}$ 등이 대표적이다.(吳蓮淑, 「濟州道 新石器時代 土器의 形式과 時期區分」, 『湖南考古學報』 12, 湖南考古學會, 2000, p.61).
- 8 任孝宰, 「新石器時代 韓·日文化交流」, 『韓國史論』 16, 國史編纂委員會, 1986.
- 9 최몽룡·신숙정, 한국고고학에 있어서 토기의 과학적 분석에 대한 검토, 『韓國上古史學報』 1, 韓國上古史學會, 1998, p.26.
- 10 Im hyojai and Sarah M. Nelson, Implications of the sizes of Comb-pattern Vessels in Han River Site in Korea, Hanguk kogo-hakbo vol. 1, The Korean Archaeological Society, 1976, pp.117~121.
- 11 韓永熙, 「韓半島 中·西部地方의 新石器文化」, 『韓國考古學報』 5, 韓國考古學會, 1978, 任孝宰, 「土器의 時代的 變遷過程」, 『韓國史論』 12, 國史編纂委員會, 1983, pp.615~653.
- 12 임상택, 중부지역 신석기시대 상대편년을 둘러싼 문제, 『韓國新石器研究』 5, 韓國新石器研究會, 2003, pp.21~25.
- 13 任孝宰, 「新石器時代 韓·日文化交流」, 『韓國史論』 16, 國史編纂委員會, 1986.
- 14 최몽룡·신숙정, 한국고고학에 있어서 토기의 과학적 분석에 대한 검토, 『韓國上古史學報』 1, 韓國上古史學會, 1998, p.26.
- 15 庄田愼矢, 「青銅器時代 土器燒成技法의 實證的 研究」, 『湖南考古學報』 23, 湖南考古學會, 2006, p.134.
- 16 김장석, 남한지역 후기 신석기-전기청동기 전환: 자료의 재검토를 통한 가설의 제시, 『韓國考古學報』 48, 韓國考古學會, 2003, pp.93~133.
- 17 김제윤, 「韓半島 刻目突帶文土器의 編年과 系譜」, 『韓國上古史學報』 46, 韓國上古史學會, 2005, pp.31~70.
- 18 덧띠새김무늬토기와 관련된 방사성탄소연

- 대는 진주 옥방5지구 D-2호주거지: 3,230 ±50 B.P.(1,620~1,400 B.C.), 3,180±60 B.P.(1,590~1,310 B.C.), 진주 상촌리 2호주거지: 3,030±50 B.P.(1,410~1,120 B.C.), 상촌리 10호주거지: 3,010±50 B.P.(1,400~1,100 B.C.) 등이 있다(千羨幸, 한반도 돌대문토기의 형성과 전개, 『韓國考古學報』 57, 韓國考古學會, 2005, p.79).
- 19 이홍중, 「무문토기와 야요이 토기의 실연대」, 『韓國考古學報』 60, 韓國考古學會, 2006, p.251.
- 20 이홍중, 위의 글, pp.236~258.
- 21 庄田愼矢, 앞의 글, p.133.
- 22 朴辰一, 「嶺南地方 粘土帶土器文化 試論」, 『韓國上古史學報』 35, 韓國上古史學會, 2001, pp.33~57.
- 23 경상남도, 남강유적발굴조사단, 『남강선사유적』, 1998, p.25.
- 24 국립중앙박물관, 『特別展 韓國의 先·原史土器』, 1993, pp.40~42.
- 25 이선복, 「신석기·청동기시대 주민교체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韓國古代史論叢』 1, 1991.

● 참고 문헌 ●

- 姜昌和, 「濟州地方 初期 新石器文化의 形成과 展開」, 『제26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한국고고학회, 2002, pp.9~33.
- 강창화·오연숙, 『제주고산리유적』, 2003, 제주대학교 박물관.
- 경상남도, 남강유적발굴조사단, 『남강선사유적』, 신성기획, 1998.
- 국립김해박물관, 『전환기의 선사토기』, 도서출판

- 龍디자인, 2005.
- 국립중앙박물관, 『特別展 韓國의 先·原史土器』, 1993.
- 金美蘭, 「原三國時代의 土器 研究-土器의 製作實驗 및 分析을 통하여-」, 『湖南考古學報』 2, 湖南考古學會, 1995, pp.11~68.
- 金元龍, 『韓國 考古學概說』, 一志社., 1986.
- 김장석, 「남한지역 후기 신석기-전기청동기 전환: 자료의 재검토를 통한 가설의 제시」, 『韓國考古學報』 48, 韓國考古學會, 2003, pp.93~133.
- 김재윤, 「韓半島 刻目突帶文土器의 編年과 系譜」, 『韓國上古史學報』 46, 韓國上古史學會, 2005, pp.31~70.
- 박수현, 「湖南地方 土器窯址에 關한 一試論」, 『研究論文集』 1, 湖南文化財研究院, 2001, pp.41~74.
- 朴淳發, 「高句麗土器의 形成에 대하여」, 『百濟研究』 29, 忠南大學校百濟研究所, 1999, pp.1~26.
- 朴辰一, 「圓形粘土帶土器文化研究-湖西 및 湖南地方을 中心으로」, 『湖南考古學報』 12, 湖南考古學會, 2000, pp.125~155.
- 朴辰一, 「嶺南地方 粘土帶土器文化 試論」, 『韓國上古史學報』 35, 韓國上古史學會, 2001, pp.33~57.
- 庄田愼矢, 「青銅器時代 土器燒成技法의 實證의 研究」, 『湖南考古學報』 23, 湖南考古學會, 2006, pp.115~138.
- 梁時恩, 「漢江流域 高句麗土器의 製作技法에 대하여」, 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3.
- 吳蓮淑, 「濟州道 新石器時代 土器의 形式과 時期區分」, 『湖南考古學報』 12, 湖南考古學會,

2000, pp.47~83.

이기길, 『우리나라 신석기시대의 질그릇과 살림』, 백산자료원, 1995.

李東柱, 「東北아시아 隆起文土器 研究의 諸問題 -東시베리아·極東地域의 初期 新石器遺蹟을 中心으로」, 『韓國先史考古學報』 5, 韓國先史考古學會, 1998, pp.41~66.

이선복, 「신석기·청동기시대 주민교체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韓國古代史論叢』 1, 1991.

李盛周, 「辰·弁韓 土器 生産技術의 形成과 轉移」, 『辰·弁韓의 世界』, 釜山市立博物館 福泉分館, 1998, pp.25~60.

李盛周, 「打捺文土器의 展開와 陶質土器 發生」, 『韓國考古學報』 42, 韓國考古學會, 2000, pp.57~106.

이홍중, 「무문토기와 야요이 토기의 실연대」, 『韓國考古學報』 60, 韓國考古學會, 2006, pp.236~258.

임상택, 「중부지역 신석기시대 상대편년을 둘러싼 문제」, 『韓國新石器研究』 5, 韓國新石器研究會, 2003, pp.21~25.

任孝宰, 「土器의 時代의 變遷過程」, 『韓國史論』 12, 國史編纂委員會, 1983, pp.615~653.

任孝宰, 「新石器時代 韓·日文化交流」, 『韓國史論』 16, 國史編纂委員會, 1986.

千羨幸, 「한반도 돌대문토기의 형성과 전개」, 『韓國考古學報』 57, 韓國考古學會, 2005, pp.61~97.

최몽룡·신숙정, 「한국고고학에 있어서 토기의 과학적 분석에 대한 검토」, 『韓國上古史學報』 1, 韓國上古史學會, 1998.

崔鍾澤, 『高句麗土器 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博

士學位論文, 1999.

崔鍾澤, 「남한지역 고구려 토기의 편년 연구」, 『先史와 古代』 24, 韓國先史考古學會, 2006, pp.283~299.

한국고고환경연구소, 『土器燒成의 考古學』, 서경문화사, 2007.

韓永熙, 「韓半島 中·西部地方의 新石器文化」, 『韓國考古學報』 5, 韓國考古學會, 1978, pp.17~108.

한영희, 1994, 신석기시대, 『한국사』 1, 한길사.

P. M. Rice, Pottery Analysis A Source Book,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Im hyojai and Sarah M. Nelson, Implications of the sizes of Comb-pattern Vessels in Han River Site in Korea, Hanguk kogo-hakbo vol. 1, The Korean Archaeological Society, 1976, pp.117~121.

칼라 시노폴리 저, 이성주 역, 『토기연구 방법(Approaches to Archaeological Ceramics)』, 도서출판 고고, 2008.

제2장

토기 제작전통의 형성과 발전

● 주식 ●

1 金元龍, 『韓國考古學概說』, 一志社, 1986, pp.128~130.

李熙濬, 「초기 철기시대·원삼국시대 再論」, 『韓國考古學報』 52, 2004, pp.69~94.

- 2 李盛周, 「原三國時代 土器에 대한 理論的 論議의 方向」, 『先史와 古代』 26, 2007, pp.5~39.
- 3 李盛周, 「原三國時代 土器의 類型, 系譜, 編年, 生産體系」, 『韓國古代史論叢』 2, 1991, pp.235~297
- 4 顧幼靜, 「韓國 硬質土器의 起源 考察-가마의 구조를 중심으로-」, 『湖南考古學報』 32, 2009, pp.37~70.
- 5 崔秉鉉(구유정), 「原三國土器의 起源과 系統」, 『韓國考古學報』 38, 1998, pp.105~145.
- 6 申敬澈, 「釜山·慶南出土 瓦質系土器」, 『韓國考古學報』 12, 1982, pp.39~87.
崔鍾圭, 「陶質土器 成立前夜와 展開」, 『韓國考古學報』 12, 1982, pp.213~43.
- 7 崔秉鉉, 「鎭川地域 土器窯址와 原三國時代土器의 問題」, 『昌山金正基博士華甲紀念論叢』, 1990, pp.550~83.
- 8 李盛周, 「打捺文短頸壺의 研究」, 『文化財』 33, 國立文化財研究所, 2000, pp.5~35
- 9 崔盛洛, 『韓國 原三國文化의 研究』, 學研文化社, 1993, pp.137~180.
- 10 成正鏞, 「漢江流域 原三國時代의 土器」, 『원삼국시대 문화의 지역성과 변동』, 제29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2005, pp.33~66.
- 11 金武重, 「漢江流域 原三國時代의 土器」, 『원삼국시대 문화의 지역성과 변동』, 제29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2005, pp.9~32.
- 12 朴淳發, 『漢城百濟의 誕生』, 서경, 2001, pp.89.
- 13 朴淳發, 위의 책, pp.89~115.
金成南, 「百濟 漢城樣式土器의 形成과 變遷에 대하여」, 『考古學』 3-1, 2004, pp.53~63.
韓志仙, 「百濟土器 成立期 樣相에 대한 再檢討」, 『百濟研究』 41, 忠南大學校 百濟文化研究
- 所, 2005, pp.1~27.
- 14 成正鏞, 「4~5세기 百濟의 地方支配」, 『韓國古代史研究』 24, pp.86~103. 『中西部 馬韓地域 百濟領域化 過程』, 서울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0.
- 15 徐賢珠, 『榮山江 流域 古墳 土器 研究』, 學研文化社, 2006, pp.197~204.
- 16 朴淳發, 「漢江流域 百濟土器의 變遷과 夢村土城의 성격에 대한 一考察」, 서울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9.
朴淳發, 「百濟土器의 形成過程」, 『百濟研究』 23, 1992, pp.21~64.
- 17 林永珍, 『百濟漢城時代古墳研究』,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林永珍, 「百濟初期 漢城時代 土器研究」, 『湖南考古學報』 4, 1996, pp.69~113.
- 18 權五榮, 「101호 유구의 성격에 대한 고찰」, 『風納土城』 VI, 국립문화재연구소·한신대학교박물관, 2005, pp.123~127.
- 19 朴淳發, 「百濟土器의 形成過程」, 『百濟研究』 23, 1992, pp.21~80.
- 20 조상기, 「청주지역 원삼국~백제시대 생활유적 토기 상대편년 연구」, 『先史와 古代』 26, 2007, pp.41~87.
- 21 柳基正, 「鎭川 三龍里·山水里窯 土器의 流通에 관한 研究(下)」, 『崇實史學』 16, 2003, pp.66~72.
- 22 金鍾萬, 『백제 토기의 신연구』, 서경문화사, 2007, pp.223~227.
土田純子, 「泗泚樣式土器에서 보이는 高句麗土器의 影響에 대한 검토」, 『韓國考古學報』 72, 2009, pp.118~159
- 23 金鍾萬, 「泗泚時代 百濟土器에 나타난 地域差 研究」, 『科技考古』 7, 2001, pp.81~144.

- 24 金鍾萬, 『사비시대 백제 토기 연구』, 서경문화사, 2004.
- 25 成正鏞, 「百濟와 中國의 貿易陶磁」, 『百濟研究』 38, 2003, pp.25~56.
- 26 權五榮, 「백제의 문물교류 양상에 대한 유형화 시론」, 『대백제국의 국제교류사』, 충남역사문화원, 2008, pp.55~66.
- 27 林永珍, 「馬韓 消滅時期 再考」, 『삼한의 역사와 문화』, 자유지성사, 1995, pp.88~108.
金洛中, 「5~6世紀 榮山江流域 政治體의 性格」, 『百濟研究』 32, 2000, pp.43~79.
- 28 徐賢珠, 『榮山江 流域 古墳 土器 研究』, 학연문화사, 2006, pp.197~204.
- 29 林永珍, 「韓國 墳周土器의 起源과 變遷」, 『湖南考古學報』 17, 2003, pp.83~111.
- 30 成洛俊, 「榮山江流域의 甕棺墓 연구」, 『百濟文化』 15, 1983, pp.105~147.
徐聲勳, 「榮山江流域 甕棺墓의 一考察」, 『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I, 一志社, 1987, pp.501~524.
李正鎬, 「榮山江流域 甕棺古墳의 分類와 變遷過程」, 『韓國上古史學報』 22, 1996, pp.31~68.
吳東墀, 「湖南地域 甕棺墓의 變遷」, 『湖南考古學報』 30, 2008, pp.101~138.
- 31 李映澈, 「웅관고분사회 지역정치체의 구조와 변화」, 『湖南考古學報』 20, 2004, pp.57~90.
- 32 李正鎬, 「영산강유역 고대 가마와 그 역사적 성격」, 『삼한·삼국시대의 토기생산기술』, 복천박물관, 2003, pp.65~96.
- 33 崔鍾圭, 「陶質土器 成立前夜와 展開」, 『韓國考古學報』 12, 1982, pp.213~243.
- 34 金元龍, 『新羅土器의 研究』, 乙酉文化社, 1960, p.5.
- 35 李盛周, 「圓底短頸壺의 生産」, 『韓國考古學報』 68, 2008, pp.88~127.
- 36 李盛周, 「加耶土器 生産分配體系」, 『가야 고고학의 새로운 조명』, 혜안, 2003, pp.287~295.
- 37 李盛周, 「圓底短頸壺의 生産」, 『韓國考古學報』 68, 2008, pp.88~127.
- 38 朴天秀, 「三國時代 昌寧地域 集團의 性格研究」, 『嶺南考古學』 13, 1993, pp.157~207.
- 39 李相俊, 「生産考古學의 研究成果와 課題-三國時代 가마(窯)를 중심으로-」, 『고고학의 새로운 지향: 제4회 부산북천박물관 학술대회』, 2000, pp.1~20.
李相俊, 「嶺南地方의 土器窯」, 『도자(陶瓷) 고고학을 향하여: 제29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2003, pp.5~33.
- 40 이정근, 「함안과 창녕지역 토기생산의 특징」, 『天馬考古學論叢』, 石心鄭永和教授 停年退任紀念論叢, 2007, pp.229~262.
- 41 金大煥, 「고대 경산지역 정치체의 토기생산과 분배 試論」, 『압동국과의 통신 토기의 메시지』, 영남대학교 박물관, 2006, pp.78~90.
- 42 朴天秀, 「器臺를 통하여 본 加耶勢力的 動向」, 『가야의 그릇받침』, 국립김해박물관, 1999, pp.93~106.
金東淑, 「新羅·伽耶 墳墓의 祭儀遺構와 遺物에 관한 研究」, 『嶺南考古學』 30, 2002, pp.59~98.
- 43 李殷昌, 「新羅 土偶에 나타난 民俗」,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4, 1983, pp.191~281;
「洛東江流域의 象形土器研究」, 『伽倻文化』 13, 2003, pp.1~135.
慎仁珠, 「梁山法基里 出土 鳥形容器」, 『文物研究』 3, 1999, pp.127~169
- 44 李殷昌, 「新羅의 器用에 관한 研究」, 『新羅文化

- 祭學術發表會論文集』 2, 1981, pp.163~172.
 慎仁珠, 위의 글, pp.162~164
- 45 李熙濬, 『신라 고고학 연구』, 사회평론, 2007, pp.66~75.
- 46 李盛周, 「新羅·加耶土器樣式的生成」, 『韓國考古學報』 72, 2009, pp.72~117.
- 47 郭長根, 『湖南 東部地域 石槨墓 研究』, 서경문화사, 1999; 「湖南 東部地域의 加耶勢力과 그 成長過程」, 『湖南考古學報』 20, 2004, pp.91~124.
- 48 朴升圭, 「加耶土器의 地域相에 관한 研究」, 『伽倻文化』 11, 伽耶文化研究院, 1998, pp.117~156; 「加耶土器의 轉換期 變動과 樣式構造」, 『伽倻文化』 19, 伽耶文化研究院, 2006, pp.143~186.
- 49 김재철, 「경상도의 고대 토기가마 연구」, 『啓明史學』 15, 2006, pp.72-117.
- 50 崔秉鉉, 『新羅 古墳 研究』, 一志社, 1992, pp.661~700.
- 51 洪潛植, 「통일신라 토기」, 『우리옛그릇』, 부산박물관, 2006, pp.167~178.
- 52 尹相惠, 「6~7세기 신라 토기의 상대편년」, 『韓國考古學報』 45, 2001, pp.127~148.
 洪潛植, 「統一新羅土器의 上限과 下限」, 『嶺南考古學報』 34, 2004, pp.35~60.
- 53 國立文化財研究所, 『雁鴨池』, 1984.
- 54 崔秉鉉, 『新羅 古墳 研究』, 一志社, 1992, pp.661~700.
- 55 朴方龍, 『新羅 都城 研究』, 東亞大學校 博士學位論文.
 申昌秀, 「新羅의 王京」, 『강좌 한국고대사』 제7권,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pp.165~212.
- 56 李鍾玟, 「百濟時代 輸入陶器의 影響과 陶磁史의 意義」, 『百濟研究』 27, 1997, pp.53~80.

- 57 金英媛, 「統一新羅時代 鉛釉의 發達과 磁器의 出現」, 『美術資料』 62, 1999, pp.1~25.
- 58 國立中央博物館, 『統一新羅』, 國立中央博物館, p.154.
- 59 洪潛植, 위의 글, 2006, p.170.

제3장

고려, 삼국 영혼의 도자를 만든다

● 주석 ●

-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 興德王 3年條.
- 李鍾玟, 『韓國의 初期青磁 研究』, 弘益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 請求論文, 2002, 12, pp.25~28.
 김영원, 「한반도출토 중국도자」, 『우리 문화속의 中國陶磁器』, 국립대구박물관, 2004, pp.140~143.
- 李鍾玟, 「韓半島 初期青磁의 分類と 編年」, 『東洋陶磁』 34, 東洋陶磁學會, 2004~2005, pp.87~113.
- 海剛陶磁美術館·京畿道始興市, 『芳山大窯-始興市 芳山洞 初期青磁·白磁 窯址 發掘調査 報告書』, 2001.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12, 1992.
- 李鍾玟, 「南部地域 初期青磁의 系統과 特徵」, 『미술사연구』 16, 2002, pp.199~227.
- 정영선, 『한국 차문화』, 너럭바위, 1990, pp.107~108.
- 建州産으로 복건성 소무원에서 수확되는 차를 말한다.

- 9 용봉차는 송나라 휘종 2년(1120) 복건성 건구현의 '북원공다소'에서 처음으로 만든 차로 찻차를 둥근 떡처럼 만들어 용과 봉황문양을 찍은 것이다.
- 10 『宣和奉使高麗圖經』 卷32, 器皿3, 茶俎.
- 11 이정신, 「고려시대 茶생산과 茶所」, 『한국중세사연구』 6, 한국중세사학회, 1999, p.170.
- 12 張南原, 「고려시대 茶文化과 靑瓷」, 『美術史論壇』 24, 한국미술연구소, 2007, p.143.
- 13 李鍾玟, 「韓國 初期靑磁의 形成과 傳播」, 『美術史學研究』 240, 韓國美術史學會, 2003, pp.61~65.
- 14 전다범은 煮茶法이라고도 한다.
- 15 고려시대 다법의 변화와 이를 반영하는 청자 차 도구에 대한 연구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된다.
김은경, 「高麗時代 靑磁 甌形 茶容器의 변화」,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 16 張南原, 앞의 논문(2007), pp.114~155.
- 17 위의 글.
- 18 李鍾玟, 「韓國의 初期靑磁 研究」, 흥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2, 12, p.20~24.
- 19 국내의 철화청자에 대한 영향문제에서 중국 남방과의 관련가능성을 제기한 논고는 다음의 글이 참고가 된다.
張南原, 「高麗時代 鐵畫瓷器의 成立과 展開」, 『美術史論壇』 18, 韓國美術研究所, pp.58~60.
- 20 張南原, 「高麗 中期 壓出陽刻 靑瓷의 性格」, 『美術史學研究』 242·243, 韓國美術史學會, 2004, pp.95~120.
- 21 李鍾玟, 「高麗靑磁 龍 裝飾의 樣式的 系譜와 編年」, 『역사와 담론』 53, 湖西史學會, 2009, 8, pp.321~359.
- 22 秦大樹, 「宋·金代 북방지역 瓷器의 象嵌工藝와 高麗 象嵌靑瓷의 關係」, 『美術史論壇』 7, 한국미술연구소, 1998, pp.45~76.
- 23 張南原, 「고려초·中期 瓷器 象嵌技法의 연원과 발전」, 『美術史學報』 30, 美術史學研究會, 2008, pp.159~192.
- 24 韓盛旭, 「高麗 後期 靑瓷의 器形 變遷」, 『美術史學研究』 232, 韓國美術史學會, 2001, pp.57-99.
- 25 고려 전기 백자의 제작양상과 양식적 연원관계에 대하여는 다음 논문을 참고할 것.
曹周妍, 「高麗前期 白磁의 特徵과 性格 研究」, 弘益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 請求論文, 2005.
장남원, 「고려전기 해무리굽[옥벽저계]碗의 지속현상에 대한 추론」, 『湖西史學』 50, 湖西史學會, 2008, pp.321~354.
- 26 李鍾玟, 「麗末~鮮初 硬質白磁로의 이행과정 연구」, 『湖西史學』 50, 湖西史學會, 2008, 9, pp.355~394.
- 27 張南院, 『고려중기 청자 연구』, 혜안, 2006, p.54.
- 28 『宣和奉使高麗圖經』 卷19, 「民庶」 工技條.
- 29 朴玉杰, 『高麗時代의 歸化人 研究』, 國學資料院, 1996, pp.38~58.
- 30 任眞娥, 「高麗遺蹟 出土 宋代磁器 研究」,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2.
- 31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12, 1992, pp.250~293. 이 책에서는 이곳 출토의 백자들이 11세기 경에 제작된 고려백자라 하였으나 이는 중국의 경덕진계 청백자일 가능성이 높다.
- 32 任眞娥, 「高麗靑磁에 보이는 北宋·遼代 磁器의 影響」, 弘益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5, p.73의 <표 12> 참고. 표에 따르면 북송대의 것으로 알려진 중국자기 114점 중 정요계

- 는 41점, 경덕진요계는 33점이나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자로서는 유일하게 耀州窯系 제품이 17점이나 포함되어 있으나 발견지가 분묘가 아닌 사찰에 집중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 33 曹溶(1613~1685), 『學海類編』, 宋太平老人撰 袖中錦, “監書, 內酒 … 高麗秘色 … 皆爲天下第一.”
- 34 曹勳, 『松隱集』 卷28, 『文淵閣四庫全書』 V.1129, p.495(金載悅, 「중국으로 건너간 고려자기」, 『湖巖美術館 研究論文集』 4號, 1999, pp.18~19 재인용).
- 35 『館閣續錄』 3, 續藏古器(張南院, 『고려중기 청자 연구』, 혜안, 2006, p.61 재인용).
- 36 羅滄, 『寶慶四明志』 卷6, 『文淵閣四庫全書』 史部, V.487, pp.82~85(金載悅, 「중국으로 건너간 고려자기」, 『湖巖美術館 研究論文集』 4, 1999, pp.18~19에서 재인용).
- 37 『高麗史』 卷30, 世家30, 忠烈王 15年(1289) 8 月條.
- 38 金載悅, 「중국으로 건너간 고려자기」, 『湖巖美術館研究論文集』 4, 1999, p.19.
- 39 『高麗史』 卷105, 列傳18 諸臣 趙仁規傳; 卷 31, 世家31, 忠烈王 23年(1297) 1月條.
- 40 曹昭, 『格古要論』 卷下.
- 41 金澈雄, 『韓國中世 國家祭祀의 體制와 雜祀』, 韓國研究院, 2003, pp.9~10.
- 42 張成旭, 「高麗時代 陶磁祭器 研究」, 弘益大學 校大學院 碩士學位 請求論文, 2006.
- 43 병향로는 손잡이가 길게 달린 향로를 말하며, 현향로는 공중에 매달아 놓고 쓰는 향로 종류를 말한다. 고려시대 자기향로에 대한 분류는 張成旭, 앞의 논문(2006), pp.48~61을 참고할 것.
- 44 1척은 약 30cm이다.
- 45 李溶振, 「高麗時代 鼎形靑瓷 研究」, 『美術史學研究』 252, 韓國美術史學會, 2006. pp.153~190. 필자는 이 글에서 고려의 청자정형 향로가 북송 王甫의 저서인 『宣和博古圖』 같은 예기서를 참고하여 제작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 46 康津靑磁資料博物館, 『고려청자와 종교』, 2002의 도록 참조.
- 47 畿甸文化財研究院·韓國土地公社, 『龍仁 寶亭里 靑磁窯址』, 2006.
- 48 『宣和奉使高麗圖經』 卷31, 器皿2, 淨瓶條, … 貴人國官觀寺民舍, 皆用之惟可貯水…
- 49 『宣和奉使高麗圖經』 卷20, 貴婦條, … 富家, 籍以大席侍婢旁列, 各執巾瓶, 雖盛暑不以爲苦也…
- 50 奈良縣立橿原考古學研究所附屬博物館, 『奈良·平安の中國陶磁-西日本出土品を中心として』, 1984.
- 51 金昶均, 「韓國靑銅銀入絲香垵의 研究-高麗時代 高杯形을 中心으로」, 『佛教美術』 9, 東國大學校博物館, 1988, p.9.
- 52 『高麗史』 卷85, 志39, 刑法2 禁令條, ‘景宗元年二月, 定文武兩班墓地, 一品方九十步, 二品八十步, 墳高并一丈六尺, 三品七十步, 高一丈, 四品六十步, 五品五十步, 六品以下, 并三十步, 高不過八尺.’
- 53 『高麗史』 卷85, 志39, 刑法3 禁令條, 忠肅王後八年五月, 監察司榜示禁令, … 一, 各戶奴婢役之甚苦, 在所矜恤, 或有病不肯醫治奔諸道路, 死又不埋轉相曳奔肉餒群狗誠爲可憐, 今後以重法論.
- 54 고려말 禮部侍郎을 지냈던 朴翊(1332~1398)의 경우 밀양 고법리에 장사를 지냈으며 그의 무덤은 석실묘로 구성된 것이 확인되었다. (東

- 亞大學校博物館, 『密陽古法里壁畫墓』, 2002.)
- 55 고려시대 무덤의 구조 중 특히 석곽묘에 대하여 이희인은 석곽묘를 축조재료에 따라 板石造石槨墓와 割席造石槨墓로 구분하였고(李義仁, 「中部地方 高麗古墳의 類型과 階層」, 『韓國上古史學報』 45, 2004, pp.107~135), 양미옥은 무덤의 입구를 조성하는 방식에 따라 豎穴式石槨墓와 橫口式石槨墓로 분류하였다.(梁美玉, 「충청지역의 고려시대 무덤연구」, 韓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5).
- 56 安山市·漢陽大學校博物館, 『安山 大阜島 六谷 高麗 古墳群 發掘調查報告書』, 2002, pp.110~118.
- 57 鄭良謨, 「三陟郡 北坪邑 三和里出土 高麗時代 遺物一括」, 『考古美術』 129·130, 1976, pp.190~199.
國立春川博物館, 『國立春川博物館』, 2002, pp.84~87.
- 58 朴喜顯, 「丹陽 玄谷里 高麗古墳群 發掘調查 概報」, 『박물관휘보』 9,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1998.
국립청주박물관, 『남한강문물』, 2001. pp.66~67.
- 59 兪주시, 『충주박물관 소장품도록』, 2004, pp.101~103.
- 60 李鍾玟, 「高麗 墳墓出土 陶磁 研究」, 『湖西史學』 46, 湖西史學會, 2007, pp.1~34.
- 61 전축요를 豪族들이 소유한 私窯로 본 견해가 있다. 이 견해를 요약하면 고려 왕실은 왕권강화책의 일환으로 호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제거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축요가 일거에 폐오되었다고 보고 있다. (李喜寬·崔健, 「高麗初期 青磁生産體制의 變動과 그 背景」, 『美術史學研究』 232, 韓國美術史學會, 2002, pp.21~55).
- 62 朴宗基, 「京畿 北部地域 中世 郡縣 治所와 特殊 村落 變化研究」, 『北岳史學』 8, 北岳史學會, 2001, pp.144~149.
- 63 徐聖鎬, 『高麗前期 手工業 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 請求論文, 1997, pp.68~74.
- 64 李喜寬은 호암미술관 소장 靑磁象嵌菊牧丹文辛丑銘벼루에 등장하는 명문(1181년 5월 10일 大口所의 前戶正인 徐敢夫를 위해 맑은 청자 벼루 한 개를 만들었다, 黃河寺)을 검토하여 이 청자가 부안산으로 추정되며 부안 요업의 주체는 명문에 보이는 사찰인 黃河寺로서 결국 私窯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李喜寬, 앞의 논문, 2000, 강진청자자료박물관, pp.61~80). 그러나 기록에도 나와있지 않은 사찰이 강진에 머무는 부안요를 관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 65 朴敬子, 「14세기 康津 磁器所의 해체와 窯業체제의 二元化」, 『美術史學研究』 237, 238, 韓國美術史學會, 2003, pp.110~113. 所의 해체는 이미 12세기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金炫榮, 「고려시기의 所에 대한 재검토」, 『韓國史論』 15,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6). 그러나 자기소의 해체도 같은 과정을 겪고 있는 지에 대하여는 재고해야 할 것이다.
- 66 李鍾玟, 「14世紀 後半 高麗象嵌靑磁의 新傾向-음식기명을 중심으로-」, 『美術史學研究』 201, 韓國美術史學會, 1992, pp.5~40.
- 67 특히, 干支銘象嵌靑磁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14세기 전반의 경우(13세기 후반설도 있으나 여기서는 자세한 언급을 생략한다) 강진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청자를 생산한 가마의 예를 찾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13세기까지의 수 많은 특수촌락, 혹은 군현, 사찰 등에서 운영했던 가마들이 갑자기 몰락하고 마

치 강진의 자기소만 남아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실제 그 시기의 상황이 그러했는지, 아니면 청자양식을 잘못 이해하여 생긴 일인지는 차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14세기 후반 강진 이외의 가마터 양상은 박敬子, 앞의 논문(2003), 韓國美術史學會, p.124의 <표 2> 참고.

- 68 『高麗史節要』 卷34, 恭讓王 1年 12月條, 大司憲 趙浚等上書曰…司饗, 每年遣人於各道, 監造內用瓷器, 一年爲次, 憑公營私, 侵漁萬端, 而一道馱載, 至八九十牛, 所過騷然, 及至京都, 進獻者, 百分之一, 餘皆私之, 弊莫甚焉.
- 69 韓盛旭, 「高麗 後期 靑瓷의 器形 變遷」, 『美術史學研究』 232, 韓國美術史學會, 2001, pp.58~61.
- 70 박종진, 『고려시기 제정운영과 조세제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pp.31~45.
- 71 張南原, 「漕運과 도자생산, 그리고 유통: 海底引揚 고려도자를 중심으로」, 『미술사연구』 22, 미술사연구회, 2008, p.171.
- 72 13개의 조창은 다음과 같다(조창명·옛 지명/현지명순).
『高麗史』 卷79, 志33, 食貨 漕運 참고. 德興倉(忠州/忠州), 興元倉(原州/原州), 河陽倉(牙州/牙山), 永豐倉(富城/瑞山), 安興倉(保安/扶安), 鎮城倉(臨陂/群山), 海陵倉(羅州/羅州), 芙蓉倉(靈光/靈光), 長興倉(靈岩/靈岩), 海龍倉(昇州/順天), 通陽倉(泗州/泗川), 石頭倉(合浦/昌原), 安瀾倉(長淵/長淵)
- 73 張南原, 앞의 논문(2008), pp.192~193.
- 74 『高麗史』 卷89, 列傳2, 后妃, 忠惠王條.
- 75 韓盛旭, 「高麗後期 靑瓷의 器形 變遷」, 『美術史學研究』 232, 韓國美術史學會, 2001, pp.57~99.

76 사료에는 13세기말부터 14세기에 이르기까지 私膳, 別膳에 대한 폐단을 시정하려는 上疏나 下敎의 기사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① 『高麗史節要』 卷19, 忠烈王 1年(1279), 11月條, ② 『高麗史』 志38, 刑法1, 職制, 忠烈王 24年(1298), 正月條, ③ 『高麗史』 志38, 刑法1, 職制, 忠肅王 5年(1318), 5月條, ④ 『高麗史』 志 38, 刑法1, 職制, 恭愍王 11年(1362), 6月條.

77 주 (67)과 같음.

78 李義權, 「高麗의 郡縣制度和 地方統治政策-主·屬縣考察을 中心으로-」, 『高麗史의 諸問題』, 三英社, 1986, p.257.

79 『高麗史節要』 卷25, 忠惠王(復) 5年(1344)條.

80 『高麗史節要』 卷25, 忠惠王(復) 4年(1343)條.

81 『高麗史』 志39, 刑法2, 禁令條.

제4장

조선 전기의 도전과 위엄, 분청사기와 백자

● 주석 ●

- 1 한우근, 『한국사』 9, (국사편찬위원회, 1977), pp.1~13; 이원순, 『한국사론-조선전기』 3(국사편찬위원회, 1986), pp.1~21, 256~287.
- 2 고유섭, 「고려도자와 조선도자」, 『우현 고유섭 전집』 2-조선미술사 하, 열화당, 2007, pp.371~389.
- 3 『태종실록』 권12, 6년(1406) 윤7월 18일; 『태종실록』 권17, 9년(1409) 1월 21일; 『세종실록』 권7, 2년(1420) 1월 25일.
- 4 유승주, 「조선전기후반의 은광업 연구」, 『진단학

- 보』 55, 1983, pp.15~54.
- 원유한, 「화폐유통정책」, 『한국사론』 11, 국사편찬위원회, 1986, p.129.
- 5 『태종실록』 권13, 7년(1407) 1월 19일; 『세종실록』 권3, 원년(1418) 4월 13일.
- 6 『태종실록』 권33, 17년(1417) 4월 20일.
- 7 『세종실록』 권11, 3년(1421) 4월 16일.
- 강경숙, 『한국도자사』, 일지사, 1990, p.314 및 「분원 성립에 따른 분청사기 편년 및 청화백자 개시문제 시론」, 『이기백선생고회기념한국사학논총(하)』, 일조각, 1994, p.1477.
- 8 김영원, 「조선시대 요업체계의 변천」, 『미술자료』 66, 국립중앙박물관, 2001, p.17~45.
- 9 『점필재집』 (김종직, 1431~1492), 彝尊錄, 先公事業 제4 및 『세종실록』 권116, 29년(1447) 윤4월 7일.
- 10 관요가 처음 설치된 시기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하다. 정양모 선생은 선조 연간(1567~1607) 이전이라는 학설을 제시한 바 있고(정양모, 「사용원과 분원」, 『국보 8-백자·분청사기』, 예경산업사, 1984, pp.189~193, 윤용이 선생은 1467년 4월을 전후하여 설치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윤용이, 「조선시대 분원의 성립과 발전」, 『광주분원과 조선도자』, 경기도박물관, 2001, pp.7~8). 또한 강경숙 선생은 1469년 이후의 일이라고 역설하였으며(강경숙, 「분원성립에 따른 분청사기 편년 및 청화백자 개시문제 시론」, 『이기백선생고회기념 한국사학논총(하)』, 일조각, 1994, p.1496), 김영원 선생은 1467년 4월에서 1468년 12월 사이에 설치되었다는 주장을 피력한 바 있다.(김영원, 「조선전기 도자의 시기구분」, 『조선전기 도자의 연구-분원의 설치를 중심으로』, 학연문화사, 1995, p.54). 필자는 1466년 6월을 전후하여 관요가 최초 설치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전승창, 「경기도 광주 관요의 설치시기와 변조관」, 『미술사연구』 22, 미술사연구회, 2008, pp.199~218).
- 11 전승창, 「15세기 위폐형 자기묘지와 위폐장식 고찰」, 『호암미술관 연구논문집』 4, 삼성문화재단, 1999, pp.96~112.
- 12 『세종실록지리지』 에 기록된 전국의 도자소의 숫자를 정리하면, 경기도 34개소(자기소14, 도기소20), 충청도 61개소(자기소23, 도기소38), 경상도 71개소(자기소37, 도기소34), 전라도 71개소(자기소32, 도기소39), 강원도 14개소(자기소4, 도기소10), 황해도 29개소(자기소12, 도기소17), 평안도 24개소(자기소12, 도기소12), 함길도 20개소(자기소5, 도기소15)로 중부와 남부 지역의 가마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13 국립중앙박물관·호암미술관, 『계룡산 학봉리 요지 발굴조사 약보』, 1992. 국립중앙박물관, 『계룡산 학봉리 2차 발굴조사 약보』, 1993 및 『계룡산 분청사기』, 2007.
- 14 국립광주박물관, 『무등산 충효동 가마터』, 1993.
- 15 국립광주박물관,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도요지』, 2002.
- 16 경남발전연구원, 『진해 웅천 도요지Ⅱ』, 2004.
- 17 전북문화재연구원, 『완주 화심리 유적』, 2008, pp.51~258.
- 18 경기도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 『경기도광주 중앙관요』, 2000, pp.318~321.
- 19 해강도자미술관, 『광주 우산리 백자요지(Ⅱ)-17호 백자요지 시굴조사 보고서』, 1999 및 『광주 우산리 백자요지-2호』, 1995.
- 20 『太宗實錄』 권21, 11년(1411) 4월 29일.

- 21 『高麗史』, 「列傳」 권31, 趙浚傳.
- 22 전승창, 앞의 논문(2007), pp.84~88.
- 23 『中宗實錄』 권93, 35년(1540) 5월 11일.
- 24 전승창, 「15세기 분청사기 및 백자의 수요와 제작성격의 변화」, 『미술사연구』 12, 미술사연구회, 1998, pp.51~84.
- 25 『승정원일기』 인조 3년(1625) 7월 2일.
- 26 『중종실록』 권67, 25년(1530) 2월 2일.
『비변사등록』 효종 4년(1653) 11월 30일 및 숙종 16년(1690) 10월 28일.
『승정원일기』 숙종 22년(1696) 9월 6일, 숙종 23년(1697) 7월 26일, 숙종 27년(1701) 8월 14일, 숙종 9년(1723) 8월 4일.
『오주연문장전산고』 (이규경, 1788~?) 권27, 「古今瓷窯辨證說」.
『六典條例』 (1867) 권2, 吏典, 사옹원조.
『임원경제지』 (서유구, 1764~1845), 「倪圭志」 권3.
가마의 운영시기와 백토굴취 지역에 관한 기록이 일치하는 경우, 관요백자의 배토산지 확인도 가능하다.
- 27 『승정원일기』 숙종 2년(1676) 8월 20일.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광주 조선백자요지 발굴조사보고』, 1986, p.208.
- 28 전승창, 『15~16세기 조선시대 경기도 광주 관요 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pp.100~103.
- 29 이화여자대학교, 『광주 번천리 9호 조선백자요지』, 2007, pp.178~180 및 『광주 조선백자요지 발굴조사보고』, 1986, p.53.
- 30 『성종실록』 권77, 24년(1493) 5월 18일.
- 31 전승창, 「조선시대 백자가마의 발굴성과 검토」, 『도자고고학을 향하여』, 한국상고사학회, 2003, pp.79~107.
- 32 『세종실록』 권116, 29년(1447) 윤4월 7일.
- 33 『세조실록』 권30, 9년(1463) 5월 24일, 권31, 9년(1463) 윤7월 3일, 권34, 10년(1464) 8월 7일; 권34, 10년(1464) 9월 13일, 『예종실록』 권8, 원년(1469) 10월 5일.
- 34 당시 기록에서 확인되는 전국의 대표적인 백자 제작지로 고령, 남원, 광주가 확인된다.(『점필재집』, 이존록, 선공사업 제4).
- 35 전승창, 앞의 논문(2007), pp.148~159.
- 36 『세종실록』 권17, 4년(1422) 9월 6일 및 『국조오례의』 권8, 흥례, 대부사서인상의.
- 37 전승창, 앞의 논문, 2007, pp.112~115.
- 38 『성종실록』 권211, 19년(1488) 1월 23일 및 『용재총화』, (성현, 1439~1504), 권10.
- 39 『중종실록』 권97, 36년(1541) 12월 28일 및 『광해군일기』, 10년(1618) 윤4월 3일.
호암미술관 학예연구실, 「청화안료에 대하여」, 『조선백자전II』, 호암미술관, 1985, pp.69~80.
- 40 잔받침에는 시의 앞부분 4구절만이 적혀 있는데, 원문과 그 의미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玉壺繫青絲(옥호=술병에 푸른 실을 묶어) 沽酒來何遲(술을 사 오는 것이 왜 이리 더딘가?) 山花向我笑(산의 꽃은 나를 보고 웃으니) 正好銜杯時(술잔을 머금고 있을 때 참으로 좋도다) 晚酌東窓下(동쪽 창 아래에서 해질녘에 술을 따르니) 流鶯復在茲(하늘을 나는 앵무새도 다시 여기에 있는 것 같구나) 春風與醉容(봄바람과 술에 취한 사람이) 今日乃相宜(오늘이야 제 짝을 찾았구나)”
- 41 번천리 9호에서는 3편의 상감백자가 출토되었는데, 상감백자의 장식으로 즐겨 사용되던 연화문이 있는 구연부 파편과 초화문이 장식된 몸체 파편, 그리고 새롭게 보이는 연잎장식이 있

는 제기 爵의 파편이 그것이다.(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앞의 책, 2007, p.228)

42 전승창, 「조선전기의 백자 전접시 고찰」, 『호암미술관 연구논문집』 2, 삼성문화재단, 1997, pp.105~107.

43 『세종실록오례의』에 수록된 〈백자청화주해〉의 제작지에 대하여 ‘명나라’라는 주장과 ‘조선’이라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다. 정양모 선생은 국내에서 제작된 청화백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고(정양모, 「조선백자 청화백자」, 『한국미술사의 현황』, 예경, 1992, pp.403~404), 강경숙 선생도 국내산으로 추정하고 있다.(강경숙, 「분원성립에 따른 분청사기 편년 및 청화백자 개시 문제」, 『이기백선생고회기념 한국사학논총(하)』, 일조각, 1994, pp.1494~1495). 김영원 선생 역시 1430년 조선에 유입된 〈청화운룡 백자주해〉를 모델로 제작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김영원, 『조선시대 도자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p.97).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윤용이 선생은 명나라 청화백자로 주장하며(윤용이, 「조선초기도자의 양상」, 『조선백자요지 발굴조사보고전』,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특별전도록,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993, p.80), 윤희정도 중국산으로 추정하고 있다.(윤희정, 「조선 15~16세기 청화백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p.17). 필자는 첫째 〈백자청화주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물이 알려져 있지 않고, 둘째 대좌와 하나의 세트를 이루며 받침 위에 올려놓고 그림을 그릴 만큼 애지중지했던 점, 셋째 유입시기와 유물의 명칭이 유사한 점, 넷째 운룡장식이 공통의 소재로 등장하고 기종이 동일하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1430년 중국 황제로부터 받았던 청화백자를 『세종실록오례의』에 수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44 국립대구박물관, 『우리 문화 속의 중국도자기』 2004, pp.112~119.
김영원, 「한반도출토 중국도자」, 『우리 문화속의 중국도자기』, 국립대구박물관, 2004, pp.146~147.

● 참고 문헌 ●

저서

강경숙, 『한국도자사』, 일지사, 1989.
_____, 『분청사기』, 대원사, 1991.
_____, 『한국 도자사의 연구』, 시공사, 2000.
_____, 『한국 도자기 가마터 연구』, 시공사, 2005.
권병탁, 『전통도자의 생산과 수요』,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9.
김영원, 『조선백자』, 대원사, 1991.
_____, 『조선 전기 도자의 연구』, 학연문화사, 1995.
_____, 『조선시대 도자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방병선, 『조선후기 백자연구』, 일지사, 2000.
_____, 『순백으로 빚어낸 조선의 마음, 백자』, 돌베개, 2002.
_____, 『왕조실록을 통해 본 조선도자사』, 고려대학교출판부, 2005.
윤용이, 『韓國陶器史研究』, 문예출판사, 1993.
정양모, 『한국의 도자기』, 문예출판사, 1991.

論文

강경숙, 「분원성립에 따른 분청사기 편년 및 청화백자 개시 문제」, 『이기백선생고회기념 한국사학논총(하)』, 일조각, 1994.

- _____, 「세종실록 지리지 자기소·도기소 연구」, 『미술사학연구』 202, 한국미술사학회, 1994.
- _____, 「세종실록 지리지 기록에 있는 자기소 도편의 특징」, 『고고미술사학』 5,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1997.
- _____, 「도자가마터 발굴의 현황과 전망」, 『미술사연구』 12, 미술사연구회, 1998.
- _____, 「분원성립 시기에 관한 소고」, 『초우항수영박사교회기념 미술사학논총』, 통문관, 1988.
- _____, 「조선초기 백자의 문양과 조선초·중기 회화와의 관계-〈백자청화송죽문홍치이년명호〉와 이화여자대학교소장 〈백자청화송죽문인물문호〉를 중심으로」, 『시대사학연구』, 1983.
- _____, 「광주지역 가마출토 분청사기와 백자」, 『광주분원과 조선도자』, 경기도박물관, 2001.
- _____, 「15세기 경기도 광주 백자의 성립과 발전」, 『미술사학연구』 237, 한국미술사학회, 2003.
- _____, 「분청사기의 특징과 변천」, 『분청사기 명품전』, 호림박물관, 2004.
- _____, 「한국도자사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미술사학연구』 241, 한국미술사학회, 2004.
- 권소현, 「조선시대 상감백자의 편년연구」, 『미술사학연구』 240, 한국미술사학회, 2003.
- 김영원, 「조선 인화분청의 편년적 고찰-광주 금곡리 출토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 _____, 「조선전기 분청과 상감백자에 관한 연구」, 『고고미술』 153, 한국미술사학회, 1982.
- _____, 「조선전기 도자기의 성격」, 『정신문화』 겨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 _____, 「세조-성종년간의 분원의 설치와 도자양식의 변천」, 『미술사논단』 2, 한국미술연구소, 1995.
- _____, 「세종 연간의 도자에 관한 고찰」, 『미술자료』 55, 국립중앙박물관, 1995.
- _____, 「15세기 조선자기 양식에 관한 연구」, 『동원학술논문집』 1, 한국고고미술연구소, 1998.
- _____, 「분원 관요와 지방요」, 『광주분원과 조선도자』, 경기도박물관, 2001.
- _____, 「조선시대 관요체계의 변천-도기소·자기소에서 분원관요로-」, 『미술자료』 66, 국립중앙박물관, 2002.
- _____, 「회암사지 출토자기」, 『회암사』, 경기도박물관, 2003.
- _____, 「한반도 출토 중국도자」, 『우리 문화 속의 중국도자기』, 국립대구박물관, 2004.
- 김우림, 『파평윤씨 정정공파 묘역조사 보고서』, 고려대학교박물관, 2003.
- 김재열, 「논평/조선백자, 청화백자」, 『한국미술사의 현황』, 예경, 1992.
- 김향희, 「15세기 청화백자에 그려진 그림연구」, 『강좌미술사』, 한국미술사연구소, 2000.
- 박경자, 「분청사기 명문 연구」, 『강좌미술사』 25,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6.
- 방병선, 「중국 어기창과 광주분원」, 『광주분원과 조선도자』, 경기도박물관, 2001.
- 윤용이, 「분청사기의 소멸과 백자의 발생에 관하여」, 『간송문화』 20, 한국민족미술연구소, 1981.
- _____, 「광주 관요의 변천과 청화백자」, 『조선백자전 II』, 삼성미술문화재단, 1985.
- _____, 「조선시대 백자항아리-용도와 변천을 중

- 심으로」, 『조선백자 향아리』,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 _____, 「조선초기도자의 양상」, 『조선백자요지 발굴조사보고전』,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특별전도록, 1993.
- _____, 「조선시대 백자태항아리의 성립과 변천」, 『서삼릉태실』,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 _____, 「조선시대 분원의 성립과 발전」, 『광주분원과 조선도자』, 경기도박물관, 2001.
- _____, 「15·16세기 조선백자의 양상」, 『한일도자문화의 교류양상』, 한일관계사학회, 2005.
- 윤희정, 「조선 15·16세기 청화백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이원복, 「조선백자에 나타난 포도문」, 『미술자료』 39, 국립중앙박물관, 1987.
- 이현정, 「조선 전기 백자에 보이는 명대 자기의 영향」,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전승창, 「15세기 도자소 고찰(Ⅰ)」, 『호암미술관 연구논문집』 1호, 삼성문화재단, 1996.
- _____, 「조선전기의 백자 전접시 고찰」, 『호암미술관 연구논문집』 2, 삼성문화재단, 1997.
- _____, 「15세기 분청사기 및 백자의 수요와 제작 성격의 변화」, 『미술사연구』 12, 미술사연구회, 1998.
- _____, 「15세기 위패형 자기묘지와 위패장식 고찰」, 『호암미술관 연구논문집』 4, 삼성문화재단, 1999.
- _____, 「조선시대 백자가마의 발굴성과 검토」, 『도자 고고학을 향하여』, 한국상고사학회, 2003.
- _____, 「조선 관요의 분포와 운영체계 연구」, 『미술사연구』 18, 미술사연구회, 2004.
- _____, 「경기도 광주 관요의 설치시기와 번조관」, 『미술사연구』 22, 미술사연구회, 2008.
- _____, 「조선초기 명나라 청화백자의 유입과 수용고찰」, 『미술사학연구』 264, 한국미술사학회, 2009.
- 정양모, 「선덕10년명 분청사기묘지」, 『미술자료』 7, 1973.
- _____, 「백자론」, 『한국의 미』 2, 중앙일보사, 1978.
- _____, 「조선백자의 변천」, 『조선백자전』 I, 호암미술관, 1983.
- _____, 「조선전기 청화백자의 변천」, 『조선백자전』 II, 호암미술관, 1985.
- _____, 「경기도 광주분원 요지에 대한 편년적 고찰」, 『한국백자도요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 _____, 「조선백자, 청화백자」, 『한국미술사의 현황』, 예경, 1992.
- _____, 「사용원과 분원」, 『국보 -백자, 분청사기』 8, 웅진출판, 1992.
- _____, 「조선백자의 발달」, 『국보 -백자, 분청사기』 8, 웅진출판, 1992.
- _____, 「광주요지」, 『국보 -백자, 분청사기』 8, 웅진출판, 1992.
- _____, 「조선백자의 발전」, 『조선백자명품전』, 호림박물관, 2003.
- 최 건, 「조선시대의 도자문화」, 『조선도자수선』, 조선관요박물관, 2002.
- _____, 「조선도자의 전개와 성격」, 『조선도자 500년전』, 세계도자기엑스포, 2003.
- 호암미술관연구실, 「청화안료에 대하여」, 『조선백자전』 II, 삼성미술문화재단, 1985.

조사보고서

경기도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 『경기도 광주 중앙관요 지표조사보고서』, 2000.

경기도박물관·기전문화재연구원, 『회암사II-본문』, 2003.

경남대학교박물관, 「안동 신양리 조선백자요지」, 『대구-춘천간 고속도로 건설예정지역내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군위-안동간)』, 1992.

국립광주박물관, 『무등산 충효동 가마터』, 1993.

국립전주박물관, 『전북의 조선시대 도요지-조선시대 분청·백자-』, 1997.

국립중앙박물관, 『광주 충효동 요지-분청사기·백자 가마 퇴적층 조사-』, 1992.

국립중앙박물관, 『광주군 도마리 백자요지 발굴조사보고서-도마리 1호요지』, 1995.

기전문화재연구원,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0.

부산대학교박물관, 『산청 방목리 백자요지』, 2000.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광주 번천리 9호 조선백자요지』, 2007.

_____, 『조선백자요지 발굴조사보고전-부 광주 우산리 9호요지 발굴조사보고서』, 1993.

_____, 『광주조선백자요지 발굴조사보고서-번천리 5호, 선동리 2·3호』, 1985.

이화여자대학교 도예연구소, 『도요지 발굴조사보고-보령댐 수물지역 발굴조사보고③』, 1996.

위덕대학교박물관, 『울산 언양자기소 지표조사보고』, 2000.

조선관요박물관, 『광주의 조선백자요지-광주시내 조선시대 자기요지 분포현황』, 200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백자도요지』, 1986.

해강도자미술관, 『광주 건업리 조선백자 요지 - 건업리 2호 가마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000.

_____, 『광주 우산리 백자요지(II)-17호 백자요지 시굴조사 보고서』, 1999.

_____, 『광주 우산리 백자요지-2호』, 1995.

_____, 『광주의 백자요지(I)』, 1992.

호암미술관, 『산본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 1991.

제5장

조선 진경의 정수, 후기 백자

● 주석 ●

1 방병선, 「법전을 통해선 본 조선시대 자기생산과 관리」, 『향산 안휘준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 미술사의 정립과 확산』, 사회평론, 2006, pp.518~541.

2 『승정원일기』 370책, 숙종 23년 윤3월 2일조.

3 방병선, 『조선후기 백자 연구』, 일지사, 2000, pp.286~325.

4 『승정원일기』 1105책, 영조 30년 4월 29일조.

5 『영조실록』 권82, 영조 30년 7월 갑오조.

6 『정조실록』 권48, 22년 3월 28일 임진조.

7 『순조실록』 권32, 순조 32년 9월 15일조.

8 이태진, 「정조」, 『한국사시민강좌』 13, 일조각, 1993, pp.61~85.

9 유봉학, 「경화사족 지식인의 생활과 사상」, 『조선후기 학계와 지식인』, 신구문화사, 1998, pp.141~194.

- 10 『선조실록』 권146, 35년 2월 14일 정축.
- 11 1555년 편찬된 『경국대전주해』에는 왕과 왕세자 등의 신분에 따라 사용하는 그릇을 달리 규정하였다. 『경국대전 주해』 후집 하 형전 및 『광해군일기』 권102, 8년 4월 23일 임술.
- 12 장기훈, 「조선시대 17세기 백자의 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p.65~73.
- 13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일반 사대부들에게도 청화백자보다 품질이 약간 떨어지는 常白磁 사용을 허락하고 있어서 왕실 전용이었던 백자를 사대부들도 아무런 규제 없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 14 김영미, 「조선시대 관요 청자 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p.11~17.
- 15 『광해군일기』 권127, 10년 윤4월 3일 신유.
- 16 『승정원일기』 14책, 인조 4년 윤6월 13일.
- 17 『승정원일기』 14책, 인조 4년 윤6월 13일.
- 18 『광해군일기』 권174, 14년 2월 6일.
- 19 『승정원일기』 43책, 인조 12년 5월 18일.
- 20 『승정원일기』 29책, 인조 8년 2월 19일.
- 21 『승정원일기』 35책, 인조 10년 3월 3일.
- 22 『승정원일기』 25책, 인조 7년 3월 21일.
- 23 『승정원일기』 58책, 인조 15년 윤4월 18일조, 동 93책, 인조 24년 1월 11일.
- 24 『승정원일기』 101책, 인조 26년 윤3월 15일.
- 25 1543년 편찬된 『대전후속록』 이후 사기장인은 그 업을 계속 자식들이 잇도록 하였다.(『대전후속록』 권6, 「공전」).
- 26 『승정원일기』 7책, 인조 3년 7월 2일.
- 27 『승정원일기』 4책, 인조 3년 2월 14일, 23책, 인조 6년 10월 14일, 36책, 인조 10년 4월 10일.
- 28 『승정원일기』 53책, 인조 14년 9월 5일.
- 29 『비변사등록』 16책, 효종 4년 11월 30일.
- 30 『승정원일기』 5책, 인조 3년 3월 21일, 53책, 인조 14년 9월 5일, 84책, 인조 21년 2월 18일, 104책 인조 27년 2월 2일, 129책, 효종 4년 11월 30일, 155책, 효종 10년 윤3월 13일, 162책, 현종 원년 6월 12일, 220책, 현종 11년 8월 12일, 238책, 현종 15년 3월 8일.
- 『비변사등록』 17책, 효종 4년 11월 30일.
- 31 『승정원일기』 262책, 숙종 3년 11월 21일.
- 32 『승정원일기』 370책, 숙종 23년 윤3월 2일.
- 33 『승정원일기』 396책, 숙종 27년 3월 23일.
- 34 『비변사등록』 44책, 숙종 16년 10월 28일.
- 35 『승정원일기』 367책, 숙종 22년 9월 6일, 371책, 숙종 23년 4월 16일.
- 36 『승정원일기』 220책, 숙종 8년 8월 9일.
- 37 『승정원일기』 372책, 숙종 23년 7월 26일.
- 38 『승정원일기』 255책, 숙종 2년 8월 1일.
- 39 『승정원일기』 370책, 숙종 23년 윤3월 12일.
- 40 목포대학교박물관 · 장성군, 『장성 대도리 가마유적』, 1995.
- 41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부여 정각리 갖섬골 유적』, 2002.
- 42 『승정원일기』 528책, 경종 즉위년 12월 17일.
- 43 『승정원일기』 43책, 인조 12년 5월 18일.
- 44 윤용이, 「조선시대분원의 성립과 변천에 관한 연구」, 『고고미술』 149·151, 1981, pp.22~44, 46~58.
- 정양모, 「경기도 광주분원 요지에 대한 편년적 고찰」, 『한국백자도요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pp.11~39.
- 45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 한국도로공사, 『광주 조선백자요지발굴조사보고-번천리 5호·선동리 2·3호』, 1986.
- 46 정양모, 「경기도 광주분원 요지에 대한 편년적 고찰」, 『한국백자도요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pp.19~24.

- 47 『승정원일기』 1109책, 영조 30년 7월 17일.
- 48 홍선표, 「조선후기 기록호사 풍조의 만연과 민화의 범람」, 『반갑다 우리 민화』, 서울역사박물관, 2005, pp.224-229.
- 정병모, 「조선민화론」, 『반갑다 우리 민화』, 서울역사박물관, 2005, pp.238-239.
- 49 이선옥, 『조선시대 매화도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박사학위논문, 2004, pp.68-69.
- 50 백인산, 『조선시대 묵죽화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4, pp.108-112.
- 51 채효진, 「조선 철회백자의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1985, pp.32~33.
- 52 淺川伯教, 『釜山窯と對州窯』, 彩壺會, 1930.
- 泉澄一, 『釜山窯の史的研究』, 關西大學出版部, 1986.
- 53 泉澄一, 위의 책.
- 54 『속중실록』 권38, 29년 9월 경술조.
- 55 하우봉, 『조선후기실학자의 일본관연구』, 일지사, 1989, pp.49~53.
- 56 방병선, 「조선 후반기 도자의 대외교섭」, 『조선 후반기 미술의 대외교섭』, 예경, 2007, pp.253~284.
- 57 『변례집요』 卷12, 求質 辛亥.
- 58 『왜인구청등록』 第1册, 己卯八月十六日 및 『변례집요』 卷12, 求質 己卯 八月.
- 59 『왜인구청등록』 第1册, 甲申六月十二日.
- 60 『변례집요』 卷1, 差倭 丁亥 九月.
- 61 『변례집요』 卷12, 求質 庚寅 六月.
- 62 『변례집요』 卷12, 求質 丙申 四月.
- 63 『왜인구청등록』 第1册 壬辰九月十五日; 同 第二册 甲午三月二十日, 第2册 丙申八月二十六日.
- 64 『변례집요』 卷12, 求質 癸丑 九月.
- 65 『왜인구청등록』 第5册, 戊午八月二十二日.
- 66 『왜인구청등록』 第5册, 辛酉三月初二日.
- 67 『왜인구청등록』 第5册, 丁卯七月初二日.
- 68 泉澄一, 앞의 책, (1986), pp.767~792.
- 69 백인산, 「선조연간 문인화 삼절-황집중, 이정, 어몽룡-」, 『간송문화』 65, 한국민족미술연구소, 2003, pp.103~112.
- 70 『영조정순후 가례도감의례』 상,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4, p.117, p.156, p.197, p.245, 하, p.11, p.72, p.134, p.142.
- 71 『영조정순후 가례도감의례』 하,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4, p.196.
- 72 『승정원일기』 1746책, 정조 19년 6월 18일조.
- 73 사옹원의 직제는 도제조 1인, 제조 4인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도제조는 대군이나 영의정이, 제조는 문신과 3인의 종친이 맡도록 되어 있었다. 후대 홍선대원군도 사옹원 제조를 지낸 적이 있다.(『증보문헌비고』 권222, 직관도9 사옹원조, 『어제집경당편집』 권6, 20장, 『어제속집경당편집』 권6, 19장, 『홍선헌이대원왕묘지명』).
- 74 『승정원일기』 648책, 영조 3년 10월 21일조.
- 75 金時敏, 『東圃集』 권7, 잡저 근제 어화첩자후.
- 76 당시 사상계의 변화에 대해서는 유봉학, 『연암 일과 북학사상 연구』, (일지사, 1995), 참조.
- 77 『비변사등록』 137책, 영조 35년 9월 25일조.
- 78 『속대전』 권6, 工典 雜畧. 물토는 사료에는水土로 기록되었는데, 도석과 장식에 혼합된 점토로, 재와 규석 등과 섞으면 광택과 점성이 훌륭한 유약이 된다.
- 79 『비변사등록』 79책, 영조 2년 2월 22일조.
- 80 『비변사등록』 81책, 영조 3년 6월 4일조.
- 81 『비변사등록』 77책, 영조 원년 4월 8일조.
- 82 『승정원일기』 1105책, 영조 30년 4월 29일조.
- 83 『비변사등록』 77책, 영조 원년 정월 7일조.

- 84 『비변사등록』 120책, 영조 27년 2월 1일조; 『여지도서』 경기도 양근 물산조(국사편찬위원회, 『여지도서』 상, 1973, p.142).
- 85 『승정원일기』 144책 효종 8년 1월 9일(임자).
- 86 『승정원일기』 1105책, 영조 30년 4월 23일조.
- 87 『승정원일기』 1102책, 영조 30년 1월 16일조.
- 88 방병선, 「명말청초 중국 청화백자 연구」, 『강좌 미술사』,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8, pp.321~351.
- 89 안휘준, 「한국의 소상팔경도」, 『한국회화의 전통』, 문예출판사, 1988, pp.162~249.
- 90 방병선, 『순백으로 빚어 낸 조선의 마음, 백자』, 돌베개, 2002, pp.163~166.
- 91 유미나, 『중국 시문을 주제로 한 조선후기 서화 함백첩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pp.152~155.
- 92 정우봉, 「강이천의 한경사에 대하여」, 『한국학보』 75, 일지사, 1994, pp.43~45.
- 93 이압, 『燕行記事』 聞見雜記.
- 94 박지원, 『열하일기』, 「盛京雜識·古董錄」.
- 95 『정조실록』 권38, 17년 11월 병진조.
- 96 『일성록』 정조 19년 8월 6일.
- 97 『정조실록』 권48, 정조 22년 3월 28일 임진조.
- 98 『일성록』 정조 19년 8월 1일.
- 99 『승정원일기』 1737책, 정조 18년 10월 8일조.
- 100 『慈慶殿進爵定例儀軌』 정해(규14362) 권2 기용조.
- 101 『戊子進爵儀軌』(규14364) 권2, 기용조.
- 102 『戊申進爵儀軌』(규14371) 권2, 기용조.
- 103 『戊辰進爵儀軌』(규14374) 권2, 기용조.
- 104 『무진진찬의궤』 권2, 찬품 조.
- 105 『癸酉進爵儀軌』(규14375) 권2, 기용조.
- 106 『壬辰進爵儀軌』(규14428) 권2, 기용조.
- 107 한글 명문 자료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이 참조된다.
- 나선화, 「분원리요 말기 청화백자에 나타난 명문 자료」, 『광주 분원리요 청화백자』,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994, pp.106~107.
- 최경화, 「편년자료를 통하여 본 19세기 청화백자의 양식적 특징」, 『미술사학연구』 212, 한국미술사학회, 1996, pp.77~107.
- 장경희, 『조선왕조 왕실가례용 공예품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108 박제가, 『북학의』 내편 자. 북학파의 도자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 정양모·최건, 「조선시대 후기백자의 쇠퇴요인에 관한 고찰」, 『한국현대미술의 흐름』 석남이경성선생고회기념논총, 일지사, 1988, pp.348~359.
- 최건, 「조선시대 후기 백자의 제문제」, 『도예연구지』 5, 한양여전 도예연구소, 1990, pp.103~117.
- 장남원, 「조선후기 이규경의 도자인식: 『오주연문장전산고』의 「고금자요변증설」과 「화동도자변증설」을 중심으로」, 『미술사논단』 6, 한국미술연구소, 1999, pp.205~232.
- 방병선, 「조선 후기 도자관」, 『조선후기 백자연구』, 일지사, 2000, pp.166~205.
- 109 朴宗綏, 『과정록』 권3.
- 110 李喜經, 『雪岫外史』.
- 111 방병선, 「조정 박제가·윤암 이회경의 도자인식」, 『미술사학연구』 238·239, 한국미술사학회, 2003, pp.213~234.
- 112 유득공, 『경도잡지』 권1, 풍속 器什條.
- 113 홍대용, 『담헌서』 외집 燕記 권10.
- 114 이회경, 앞의 책.
- 115 서유구의 생애와 사상은 유봉학, 「서유구의 학문과 농업정책론」(『연암일과 북학사상 연구』,

- 일지사, 1996) pp.187~230이 참조된다.
- 116 서유구, 『임원경제지』, 「贍用志」 권2.
- 117 위의 책.
- 118 위의 책.
- 119 빙허각이씨 저, 정량원 역주, 『규합총서』, 보진재, 1975, pp.170~173.
- 120 이규경, 『五洲書種』 자기류.
- 121 강관식, 「조선 후기 궁중 책가도」, 『미술자료』 66, 국립중앙박물관, 2001, pp.79~95.
방병선, 「이형록의 책가문방도 팔곡병에 나타난 중국도자」, 『강좌미술사』 28,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7, pp.209~238.
- 122 손팔주 편, 『신위전집』 1, 태학사, 1983, 齋中詠物三十首, pp.460~469.
이현일, 「조선 후기 古董玩賞의 유행과 紫霞詩」, 『한국학논집』 37,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3, pp.143~144.
김미경, 「19세기 조선백자에 나타난 청대 자기의 영향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123 이유원, 『임하필기』 권34.
- 124 『승정원일기』 1228책, 영조 40년 3월 28일 기묘.
- 125 『승정원일기』 1102책, 영조 30년 1월 10일 경신; 1102책, 영조 30년 1월 16일 병인.
- 126 『승정원일기』 1099책, 영조 29년 10월 9일 경인.
- 127 『육전조례』 권2, 이전 사용원조.
- 128 「分院邊首復設節目」, 1874, 규장각 古大 4256-10.
- 129 방병선, 『조선 후기 백자 연구』, 일지사, 2000, pp.142~144.
- 130 방병선, 「고종 연간의 분원 민영화 과정」, 『역사와 현실』 33호, 한국역사연구회, 1999, pp.183~216.
- 131 『分院磁器貢所節目』, 규장각 古4256-11.
- 132 박은숙, 「개항 후 분원 운영권의 민간 이양과 운영실태-하재일기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42, 한국사연구회, pp.251~295.
- 133 공인 지씨, 『하재일기』 1894년 9월 22일,
- 134 위의 책, 1897년 1월 14일, 1월 16일, 1월 21일, 2월 3일, 2월 17일, 2월 21일,
- 135 서유구, 『임원경제지』, 「예규지」 권3-4, 화식.
- 136 위의 책.
- 137 공인 지씨, 『夏齋日記』 1891년 7월 21일, 8월 25일,
- 138 서유구, 앞의 책.
- 139 위의 책.
- 140 이규경, 앞의 책, 〈古寸齋辨證說〉.
- 141 공인 지씨, 『하재일기』 1895년 7월 11일, 12월 15일.
- 142 공인 지씨, 『하재일기』 1895년 3월 20일.
방병선, 「『하재일기』를 통해 본 조선말기 분원」, 『강좌미술사』 34, 2010, pp.271~297.
- 143 「宮內府案」,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2.
- 144 최건, 「대한제국시대의 도자기」, 『오얏꽃 황실생활유물』, 궁중유물전시관, 1997, pp.57~59.
- 145 『分院磁器貢所節目』, 규장각 古 4256-11.
- 146 19세기 실제 그릇의 형상은 다음 책의 도해를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淺川巧, 『朝鮮陶磁名考』, 朝鮮工藝刊行會, 1931.

● 참고 문헌 ●

『經國大典 註解』, 『宮內府案』, 『光海君日記』, 『癸酉進爵儀軌』, 『大典後續錄』, 『戊申進爵儀軌』, 『戊

辰進饌儀軌』, 『戊子進爵儀軌』, 『邊例集要』, 『分院各項文簿抄錄』, 『分院邊首復設節目』, 『分院磁器貢所節目』, 『備邊司謄錄』, 『宣祖實錄』, 『續大典』, 『肅宗實錄』, 『純祖實錄』, 『承政院日記』, 『御製集慶堂編輯』, 『英祖實錄』, 『英祖貞純侯嘉禮都監儀軌』, 『六典條例』, 『日省錄』, 『倭人求請謄錄』, 『壬辰進饌儀軌』, 『慈慶殿進爵定例儀軌』, 『正祖實錄』, 『增補文獻備考』, 『輿地圖書』, 『弘齋全書』

金時敏, 『東圃集』

朴趾源, 『熱河日記』

朴齊家, 『北學議』

徐有榘, 『林園經濟志』

憑虛閣李氏, 『閩閣叢書』

柳得恭, 『京都雜志』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考』, 『五洲書種』

李裕元, 『林下筆記』

李喜經, 『雪岫外史』

趙秀三, 『秋齋集』

洪大容, 『湛軒書』

강경숙, 『한국도자사』, 일지사, 1989.

_____, 『한국도자사의 연구』, 시공사, 2000.

강만길, 『조선시대상공업사연구』, 한길사, 1984.

김영원, 『조선시대 도자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방병선, 『조선 후기 백자 연구』, 일지사, 2000.

_____, 『순백으로 빚어 낸 조선의 마음, 백자』, 돌베개, 2002.

_____, 『왕조실록을 통해 본 조선도자사』, 고려대학교출판부, 2005.

송찬식, 『이조 후기 수공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73.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국역 하재일기(一)-(四)』, 2005~2008.

안휘준, 『한국 회화의 전통』, 문예출판사, 1988.

유봉학, 『연암일과 북학사상 연구』, 일지사, 1995.

_____, 『정조대왕의 꿈』, 신구문화사, 2001.

_____, 『개혁과 갈등의 시대-정조와 19세기』, 신구문화사, 2009.

윤용이, 『한국도자사연구』, 문예출판사, 1993.

하우봉, 『조선 후기 실학자의 일본관 연구』, 일지사, 1989.

G.W. 김모어 著/ 신복룡 역, 『서울풍물지』, 집문당, 1999.

목포대학교박물관·장성군, 『장성 대도리 가마유적』, 1995.

서울역사박물관, 『조선의 도자기』, 소장유물도록Ⅷ, 2008.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한국도로공사, 『광주조선허백자요지발굴조사보고-번천리 5호·선동리 2·3호』, 1986.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대전지방국토관리청, 『부여 정가리 갖점골 유적』, 2002.

강관식, 「조선 후기 궁중 책가도」, 『미술자료』 66, 국립중앙박물관, 2001.

김미경, 「19세기 조선백자에 나타난 청대 자기의 영향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나선화, 「분원리요 말기 청화백자에 나타난 명문 자료」, 『광주 분원리요 청화백자』,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994.

박은숙, 「개항 후 분원 운영권의 민간 이양과 운영실태-하재일기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42, 한국사연구회, 2008.

방병선, 「고종 연간의 분원 민영화 과정」, 『역사와 현실』 33, 한국역사연구회, 1999.

_____, 「조정 박제가·윤암 이희경의 도자인식」, 『미술사학연구』 238·239, 한국미술사학회, 2003.

- _____, 「법전을 통해선 본 조선시대 자기생산과 관리」, 『항산 안취준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 미술사의 정립과 확산』, 사회평론, 2006.
- _____, 「서울 지역 요지 출토 조선 도자」, 『서울의 도요지와 도자기』, 서울역사박물관, 2006.
- _____, 「이형록의 책가문방도 팔곡병에 나타난 중국도자」, 『강좌미술사』 28,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7.
- _____, 「조선 후기 도자의 대외교섭」, 『조선후반기 미술의 대외교섭』, 예경, 2007.
- _____, 「명말청초 중국 청화백자 연구」, 『강좌미술사』,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8.
- 백인산, 「선조 연간 문인화 삼절-황집중, 이정, 어몽룡-」, 『간송문화』 65, 한국민족미술연구소, 2003.
- _____, 『조선시대 목죽화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송기쁨, 「한국 근대도자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송희경, 「남송의 소장팔경도에 관한 연구」, 『미술사학연구』 205, 한국미술사학회, 1995.
- 유미나, 「중국서문을 주제로 한 조선후기 서화합벽첩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윤용이, 「조선시대분원의 성립과 변천에 관한 연구」, 『고고미술』 149·151, 1981.
- 이선옥, 「조선시대 매화도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4.
- 이태진, 「정조(正祖)」, 『한국사시민강좌』 13, 일조각, 1993.
- 이현일, 「조선후기古董玩賞의 유행과 紫霞詩」, 『한국학논집』 37,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3.
- 장경희, 『조선왕조 왕실가례용 공예품 연구』, 홍익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8. 12.
- 장남원, 「조선후기 이규경의 도자인식 : 『오주연문장전산고』의 「고금자요변증설」과 「화동도자변증설」을 중심으로」, 『미술사논단』 6, 한국미술연구소, 1998.
- 정양모, 「경기도 광주분원 요지에 대한 편년적 고찰」, 『한국백자도요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 정양모·최건, 「조선시대 후기백자의 쇠퇴 요인에 관한 고찰」, 『한국현대미술의 흐름』 석남이정성선생고회기념논총, 일지사, 1988.
- 장진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관우도〉와 조선시대 관우 이미지」, 『동원학술논문집』 9, 국립중앙박물관·한국고고미술연구소, 2008.
- 정우봉, 「강이천의 한경사에 대하여」, 『한국학보』 75, 일지사, 1994.
- 최 건, 「조선시대 후기 백자의 제문제」, 『도에연구지』 5, 한양여전 도예연구소, 1990.
- _____, 「대한제국시대의 도자기」, 『오얏꽃 황실생활유물』, 궁중유물전시관, 1997.
- 최경화, 「편년자료를 통하여 본 19세기 청화백자의 양식적 특징」, 『미술사학연구』 212, 한국미술사학회, 1996.
- 홍승주, 「서울 지역의 도요지」, 『서울특별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종합보고서』, 서울역사박물관, 2005.
- 淺川伯教, 『釜山窯と對州窯』, 彩壺會, 1930.
- 淺川巧, 『朝鮮陶磁名考』, 朝鮮工藝刊行會, 1931.
- 泉澄一, 『釜山窯の史的研究』, 關西大學東西學術研究所, 1986.
- 姜昌和, 「濟州地方 初期 新石器文化的 形成과 展

- 開」, 『제26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한국고고학회, 2002, pp.9~33.
- 강창화·오연숙, 『제주고산리유적』, 제주대학교 박물관, 2003.
- 경상남도, 남강유적발굴조사단, 『남강선사유적』, 신성기획, 1998.
- 국립김해박물관, 『전환기의 선사토기』, 도서출판龍디자인, 2005.
- 국립중앙박물관, 『特別展 韓國의 先·原史土器』, 1993.
- 金美蘭, 「原三國時代의 土器 研究-土器의 製作 實驗 및 分析을 통하여-」, 『湖南考古學報』 2, 湖南考古學會, 1995, pp.11~68.
- 金元龍, 『韓國 考古學概說』 第3版, 一志社, 1986.
- 김장석, 「남한지역 후기 신석기-전기청동기 전환: 자료의 재검토를 통한 가설의 제시」, 『韓國考古學報』 48, 韓國考古學會, 2003, pp.93~133.
- 김재윤, 「韓半島 刻目突帶文土器의 編年과 系譜」, 『韓國上古史學報』 46, 韓國上古史學會, 2005, pp.31~70.
- 박수현, 「湖南地方 土器窯址에 關한 一試論」, 『研究論文集』 1, 湖南文化財研究院, 2001, pp.41~74.
- 朴淳發, 「高句麗土器의 形成에 대하여」, 『百濟研究』 29, 忠南大學校百濟研究所, 1999, pp.1~26.
- 朴辰一, 「圓形粘土帶土器文化研究-湖西 및 湖南地方을 中心으로-」, 『湖南考古學報』 12, 湖南考古學會, 2000, pp.125~155.
- 朴辰一, 「嶺南地方 粘土帶土器文化 試論」, 『韓國上古史學報』 35, 韓國上古史學會, 2001, pp.33~57.
- 庄田慎矢, 「靑銅器時代 土器燒成技法의 實證의 研究」, 『湖南考古學報』 23, 湖南考古學會, 2006, pp.115~138.
- 梁時恩, 「漢江流域 高句麗土器의 製作技法에 대하여」, 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3.
- 吳蓮淑, 「濟州道 新石器時代 土器의 形式과 時期 區分」, 『湖南考古學報』 12, 湖南考古學會, 2000, pp.47~83.
- 이기길, 『우리나라 신석기시대의 질그릇과 살림』, 백산자료원, 1995.
- 李東柱, 「東北아시아 隆起文土器 研究의 諸問題-東시베리아·極東地域의 初期 新石器遺蹟을 中心으로」, 『韓國先史考古學報』 5, 韓國先史考古學會, 1998, pp.41~66.
- 이선복, 신석기·청동기시대 주민교체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韓國古代史論叢』 1, 1991.
- 李盛周, 「辰·弁韓 土器 生産技術의 形成과 轉移」, 『辰·弁韓의 世界』, 釜山市立博物館 福泉分館, 1998, pp.25~60.
- 李盛周, 「打捺文土器의 展開와 陶質土器 發生」, 『韓國考古學報』 42, 韓國考古學會, 2000, pp.57~106.
- 이홍중, 「무문토기와 야요이 토기의 실연대」, 『韓國考古學報』 60, 韓國考古學會, 2006, pp.236~258.
- 임상택, 「중부지역 신석기시대 상대편년을 둘러싼 문제」, 『韓國新石器研究』 5, 韓國新石器研究會, 2003, pp.21~25.
- 任孝宰, 「土器의 時代의 變遷過程」, 『韓國史論』 12, 國史編纂委員會, 1983, pp.615~653.
- 任孝宰, 「新石器時代 韓·日文化交流」, 『韓國史論』 16, 國史編纂委員會, 1986.
- 千羨幸, 「한반도 돌대문토기의 형성과 전개」, 『韓國考古學報』 57, 韓國考古學會, 2005,

pp.61~97.

최몽룡·신숙정, 「한국고고학에 있어서 토기의 과학적 분석에 대한 검토」, 『韓國上古史學報』 1, 韓國上古史學會, 1998.

崔鍾澤, 『高句麗土器 研究』, 서울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9.

崔鍾澤, 『남한지역 고구려 토기의 편년』, 2006.

ㄱ

가례嘉禮 222
 가마 87, 338
 가소성 29, 83
 가야양식 161
 가요哥窯 자기 358
 가요문자기 358
 가평군 대성리유적 97
 가포價布 321
 가호미家戶米 338
 가화假畵 319
 간석기 61
 간송미술관 210, 341
 간지명 상감청자 241
 간지명 자기 325
 간지명 청자 243, 244
 갈관 65
 감생청減省廳 361
 갑기 금지령 357
 갑발匣鉢 233, 246, 275, 278, 279, 280, 288, 322, 348
 갑발용 흙 323
 갑번匣燻 278, 279, 280
 갑번자기 336, 348
 강관둔요江官屯窯 204
 강종康宗 229
 강진 189, 191, 200, 208, 212, 223, 224, 233,

234, 235, 236, 238, 240, 242, 245, 258,

294

강진 사당리 212
 강진 용운리 196, 200
 강판薑板 366
 강화 선원사 241
 개경開京 186
 개자원화전芥子園畵典 345
 건덕전乾德殿 222
 건업리 280, 287
 건요建窯 216
 건자산소巾子山所 233
 검은간토기黑色磨研土器 35, 66
 격고요론格古要論 218
 격벽 324
 건송사遣宋使 214
 경국대전經國大典 284, 285, 312
 경덕진 216, 229, 300, 301, 303, 308, 364
 경덕진 관요 307
 경산 옥산동유적 95
 경승부敬承府 254, 256
 경종 227
 경주 손곡동유적 95
 경주토 323
 경질무문토기硬質無文土器 99
 경질백자 214
 경화사족京華土族 316, 354
 계룡산 분청사기 262
 고국원왕 124
 고동기형 제기 223
 고든 차일드 25
 고려미술관 350, 352
 고려비색高麗翡色 200, 359
 고려비색존高麗秘色尊 359

고려오니휴병高麗烏泥携瓶 359
 고려관중침족본선원청규高麗板重添足本禪院清規 193
 고려 154, 257, 269
 고배 135, 163
 고분 215
 고산리식토기 39, 43
 고성 160
 고식도질토기古式陶質土器 145, 159, 163
 고아시아족 72
 고유섭 252
 고증학 354, 356, 358
 고흥 192
 고흥 제석사 241
 곤릉坤陵 222, 223, 228
 곤양 273, 338
 곤양토 338
 골동 316
 골호骨壺 168
 공납 자기 243
 공물 235, 237, 242, 255
 공민왕 245
 공소貢所 361
 공안부恭安府 254, 256
 공역 235
 공인貢人 339, 360
 공장 333
 공주 학봉리 262
 공필工筆 370
 관각속록館閣續錄 217
 관리 270
 관백關白 333
 관사명 267
 관영 수공업 체제 234
 관요 251, 257, 268, 269, 270, 273, 274, 279, 280, 289, 298, 325, 327, 358, 362
 관요백자 272, 282, 283, 286, 300, 301, 304, 305, 307, 308
 관음리 324
 광구소호 146
 광구장경호 129
 광구평저호 141
 광종 237
 광주廣州 251, 257, 260, 268, 269, 273, 286, 289, 297, 338
 광주 관요 305
 광해군 320, 332
 구림리요지 171, 176
 구멍띠토기孔列土器 56
 구야국狗邪國 160
 구절기법球切技法 137
 구절판九折坂 119
 국내성 105
 국신사國信使 214
 국조오례의 291
 국화문 243
 군곡리패총 99
 군산 무녀도 238
 군산 비안도 238
 군산 십이동파도 238
 군산 야미도 238
 굴뚝 120
 굽접시 59, 63
 궁평리 324
 궤龕 220, 233
 귀얄 258, 260, 263
 귀얄분청사기 267
 귀얄장식 256

귀어도歸漁圖 342
 귀잔耳杯 116
 귀항아리耳附壺 112
 규합총서閩閩叢書 358
 근초고왕 124
 금강산 213
 금관가야 160
 금사리 274, 339, 340
 금속기 253, 307
 금속제기 254
 금화오잔 193
 금화옹기 218
 기술혁신 80, 89
 기장 333
 기종器種 92
 기하문 355
 긴항아리長胴壺 112
 길상문 345, 350, 353, 355, 368
 김득신 345
 김세록 331
 김숙자 269
 김중서 257, 285
 김중직 284
 김해 84, 100, 156, 332
 김해식토기 96
 김홍도 352
 깊은바리 111
 깔때기형토기 112
 껌석기 61

L

나전칠기 210
 나팔입항아리 111
 낙랑樂浪 79, 81


낙랑 토기 129
 난전 360
 남종면 분원리 274
 남종문인화 345
 남차 193
 낭청郎廳 322, 338
 내섬시內贍寺 254, 260, 320
 내용內用 287
 내자시內資寺 254
 노천요露天窯 36, 87
 노형토기 94, 146
 녹갈도기綠褐陶器 108
 녹유귀면와綠釉鬼面瓦 176
 녹유도기綠釉陶器 174
 녹유사이호綠釉四耳壺 175
 녹유사천왕상전綠釉四天王像塼 176
 녹유인화문병綠釉印花文瓶 176
 능산리사지 121
 니질태토泥質胎土 108

㉠

다소촌茶所村 193
 다완茶碗 185, 187, 191, 194, 195, 202, 331, 332,
 333, 334
 다조茶俎 194
 다호茶壺 185
 다회茶會 332
 단각고배短脚高杯 164, 165
 단양 현곡리 215, 230
 달항아리 315, 326, 338, 342, 371
 당기중도아唐器中都兒 360
 당사기고唐沙器庫 336
 당사발唐砂鉢 355
 당삼채두침 225

당초문 203, 353
 대가야 160, 164
 대구면 사당리 241
 대구소大口所 233, 234
 대도리 가마 323
 대동법 312
 대렴大廉 184
 대마도주對馬島主 331, 333
 대부장경호 152, 154, 164, 178
 대전 구완동 196
 대접 256
 덕녕부德寧府 254, 256
 덩병 258
 덩병기법 263
 덧띠새김무늬토기刻目突帶文土器 55
 덧띠토기粘土帶土器 58, 59, 73
 덧무늬토기隆起文土器 39, 43
 도기陶器 78, 184, 231, 362, 320
 도기가마 191
 도기매병 229
 도기소 255
 도기정병 229
 도도로끼식토기轟式土器 43
 도래인渡來人 75
 도마리 279, 281, 287, 295, 301, 308
 도자 227, 331
 도자 장인 312
 도자베개 226
 도자제기陶磁祭器 219, 220
 도질토기陶質土器 100, 146, 149, 156
 도화서 308
 독널甕棺 54, 67
 독널무덤 70
 동굴벽화 62

동궁 319
 동기銅器 221
 동리채국東籬採菊 346
 동물문 210
 동이大鉢 114
 동자조어도童子釣魚圖 343
 동정도 344
 동정추월도洞庭秋月圖 346
 동정호洞庭湖 345
 동천동 179
 동화 342, 355
 동화백자 322, 336
 두료 220
 두귀달린긴항아리兩耳附長胴甕 113
 두동리 가마터 267
 두왜頭倭 332
 두침頭枕(베개) 223, 225
 등요登窯 149, 265, 266, 277, 278
 등잔 모양 토기 156
 델감 조달 323
 델나무 273
 떡메병 338
 또아리병環狀瓶 119
 뚜껑 117



마제석기 25
 마환馬韓 79, 102, 122
 만고기관첩萬古奇觀帖 346, 347
 만두요饅頭窯 137
 만월대 241
 말이산 162
 말차법抹茶法 196
 매병 247, 259

매병모양토기 179
 매조문 353
 매죽문 330
 명기화明器化 164
 명문백자 355
 명문제기 189
 모란 350, 355
 목간木簡 239, 240
 몽촌토성夢村土城 111, 123, 129, 139
 묘법 330
 묘지문 292
 묘지석墓誌石 256, 257, 264, 291
 무령왕릉 138, 139
 무문토기無文土器 78
 무안 도리포 238
 무신의 난 208
 목죽도 331
 목죽화 330
 문방구 315, 351
 문방기명文房器名 338
 문방책가도 359
 물레질 33, 146, 148, 168
 물레질법 82, 84, 87, 91, 101, 148, 178
 물토 338, 360
 미송리형토기 74
 미시마三島 252
 민간 번조 361
 민무늬토기無文土器 26, 52, 55, 65, 71, 72
 민요 235, 236

ㅂ

바탕흙胎土 30
 박산향로 221

박제가 357
 박지 258, 261
 박지원 277
 반구장경호盤口長頸壺 164, 165
 반도염식半倒炎式 가마 324
 반상기 230, 349, 355, 358, 368
 반잔盤盞 194
 받침류 280
 발우 223, 227
 방사량房士良 245
 배장 144
 배천 원산리 187, 189, 221
 백수백복百壽百福 350
 백자 유약 348
 백자발우 226
 백자상감모란문매병 212
 백자상감모란문병 298
 백자양각매화문청채각병 366
 백자음각한기묘지석 291
 백자장군 269
 백자철화매죽문발 298
 백자철화조원망묘지석 291
 백자청화당초문발 302
 백자청화매죽문양이잔 296, 297
 백자청화매죽문호 304, 306
 백자청화박공묘지석 292
 백자청화보상당초문 받침 296
 백자청화상진묘지석 292
 백자청화선덕년제명운룡문호 304
 백자청화송죽문홍치이년명호 296
 백자청화운룡문병 303, 304
 백자청화인천이씨명묘지석 291, 292
 백자청화주해 302, 308
 백자청화철화삼산문호 221

백자청화포도문반침 306
 백자청화화당초문접시 301
 백자대호 289, 290
 백점토 285, 362
 백제국 百濟國 123, 126
 백토 252, 262, 263, 273, 284, 321, 331, 332, 333,
 360
 버치 114
 번개무늬 49
 번개문토기 52
 번자회사 燐磁會社 362
 번조관 燐造官 271
 번조기술 199
 번조사기 273
 번조실 279
 번조차왜 燐造差倭 333
 번천리 276, 277, 279, 281, 282, 287, 295, 301,
 304, 305, 308
 범자 梵字 226
 범랑채자기 359
 벼루 135
 벽사 辟邪 116
 변수 邊首 322
 변한 79, 102
 별번 別燐 288, 362
 별번자기 348
 별선 別膳 242
 병 118, 326
 병자호란 320
 보簾 220, 233
 보강제 30
 보경사명지 寶慶四明志 217
 보령 238, 241
 보상당초 296
 복록수 368
 복천동 162
 봉황 350
 부뚜막 120
 부안 208, 210, 223, 235, 238
 부안 유천리 196, 212
 부안 진서리 234
 부여 갓점골 가마 324
 부장 토기 153
 부장용 副葬用 토기 92
 부장품 153
 복학 356
 분盎 114
 분삼번입역제分三番入役制 273
 분원 269, 314, 337, 338, 348, 357, 362, 364
 분원 백자 313
 분원 사기장 321
 분원 장인 314, 359
 분원강 목물수세 360
 분원공소 359, 361, 371
 분원리 339
 분원백자 360
 분원 변수 邊首 361
 분원변수복설절목 361
 분원자기 354, 362
 분원자기공소절목分院磁器貢所節目 361, 362,
 366
 분원제도 321, 335
 분장 263
 분장회청사기 252
 분주원보등 273
 분주토기 墳周土器 142
 분채모란팔보문 의자 317
 분청사기 250, 251, 258, 260, 269, 309

분청사기귀얄문편병 262
 분청사기분장문잔 263
 분청사기사이호 256
 분청사기상감연화문매병 258
 분청사기상감원통형묘지석 264
 분청사기우형제기 253
 분청사기인화국화문사이호 256
 분청사기인화국화문태호 256
 분청사기인화국화문호 259
 분청사기인화승림문 '경상' 명사이호 259
 분청사기접시·호 256
 분청사기철화연지어문장군 262
 붉은간토기赤色磨研土器 35, 54, 65
 비색翡色 198
 비색소구 193
 비파형동검 74
 빗살무늬토기櫛文土器 26, 39, 71, 73
 빙허각이씨 358
 人
 사군자 340, 353
 사기 252, 318
 사기번조 271, 332, 333, 334
 사기번조차왜沙器燔造差倭 333
 사기소 269
 사기옹주 240
 사기장 258, 271, 272
 사기전沙器塵 339, 340, 354, 359, 360
 사기점인沙器店人 340
 사대부층 315
 사로국斯盧國 157
 사리용기 223
 사발盃 116
 사번私燔 314, 315, 321, 322, 329, 339, 345,

360, 361
 사비泗比 125
 사선私膳 242
 사선서司膳署 287
 사운서 246
 사옹 270
 사옹원司饗院 268, 271, 287, 321, 322, 338
 사옹원 분원分院 320, 361
 사옹원 사기소 269
 사옹원관 271
 사요私窯 233, 235
 사자빈신사지獅子頻迅寺址 234
 사족반四足盤 139
 사찰 223
 사천왕사지 176
 산뢰山罍 220
 산릉제도 291
 산수리 87
 산수문 345, 350, 353, 355
 산시청람도山市晴嵐圖 346
 산화동 341, 342, 351
 산화철 314, 341, 342
 삼국사기 122
 삼족기 135, 142
 삼족반三足盤 129, 130
 삼족배 129
 삼족향로 222, 229
 삼화동 고분 215, 229
 상감 258, 259, 260
 상감기법 206, 208, 252
 상감문양 208
 상감백자 287, 298, 299
 상감장식 267
 상감청자 206, 210, 241

상감청자류 218
상감토 246
상림리 324
상변常燔 278, 279, 280
상형像形청자 204
상형像形향로 221
상형 연적 367
상형토기象形土器 156
상회 자기 365
상회백자 364
서계書契 333
서공書工 333
서금 193, 200
서리기법捲上法 33
서산시 오사리 233
서양화존西洋畫尊 359
서유구 358, 362
서촌요西村窯 203
서화수장 316
석간주石間朱 320, 325, 337, 351, 363
석간주팔각향아리 363
석곽묘石槨墓 228, 230
석기炆器 22, 147, 149
석실묘石室墓 228
석제묘지석 264
석촌동고분군 126, 129
선덕여왕 184
선동리 274, 324, 325
선천토宣川土 323
선화봉사고려도경 193, 194, 214, 222, 225
설백색 288
설수외사 277
성석린 254
성연부곡聖淵部曲 233

성종 219, 237
성주 양식 158
성현 295
성형成形 32, 357
세골장洗骨葬 69
세색 218
세석기細石器 40
세종실록오례의 283, 302, 303, 308
세종실록지리지 255, 264
소所 237, 242
소가야 155, 160
소바다식토기曾畑式土器 52
소상팔경도瀟湘八景圖 345
소상팔경문 346, 350
소성법 87
소성분위기 37, 38
손곡동 151
손빛기법手捏法 32
송국리식(형)토기 56, 58, 67, 95
송산리고분군 133
송은집松隱集 217
송정리 324
송정리 가마 325
송죽매문 353
송죽문 330
숯釜 116
쇠뿔손잡이牛角形把手 67
수병水瓶 194
수비水飛 32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 224
수제토기手製土器 109
수중금袖重錦 201
수촌리고분 139
숙중 321, 322, 332, 333, 334

순백자 363, 368
 순원왕후 355
 승문타날단경호 102
 승석타날문단경호 97
 승정원일기 273
 시곡柴穀 수세 360
 시루甌 60, 94, 115, 177
 시문기법 202
 시유도기施釉陶器 126, 168, 174
 시장세柴場稅 361
 시흥 방산동 187, 189, 211, 221
 식기食器 178
 식물문 210
 신대리 324, 325
 신라삼채新羅三彩 175
 신라삼채골호新羅三彩骨壺 175
 신라양식 토기 157, 161
 신사임당 341
 신석기혁명 25
 신위申緯 358
 신정왕후 355
 신증동국여지승람 272
 신창동유적 144
 신촌리 9호분 144
 실요室窯 87
 실용기명 365
 실촌면 오양동 324
 심사정 342, 345
 십장생 352



아가리무늬토기 46
 아나톨리아 23
 아라가야 155, 160

아리따有田 364
 악정 335
 안도安燾 214
 안란창安瀾倉 237
 안료 294
 안릉安陵 189, 190
 안산 대부도 육곡 고분군 215
 안악 3호분 120
 안압지 169
 안증식 364
 안화상 270
 안흥창安興倉 237
 암문暗文 94, 109
 압날법押捺法 109
 압출양각 203, 212, 234
 압출양각상감문발 229
 압출양각화형접시류 229
 야요이토기彌生土器 56, 74
 약토藥土 333
 양각 365
 양각백자 368
 양각칠첩반상기 362
 양구 214, 273, 338
 양근 시장柴場 360
 양류관음도楊柳觀音圖 225
 양산 333
 양질백자 275
 어기창御器廠 364
 어몽룡 330
 어부도漁夫圖 342
 어윤중 364
 이초문답도漁樵問答圖 343
 여요汝窯 204
 여의두문 352

여주 중암리 187, 211, 221
여지문 243
여초리 151
역삼각형굽 288
역상감기법 206
역상감문뚜껑 229
연경燕京 363
연경사행 357
연당초문 243
연등회 192
연리문練理文자기 204
연속마제형문連續馬蹄形文 174
연속반원문 174
연적 307, 351
연질백자 211
연행燕行 317, 337, 345, 354
열점문 174
영모화 351
영산강 140
영산강 양식榮山江樣式 125
영조 315, 316, 327, 337, 340
예맥족濊貊族 72
예번例燔 362
예빈시禮賓寺 254, 318
예새 34, 107
예의상정소禮儀詳定所 219
예죽 96
예종 192
오리모양토기 94
오목굽 326
옥산동 151
옥환저완玉環底碗 232
온녕군 256, 284
옹관甕棺 140, 142, 144

옹관묘 144
옹기 114
와도겸업요瓦陶兼業窯 137
와부臥釜 277
와질토기瓦質土器 58, 84, 89, 94, 96
완도 238
왕경 166, 168
왕릉 329
왕실용 백자 289
왕진리 가마터 137
왜관 331, 332
왜관요 331, 333
왜구 250
왜화자기倭畫磁器 355
외방外方 사기장 321
외방내원外方內圓 220
요도구 280
요주요耀州窯 206
용문양 327
용봉문 315, 345
용봉사단 193
용원리고분 139
용인 보정리 224
용인 서리 187, 211, 221, 233
용재총화 271, 295
용정동 303
용천무요龍泉務窯 204
용천사 223
용항아리 329
용혈사지 224
우산리 279, 287, 295, 301, 303, 308
우천강 목물수세木物收稅 338
우천강수세牛川江收稅 361
운대리 가마터 266

운룡문 329, 353
 운봉문 243
 운학문 243
 운현명칭화백자모란문항아리 369
 웅진熊津 125
 원덕태후 229
 원산도 238
 원삼국시대 79
 원시무문토기 41
 원요圓窯 89
 원저단경호圓底短頸壺 94, 129, 135
 원주토 321
 원주형 받침 281
 원진상가元進上價 362
 원통형세발토기 111
 월산군 256
 월요越窯 138
 월주요越州窯 185, 189, 198, 202, 206
 위례성慰禮城 122
 위패 264
 유공광구소호有孔廣口小壺 140, 142
 유기鑪器 318
 유동諭銅 245
 유로수금문 243
 유리질화 37
 유백색 315
 유색釉色 191
 유약 110, 199
 유자광 277, 307
 유천리 234, 237
 육우陸羽 195
 육전조례六典條例 360
 윤봉 269
 윤제토기輪製土器 109

은기 318
 은로탕정 193
 은천옹주 240
 음각기법 202, 234
 음각법陰刻法 109
 음기飲器 178
 의천義天 195
 이계진 294
 이계호 335
 이규경 358, 363
 이도다완 267
 이삼평 331, 332
 이선 257
 이설주기 274
 이유원李裕元 359
 이정 330
 이종理宗 217
 이징 331
 이형록 359
 이형토기異形土器 156
 이회경 277, 357
 인녕부仁寧府 254, 256
 인수부仁壽府 254
 인화 258, 267
 인화문 녹유합綠釉盒 175
 인화문토기印花紋土器 149, 164, 171
 인화장식 259, 260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358, 362
 임진산성 303
 임진왜란 318, 331
 입부立釜 277
 입사入絲기법 210

ㄷ

- 자기磁器 22, 83, 174, 168
- 자기가마 191
- 자기소 233, 234, 236, 243, 255
- 자기질磁器質 그릇 184
- 자기향로 221
- 자배기 114
- 자주요磁州窯 203, 206, 216
- 잔 256
- 장릉長陵 201
- 장사요長沙窯 185
- 장성 대도리 324
- 장성 대도리 가마 323
- 장수왕 133
- 장인 331, 332, 340
- 장인왜匠人倭 333
- 장천 120
- 장포 321
- 장흥 192
- 장흥고 254, 260
- 저분구묘低墳丘墓 132
- 적갈색연질토기赤褐色軟質土器 101, 102
- 적벽부도赤壁賦圖 350
- 적색마연토기赤色磨研土器 56
- 적석총積石塚 113
- 전다법煎茶法 195
- 전문도기錢文陶器 139
- 전문호錢文壺 124
- 전축요 189, 191, 198, 212, 232, 233
- 점다법點茶法 195
- 점줄무늬点列文 47
- 점토 22, 28
- 점필제집 269, 284
- 접시 117, 256, 326
- 정묘호란 320
- 정병淨瓶 194, 223, 224, 225
- 정선 342, 345, 346
- 정소공주 256
- 정순왕후가례도감의례 336
- 정암리 가마터 137
- 정요定窯 201, 216
- 정요계 229
- 정조 316, 336
- 정종 189
- 정지산유적 133
- 정형鼎形향로 221
- 제기 307
- 제천시 송계리 234
- 제호당항醍醐湯缸 368
- 조방제條坊制 170
- 조선 청자 319
- 조선 백자 345, 348, 356, 363, 365, 368, 370
- 조선왕조실록 252, 271, 294, 301
- 조선총독부 265
- 조소曹昭 218
- 조어도釣魚圖 342
- 조와소造瓦所 106
- 조운창 239
- 조준趙浚 235, 243
- 조창漕倉 237, 238
- 조화 258
- 조훈曹勳 217
- 좁돌날細石刃 40
- 종지齏 117
- 좌우左右 288
- 주구토광묘周溝土墳墓 103, 132
- 주도성珠陶省 106
- 주병 284

준尊 220
 중국 자기 215
 중국 도자 215
 중도식무문토기 104, 127, 131
 중도식토기中島式土器 99
 중도유적 99
 중인中人 314
 중화풍 365
 즐목문토기櫛目文土器 46
 즐문토기櫛文土器 46
 지릉智陵 207
 지방 가마 314, 323
 지방 사기 354
 지월리 324
 지자문토기之字文土器 41
 직구단경호 129
 직구호直口壺 139
 진경산수화 345
 진사청자辰砂靑磁 204
 진상 320, 321, 349
 진상다병進上茶瓶 337
 진상자기 357
 진서리 237
 진주 273, 338
 진죽리 요지 171
 진찬의궤 화준 355
 진천 산수리유적 89, 131
 진한辰韓 79, 102, 157
 진흥왕 164
 짧은목항아리直口壺·甕 114



차 도구 186
 착탄법着炭法 35

찻잔 167
 창녕 151
 창녕 양식 158
 채색자기 358
 채화동사기彩花銅沙器 336
 책가 358
 책문柵門 363
 처인부곡處仁部曲 233
 천지현황天地玄黃 276, 288
 철화 256, 258, 342, 355, 365
 철화기법 203, 212, 262
 철화백자 298, 299, 314, 324, 327, 330, 336,
 353
 철화백자매죽문항아리 330
 철화백자시명진접시 327
 철화백자운룡문달항아리 328
 철화백자운룡문항아리 320, 328, 329, 371
 철화백자진상다병명병 337
 철화백자포도문항아리 335, 336
 철화백자항아리 329
 철화백자호로문항아리 330
 철화백자호로문호鐵畫白磁虎鷺文壺 329
 철화분청사기 265
 철화[흑화]기법 202
 첩화기법 342, 348
 청규淸規 193
 청동은입사포류수금문정병 210
 청유 365
 청자 168, 230, 231, 318, 324
 청자향로 200
 청자고배 187
 청자나한상 224
 청자반구병 231
 청자보살좌상 224

청자상감모란당초문 「정릉正陵」 명대접 223, 246
 청자상감버드나무문 247
 청자상감어룡문매병 251, 252
 청자상감여지문대접 207
 청자상감운학문매병 210
 청자상감포류수금문정병 210
 청자정형향로 222
 청자해무리굽완 239
 청홍아리화靑紅阿里畵 318
 청화 342, 351, 355, 365
 청화묘지석 293
 청화백자 284, 285, 286, 287, 291, 294, 299, 302, 303, 304, 308, 313, 314, 315, 316, 318, 319, 320, 322, 324, 327, 330, 336, 337, 338, 340, 341, 342, 343, 345, 346, 348, 350, 353, 358, 368, 370
 청화백자 용항아리 320
 청화백자까지호랑이문항아리 351
 청화백자동채복숭아형연적 351
 청화백자동채십장생문다각병 369
 청화백자떡메병 343
 청화백자 문방기명 371
 청화백자사각병 346
 청화백자산수문 345
 청화백자산수문병 343
 청화백자산수문사각병 347
 청화백자산수운룡문연적 344
 청화백자연어문병 368
 청화백자용문항아리 319
 청화백자운룡문항아리 349, 350
 청화백자임자큰던고간오명사각접시 356
 청화백자철채동채난국초충문병 341
 청화백자초화문 팔각항아리 340

청화백자팔괘문투각연적 359
 청화안료 284, 291, 299, 302, 319, 320, 342, 365
 청화운룡백자주해 302, 303
 청화장식 296, 297, 299, 307, 308
 초마선哨馬船 239
 초별구이 323
 초분草墳 69
 초장草葬 69
 초충도 341
 초충문 341
 초화문 203, 353
 최북 345
 추색麤色 217
 충주 단월동 215, 229
 충혜왕 240
 치향로 221
 칠량소 234
 칠량소七良所 233

ㄱ

감케라믹 46
 코발트 342, 365
 규슈九州 23
 큰항아리 114

ㄷ

타날기법打捺技法 34, 86, 101
 타날문단경호 103, 132, 142
 타날문원저단경호 90, 91, 97
 타날문토기打捺文土器 97
 타날법 85, 87, 146
 단별리 318, 324
 단별리 가마 325

탐진 240
 당호湯壺 194
 태묘太廟 233
 태안 대섭 238
 태안 마도 238
 태토 216, 282, 321, 322, 326
 태평천국의 난 364
 태항아리 256, 264
 태호 290
 테쌍기법輪積法 33
 토광묘土壙墓 228, 230
 토산 공물 236
 토우土偶 155
 토우장식토기 156
 토청土靑 284
 토축요 191, 212
 통형잔 196, 197
 퇴화백화기법 202
 투각 365
 투각기법透刻技法 204
 통구스죽 72

표

팔관회 192
 팽다법烹茶法 195
 편년자료 255, 257, 290
 편병 261, 307
 평양 105
 평저단경호平底短頸壺 135
 평탈平脫기법 210
 폐요 188
 포류수금문 210
 풍납토성風納土城 123, 139
 풍로 177, 181

필통 351

ㅎ

하니와埴輪 142
 하재일기荷齋日記 362
 하정납량도荷亭納涼圖 346
 학동리 가마 318
 학봉리 가마터 265
 학예일치學藝一致 사상 315
 한국식동검 60
 한세명 271
 한일통상기념연회도 364
 한후량韓後良 347
 함안 84, 100, 151, 156, 160
 함습 119
 향와요缸瓦窯 204
 해남 192, 234, 238
 해무리굽완 191, 200, 232, 239
 해주 363
 행다行茶 193
 향기장享器匠 221
 향로 221, 226
 향완香碗 223, 226
 허목 331
 현천화병 355
 현곡리 고분군 229
 현종 333
 형요邢窯 185
 혜경궁 홍씨 336
 호랑이 329, 330
 호자虎子 119, 135, 139
 호준壺尊 220
 호형분주토기 143
 혼원요渾源窯 206

홍도紅陶 56
홍무洪武24년명백자일괄품 213
화공 339
화금자기 218
화당대접 336
화당사발 336
화본畫本 308
화순 운주사 241
화심리 가마터 267
화원 271
화유옹주和柔翁主 348
화장火葬 67
화전火田 323
화전세 338
화조문 345, 355
화준 326
화천貨泉 99
화포도설畫葡萄說 335
화형접시 187
화호花壺 194
화훼조충문 243
황남대총 162
황룡사지 169
황보요黃堡窯 206
황유도기黃釉陶器 108
황집증 335
황혼침당黃昏沈涼 347
회경전會慶殿 222
회도灰陶 80, 90, 108
회색토기 136
회암사지 303
회전판 33
회청回靑 284
회화장식 296

회회청回回靑 294, 295, 313, 337
횡구식 석실분 164
횡혈계 석실 169
횡혈식석실 142
효종 319, 321, 333, 340
흑도黑陶 60
흑백상감문양 212
흑상감 212
흑색마연토기黑色磨研土器 60, 129
흑색와기 136
흑유계수호黑釉鷄首壺 139, 140
회천시 서문동 유적 215